

# 中國語文論集

創刊號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1984. 10



## 創 刊 辭

本學會가 發足한지 겨우 一年밖에 안 된 時期에 우리의 課題이었던 첫 論文集을 發刊하게 된 것은 大端히 意義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初創期에 있는 本學會가 運營上의 많은 어려움을 堪當하면서도 學術活動의 試金石이 될 수 있는 이 論文集을 先輩 同學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게 된 것은 참으로 學問的 慶事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時點에서부터 우리 會員님들은 創造的이고 發展的인 學會活動은 勿論, 遠大한 眼目으로 未來를 直視하며, 自己構築을 하는 叡智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國家와 人類社會의 要求에 副應하는 學問의 姿勢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人間의 知識은 언제나 停滯됨이 없이 前進發展하고 있어, 이에 落後되지 않으려는 努力이 不斷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조그마한 論文集이 上梓됨으로써 中國語文學 研究의 學問領域에서 前衛의 役割을 擔當하게 된다면 實 多幸한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論文集을 發刊하는 意義도 窮極的으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論文集을 發刊함에 있어 특히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本學會의 宿願이었던 學會基金 一千二百萬원을 顧問으로 推戴되신 性坡 스님께서 特別히 喜捨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어려움 없이 每年 繼續하여 論文集을 發刊할 수 있게 되었다는 事實입니다. 이 일은 本學會뿐만 아니라 國內의 모든 學會와 研究機關에 있어서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믿어 疑心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論文 十二篇만 掲載되었지만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實을 얻을 수 있는 內容과 編輯으로 國內學界에서는 물론 世界學界에서도 認定받는 論文集이 될 것이라 確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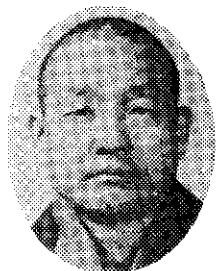
끝으로 이 論文集의 發刊에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編輯委員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玉稿를 보내주신 會員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感謝를 드립니다.

1984年 10月 日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會長 李 根 孝





## 激 勵 辭

通度寺 主持 曹 性 坡

「中國語文論集」創刊號 上梓에 붙여 ;

有史以來 人類는 宗教·思想·文學·科學 등에 걸쳐서 絶한 발전과 變화를 이룩하였고, 또한 이것은 人類가 存續하는 한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人類가 創造한 文化와 文明은 歷史의 推移와 함께 離合集散의 多樣性을 提示하여 줌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濟與補備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東西洋의 相異한 文化와 文明은 近代에 와서 그 平衡을 잃고 西歐의 物質文明에 附和雷動한 느낌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晚時之感이 없지는 않지만 近間 東洋의 精神文化에서 새로운 價値와 意味를 되찾자는 覺醒의 소리가 드높아 지게된 것은 倖이나 多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國學에 관한 多角的인 研究와 아울러 中國語文學에 대한 관심이 高潮되었고, 京鄕各地의 大學에서는 이 方面의 專攻學科들이 開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과 狀況下에서 釜山·慶南地域에서도 中國語文學에 관한 學問的 熱氣는 불타 올랐고 이에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의 結成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에 그 學會의 活動的인 研究熱을 實感케 하는 學會誌의 上梓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 本學會의 무궁한 발전과 研究成果의 一路發揚을 慶賀하며 아울러 學會創立으로 부터 因緣을 맺게 된 不肖 또한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期待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1984年 10月



# 中國語文論集

創刊號

## 〈目次〉

題字；曹性坡

- 創刊辭 .....會長 李根孝···(5)  
激勵辭 .....顧問 曹性坡···(7)

### 〈論文〉

- 喻世明言研究 .....金政六···(11)  
雲謠集試論 .....鄭憲哲···(41)  
蔡琰悲憤詩考 .....李在夏···(71)  
識認字之方法論研究 —以偏旁中心— .....王忠儀···(95)  
杜甫 리얼리즘의 性格批判(I)  
—杜甫·唐朝基本論理關係를 中心으로— .....金龍雲···(105)  
中國神話의 變遷과 文學 .....金世煥···(123)  
稼軒詞의 인식세계 .....李浚植···(141)  
中國古典小說對韓國古典小說之影響 .....李相圭···(157)  
詩經訓詁研究  
—朱熹의 詩集傳에 나타난 義訓을 中心으로— .....金海明···(177)  
中文教學感言 .....吳慶第···(201)  
敦煌變文, 定義 및 起源에 관한 考察 .....金泰寬···(207)  
現代漢語의 介詞에 관한 研究 .....李根孝···(233)

### 〈附錄〉

- 韓國中國語文學關係學位論文總目錄 .....(259)  
釜山大學校所藏中國語文學關係圖書總目錄 .....(265)  
彙報·會則·會員名單·編輯後記 .....(295)

- A Study on *Yu Shi Ming Yan*.....Kim, Cheng-yuck...( 11 )
- A Tentative Study on *Yun-yao Ji*.....Chung, Heon-chul...( 41 )
- A Study of Cai Yan's *Bei-fen* Poetry .....Lee, Jae-ha...( 71 )
- Some Notes on the Method of  
Learning Chinese Characters .....Wang, Chung-eu...( 95 )
- The Critique of DuFu's Realism .....Kim, Yong-woon...(105)
- Chinese Mith-Its Development in  
Chinese Literature .....Kim, Se-huan...(123)
- The Character of Consciousness in  
*JiaXuan Ci* Poetry .....Lee, Joon-sik...(141)
-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nese Classic Stories upon  
Korean Classic Stories.....Lee, Sang-gyu...(157)
- A Study on the Semantic Scholia in ZhuXi's  
*Shi Ji Zhuan* .....Kim, Hae-myung...(177)
- An Essay on Teaching of Chinese Language  
..... Wu, Ching-tee...(201)
-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the Origin of  
Dun Huang Bian Wen.....Kim, Tae-guan...(207)
- A Study on the Preposition of the  
Modern Chinese Language .....Lee, Keun-hyo...(233)



# 《喻世明言》研究\*

金 政 六\*\*

〈目 次〉	
一. 導 言	六. 結 言
二. 作者 生平	附 錄
三. 故事 來源	《喻世明言》各 篇 內 容 要 旨
四. 主題 分類	參 考 文 獻
五. 藝術 特性 및 影響	

## 一. 導 言

소설은 중국 문학사상 적어도 唐代 이전에는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한 문학이다. 《漢書》〈藝文志〉에

「小說家者流，蓋出於稗官，街談巷語，道聽塗說者之所造也。」

「諸子十家，其可觀者，九家而已」<sup>1)</sup>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小說 輕視觀을 엿볼 수 있다. 또 「小說」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은 《莊子》〈外物編〉으로

「飾小說以干縣令，其於大遠亦遠矣。」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설의 개념은 西洋의 Fiction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문학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말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문학으로서 小說이란 단어의 起源은 宋代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이 研究論文은 1983년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依한 結果임.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敎授

1) 여기서 十家라 함은 儒家者流·道家者流·陰陽家者流·法家者流·名家者流·墨家者流·縱橫家者流·雜家者流·農家者流·小說家者流 등인데, 그중 小說家者流를 제외한 九家만이 불만하다고 했다.

다. 물론 魏晉南北朝의 神話小說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神怪한 故事를 서술한 것으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Fiction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소설의 최초 형태가 傳說이나 神話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宋代에 유행한 「小說」이란 단어를 字義上으로 볼 때 곧 단편소설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講史」와 같이 민중들로부터 부척 환영을 받았음을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다.<sup>2)</sup> 그리고 結構나 藝術的으로도 부척 精彩롭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더구나 當時의 사회 생활·환경·사물 등을 제재로 하였으니 더욱 일반 민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說話人의 脚本인 話本이 크게 발전하여 드디어 明代 중엽에 이르러서는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곧 소설이 정식으로 하나의 문학 형태로 사회와 군중의 호응을 얻게 되어 이제는 舊本을 改編하는 작업을 떠나 직접 소설을 창작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文人들이 직접 소설에 관심을 갖고 소설을 評하고 소개하게 되었으니 一時에 소설은 크게 성행하게 된다.

拙稿에서는 바로 이 때 민중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고 또 後世에 많은 영향을 끼친 馮夢龍의 「三言」中 《喻世明言》을 中心으로 먼저 작자의 生平을 살펴보고, 이어 《유세명언》의 故事 來源을 검토하여 舊本과 明代의 新作을 살펴본 후 各 篇의 主題를 類型別로 분류하고, 그리고 《유세명언》의 藝術의 特性과 후세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二. 作者·生平

馮夢龍은 萬曆二年(西紀 1574年)에 태어나 順治三年(西紀 1646年)에 일생을 마쳤다. 그는 長洲人<sup>3)</sup>으로 字를 猶龍<sup>4)</sup>이라 했으며 號를 墨憨齋<sup>5)</sup>라 했다. 그의 貫籍에 대해서는 吳縣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원래 장주현이 같은 蘇州府의 管轄로 吳縣으로부터 나뉘어졌고 장주현은 소주의 등에 그리고 오현은 서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건데 두 주장 모두 틀렸

2) 吳自牧《夢梁錄》「講說前代書史文傳與廢爭戰之事，最畏小說人，蓋小說者，能以一朝代一代故事，頃刻間提破。」

3) 《明詩綜》·《曲海總目提要》·《千頃堂書目》등 參考.

4) 《蘇州府志》〈人物志〉「馮夢龍，字猶龍。」

5) 馮夢龍이 居住했던 곳.

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馮夢龍 자신도 저술 중에 「吳邑」·「吳國」·「古吳」·「姑蘇」 등의 지명으로 自署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렇다.

그는 猶龍 외에도 여러 字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王國維는 《曲錄》에서

「夢龍，字猶龍，一字耳猶。」

라 했고, 또 풍몽룡의 《新平妖傳》 張無咎의 序에는

「蓋吾友龍子猶所補。」

란 말도 있다. 그리고 《墨憨齋新曲十種》에도 龍子猶로 自署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散見되는 그의 字는 猶龍, 耳猶, 龍子猶 등이고, 號는 그가 거주했던 墨憨齋를 호로 사용하면서 墨憨子·墨憨主人·墨憨齋主人 등이 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香月居顧曲散人·古吳詞奴·姑蘇詞奴·江南簷簷外史氏·茂苑野史氏·緜天館主人 등 상당히 여러 호를 사용하였음도 알 수 있다.

풍몽룡의 가정 형편이나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고찰된 바가 없으나 그의 아버지는 당시 蘇州의 大儒였던 王仁孝와 밀접한 교제가 있었고<sup>6)</sup>, 그에게는 형 아우 각 한 명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馮夢桂로 유명한 화가였다고 하며, 동생은 이름을 夢熊이라 하는 太學生으로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한다.<sup>7)</sup> 그리고 풍몽룡이 47세 때 편찬한 《麟經指月》과 같은 저작으로 볼 때 그는 계통적이고 완전한 전통적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추측으로 그의 가정은 봉건 계급 상류층의 가정이었으리라 고 짐작해도 좋을 것 같다.

풍몽룡은 인품이 뛰어나고 성격도 호탕하여 젊을 때는 동년배들과 어울려 妓院에 드나들었는데, 《吳騷合編》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散曲은 거의 대부분이 이 때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名妓 侯慧卿을 만나 깊은 관계에 빠졌다가, 후에 그녀로부터 미움을 받게되자 마침내 기원의 출

6) 王仁孝《後俟篇》參考

7) 《明詩綜》參考.

임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다.<sup>8)</sup> 또 그는 일찌기 〈雙雄記〉傳奇를 著述하여 詞學大家인 沈璟에게 팔았다는데, 그 돈으로 기녀 白小樊을 기적에서 탈적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젊어서 기원에 출입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民歌集인 《山歌》와 《掛伎兒》 등도 있는데 모두 20대에 지은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다. 이것이 한편 생각하면 그가 기원에 드나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당시 학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토였다고도 한다.

풍몽룡의 나이 47세 되던 萬曆48년(1620년)에는 《麟經指月》(一名《春秋指月》)을 펴서 과거 준비생들의 참고서가 되도록 했고, 또 본래 20回本 《平妖傳》을 四十回로 늘려 완성하기도 했다. 이어 熹宗 天啓4年(1624년)에는 話本小說集 제 2집 《警世通言》을 편찬했는데, 그렇다면 제 1집인 《喻世明言》(출판 당시는 書名을 《古今小說》이라 했음)은 당연히 그보다 앞서 나왔을 것이지만 그 출판 년도가 분명치는 않다. 다만 짐작으로 天啓元年(1621년) 전후라 할 수 있을 따름이다. 天啓5년에는 《春秋衡庫》를 편찬했고 이어서 그 다음 해에 《智囊》을 완성했다. 그 해 9월에 《太平廣記鈔》80卷도 세상에 내놓았으며, 그의 나이 54세 되던 天啓7年(1627년)에는 話本小說集 제 3집 《醒世恆言》40卷과 《太霞新奏》를 편찬했다.

崇禎3年(1630년) 그의 나이 57세 되어 貢生에 급제했는데, 그 전에 그는 「復社」라고 하는 士大夫의 政治文學社團의 구성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은

「興復古學，務爲有用」

이고, 또 풍몽룡은 그들 社友들 간에 「同社長兄」으로 불리기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9)</sup>

승정 7년에 福建 壽寧縣의 知縣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때 《智囊補》28卷을 완성했다. 그리고 4년 동안 즉 65세 때까지 부임해 있으면서 《壽寧縣志》2卷도 완성했다. 승정 17년 즉 淸世祖 順治元年(1644년) 그의 나이 71세 때 봉건사회의 여러 모순이 노출되기 시작하자 드디어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李自成的 군대가 北京을 공격하여 승정 황제를 살해하고 南京에서 福王이 즉위하자, 풍몽룡은 북방에서 남방으로

8) 《太霞新奏》卷七「子猶自失慧卿，遂絕青樓之好…(後略)」

9) 錢謙益《牧齋初學集》卷二十參考

피난한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甲申紀事》·《紳志略》·《錢法議》등을 펴내어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을 견책했다. 그 다음해에 南京이 함락되자 《中興偉略》을 편찬하여 明朝가 회복되길 기원했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아 淸兵에 의해 明朝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풍뎡도 73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그의 死地에 대하여는 두가지 다른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福州라고 하고 또 다른 주장은 蘇州라고 하나 두 주장 모두 확실한 근거는 없다.

### 三. 故事 來源

《喻世名言》과 같이 前人들의 舊作을 改寫하여 편찬한 작품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新列國志》와 《新平妖傳》 같은 장편의 舊本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으나, 《유세명언》의 구본은 거의 亡佚되고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유세명언》의 고사 내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前人들이 저록한 화본집과 早期의 화본들에 대하여 언급하면, 南宋末年 羅輝의 《醉翁談錄》이 있는데 이 책은 본래 목록류는 아니나 그 卷一에 송대 화본 篇目이 많이 실려 있다. 그리고 明 嘉靖 연간 晁璠의 《寶文堂書目》子雜類에 송·원 이래의 단편 화본 100여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역대 목록서 가운데 가장 화본소설이 많이 실려 있다. 또 淸初 錢曾의 《也是園書目》이 있는데, 그 중 宋人詞話 項에 겨우 10여종이 실려 있다. 이상 각 서적에 실려 있는 화본소설은 모두가 풍뎡 이전의 구본에 속한다. 다만 錢曾만이 연대상 풍뎡보다 약간 뒤이긴하나 그가 수록한 화본은 單行 화본이고 또 早期의 화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더욱 전증은 藏書大家였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이 수록한 것을 「宋人詞話」라고 했으니 古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목록에 수록된 작품 외에도, 풍뎡 이전에 간행되었고 殘存하고 있는 화본으로 가정 연간 洪楩의 《淸平山堂話本》과, 조금 늦은 만력 연간 熊龍峯의 화본이 있다. 《淸平山堂話本》에는 본래 60편이 실려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27편만이 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5편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熊龍峯의 화본은 원래 각 편이 단행본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겨우 4편만이 전할 뿐이다. 이상 두 책이 화본만을 수록한 것이며, 이 밖에도 가정·만력 이후에 流行하던 通俗類로서 《繡谷春容》·《國色天香》·《萬錦情林》·《燕居筆記》 등이 있으나 수록하고 있는 화본은 많지 않다.

上記한 여러 서적을 중심으로 《유세명언》 40편 중에서 前人들의 구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卷 〈蔣興歌重會珍珠衫〉

《清史》卷16에 珍珠衫條가 있는데 그 結尾에

「小説有珍珠衫記，姓名俱未的。」

라고 했다. 「三言」에 실려 있는 故事들 가운데는 《清史》에도 실려 있는 것이 가끔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소설이라 함은 곧 본 편을 가리키며, 당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여 그 고사만이 전하여 내려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許政揚은 본 편을 明代의 新作이라고 하고 있다.<sup>10)</sup>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金瓶梅詞話》 제98회는 陳經濟와 韓愛姐가 서로 만나는 에기를 쓰고 있는데 그 前半이 본 편의 내용과 비슷하다. 더욱 《金瓶梅》는 《유세명언》보다 먼저 나온 점으로 보아 이 두 편은 똑같은 내원의 早期 話本일 것이다.

四卷 〈閑雲庵阮三償冤債〉

《清平山堂話本》에 〈戒指兒記〉가 있는데 곧 본 편 of 구본이다.

七卷 〈羊角哀捨命全交〉

본 편 제목 아래

「一本作羊角哀一死戰荆軻」

라고 注記하고 있는데, 《清平山堂話本》에 〈羊角哀死戰荆軻〉란 話本이 있고 또 《寶文堂書目》에는 〈羊角哀鬼戰荆軻〉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곧 본 편 of 구본이다.

十一 〈趙伯昇茶肆遇仁宗〉

《寶文堂書目》에 〈趙旭遇仁宗傳〉이 있는데 곧 본 편 of 구본이다.

十二 〈衆名姬春風弔柳七〉

본 편 of 고사는 《清平山堂話本》의 〈柳耆卿詩酒翫江樓記〉와 비교해 보면 내용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고사의 주요 전모는 《清平山堂話本》에 의

10) 《古今小說》上, 前言參考

거하여 改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繡谷春容》 등에도 〈柳耆卿翫江樓記〉가 실려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十五卷 〈史弘肇龍虎君臣會〉

《寶文堂書目》에 〈史弘肇傳〉이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十六卷 〈范臣卿雞黍死生交〉

《清平山堂話本》에 〈死生交范張雞黍〉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그리고 《寶文堂書目》에는 〈范張雞黍死生交〉로 되어 있다.

十九卷 〈楊謙之客舫遇俠僧〉

본 편은 어떠한 早期 版本집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각각 다르다.

地名과 官制로써 본 편을 명대 사람의 작품이라고 확정하는 이도 있고,<sup>11)</sup> 또 어느 쪽이라고 단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sup>12)</sup> 내용상으로 본 편 고사는 송대 이후의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단정하여 본 편을 前人들의 구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sup>13)</sup>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渾家〉

《清平山堂話本》과 《寶文堂書目》에 共히 〈陳巡檢梅嶺失妻記〉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二十三卷 〈張舜美元宵得麗女〉

熊龍峯의 版本 가운데 〈張生彩鸞燈傳〉이 있는데, 《寶文堂書目》에는 〈彩鸞燈記〉로 되어 있다. 곧 본 편의 구본이다.

二十四卷 〈楊思溫燕山逢故人〉

《寶文堂書目》에 〈燕山逢故人鄭意娘傳〉과 〈燕山逢故人〉 두 편이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二十五卷 〈晏平仲二桃殺三士〉

《寶文堂書目》에 〈齊晏子二桃殺三學士〉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二十六卷 〈沈小官一鳥害七命〉

《寶文堂書目》에 〈沈鳥兒畫眉記〉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11) 嚴敦易「《古今小說》四十篇的 撰述時代」參考.

12) 胡士瑩《話本小說概論》下冊.

13) 胡萬川「馮夢龍生平及其對小說之貢獻」參考.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繡谷春容》에 〈月明和尚柳翠〉가 있는데 柳府尹과 玉通禪師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끝 부분에

「要知詳細，請看月明和尚度柳翠」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편의 前半을 기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西湖遊覽志餘》卷二十에

「杭州男女瞽者，多學唱琵琶，唱古今小說，平話以覓衣食…。若紅蓮·柳翠·濟顛·雙魚扇墜等記，皆杭州異事，或近世所擬作者也。」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紅蓮·柳翠故事의 기원은 대단히 오래된 것 같다. 더우기 元代의 雜劇 가운데도 〈月明和尚度柳翠〉가 있다.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清平山堂話本》과 《寶文堂書目》에 〈五戒禪師私紅蓮〉이 있고 또 《繡谷春容》에도 〈東坡佛印二世相會〉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분이다.

三十一卷 〈閻陰司司馬貌斷獄〉

司馬重湘이 陰司에서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는 고사는 원래 《三國誌平話》의 入話이다. 그래서 본 편이나 《三國誌平話》가 같은 화본을 底本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三十三卷 〈張古老種瓜娶文女〉

《寶文堂書目》과 《也是園書目》에 〈種瓜張老〉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분이다.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清平山堂話本》과 《寶文堂書目》에 〈李元吳江救朱蛇〉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분이다.

三十六卷 〈宋四公大鬧禁魂張〉

《寶文堂書目》에 〈趙正候興〉이 있고 또 《醉翁談錄》에도 〈趙正激惱京師〉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분이다.



三十八卷 〈任孝子烈性爲神〉

《寶文堂書目》에 〈任珪五顆頭〉가 있는데 곧 본 편의 구본이다.

三十九卷 〈汪信之一死救全家〉

본 편은 어떤 저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中國文學研究新編》<sup>14)</sup>에서는 作品的 風格上 본 편을 宋人의 作品이라고 하고 있다.

以上 《喻世明言》 가운데서 前人들의 구본이라 할 수 있는 22편을 제외한 18편은 구본에서 文字를 刪改했거나 혹은 事件의 발생 原因과 過程을 增訂하여 改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鄭騫이 馮夢龍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sup>15)</sup> 작품을 열거한다.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五卷 〈窮馬周遭際賣蝸媪〉

六卷 〈葛令公生遺弄珠兒〉

九卷 〈裴晉公義還原配〉

十七卷 〈單符郎全州佳偶〉

十八卷 〈楊八老越國奇逢〉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四十卷 〈沈小霞相會出師表〉

以上 9편을 《情史》에서 유사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平庸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可能性일 뿐이다.

또 許政揚이 明代의 新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sup>16)</sup> 작품은 아래와 같다.

一卷 〈蔣興哥重會珍珠衫〉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十卷 〈滕大尹鬼斷家私〉

十八卷 〈楊八老越國奇逢〉

二十六卷 〈沈小官一鳥書七命〉

三十二卷 〈遊酆都母迪吟詩〉

14) 1971年 2月 臺北 明倫出版社 刊.

15) 《喻世明言》分類考證 參考. 1972年 3月 中華書局.

16) 《古今小說》「前言」參考.

#### 四. 主題分類

小説을 포함한 市民文學은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에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需要에 따라 產生된 일종의 通俗文學이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시민 계급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고 시민의 가정과 애정 생활의 悲歡離合을 묘사하며, 그리고 봉건사회의 暗黑統治를 비판·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된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봉건적인 低俗함도 동시에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落後性을 띠고 있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諭世明言》각 편의 주제를 다섯 유형으로 축소하여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편의 내용 요지는 부록으로 처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때로는 한 편의 주제가 둘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역시 각 유형에 삽입했음도 밝혀 둔다.

먼저 다섯 주제의 유형을 살펴 보면 첫째 봉건 통치 계급의 내부 투쟁과 관료·지주의 罪行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세명언》中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남녀간의 애정을 다룬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로는 神怪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넷째로는 시민들의 도덕을 稱頌하고 信義나 義理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인의 생활 내지 과거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제 주제 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봉건 통치 계급의 내부 투쟁과 관료 지주의 죄행을 주제로 한 작품.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四卷 〈閑雲庵阮三償冤債〉  
五卷 〈窮馬周遭際賣髓媪〉  
六卷 〈葛今公生遺弄珠兒〉  
九卷 〈裴晉公義還原配〉  
十卷 〈勝大尹鬼斷家私〉  
十二卷 〈衆名姬春風弔柳七〉  
七十八卷 〈楊八老越國奇逢〉  
十九卷 〈楊謙之客舫遇俠僧〉  
二十一卷 〈臨安里錢婆留發跡〉

- 二十二卷 〈木綿菴鄭虎臣報寃〉
- 二十五卷 〈晏平仲二桃殺三士〉
- 二十六卷 〈沈小官一鳥害七命〉
-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 三十五卷 〈簡帖僧巧騙皇甫妻〉
- 三十八卷 〈任孝子烈性爲神〉
- 三十九卷 〈汪信之一死救全家〉
- 四十卷 〈沈小霞相會出師表〉

이상 21편이다. 이 가운데 二·四·五·十二·二十二·二十七·二十八·三十五·三十八 各 卷 9篇은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 2.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

- 一卷 〈蔣興哥重會珍珠衫〉
-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 四卷 〈閑雲菴阮三償寃債〉
- 五卷 〈窮馬周遭際賣鷓鴣〉
- 十二卷 〈衆名姬春風吊柳七〉
- 十五卷 〈史弘肇龍虎君臣會〉
- 十七卷 〈單符郎全州佳偶〉
-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渾家〉
- 二十二卷 〈木綿菴鄭虎臣報寃〉
- 二十三卷 〈張舜美燈宵得麗女〉
-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 三十五卷 〈簡帖僧巧騙皇甫妻〉
- 三十八卷 〈任孝子烈性爲神〉

이상 16편이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

될 수 있는 것은 부녀들의 人權에 대한 간절한 투쟁이다. 이상 16편 가운데서도 三·二十·三十四 各 卷은 神仙·怪異를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二·四·五·十二·二十二·二十七·二十八·三十五·三十八 各 卷은 봉건 통치 계급의 내부 투쟁과 관료나 지주의 罪行을 폭로하고 있기도 하다.

3. 神仙·怪異를 주제로 한 작품.

-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 十三卷 〈張道陸七試趙昇〉
- 十四卷 〈陳希夷四辭朝命〉
- 十九卷 〈楊謙之客舫遇俠僧〉
-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渾家〉
- 二十一卷 〈臨安里錢婆留發跡〉
- 二十四卷 〈楊思溫燕山逢故人〉
-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 三十一卷 〈鬧陰司司馬貌斷獄〉
- 三十二卷 〈遊酆都胡母迪吟詩〉
- 三十三卷 〈張古老種瓜娶文女〉
-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 三十七卷 〈梁武帝累修歸極樂〉

이상 14편이며 이 가운데서 三·二十·三十四 各 卷은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며, 十九·二十一·二十九·三十 各 卷은 통치 계급과 관료·지주의 죄행을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4. 시민들의 道德을 칭송하고 信義나 義理를 주제로 한 작품.

- 六卷 〈葛令公生遺弄珠兒〉
- 七卷 〈羊角哀捨命全交〉
- 八卷 〈吳保安棄家贖友〉
- 九卷 〈裴晉公義還原配〉
- 十六卷 〈范巨卿雞黍死生交〉
-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 三十六卷 〈宋四公大鬧禁魂張〉

#### 四十卷 〈沈小霞相會出師表〉

이상 8편이며, 그 가운데서 六·九·四十 각 권은 봉건 제도에 대한 비판을 三十四卷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5. 知識人の 생활 내지 과거 제도의 不合理性을 주제로 한 작품.

#### 十一卷 〈趙昇伯茶肆偶仁宗〉

#### 三十一卷 〈閻陰司司馬貌斷獄〉

#### 三十二卷 〈遊鄴都胡母迪吟詩〉

이상 3편으로, 3편 모두 神仙·怪異를 主題로 하고 있기도 하다.

《유세명언》 40편 중에는 上述한 다섯 유형 이외에도 宿命論을 깊이 믿는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十三卷과 二十九卷 그리고 三十卷 등이다. 그러나 다섯 유형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약간 散漫한 듯하여 이 세 편도 셋째 유형으로 묶어버렸음을 밝혀 둔다.

## 五. 藝術 特性 및 影響

唐代에 發芽하여 宋代에 크게 盛行한 「瓦舍伎藝」로 불리어졌던 平民藝術中, 특히 說話는 도시의 번영과 급속적인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더욱 발전하게 된다. 通俗 白話小說은 곧 說話人의 脚本인 話本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풍부하고 복잡한 情節에 偏重하였고, 人物의 형상이나 個性은 重視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우기 說話 藝術의 청중은 대부분이 문화 수준이 낮은 도시인으로 그들의 관심 역시 千差萬別이었다. 이처럼 복잡한 여건 속의 청중에게 說話人은 내용과 형식상 모든 청중으로부터 흥미를 불러 일으켜야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言語上의 技巧나 動作 그리고 表情 등이 생동감이 있어야 하고 또 故事 역시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을 것이다. 《古今奇觀》序文에

「…喻世·警世·醒世三言, 極摹人情世態之歧, 備寫悲歡離合之致, 可謂欽異拔新, 惻心駭目。」

라고 하여 說話人이 선택한 題材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생활 중의 人情世態나 悲歡離合의 故事가 청중들의 심금을 울려 결국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유세명언》중의 대부분의 작품이 이러한 題材임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제재로써 巧妙하게 그리고 偶然性을 갖고 독자를 매료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창작 방법에 있어서 풍몽룡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객관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진실을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喻世明言》에 반영되고 있는 사회 생활 면은 어떤 단편소설보다 풍부하고, 또 시민 계층의 각종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唐人小說과 잠깐 비교해 본다면 당인소설은 대부분이 上層 社會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下層 사회 인물은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소설 가운데서도 主要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유세명언》에서는 下層 사회 인물이 많을 뿐더러 故事 中の 主人公으로도 하층 사회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三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 일반 소시민들은 암흑 사회에 대한 반항 정신과 아름다운 理想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해 있었다. 풍몽룡은 이러한 생활 현상에 대하여 合理的인 상상을 거쳐 때때로 幻想과 과장된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낭만주의의 창작 방법은 때때로 魂魄으로 하여금 生前에 實現하지 못한 理想을 추구하도록 하고, 또 귀신이나 神仙 또는 超能力을 빌어 正義를 伸張하고 惡人을 懲罰하도록 하여 일반 소시민들의 투쟁 정신과 이상의 추구를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에서 귀신이나 신선의 출현은 아름답고 奇幻한 색채를 띠게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또 早期 話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심리 묘사도 《유세명언》에서는 때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등장 인물의 心理 反應을 발랄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一卷의 三巧兒와 二十七卷의 莫稽 그리고 三十卷의 五戒禪師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對話와 結構上의 특성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通俗的인 白話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口頭語나 각종 俗語·諺語 등을 사용하여 대화의 생동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결구 면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많은 작품이 「入話」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짧은 故事로서 많은 것은 서너개의 「入話」를 갖고 있기도 하다. 비록 「入話」가 하나의 독립된 故事이기는 하나, 「正話」와 서로 연관을 갖도록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작용도 하고, 또 당시 설화인에게는 먼저 온 청중들의 무료함을 달래어주는

작용도 했을 것이다.

풍몽룡은 《諭世明言》에서 散文과 韻文을 混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의 발전 과정은 산문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감동적인 부분과 특정한 심리상태는 운문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운문으로는 詩를 비롯하여 詞·雜曲 등이 사용되어 있으며 때로는 인물이나 景色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또 結尾에도 운문을 사용하여, 전체 내용을 歸納하거나 창작 의도를 밝히기도 하며, 그리고 勸戒의 뜻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馮夢龍이 後世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풍몽룡은 《諭世明言》의 序文에서

「皇明文治既郁，靡流不波，即演義一斑，往往有遠過宋人者，而或以爲很乏唐人風致，謬矣。(中略)天下之文心少而里耳多，則小說之資於選言者少，而資於通俗者多。試今說話人當場描寫，可喜可愕，可悲可涕，可歌可舞，再欲捉刀，再欲下拜，再欲決脰，再欲捐金，怯者勇，淫者貞，薄者敦，頑鈍者汗下。雖小誦孝經·論語，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

라 하여, 通俗小說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가치를 천명했으며, 이론과 실제 창작을 통하여 통속소설의 가치와 지위를 확인했다. 물론 풍몽룡 이전에 李卓吾나 袁中郎이 통속소설의 사회성과 소설과 群治의 관계를 지적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그들은 다만 장편소설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풍몽룡은 단편소설, 그것도 직접 통속소설을 창작해서 그의 이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소설 발전사상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념의 定立 외에도 역대 話本을 수집하여 그것을 정리 수정함으로써 통속소설의 예술성도 또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몽룡의 소설에 대한 提倡은 後世 文人들로 하여금 話本 體裁로 소설을 창작하고 편찬하도록 했다.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자는 곧 凌濛初로, 그는 初刻·二刻 《拍案驚奇》를 지었는데 그 序文에서

「龍子猶氏所輯諭世等書，頗存雅道，時著良規，一破今時陋習，而宋元舊種亦被搜括殆盡，肆中人見其行世頗捷，意余當別有秘本圖書而衡之，不知一二遺者，此其溝中之斷蕪，略不足陳已，因取古今來雜碎事可新聽者，佐談諧者，演而揚之，得若干卷。」

이라고 하여, 馮夢龍과 그의 《諭世明言》을 극찬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도 같은 시대의 풍몽룡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三言」과 「二拍」이 出刊되자 抱甕老人은 두 話本集에서 40篇을 取하여 《今古奇觀》을 편찬했다. 이 속에는 《喻世明言》中的 8편이 수록되어 있고, 무려 29편을 「三言」에서 취하고 있다.

그리고 天然癡叟가 편찬한 話本小說 《石點頭》 14권이 있는데 풍몽룡의 序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간접으로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도 明·清代의 상당히 많은 文人들이 平話로써 小說을 창작한 評話 창작집이나 平話選輯을 남기고 있는데 모두가 풍몽룡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다. 여기서 《中國文學研究新編》에 실려 있는 작품집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西湖二集：周清原이 편찬하여 崇禎 年間に 刊行된 平話創作集으로 내용은 西湖集傳說과 연관을 갖고 있다.
2. 醉醒石：東魯古狂生이 편찬하여 肅正 年間に 刊行된 評話창작집이다.
3. 二刻拍案驚奇別本：編者が 未詳이고 明末 清初에 刊行된 平話選輯이다. 二刻拍案驚奇에서 많은 作品을 取했다.
4. 無聲戲：李漁가 두 책으로 편찬했는데 一集을 連城壁, 二集을 十二樓라고 불렀던 評話창작집이다.
5. 豆棚閒話：艾納居士가 편찬하여 乾隆 年間に 간행된 評話창작집이다.
6. 照世杯：酌元亭主人이 편찬하여 十二樓를 전후하여 간행된 評話창작집이다.
7. 西湖佳話：古吳墨浪子가 편찬하여 康熙 年間に 간행된 역시 西湖傳說과 연관이 있는 評話창작집이다.
8. 娛心醒目編：草亭老人이 편찬하여 乾隆 年間に 간행된 評話창작집이다.
9. 西湖拾遺：陳樹基가 편찬하여 乾隆 年間に 간행된 評話선집으로 많은 작품을 西湖二集과 西湖佳話에서 取했다.
10. 二奇合傳：芝香館居士가 편찬하여 清末에 간행된 評話선집으로 대부분의 작품을 拍案驚奇와 今古奇觀에서 取했다.
11. 今古奇聞：王寅이 편찬하여 光緒 年間に 간행된 評話선집으로, 대부



분의 작품을 娛心醒目編에서 취했다.

## 六. 結 言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한 文人으로서 馮夢龍이 문학 전반에 끼친 영향과 공로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다. 小說을 비롯하여 民歌·戲曲·小曲 등의 俗文學 가운데 특히 소설에 대한 공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三言」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그가 三言을 편찬함으로써 비로소 단편소설은 그 가치와 지위를 확립했고, 또 長篇演義와 並列될 수 있도록까지 되었다. 그리고 凌蒙初의 《拍案驚奇》序文 中에 언급된

「宋元舊種，亦被蒐括殆盡。」

이란 글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풍뎡뎡이 많은 話本小說을 수집한 후 그것을 「三言」에 수록하여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올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곧 小說史料의 보존이란 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三言」 가운데는 풍뎡뎡 자신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宋·元 以來의 舊本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다.

「三言」中 정확한 刊行 시기는 고찰할 수 없으나 가장 먼저 간행된 《喻世明言》보다도 더 이전에 간행된 話本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 單行本인 까닭에 쉽게 散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또한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三言」은 역대 화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려 120편의 화본을 수록하고 있으며, 후세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

## 附 錄

### 《喻世明言》各篇內容要旨

#### 一卷 〈蔣興哥重會珍珠衫〉

주인공인 蔣興哥와 그의 妻 王三巧兒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처음에는 매우 원만한 가정을 영위

하며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처에게 陳商이란 한 상인이 나타나면서부터 이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며, 중국에 가서는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은 이들이 다시 서로 만나 偕老한다.

####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江西 贛州府 石城縣의 두 高官 집 자녀인 魯學曾과 顧阿秀는 일찌기 서로 혼약한 사이였는데, 學曾의 고종 형인 梁尚賓의 농간으로 두 사람의 혼약은 파괴되고 결국 죄인으로 몰리기까지 한다. 우여곡절 끝에 尚賓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지고, 學曾은 원래 尚賓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顧씨 집안의 수양딸이 된 마음씨 착한 田씨와 결혼하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

####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신교서의 부호 아들인 吳山은 처자를 거느린 사람으로, 어느 날 24세 동갑내기인 倡妓 출신 韓金奴란 여인을 만나 외도를 일삼는다. 하루는 꿈에 桑菜園 水月寺 주지가 나타나 吳山을 데려 가겠다고 하고부터 병을 앓게 되고 급기야는 死境을 헤매게까지 된다. 결국 재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낸 뒤 吳山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였고, 그 후로 옛 비행을 뉘우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착실한 사람이 된다.

#### 四卷 〈開雲菴阮三償冤債〉

西京 河南府 梧桐街 兎演巷의 殿前太尉 벼슬을 한 陳太常에게는 과년한 딸이 있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위감을 찾느라 딸 玉蘭으로 하여금 나이만 들게 하였다. 옥란은 맞은 편 집 젊은이 阮三을 우연히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한운암 승의 도움을 받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나, 행복은 잠깐에 불과하였고 그 동안 상사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阮三이 숨을 거두고 만다. 그 후 옥란은 아들을 낳아 훌륭히 키워, 주위로부터 절과 어짐을 널리 칭송 받는다.

#### 五卷 〈窮馬周遭際賣鮑媪〉

唐 太宗 때의 馬周란 청년은 대단히 훌륭한 학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였던 탓으로 출세도 하지 못하고 나이 3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었다. 결국은 長安으로 관직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新豐에서 한 큰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이를 인연으로 여관 주인 王씨의 생질녀인 과부를 소개 받았고, 또 常何라는 武臣에게 문장을 代筆해 준 것이

太宗에게 알려져, 드디어 문달할 기회가 열려 감찰어사와 이부상서 등의 요직을 거치며 왕씨 부인과 결혼하여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다.

#### 六卷 〈葛令公生遺弄珠兒〉

唐末 五代 때의 梁나라 장군 葛周는 수하에 申徙泰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하루는 장군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이 병사가 보고할 일이 있어 왔다가 장군이 가장 아끼던 회첩 弄珠兒의 미모에 정신을 잃는다. 장군은 부하의 허물을 전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옛날 李存璋과의 전쟁에서 세운 그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는 한편 조정에 상신하여 관직을 하사 받도록 해 주고 弄珠兒와 결혼도 시켜 준다. 장군의 仁德과 대장부다운 기개가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된다.

#### 七卷 〈羊角哀捨命全交〉

春秋時代에 左伯桃라는 隱士가 楚元王의 어진 소식을 듣고 楚國으로 가다가 도중에 羊角哀란 사람의 집에 묵게된 것을 인연으로 서로 형제의 의를 맺고 함께 楚國으로 떠난다. 마침 비바람이 워낙 거세고 추위가 심하여 험한 산길을 다 가지 못하고, 형 伯桃는 자꾸만 사양하는 동생 角哀만을 베풀길로 보내고 자기는 凍死하게 된다. 뜻을 이루어 中大夫 벼슬을 얻은 角哀는 다시 그 곳을 찾아 형을 성대히 장사지내 주었는데, 그날 밤에 형의 혼백이 나타나 옆에 있는 무덤 속의 荊軻란 자가 밤마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소연을 한다. 角哀는 여러 수단을 다 동원하여 荊軻의 귀신을 말리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자살을 하여 荊軻의 혼백을 물리치고 형을 편하게 해 주었다. 모든 이들이 이들 의형제 간의 의리를 칭송하였고 楚元王도 비를 세워 그 일을 기록하여 주었다.

#### 八卷 〈吳保安棄家贖友〉

唐나라 재상 郭震의 조카인 郭仲翔은 오랑캐 토벌군에 참여하였다가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 원정 중에 만났던 同鄉人 吳保安은 비단 천 필을 갖다 주면 친구 仲翔이 풀려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산을 모두 처분하여 200필을 만들고, 10년 동안 처자를 버려두고 장사를 하여 700필을 마련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였다. 그의 처가 남편을 찾아 헤메던 중 지나가던 官人 楊安居를 만나, 이 사람의 도움으로 남편도 찾고 또 비단 400필도 얻게 된다. 갖은 고생을 겪던 仲翔은 이 친구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벼슬까지 얻는다. 몇 년 후에 仲翔이 保安을 만나러 가보니 그들 부부는 이

미 病死하였고 아들 天祐만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仲翔은 이들 부부의 유골을 고향으로 옮겨와 성대히 장사지내 주고,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선했고 결혼도 시켰으며 재산도 반이나 나누어 주었다.

#### 九卷 〈裴晉公義還原配〉

唐나라 裴度는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하였던 어진 재상이었는데, 간신들이 날뛰고 임금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어, 주색을 가까이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晋川에 唐璧이란 청년이 있어 같은 마을 黃小娥와 혼약을 하였었는데, 小娥는 위낙 용모가 뛰어나 裴度에게 강제로 진상되어진다. 唐璧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갖은 고생 끝에 裴度を 만나게 되었는데, 裴度は 厚德한 재상이라 순순히 小娥를 돌려주고 혼인식의 주례까지 서 주었으며, 많은 보화와 벼슬까지 내려 주었다.

#### 十卷 〈滕大尹鬼斷家私〉

北直 順天府 香河縣의 太守 倪守謙은 부인 陳氏와의 사이에 善繼라는 한 아들을 두었는데, 부인이 세상을 뜬 후 79세에 다시 17세 밖에 되지 않은 梅氏를 첩으로 맞아 들인다. 그리고 善述이란 한 아들을 더 보았는데, 善述은 그의 異腹 형으로부터 대단한 질시를 당하다가 부친 사망 후에는 더욱 심한 갖은 수모를 겪게 된다. 중국에는 滕大尹의 도움으로 부친이 자신을 위해 감추어 두었던 금은보화를 찾아, 그 중 한 보따리는 滕大尹에게 도와준 댓가로 지불하고 나머지 보화로 유복한 생활을 누리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다.

#### 十一卷 〈趙伯昇茶肆遇仁宗〉

宋 仁宗 때에 趙旭이란 청년은 매우 박식한 秀才였다. 과거에 응시하여 실제로는 狀元으로 급제되어 고시관들에 의해 천거되었으나, 임금의 고의적인 질시로 인하여 낙방되고 만다. 그는 부끄러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관과 다방 등에 머물며 1년여 세월을 보내던, 중 仁宗이 피상한 꿈을 꾸고는 다시 불러 등용하는 행운을 얻어 영화를 누리게 된다.

#### 十二卷 〈衆名姬春風弔柳七〉

宋 神宗 때의 유명한 詞作家 柳永의 기생들에 관련된 일화를 서술한 작품으로, 그는 젊어서부터 재주가 出衆하고 특히 詞에 뛰어났으며 밤낮으로 酒樓나 妓樓를 출입하여서 여러 기생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東

京에서는 陳師師, 趙香香, 徐冬冬 등 세 기녀와 특히 왕래가 잦았고, 벼슬을 얻어 부임해 가는 도중에 알게 되었던 謝玉英과는 나중에 부부처럼 함께 살기도 한다.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하직하자, 평시의 방탕한 생활 탓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여러 기생들이 주머니를 털어 장례를 치러 주었을 정도였으며, 玉英이 喪主가 되고 師師·香香·冬冬 등 세 기생 모두 소복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와 보지 않은 기생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애석해 하는 소리가 천지를 뒤덮었다고 한다.

### 十三卷 〈張道陵七試趙昇〉

龍虎山 道教를 주지한 正一天師 張道陵에게는 趙昇과 王長이란 제자들이 있었다. 道陵은 長과 함께 神人 童子 太上老君의 암시를 받아 長生不死의 道를 터득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며 나쁜 귀신들을 물리친다. 昇도 스승 道陵이 제시하는 갖가지 유혹과 시험을 훌륭히 극복해내고 스승의 도를 전수받기에 이른다. 神妙한 조화로 善行을 쌓던 이들 세 道人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 신선이 된다.

### 十四卷 〈陳希夷四辭朝命〉

陳搏이란 道人은 어려서 신선 毛女 부인을 만나 周易의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였으며, 훗날에는 日月池의 다섯 용을 만나 蠶法(몸을 숨기는 재주)을 익힌다. 한 번 잠이 들면 수 개월씩 계속 잤으며, 武當山 九石巖과 太華山 돌 위 등에서 隱居하고 여러 황제나 사대부들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한가로이 游歷하며 신비스런 능력으로 世人들의 관상이나 보았고 100여명의 문하생들도 거느렸으며, 하루는 張超谷에서 돌에 구멍을 파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그 때 나이 118세였다고 한다.

### 十五卷 〈史弘肇龍虎君臣會〉

閻招亮이란 피리 만드는 사람이 어느 날 꿈 속에서 炳靈公에게 불려가 공이 얻은 龍笛 재료로 피리를 만들어 주고는, 자기의 여동생 倡妓 越英을 四鎮令公에게 시집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꿈을 깬 후 우연히 만나게 된 史弘肇와 여동생을 혼인시킨다. 弘肇는 나중에 형제의 의를 맺게 된 郭威와 함께 여러 차례 부랑자 행동을 일삼다가, 河南府 符令公과 汴京 劉太尉를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契丹을 쳐부수는 공을 세우고, 單·滑·宋·汴 등 네 고을을 다스리는 令公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十六卷 〈范巨鄉鷄黍死生交〉

漢 明帝 때에 張劭라는 가난한 노총각은 어느 날 노모와 동생을 이별하고 洛陽으로 과거 응시차 떠난다. 도중에 한 여관에 묵었다가 옆 방에 范式이란 사람이 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극진히 간호하여 낫게 해 주는 동안 시험 날짜를 넘겨 버렸다. 둘은 형제의 의를 맺고 헤어질 지점까지 와서는, 형 范式이 내년 重陽節에 동생의 집을 방문하여 모친도 만나 뵙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듬 해 重陽節이 되어 어두운 밤이 되니 과연 范式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였다. 생필이 쪼달려 고생하다가 약속을 잊었고 분득 약속을 상기하고 나니 바로 그 날이 중양절이라, 궁리 끝에 자결을 하여서 혼백이 되어 하루 만에 천리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張劭는 형의 信義에 감격하여 즉시 형의 고향으로 달려가 장지에 다달아서는, 역시 목을 베어 자결하고 옆에 묻혔다. 황제가 듣고는 이들 형제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사당도 지어 주었다.

十七卷 〈單符郎全州佳偶〉

西京 孝感坊에 살던 單 推官의 아들 飛英과 邢 知縣의 딸 春娘은 어려서부터 서로 혼약한 사이였다. 두 부친이 다른 지역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는데, 오랑캐의 약탈을 당하여 春娘이 官妓로 팔려 갔다. 훗날 飛英은 부친이 高宗을 잘 호위한 공덕으로 인하여 全州司戶를 제수받아 부임하였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官妓 楊玉을 만나게 되어 내력을 듣고 보니 바로 春娘이었다. 이들은 부부의 예를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十八卷 〈楊八老越國奇逢〉

元代 陝西省 西安府의 楊復이란 사람에게는 부인 李氏와의 사이에 世道란 아들이 있었고, 또 장사다니던 도중에 알게되어 결혼한 과부 葉氏와의 사이에 世德이란 아들을 두었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倭寇들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에서 19년 동안이나 갇은 고초를 당하다가, 다시 중국을 침입해 들어오는 군대에 배속되어 본국으로 들어온다. 본국의 진압군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힌 復은 옛 종이었던 王興의 도움을 입어 마침내 紹興郡 丞으로 있는 世道와 太守가 된 世德 그리고 두 부인을 모두 만나보는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늙도록 同樂한다.

十九卷 〈楊謙之客舫遇俠僧〉

浙江省 永喜 사람 楊益은 貴州 安莊縣令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는데, 그

곳이 지세가 워낙 험한데다 오랑캐와 요괴들이 들끓는 곳이라 부인은 남  
 겨두고 홀로 출발했다. 도중에 한 僧을 알게되어 그의 질녀 李氏 부인을  
 소개받는데, 이 여인의 도움으로 여러 번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지만 화를  
 면하고 무사히 임지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로도 李氏의 힘을 빌어 요귀를  
 물리치고 의동생 薛宜尉도 얻었다. 임기를 끝내고 귀향하던 중 李氏의 고  
 향에 당도하여, 다시 옛 僧을 찾아 해후하고 李氏와 아쉬운 작별을 하며  
 후히 사례를 하였다.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潭家>

宋 徽宗 때 東京 汴梁城의 秀才 陳辛은 張如春과 혼인을 하였는데, 廣  
 東省 南雄 沙角鎮 巡檢司로 부임해 가다가 요괴 申陽公에게 유인당하여  
 아내를 빼앗긴다. 아내 如春은 요괴에게 갇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정절을  
 굳게 지키고, 辛이 드디어 임기를 훌륭히 마치고 귀향하면서 大羅仙界의  
 真人 紫陽眞君의 도움을 얻어 아내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들 부부  
 는 다시 재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욱 깊은 애정으로 평생을 해로한  
 다.

二十一卷 <臨安里錢婆留發跡>

杭州府 臨安縣에 사는 錢鏐는 어려서부터 힘이 매우 세고 무예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공부나 일에는 전혀 뜻이 없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  
 다. 성장하여서도 도둑질을 하는 소금장수 顧三郎과 本縣 錄事 鍾起의 두  
 아들인 도박사 明·亮 등과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이처  
 럼 문란한 생활을 일삼던 이들도 唐 僖宗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에 공을  
 세울 기회를 얻어 黃巢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크게 공헌하며, 또 자기들의  
 세력을 잃어버리려 음모를 꾸민 劉漢宏도 제거하였다. 錢鏐는 彭城君王에  
 封해졌다가 越王·吳王까지 지냈으며, 鍾明·鍾亮·顧三郎 등도 觀察使  
 직책을 맡게 된다.

二十二卷 <木綿菴鄭虎臣報冤>

南宋 寧宗 때 浙江省 台州에 살던 賈涉은 九江 萬年縣丞을 지냈던 사람  
 으로, 부인 唐氏 외에도 막노동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胡氏를 側室로 맞아  
 들였다. 본부인이 胡氏를 몹시 구박한 탓으로 涉은 縣宰 陳履常과 자기  
 형에게 의논을 하여, 결국 胡氏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고 그녀에게서 난  
 아들 似道는 형에게 맡겨 키웠다. 似道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지

단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도박과 술·여자만 가까이 하며 나날을 보낸다. 후에 理宗 황제의 貴妃가 된 누나를 만나 벼슬 길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때마침 침입한 몽고족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대단한 세력을 얻었다. 세력이 커질수록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고 백성들을 포탈하는 일을 자행하다가, 드디어는 元兵들의 침입으로 대패하고 평시 미움을 샀던 백성들의 고자질로 불들림을 당하여 귀양가게 된다. 귀양가는 도중 그로부터 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보복을 하게 되고, 결국 독약을 삼키고 자살하는 것으로 포악한 세도가로서의 종말을 고했다.

### 二十三卷 〈張舜美元宵得麗女〉

張舜美라는 용모가 뛰어난 청년은 정월 초하루에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劉素香이란 예쁜 처녀를 만나게 되고,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국 남 몰래 도망을 하게 되었다. 도망가던 중에 워낙 변화한 탓으로 서로 길을 잃게 되었는데, 舜美는 素香이 강물에 투신자살한 줄 알고 심한 상사병을 앓게 된다. 병세가 회복된 후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고 학업에만 정진한 결과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고,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素香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높은 벼슬과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누리며 평생을 돌이켜 행복하게 산다.

### 二十四卷 〈楊思溫燕山逢故人〉

楊思溫이 정월 열 셋째 날 저녁에 길을 가다가 韓國夫人이 탄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시녀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의형 韓思厚의 부인인 鄭意娘이었다. 만난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과 함께 疋胎로 가던 중 자기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娼戶로 끌려갔고, 절개를 위해 자절도 시도해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 韓國夫人에 의해 구출되어져 여태까지 부인을 시종들며 혼자 지내고 있다 하였다. 이 사실을 형에게 알리고 돌이켜 韓國夫人 집을 찾아 나섰으나, 부인은 벌써 죽고 없고 意娘 또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들어 있었다. 관을 들어 장사지내려니 들리질 않다가, 남편 思厚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는 소릴 듣고는 허락하였다. 그 후 思厚는 여자 道士 劉金壇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意娘의 혼백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옛 남편을 찾아가 괴롭히니 남편은 자기의 무덤을 파 헤쳐 버리므로, 더욱 분개한 意娘은 결국 남편을 강물 속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만다.



二十五卷 〈晏平仲二桃殺三士〉

春秋시대 齊나라 景公에게 세 무뢰한 願治子·田開疆·公孫接 등이 있었는데, 때마침 화친을 맺으러 온 楚나라 사신을 자기들의 힘만 믿고 해치려 한다. 당시 승상이었던 晏嬰은 지혜와 재능을 겸비한 사람으로 직접 楚나라로 가서 楚王의 여러 가지 시험을 훌륭히 받아 넘기고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세 무뢰한을 제거하고 두 나라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二十六卷 〈沈小官一鳥害七命〉

宋 徽宗 때의 沈昱이란 벼짜는 사람에게서 沈秀란 아들이 있었는데, 매일 새를 기르며 성 안 비드나무 숲에서 노닐곤 하였다. 하루는 秀가 새장을 메고 숲에 나갔다가, 마침 지나가던 張가라는 마음씨 나쁜 사람을 만나 새장도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게 된다. 부친 昱은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잃었던 새를 만나게 되어 그 새의 출처를 쫓아 수소문하여 범인 張가를 잡아서 아들의 원수를 갚는다.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宋나라 때 수도 臨安의 저지 두목인 金考大에게 玉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웃 마을의 서생인 莫稽에게 시집가서 많은 재물로 남편의 과거 공부를 도와 급제시킨다. 그 후 稽는 無爲郡司戶로 부임해 가는 도중, 아내가 저지두목의 딸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강 물 속에 빠뜨려 익사시킨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玉奴는 마침 稽의 상관인 淮西轉運使로 부임해 가던 許德厚의 수양딸로 들어가고, 이어 德厚의 주선으로 다시 옛 남편 稽와 혼인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누우친 후 더욱 두터운 애정으로 살아간다.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明나라 때 南京 지방에 짚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黃公에게 道聰, 善聰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을 출가시키고 작은 딸은 남장시켜 의생질 張勝이라 속여 장사하는 데로 데리고 다녔다. 도중에 黃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善聰은 역시 짚을 파는 동향청년 李英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다니며 동업을 한다. 9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善聰은 그 동안 번 돈으로 부친의 시체를 고향으로 모셔 잘 장사지내고, 언니 집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순결을 잃지 않았던 善聰에게, 나중에 그가 남장한 처녀였음을 알게된

李英은 守備太監 李公의 도움을 얻어 청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혼례를 올린 후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宋 高宗 때 柳宣教는 과거에 급제하여 寧海軍 臨安府 府尹으로 부임하였는데, 오직 水月寺 주지 王通만이 영접하러 나오지 않자 이를 패심하게 여긴 나머지, 歌妓 吳紅蓮을 시켜 몰래 정을 통하게 하여 그를 미끼로 해를 가할 계책을 꾸몄다. 王通은 자신의 불문을 부끄러이 여겨 자결을 하였고 宣教는 이에 감복하여 南山 淨慈寺 法空禪師를 불러 화장을 시켜 준다. 후에 王通은 宣教의 부인 高氏의 뱃 속으로 환생하여 翠라는 이름의 딸로 태어난다. 宣教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두 모녀는 가난에 시달리며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顯孝寺 주지 月明和尚을 만나 宣教의 생전의 행적을 상세히 얘기 듣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宋 英宗 때 道를 깨우친 두 僧 五戒와 明悟가 있었는데, 五戒는 淨慈寺의 주지였고 明悟는 그의 제자였었다. 五戒는 갓난 여자 아이를 주워 키웠는데, 10여 년이 흐른 후 하루는 이 紅蓮이란 소녀를 범하게 되고, 그를 부끄러이 여겨 결국 자결하였다. 明悟도 따라 죽었는데, 두 사람은 각기 蘇軾·謝瑞卿이란 이름으로 같은 마을에 환생한다. 軾은 佛法에는 뜻이 없고 功名에만 집착하는 반면, 瑞卿은 어려서부터 고기와 술을 멀리하고 出家하길 원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던 이들은 軾이 벼슬길을 걸으며 여러번 좌천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瑞卿도 가까운 절들로 옮겨다니며 佛道를 권하다가, 마침내 이승의 인연이 끝나는 날 동시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 三十一卷 〈關陰司司馬貌斷獄〉

東漢 靈帝 때에 蜀郡 益州의 司馬貌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영리하였고 효성 또한 지극하였으나, 시절을 만나지 못하여 나이 50이 되도록 뜻을 펴지 못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하늘만 원망하곤 하였다. 하루는 꿈에 귀신들이 나타나 열라대왕을 원망함을 꾸짖고 사지를 찢었었는데, 그 꿈을 꾸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저승에서 옥황상제는 貌에게 하루 동안 열라대왕이 되어 옥중의 일을 처리하도록 시험해 보았는데, 貌는 홀

- 二十二卷 〈木綿菴鄭虎臣報寃〉
- 二十五卷 〈晏平仲二桃殺三士〉
- 二十六卷 〈沈小官一鳥害七命〉
-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 三十五卷 〈簡帖僧巧騙皇甫妻〉
- 三十八卷 〈任孝子烈性爲神〉
- 三十九卷 〈汪信之一死救全家〉
- 四十卷 〈沈小霞相會出師表〉

이상 21편이다. 이 가운데 二·四·五·十二·二十二·二十七·二十八·三十五·三十八 各 卷 9篇은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 2.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

- 一卷 〈蔣興哥重會珍珠衫〉
-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 四卷 〈閑雲菴阮三償寃債〉
- 五卷 〈窮馬周遭際賣鮓媪〉
- 十二卷 〈衆名姬春風弔柳七〉
- 十五卷 〈史弘肇龍虎君臣會〉
- 十七卷 〈單符郎全州佳偶〉
-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渾家〉
- 二十二卷 〈木綿菴鄭虎臣報寃〉
- 二十三卷 〈張舜美燈宵得麗女〉
-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 三十五卷 〈簡帖僧巧騙皇甫妻〉
- 三十八卷 〈任孝子烈性爲神〉

이상 16편이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

될 수 있는 것은 부녀들의 人權에 대한 간절한 투쟁이다. 이상 16편 가운데서도 三·二十·三十四 各 卷은 神仙·怪異를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二·四·五·十二·二十二·二十七·二十八·三十五·三十八 各 卷은 봉건 통치 계급의 내부 투쟁과 관료나 지주의 罪行을 폭로하고 있기도 하다.

3. 神仙·怪異를 주제로 한 작품.

-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 十三卷 〈張道陸七試趙昇〉
- 十四卷 〈陳希夷四辭朝命〉
- 十九卷 〈楊謙之客舫遇俠僧〉
-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渾家〉
- 二十一卷 〈臨安里錢婆留發跡〉
- 二十四卷 〈楊思溫燕山逢故人〉
-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 三十一卷 〈鬧陰司司馬貌斷獄〉
- 三十二卷 〈遊鄴都胡母迪吟詩〉
- 三十三卷 〈張古老種瓜娶文女〉
-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 三十七卷 〈梁武帝累修歸極樂〉

이상 14편이며 이 가운데서 三·二十·三十四 各 卷은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며, 十九·二十一·二十九·三十 各 卷은 통치 계급과 관료·지주의 죄행을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4. 시민들의 道德을 칭송하고 信義나 義理를 주제로 한 작품.

- 六卷 〈葛令公生遭弄珠兒〉
- 七卷 〈羊角哀捨命全交〉
- 八卷 〈吳保安棄家贖友〉
- 九卷 〈裴晉公義還原配〉
- 十六卷 〈范巨卿雞黍死生交〉
- 三十四卷 〈李公子救蛇獲稱心〉
- 三十六卷 〈宋四公大鬧禁魂張〉

#### 四十卷 〈沈小霞相會出師表〉

이상 8편이며, 그 가운데서 六·九·四十 각 권은 봉건 제도에 대한 비판을 三十四卷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5. 知識人の 생활 내지 과거 제도의 不合理性을 주제로 한 작품.

#### 十一卷 〈趙昇伯茶肆偶仁宗〉

#### 三十一卷 〈關陰司司馬貌斷獄〉

#### 三十二卷 〈遊酆都胡母迪吟詩〉

이상 3편으로, 3편 모두 神仙·怪異를 主題로 하고 있기도 하다.

《유세명언》 40편 중에는 上述한 다섯 유형 이외에도 宿命論을 깊이 믿는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十三卷과 二十九卷 그리고 三十卷 등이다. 그러나 다섯 유형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약간 散漫한 듯하여 이 세 편도 셋째 유형으로 묶어버렸음을 밝혀 둔다.

## 五. 藝術 特性 및 影響

唐代에 發芽하여 宋代에 크게 盛行한 「瓦舍伎藝」로 불리어졌던 平民藝術中, 특히 說話는 도시의 번영과 급속적인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더욱 발전하게 된다. 通俗 白話小說은 곧 說話人の 脚本인 話本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풍부하고 복잡한 情節에 偏重하였고, 人物의 형상이나 個性은 重視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우기 說話藝術의 淸중은 대부분이 문화 수준이 낮은 도시인으로 그들의 관심 역시 千差萬別이었다. 이처럼 복잡한 여건 속의 淸중에게 說話人은 내용과 형식상 모든 淸중으로부터 흥미를 불러 일으켜야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言語上의 技巧나 動作 그리고 表情 등이 생동감이 있어야 하고 또 故事 역시 淸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을 것이다. 《今古奇觀》序文에

「…喻世·警世·醒世三言, 極摹人情世態之歧, 備寫悲歡離合之致, 可謂欽異拔新, 恫心駭目。」

라고 하여 說話人이 선택한 題材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생활 중의 人情世態나 悲歡離合의 故事가 淸중들의 심금을 울려 결국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이다. 《유세명언》중의 대부분의 작품이 이러한 題材임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제재르써 巧妙하게 그리고 偶然性을 갖고 독자를 매료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창작 방법에 있어서 풍몽룡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객관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진실을 묘사하고 있다. 더우기 《喻世明言》에 반영되고 있는 사회 생활 면은 어떤 단편소설보다 풍부하고, 또 시민 계층의 각종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唐人小說과 잠깐 비교해 본다면 당인소설은 대부분이 上層 社會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下層 사회 인물은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소설 가운데서도 主要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유세명언》에서는 下層 사회 인물이 많을 뿐더러 故事 中の 主人公으로도 하층 사회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三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 일반 소시민들은 암흑 사회에 대한 반항 정신과 아름다운 理想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해 있었다. 풍몽룡은 이러한 생활 현상에 대하여 合理的인 상상을 거쳐 때때로 幻想과 과장된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낭만주의의 창작 방법은 때때로 魂魄으로 하여금 生前에 實現하지 못한 理想을 추구하도록 하고, 또 귀신이나 神仙 또는 超能力을 빌어 正義를 伸張하고 惡人을 懲罰하도록 하여 일반 소시민들의 투쟁 정신과 이상의 추구를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에서 귀신이나 신선의 출현은 아름답고 奇幻한 색채를 띠게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또 早期 話本에서 찾아보기 힘든 심리 묘사도 《유세명언》에서는 때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등장 인물의 心理 反應을 발랄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一卷의 三巧兒와 二十七卷의 莫稽 그리고 三十卷의 五戒禪師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對話와 結構上의 특성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通俗的인 白話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口頭語나 각종 俗語·諺語 등을 사용하여 대화의 생동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결구 면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많은 작품이 「入話」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짧은 故事로서 많은 것은 서너개의 「入話」를 갖고 있기도 하다. 비록 「入話」가 하나의 독립된 故事이기는 하나, 「正話」와 서로 연관을 갖도록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작용도 하고, 또 당시 설화인에게는 먼저 온 청중들의 무료함을 달래어주는

작용도 했을 것이다.

풍몽룡은 《喻世明言》에서 散文과 韻文을 混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의 발전 과정은 산문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감동적인 부분과 특정한 심리상태는 운문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운문으로는 詩를 비롯하여 詞·雜曲 등이 사용되어 있으며 때로는 인물이나 景色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또 結尾에도 운문을 사용하여, 전체 내용을 歸納하거나 창작 의도를 밝히기도 하며, 그리고 勸戒의 뜻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馮夢龍이 後世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풍몽룡은 《喻世明言》의 序文에서

「皇明文治旣郁，靡流不波，即演義一斑，往往有遠過宋人者，而或以爲恨乏唐人風致，謬矣。(中略)天下之文心少而里耳多，則小說之資於選言者少，而資於通俗者多。試今說話人當場描寫，可喜可愕，可悲可涕，可歌可舞，再欲捉刀，再欲下拜，再欲決脰，再欲捐金，怯者勇，淫者貞，薄者敦，頑鈍者汗下。雖小誦孝經·論語，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

라 하여, 通俗小說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 가치를 천명했으며, 이론과 실제 창작을 통하여 통속소설의 가치와 지위를 확인했다. 물론 풍몽룡 이전에 李卓吾나 袁中郎이 통속소설의 사회성과 소설과 群治의 관계를 지적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그들은 다만 장편소설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풍몽룡은 단편소설, 그것도 직접 통속소설을 창작해서 그의 이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소설 발전사상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념의 定立 외에도 역대 話本을 수집하여 그것을 정리 수정함으로써 통속소설의 예술성도 또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몽룡의 소설에 대한 提倡은 後世 文人들로 하여금 話本 體裁로 소설을 창작하고 편찬하도록 했다.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자는 곧 凌濛初로, 그는 初刻·二刻 《拍案驚奇》를 지었는데 그 序文에서

「龍子猶氏所輯喻世等書，頗存雅道，時著良規，一破今時陋習，而宋元舊種亦被披括殆盡，肆中人見其行世頗捷，意余當別有秘本圓書而衡之，不知一二遺者，此其溝中之斷蕪，略不足陳已，因取古今來雜碎事可新聽者，佐談諧者，演而揚之，得若干卷。」

이라고 하여, 馮夢龍과 그의 《喻世明言》을 극찬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도 같은 시대의 풍뎡뎡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三言」과 「二拍」이 出刊되자 抱甕老人은 두 話本集에서 40篇을 取하여 《今古奇觀》을 편찬했다. 이 속에는 《喻世明言》 중의 8편이 수록되어 있고, 무려 29편을 「三言」에서 취하고 있다.

그리고 天然癡叟가 편찬한 話本小說 《石點頭》 14권이 있는데 풍뎡뎡의 序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간접으로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도 明·清代의 상당히 많은 文人들이 平話로써 小說을 창작한 評話 창작집이나 平話選輯을 남기고 있는데 모두가 풍뎡뎡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다. 여기서 《中國文學研究新編》에 실려 있는 작품집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西湖二集：周清原이 편찬하여 崇禎 年間に 刊行된 平話創作集으로 내용은 西湖集傳說과 연관을 갖고 있다.
2. 醉醒石：東魯古狂生이 편찬하여 順治 年間に 刊行된 評話창작집이다.
3. 二刻拍案驚奇別本：編者가 未詳이고 明末 清初에 刊行된 平話選輯이다. 二刻拍案驚奇에서 많은 作品을 取했다.
4. 無聲戲：李漁가 두 책으로 편찬했는데 一集을 連城壁, 二集을 十二樓라고 불렀던 評話창작집이다.
5. 豆棚閒話：艾納居士가 편찬하여 乾隆 年間に 간행된 評話창작집이다.
6. 照世杯：酌元亭主人이 편찬하여 十二樓를 전후하여 간행된 評話창작집이다.
7. 西湖佳話：古吳墨浪子가 편찬하여 康熙 年間に 간행된 역시 西湖傳說과 연관이 있는 評話창작집이다.
8. 娛心醒目編：草亭老人이 편찬하여 乾隆 年間に 간행된 評話창작집이다.
9. 西湖拾遺：陳樹基가 편찬하여 乾隆 年間に 간행된 評話선집으로 많은 作品을 西湖二集과 西湖佳話에서 取했다.
10. 二奇合傳：芝香館居士가 편찬하여 清末에 간행된 評話선집으로 대부분 作品을 拍案驚奇와 今古奇觀에서 取했다.
11. 今古奇聞：王寅이 편찬하여 光緒 年間に 간행된 評話선집으로, 대부



본의 작품을 娛心醒目編에서 취했다.

## 六. 結 言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한 文人으로서 馮夢龍이 문학 전반에 끼친 영향과 공로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다. 小說을 비롯하여 民歌·戲曲·小曲 등의 俗文學 가운데 특히 소설에 대한 공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三言」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그가 三言을 편찬함으로써 비로소 단편소설은 그 가치와 지위를 확립했고, 또 長篇演義와 並列될 수 있도록까지 되었다. 그리고 凌蒙初의 《拍案驚奇》序文中에 언급된

「宋元舊種，亦被蒐括殆盡。」

이란 글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풍뎡뎡이 많은 話本小說을 수집한 후 그것을 「三言」에 수록하여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올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곧 小說史料의 보존이란 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三言」가운데는 풍뎡뎡 자신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宋·元 以來의 舊本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다.

「三言」中 정확한 刊行 시기는 고찰할 수 없으나 가장 먼저 간행된 《喻世明言》보다도 더 이전에 간행된 話本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 單行本인 까닭에 쉽게 散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또한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三言」은 역대 화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려 120편의 화본을 수록하고 있으며, 후세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

## 附 錄

### 《喻世明言》各篇內容要旨

#### 一卷〈蔣興哥重會珍珠衫〉

주인공인 蔣興哥와 그의 妻 王三巧兒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처음에는 매우 원만한 가정을 영위

하며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처에게 陳商이란 한 상인이 나타나면서부터 이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며, 종국에 가서는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은 이들이 다시 서로 만나 偕老한다.

#### 二卷 〈陳御史巧勘金釵鈿〉

江西 贛州府 石城縣의 두 高官 집 자녀인 魯學曾과 顧阿秀는 일찍이 서로 혼약한 사이였는데, 學曾의 고종 형인 梁尙賓의 농간으로 두 사람의 혼약은 파괴되고 결국 죄인으로 몰리기까지 한다. 우여곡절 끝에 尙賓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지고, 學曾은 원래 尙賓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顧씨 집안의 수양딸이 된 마음씨 착한 田씨와 결혼하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

#### 三卷 〈新橋市韓五賣春情〉

신교시의 부호 아들인 吳山은 처자를 거느린 사람으로, 어느 날 24세 동감내기인 倡妓 출신 韓金奴란 여인을 만나 의도를 일삼는다. 하루는 꿈에 桑菜園 水月寺 주지가 나타나 吳山을 데려 가겠다고 하고부터 병을 앓게 되고 급기야는 死境을 헤매게까지 된다. 결국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낸 뒤 吳山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였고, 그 후로 옛 비행을 뉘우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착실한 사람이 된다.

#### 四卷 〈關雲菴阮三償冤債〉

西京 河南府 梧桐街 兎濱巷의 殿前太尉 벼슬을 한 陳太常에게는 과년한 딸이 있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위감을 찾느라 딸 玉蘭으로 하여금 나이만 들게 하였다. 옥란은 맞은 편 집 젊은이 阮三을 우연히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한운암 승의 도움을 받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나, 행복은 잠깐에 불과하였고 그 동안 상사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阮三이 숨을 거두고 만다. 그 후 옥란은 아들을 낳아 훌륭히 키워, 주위로부터 절과 어짐을 널리 칭송 받는다.

#### 五卷 〈窮馬周遭際賣鮑姬〉

唐 太宗 때의 馬周란 청년은 대단히 훌륭한 학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였던 탓으로 출세도 하지 못하고 나이 3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었다. 결국은 長安으로 관직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新豐에서 한 큰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이를 인연으로 여관 주인 王씨의 생질녀인 과부를 소개 받았고, 또 常何라는 武臣에게 문장을 代筆해 준 것이

太宗에게 알려져, 드디어 문달할 기회가 열려 감찰어사와 이부상서 등의 요직을 거치며 왕씨 부인과 결혼하여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다.

#### 六卷 〈葛令公生遭弄珠兒〉

唐末 五代 때의 梁나라 장군 葛周는 수하에 申徙泰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하루는 장군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이 병사가 보고할 일이 있어 왔다가 장군이 가장 아끼던 회첩 弄珠兒의 미모에 정신을 잃는다. 장군은 부하의 허물을 전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옛날 李存璋과의 전쟁에서 세운 그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는 한편 조정에 상신하여 관직을 하사 받도록 해 주고 弄珠兒와 결혼도 시켜 준다. 장군의 仁德과 대장부다운 기개가 모든 이들로부터 칭송된다.

#### 七卷 〈羊角哀捨命全交〉

春秋時代에 左伯桃라는 隱士가 楚元王의 어진 소식을 듣고 楚國으로 가다가 도중에 羊角哀란 사람의 집에 묵게된 것을 인연으로 서로 형제의 의를 맺고 함께 楚國으로 떠난다. 마침 비바람이 워낙 거세고 추위가 심하여 험한 산길을 다 가지 못하고, 형 伯桃는 자꾸만 사양하는 동생 角哀만을 베풀길로 보내고 자기는 凍死하게 된다. 뜻을 이루어 中大夫 벼슬을 얻은 角哀는 다시 그 곳을 찾아 형을 성대히 장사지내 주었는데, 그날 밤에 형의 혼백이 나타나 옆에 있는 무덤 속의 荊軻란 자가 밤마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소연을 한다. 角哀는 여러 수단을 다 동원하여 荊軻의 귀신을 말리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자살을 하여 荊軻의 혼백을 물리치고 형을 편하게 해 주었다. 모든 이들이 이들 의형제 간의 의리를 칭송하였고 楚元王도 비를 세워 그 일을 기록하여 주었다.

#### 八卷 〈吳保安棄家贖友〉

唐나라 재상 郭震의 조카인 郭仲翔은 오랑캐 토벌군에 참여하였다가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 원정 중에 만났던 同鄉人 吳保安은 비단 천 필을 갖다 주면 친구 仲翔이 풀려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산을 모두 처분하여 200필을 만들고, 10년 동안 처자를 버려두고 장사를 하여 700필을 마련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였다. 그의 처가 남편을 찾아 헤메던 중 지나가던 官人 楊安居를 만나, 이 사람의 도움으로 남편도 찾고 또 비단 400필도 얻게 된다. 같은 고생을 겪던 仲翔은 이 친구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벼슬까지 얻는다. 몇 년 후에 仲翔이 保安을 만나러 가보니 그들 부부는 이

미 病死하였고 아들 天祐만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仲翔은 이들 부부의 유골을 고향으로 옮겨와 성대히 장사지내 주고,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신 해 주고 결혼도 시켰으며 재산도 반이나 나누어 주었다.

#### 九卷 〈裴晉公義還原配〉

唐나라 裴度는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하였던 어진 재상이었는데, 간신들이 날뛰고 임금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어, 주색을 가까이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晉川에 唐璧이란 청년이 있어 같은 마을 黃小娥와 혼약을 하였었는데, 小娥는 위낙 용모가 뛰어나 裴度에게 강제로 진상되어 진다. 唐璧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갖은 고생 끝에 裴度를 만나게 되었는데, 裴度는 厚德한 재상이라 순순히 小娥를 돌려주고 혼인식의 주례까지 서 주었으며, 많은 보화와 벼슬까지 내려 주었다.

#### 十卷 〈滕大尹鬼斷家私〉

北直 順天府 香河縣의 太守 倪守謙은 부인 陳氏와의 사이에 善繼라는 한 아들을 두었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79세에 다시 17세 밖에 되지 않은 梅氏를 첩으로 맞아 들인다. 그리고 善述이란 한 아들을 더 보았는데, 善述은 그의 異腹 형으로부터 대단한 질시를 당하다가 부친 사망 후에는 더욱 심한 갖은 수모를 겪게 된다. 중국에는 滕大尹의 도움으로 부친이 자신을 위해 감추어 두었던 금은보화를 찾아, 그 중 한 보따리는 滕大尹에게 도와준 댓가로 지불하고 나머지 보화로 유복한 생활을 누리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다.

#### 十一卷 〈趙伯昇茶肆遇仁宗〉

宋 仁宗 때에 趙旭이란 청년은 매우 박식한 秀才였다. 과거에 응시하여 실제로는 狀元으로 급제되어 고시관들에 의해 천거되었으나, 임금의 고의적인 질시로 인하여 낙방되고 만다. 그는 부끄러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관과 다방 등에 머물며 1년여 세월을 보내던, 중 仁宗이 피상한 꿈을 꾸고는 다시 불러 등용하는 행운을 얻어 영화를 누리게 된다.

#### 十二卷 〈衆名姬春風弔柳七〉

宋 神宗 때의 유명한 詞作家 柳永의 기생들에 관련된 일화를 서술한 작품으로, 그는 젊어서부터 재주가 出衆하고 특히 詞에 뛰어났으며 밤낮으로 酒樓나 妓樓를 출입하여서 여러 기생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東

京에서는 陳師師, 趙香香, 徐冬冬 등 세 기녀와 특히 왕태가 잦았고, 벼슬을 얻어 부임해 가는 도중에 알게 되었던 謝玉英과는 나중에 부부처럼 함께 살기도 한다.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하직하자, 평시의 방탕한 생활 탓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여러 기생들이 주머니를 털어 장례를 치러 주었을 정도였으며, 玉英이 喪主가 되고 師師·香香·冬冬 등 세 기생 모두 소복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와 보지 않은 기생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애석해 하는 소리가 천지를 뒤덮었다고 한다.

#### 十三卷 〈張道陵七試趙昇〉

龍虎山 道教를 주지한 正一天師 張道陵에게는 趙昇과 王長이란 제자들이 있었다. 道陵은 長과 함께 神人 童子 太上老君의 암시를 받아 長生不死의 道를 터득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며 나쁜 귀신들을 불러친다. 昇도 스승 道陵이 제시하는 갖가지 유혹과 시험을 훌륭히 극복해내고 스승의 도를 전수받기에 이른다. 神妙한 조화로 善行을 쌓던 이들 세 道人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 신선이 된다.

#### 十四卷 〈陳希夷四辭朝命〉

陳搏이란 道人是 어려서 신선 毛女 부인을 만나 周易의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였으며, 훗날에는 日月池의 다섯 용을 만나 蠶法(몸을 숨기는 재주)을 익힌다. 한 번 잠이 들면 수 개월씩 계속 잤으며, 武當山 九石巖과 太華山 돌 위 등에서 隱居하고 여러 황제나 사대부들의 초청을 거절하였다. 한가로이 游歷하며 신비스런 능력으로 世人들의 관상이나 보았고 100여명의 문하생들도 거느렸으며, 하루는 張超谷에서 물에 구멍을 파게하고 그 속에 들어가 세상을 하직하였는데 그 때 나이 118세였다고 한다.

#### 十五卷 〈史弘肇龍虎君臣會〉

關招亮이란 피리 만드는 사람이 어느 날 꿈 속에서 炳靈公에게 불려가 공이 얻은 龍笛 재료로 피리를 만들어 주고는, 자기의 여동생 倡妓 越英을 四續令公에게 시집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받는다. 꿈을 깨 후 우연히 만나게 된 史弘肇와 여동생을 혼인시킨다. 弘肇는 나중에 형제의 의를 맺게 된 郭威와 함께 여러 차례 부랑자 행동을 일삼다가, 河南府 符令公과 汴京 劉太尉를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契丹을 쳐부수는 공을 세우고, 單·滑·宋·汴 등 네 고을을 다스리는 令公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十六卷 〈范巨鄉鷄黍死生交〉

漢 明帝 때에 張劭라는 가난한 노총각은 어느 날 노모와 동생을 이별하고 洛陽으로 과거 응시차 떠난다. 도중에 한 여관에 묵었다가 옆 방에 范式이란 사람이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극진히 간호하여 낮게 해 주는 동안 시험 날짜를 넘겨 버렸다. 들은 형제의 의를 맺고 헤어질 지점까지 와서는, 형 范式이 내년 重陽節에 동생의 집을 방문하여 모친도 만나 뵈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듬 해 重陽節이 되어 어두운 밤이 되니 과연 范式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였다. 생활이 쪼달려 고생하다가 약속을 잊었고 문득 약속을 상기하고 나니 바로 그 날이 중양절이라, 궁리 끝에 자결을 하여서 혼백이 되어 하루 만에 천리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張劭는 형의 信義에 감격하여 즉시 형의 고향으로 달려가 장지에 다달아서는, 역시 목을 베어 자결하고 옆에 묻혔다. 황제가 듣고는 이들 형제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사당도 지어 주었다.

十七卷 〈單符郎全州佳偶〉

西京 孝感坊에 살던 單 推官의 아들 飛英과 邢 知縣의 딸 春娘은 어려서부터 서로 혼약한 사이였다. 두 부친이 다른 지역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는데, 오랑캐의 약탈을 당하여 春娘이 官妓로 팔려 갔다. 훗날 飛英은 부친이 高宗을 잘 호위한 공덕으로 인하여 全州司戶를 제수받아 부임하였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官妓 楊玉을 만나게 되어 내력을 듣고 보니 바로 春娘이었다. 이들은 부부의 예를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十八卷 〈楊八老越國奇逢〉

元代 陝西省 西安府의 楊復이란 사람에게는 부인 李氏와의 사이에 世道란 아들이 있었고, 또 장사다니던 도중에 알게되어 결혼한 과부 欒氏와의 사이에 世德이란 아들을 두었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倭寇들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에서 19년 동안이나 갇은 고초를 당하다가, 다시 중국을 침입해 들어오는 군대에 배속되어 본국으로 들어온다. 본국의 진압군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힌 復은 옛 종이었던 王興의 도움을 입어 마침내 紹興郡 丞으로 있는 世道와 太守가 된 世德 그리고 두 부인을 모두 만나보는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늙도록 同樂한다.

十九卷 〈楊謙之客舫遇俠僧〉

浙江省 永喜 사람 楊益은 貴州 安莊縣令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는데, 그

곳이 지세가 워낙 험한데다 오랑캐와 요괴들이 들끓는 곳이다 부인은 남겨두고 홀로 출발했다. 도중에 한 僧을 알게되어 그의 질녀 李氏 부인을 소개받는데, 이 여인의 도움으로 여러 번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지만 화를 면하고 무사히 임지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로도 李氏의 힘을 빌어 요괴를 물리치고 의동생 薛宣尉도 얻었다. 임기를 끝내고 귀향하던 중 李氏의 고향에 당도하여, 다시 옛 僧을 찾아 헤후하고 李氏와 아쉬운 작별을 하며 후히 사례를 하였다.

#### 二十卷 <陳從善梅嶺失渾家>

宋 徽宗 때 東京 汴梁城의 秀才 陳辛은 張如春과 혼인을 하였는데, 廣東省 南雄 沙角鎮 巡檢司로 부임해 가다가 요괴 申陽公에게 유인당하여 아내를 빼앗긴다. 아내 如春은 요괴에게 갇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정절을 굳게 지키고, 辛이 드디어 임기를 훌륭히 마치고 귀향하면서 大羅仙界의 眞人 紫陽眞君의 도움을 얻어 아내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들 부부는 다시 재회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욱 깊은 애정으로 평생을 해토한다.

#### 二十一卷 <臨安里錢婆留發跡>

杭州府 臨安縣에 사는 錢鏐는 어려서부터 힘이 매우 세고 무예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공부나 일에는 전혀 뜻이 없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다. 성장하여서도 도둑질을 하는 소금장수 顧三郎과 本縣 錄事 鍾起의 두 아들인 도박사 明·亮 등과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이처럼 문란한 생활을 일삼던 이들도 唐 僖宗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에 공을 세울 기회를 얻어 黃巢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크게 공헌하며, 또 자기들의 세력을 잃어버리려 음모를 꾸민 劉漢宏도 제거하였다. 錢鏐는 彭城君王에 封해졌다가 越王·吳王까지 지냈으며, 鍾明·鍾亮·顧三郎 등도 觀察使 직책을 맡게 된다.

#### 二十二卷 <木綿菴鄭虎臣報冤>

南宋 寧宗 때 浙江省 台州에 살던 賈涉은 九江 萬年縣丞을 지냈던 사람으로, 부인 唐氏 외에도 막노동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胡氏를 側室로 맞아 들였다. 본부인이 胡氏를 몹시 구박한 탓으로 涉은 縣宰 陳履常과 자기 형에게 의논을 하여, 결국 胡氏를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고 그녀에게서 난 아들 似道는 형에게 맡겨 키웠다. 似道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지

만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도박과 술·여자만 가까이 하며 나날을 보낸다. 후에 理宗 황제의 貴妃가 된 누나를 만나 벼슬 길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때마침 침입한 몽고족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대단한 세력을 얻었다. 세력이 커질수록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고 백성들을 포탈하는 일을 자행하다가, 드디어는 元兵들의 침입으로 대패하고 평시 미움을 샀던 백성들의 고자질로 붙들림을 당하여 귀양가게 된다. 귀양가는 도중 그로부터 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보복을 하게 되고, 결국 독약을 삼키고 자살하는 것으로 포악한 세도가로서의 종말을 고했다.

### 二十三卷 〈張舜美元宵得麗女〉

張舜美라는 용모가 뛰어난 청년은 정월 초하루에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劉素香이란 예쁜 처녀를 만나게 되고,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국 남 몰래 도망을 하게 되었다. 도망가던 중에 워낙 변화한 탓으로 서로 길을 잃게 되었는데, 舜美는 素香이 강물에 투신자살한 줄 알고 심한 상사병을 앓게 된다. 병세가 회복된 후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고 학업에만 정진한 결과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고,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素香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높은 벼슬과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누리며 평생을 돌이켜 행복하게 산다.

### 二十四卷 〈楊思溫燕山逢故人〉

楊思溫이 정월 열 셋째 날 저녁에 길을 가다가 韓國夫人이 탄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시녀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의형 韓思厚의 부인인 鄭意娘이었다. 만난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과 함께 肝胎로 가던 중 자기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娼戶로 끌려갔고, 절개를 위해 자결도 시도해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 韓國夫人에 의해 구출되어져 여태까지 부인을 시종들며 혼자 지내고 있다 하였다. 이 사실을 형에게 알리고 돌이켜 韓國夫人 집을 찾아 나섰으나, 부인은 벌써 죽고 없고 意娘 또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들어 있었다. 관을 들어 장사지내려니 들리질 않다가, 남편 思厚가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는 소릴 듣고는 허락하였다. 그 후 思厚는 여자 道士 劉金嬪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意娘의 혼백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옛 남편을 찾아가 괴롭히니 남편은 자기의 무덤을 파 헤쳐 버리므로, 더욱 분개한 意娘은 결국 남편을 강물 속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만다.



二十五卷 〈晏平仲二桃殺三士〉

春秋시대 齊나라 景公에게 세 무뢰한 顯冶子·田開疆·公孫接 등이 있었는데, 때마침 화친을 맺으러 온 楚나라 사신을 자기들의 힘만 믿고 해치려 한다. 당시 승상이었던 晏嬰은 지혜와 재능을 겸비한 사람으로 직접 楚나라로 가서 楚王의 여러 가지 시험을 훌륭히 받아 넘기고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세 무뢰한을 제거하고 두 나라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二十六卷 〈沈小官一鳥害七命〉

宋 徽宗 때의 沈昱이란 벼짜는 사람에게에는 沈秀란 아들이 있었는데, 매일 새를 기르며 성 안 버드나무 숲에서 노닐곤 하였다. 하루는 秀가 새장을 메고 숲에 나갔다가, 마침 지나가던 張가라는 마음씨 나쁜 사람을 만나 새장도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게 된다. 부친 昱은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잃었던 새를 만나게 되어 그 새의 출처를 쫓아 수소문하여 범인 張가를 잡아서 아들의 원수를 갚는다.

二十七卷 〈金玉奴棒打薄情郎〉

宋나라 때 수도 臨安의 거지 두목인 金考大에게 玉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웃 마을의 서생인 莫稽에게 시집가서 많은 재물로 남편의 과거 공부를 도와 급제시킨다. 그 후 稽는 無爲郡司戶로 부임해 가는 도중, 아내가 거지두목의 딸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강 물 속에 빠뜨려 익사시킨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玉奴는 마침 稽의 상관인 淮西轉運使로 부임해 가던 許德厚의 수양딸로 들어가고, 이어 德厚의 주선으로 다시 옛 남편 稽와 혼인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뉘우친 후 더욱 두터운 애정으로 살아간다.

二十八卷 〈李秀卿義結黃貞女〉

明나라 때 南京 지방에 짚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黃公에게 道聰, 善聰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을 출가시키고 작은 딸은 남장시켜 의생질 張勝이라 속여 장사하는 데로 데리고 다녔다. 도중에 黃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善聰은 역시 짚을 파는 동향청년 李英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같이 다니며 동업을 한다. 9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善聰은 그 동안 번 돈으로 부친의 시체를 고향으로 모셔 잘 장사지내고, 언니 집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순결을 잃지 않았던 善聰에게, 나중에 그가 남장한 처녀였음을 알게된

李英은 守備太監 李公의 도움을 얻어 청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혼례를 올린 후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 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宋 高宗 때 柳宣教는 과거에 급제하여 寧海軍 臨安府 府尹으로 부임하였는데, 오직 水月寺 주지 王通만이 영접하러 나오지 않자 이를 패심하게 여긴 나머지, 歌妓 吳紅蓮을 시켜 몰래 정을 통하게 하여 그를 미끼로 해를 가할 계책을 꾸민다. 王通은 자신의 불륜을 부끄러이 여겨 자결을 하였고 宣教는 이에 감복하여 南山 淨慈寺 法空禪師를 불러 화장을 시켜 준다. 후에 王通은 宣教의 부인 高氏의 뱃 속으로 환생하여 翠라는 이름의 딸로 태어난다. 宣教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두 모녀는 가난에 시달리며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顯孝寺 주지 月明和尚을 만나 宣教의 생전의 행적을 상세히 얘기 듣고는 스스로 복숨을 끊어버렸다.

### 三十卷 〈明悟禪師趕五戒〉

宋 英宗 때 道를 깨우친 두 僧 五戒와 明悟가 있었는데, 五戒는 淨慈寺의 주지였고 明悟는 그의 제자였었다. 五戒는 갓난 여자 아이를 주워 키웠는데, 10여 년이 흐른 후 하루는 이 紅蓮이란 소녀를 범하게 되고, 그를 부끄러이 여겨 결국 자결하였다. 明悟도 따라 죽었는데, 두 사람은 각기 蘇軾·謝瑞卿이란 이름으로 같은 마을에 환생한다. 軾은 佛法에는 뜻이 없고 功名에만 집착하는 반면, 瑞卿은 어려서부터 고기와 술을 멀리하고 出家하길 원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던 이들은 軾이 벼슬길을 걸으며 여러번 좌천을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瑞卿도 가까운 절들로 옮겨다니며 佛道를 권하다가, 마침내 이승의 인연이 끝나는 날 동시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 三十一卷 〈開陰司司馬貌斷獄〉

東漢 靈帝 때에 蜀郡 益州의 司馬貌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영리하였고 효성 또한 지극하였으나, 시절을 만나지 못하여 나이 50이 되도록 뜻을 펴지 못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하늘만 원망하곤 하였다. 하루는 꿈에 귀신들이 나타나 엄라대왕을 원망함을 꾸짖고 사지를 찢었었는데, 그 꿈을 꾸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저승에서 옥황상제는 貌에게 하루 동안 엄라대왕이 되어 옥중의 일을 처리하도록 시험해 보았는데, 貌는 홀

것이라 여겨진다.

7. 〈柳青娘〉 2首

唐 教坊曲名. 이 調는 詞譜類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敦煌曲 가운데서도 《雲謠集》에 단 보인다. 제 1 수는 62字, 제 2 수는 64字의 雙調體로 前段의 第4·5句가 서로 3·7, 7·5字로 다를 뿐이다. 여기서도 같은 詞牌의 同調를 운용하였어도 字數에 있어 더욱 융통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8. 〈傾盃樂〉 2首

唐 教坊曲名. 《詞律》에서 8體, 《詞律拾遺》에서 3체, 《詞譜》에서 10體를 실고 있는데 모두 94字에서 116字의 범위에 드는 雙調의 體이다. 《雲謠集》의 本調는 제 1 수가 110字, 제 2 수가 109字의 쌍조체인데 2수 모두 句法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르다.

제1수 : 4.4.5.5.4.6.8.5.4.4.7 7.6.7.7.6.8.4.4.5 (110字)

제2수 : 4.7.7.6.8.5.6.4.5 7.8.7.7.6.8.7.7 (109字)

詞譜類에는 109字체는 없고 《詞律拾遺》에 110字體가 있는데, 《雲謠集》의 제 1 수의 句法과는 또한 많이 다르다. 本調 2 수가 모두 100字가 넘는 慢詞(長調)의 형태인데, 唐 五代의 文人詞에서는 慢詞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北宋 柳永 등에 가서야 저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후인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9. 〈內家嬌〉 2首

《雲謠集》에서는 本調의 제 1 수는 106字, 제 2 수는 96字의 雙調體이다. 제 2 수는 「P3251」卷에서 「御制林鍾商內家嬌」라 詞牌에 注記되었던 詞와 同一한 것이다. 本調는 唐의 教坊曲名이 아니었다. 《詞律拾遺》와 《詞譜》에서 같이 柳永 詞 쌍조 106字의 1體만을 수록하고 있다. 字數에서는 詞譜類에서의 柳永의 體와 《雲謠集》의 本調 제 1 수가 일치하나 句法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르다.

柳 永 : 4.4.6.4.4.6.6.3.6.4 2.5.6.5.6.4.6.6.3.4.6 (106字)

雲謠集 : 4.5.6.4.6.4.4.4.7.6 4.8.5.4.6.4.4.4.7.6 (106字)

詞와 樂曲이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같은 詞調를 운용한 詞作은 時代의 先後 문제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깊은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柳永이 이미 前代의 民間에 사용되었던 詞調를 사용하여 填詞한 사실은 우선 여타 일반 文人階層의 詞人들보다 훨씬 더 民間의 氣息에 가까이 접하였음을 示唆해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점은 특히 그가 民間에서 지은 바 있는 慢詞와 동일한 詞牌를 역시 사용한 데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 10. 〈拜新月〉 2首

唐 教坊曲名. 이 調는 《詞譜》에 唐人 李端의 單調 20字體만 수록되어 있으나, 《雲謠集》에서는 2수가 모두 쌍조 84字로 字數는 같다. 그러나 같은 字數의 詞라 하더라도 그 句法은 前段에 字句가 엇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相異한 것이다.

제1수 : 5. 7. 5. 5. 4. 7. 4. 6    5. 6. 4. 4. 4. 4. 5. 5. 4 (84字)

제2수 : 5. 7. 5. 6. 4. 5. 5. 6    6. 7. 3. 7. 5. 5. 5. 3 (84字)

이러한 體는 《詞譜》에 收載된 것과는 우선 字數에 있어 엄청난 차이도 보여 주고 있다.

#### 11. 〈拋球樂〉 2首

唐 教坊曲名. 《詞律》에서는 單調體로 唐 劉禹錫의 30字, 五代 馮延巳의 40字體와, 雙調로 柳永 187字體 도합 3體를 실고 있으며, 《詞譜》에서는 上記 3體와 皇甫松 33字體를 합하여 모두 4體를 수록하고 있다. 《雲謠集》에서는 제 1수가 40字, 제 2수가 42字로 모두 單調이며, 2首 간의 차이는 제 2수가 모두 7字 6句로 되어 있는 반면 제 1수의 第5句가 5字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제 1수는 詞譜類에 실린 馮延巳의 句法과 완전히 일치한다. 字數 뿐만 아니라 平仄, 韻, 句까지도 완전 合致하고 있다. 다음에 例示하는 詞의 本文은 《雲謠集》의 것이고 仄平과 句讀표시는 《詞譜》에 표시된 馮延巳의 것이다. (· : 句, ○ : 韻, ○ : 平, ● : 仄, ⊙ : 平이나 可仄, ⊙ : 仄이나 可平.)

#### 拋 球 樂 (其一)

●●○○○●●○ ○○○●●○○○ ○○○●●○○● ●●●●  
 珠淚芬芬濕綺羅。少年公子負恩多。當初姊姊分明道，莫把眞  
 ○●●○ ○●○○●● ○●○○○●○○  
 心過與他。子細思量著，淡薄知聞解好麼。

後代의 馮延巳가 民間詞를 이와 같이 그대로 踏襲 沿用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것은 아마도 民間詞의 影響을 文人詞에 서도 입고 있었던 것을 보여 주는 一端의 좋은 例가 아닐까 한다.

#### 12. 〈魚歌子〉 2首

唐 教坊曲名. 詞譜類에는 〈漁歌子〉라 되어 있다. 《雲謠集》의 本調 제 1수와 제 2수는 각각 52字와 50字의 쌍조체로 다음과 같이 字數에 있어 조그마한 차이 밖에 없다.

제1수 : 3.3.8.3.3.6 3.4.7.3.3.6 (52字)

제2수 : 3.3.7.3.3.6 3.3.7.3.3.6 (50字)

《詞律》에서 2체, 《詞譜》에서 6체를 수록하고 있는데 27字의 단조체가 많고, 《雲謠集》의 本調와 비슷한 것은 《詞譜》의 五代 孫光憲의 쌍조 50字 2體이다. 孫光憲의 詞 2體는 前後段이 모두 3·3·6의 字數와 仄韻으로 끝나는 것이 《雲謠集》에서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도 民間詞의 殘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 13. 〈喜秋天〉 2首

唐 教坊曲名の 하나이지만 詞譜類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雲謠集》에만 사용된 詞調이다. 前·後段이 각각 5.5.7.5로 2首 모두 句法이 꼭 같다.

### Ⅲ. 雲謠詞調의 特性和 意義

위와 같이 雲謠詞 13調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서 얻어진 《雲謠集》에서 사용된 詞調의 몇 가지 特性和 意義를 詞譜類 文獻의 問題點과 결하여 종합해 보기로 한다.

雲謠詞 13調 중에서 거의가 唐 教坊曲名과 일치하는 詞牌를 쓰고 있고, 教坊曲名이 아닌 것은 〈內家嬌〉 1調 뿐이다. 이로 보아 民間詞는 어떻게 唐代 教坊의 樂曲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雲謠詞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같은 詞調를 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字數가 다르고 句法 물론 다른 수가 많다. 설혹 字數가 일치하는 경우라도 실제 句法에 있어서는 相違를 보이는 수가 많다. 이것은 民間에서 詞調에 동반되는 樂曲에 따라 填詞할 때, 文人詞처럼 엄격한 句法에 얽매이지 않고 字句의 운용에 있어 융통성을 매우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었음

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雲謠集》의 詞調 중 詞譜類에 전혀 이름조차 실려 있지 않은 것이 〈竹枝子〉·〈柳青娘〉·〈喜秋天〉의 3調가 있다. 이들은 敦煌曲 가운데서도 《雲謠集》에서만 발견되는 詞調이다. 이처럼 이들 詞調가 詞譜類에 전혀 수록되지 않은 사실은, 이 3調가 《雲謠集》에서 사용된 이후 文人詞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消失되어 버리고 만 것을 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詞譜類에서 文人詞의 詞調는 거의 망라해 놓고 있으면서도 同調를 사용한 民間詞의 여러 독특한 體式은 거의 전혀 간과해 버리고 수록하지 않은 것은, 완벽에 가까운 詞譜類의 文獻들이 출현한 清代에 까지도 民間詞의 存在 여부를 가망치 못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詞譜類에 실린 後代人, 특히 五代·北宋 初期의 馮延巳·晏殊·張先 등이 사용한 詞調에 이들보다 앞선 시대의 民間詞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文人詞에서는 간혹 民間詞에서 사용된 바 있는 詞調를 답습하고 있었다는 흔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흔적은 北宋 初期의 柳永이 民間詞에서 이미 사용한 〈傾杯樂〉·〈內家嬌〉 등 100字가 넘는 同調의 詞牌를 사용하여 그 역시 慢詞를 지은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未盡한 문제가 많겠기로 《雲謠集》 詞牌의 問題는 차후에 다른 지면을 빌어 좀 더 精細하게 다루고자 한다.

#### 四. 雲謠詞의 內容

##### I. 前人的 見解

敦煌曲은 일반적으로 唐·五代의 初期 文人詞의 內容과 비교하여 그 取材範圍나 表現領域이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王重民은 이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여기 수집된 것에는 邊客遊子の 呻吟, 忠臣·義士의 壯語, 隱君子的 怡情悅志, 少年學子の 熱望과 失望, 그리고 佛子の 讚頌, 醫師의 歌訣이 詞調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閨情과 花柳를 말한 것은(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 훌륭한 작품은 飛卿에 대적하고 端已와 비견하기에 족한 것이다. 「生死大唐好」(獻忠心)·「只

恨隔蕃部, 情懇難申吐, 早晚滅狼蕃, 一齊拜聖顏」(菩薩蠻) 등 句에서는 진실로 이미 外族 통치하에 있던 敦煌人民의 愛國의 장렬한 歌聲을 불러 내었으니 溫飛卿·韋端己 무리의 文人學士가 절대로 체득할 수 있는 바나 말해 낼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이것은 王氏가 彙輯한 《敦煌曲子詞集》의 詞 161首를 대상으로 內容을 개략하여 말한 것이다. 任二北은 그의 《敦煌曲校錄》에서 敦煌曲 545首를 수록하고 다시 《敦煌曲初探》에서 이들 敦煌曲에 관련된 문제들을 파헤치면서 그 內容을 다음의 20類로 분류한 바 있다.<sup>18)</sup> (類別 뒤의 숫자는 篇數임)

- ① 疾苦 5 ② 怨思 36 ③ 別離 3 ④ 旅容 10 ⑤ 感慨 6 ⑥ 隱逸 5 ⑦ 愛情 23 ⑧ 伎情 17 ⑨ 閑情 15 ⑩ 志願 23 ⑪ 豪俠 4 ⑫ 勇武 5 ⑬ 頌揚 25 ⑭ 醫 3 ⑮ 道 2 ⑯ 佛 298 ⑰ 人生 21 ⑱ 勸學 5 ⑲ 勸孝 34 ⑳ 雜俎 5

이렇게 보면 敦煌曲에서 다른 素材나 內容은 매우 넓어 다루지 아니한 영역이 없을 정도이다. 唐·五代의 文人詞가 대체로 綺羅香澤에 에워싸여 脂香粉氣에 충만한 情調를 表現에 국한된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雲謠集》은 敦煌曲의 일부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를 대표하는 詞集은 아니다. 그 수록작품의 편수로 보아 敦煌曲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內容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龍沐勛은 《雲謠集》의 內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0首 가운데서 병정가는 남편(征夫)이 먼 길 떠나감을 원망하고, 빈 구방을 홀로 지키는 심정을 읊은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 역시 일반적인 兒女相思의 詞로서, 憂生念亂의 情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하등의 高尚

17) 王重民《敦煌曲子詞集》〈敘錄〉p.17. :「今茲所獲有邊客遊子之呻吟, 忠臣義士之壯語, 隱君子之怡情悅志, 少年學子之熱望與失望, 以及佛子之讚頌, 醫生之歌訣, 莫不入調. 其言閨情與花柳者, 尚不及半, 然其善者足以抗衡飛卿, 比肩端己. 至於『生死大唐好』, 『只恨隔蕃部, 情懇難申吐, 早晚滅狼蕃, 一齊拜聖顏』等句, 則真已唱出外族統治下敦煌人民的愛國壯烈歌聲, 絕非溫飛卿·韋端己輩文人學士所能領會, 所能道出者矣!」

18) 任二北 前揭書, p.267 參照,

한 사상 역시 표현되어 있지 않다.<sup>19)</sup>

龍氏는 또 그의 《中國韻文史》에서

이 類(《鳳歸雲》을 가리킴)의 작품은 《雲謠集》 가운데서 점하고 있는 成分이 가장 많다. 나머지는 男女思慕의 情을 서술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嬌態之語를 짓기도 하여 대부분이 普遍的 情感을 읊은 것으로, 당시 민중이 쉬 이해한 歌曲이었다.<sup>20)</sup>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敦煌曲初探》에서 唐圭璋 《雲謠集雜曲子校釋》을 인용하여,

그 가운데는 征夫를 그리워하는 詞가 있기도 하고 蕩子를 원망하는 詞도 있고 怨情을 묘사한 詞도 있다. 《花間集》·《尊前集》의 내용과 서로 비교하여도 별다른 점이 없다.<sup>21)</sup>

라 하고 있다. 이들 諸氏의 雲謠詞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일견 女性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 心思나 姿態를 나타낸 閨情類에 가까운 작품에 거의 전부가 속해 있다고 단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雲謠詞는 대부분은 任氏의 분류로 따지자면 怨思나 愛情類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花間》·《尊前》兩集과 내용의 성질이 거의 동일하다는 견해도 보이는 것은, 雲謠詞 내용의 이러한 성격을 더욱 잘 짐작케 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여러 지적이 일단 사실과는 거리가 그리 멀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雲謠詞가 표현하는 내용은 敦煌曲 전체에서 보이는 표현범위 중 극히 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사 雲謠詞가 閨情類 주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 볼 필요는 있는 것이며, 그들이 앞에서와 같은 諸氏의 언급과 얼마나

19) 龍沐勛 〈詞體之演進〉(《詞學季刊》創刊號): 「三十首中, 除怨征夫遠去, 獨守空閨之作外, 其他亦爲一般兒女相思之詞, 無憂生念亂之情, 亦無何能高尚思想。」

20) 龍沐勛 《中國韻文史》 p. 111: 「此類作品, 在全集中所佔成分最多; 餘或述男女思慕之情, 或作一般嬌態之語, 大率皆普遍情感, 爲當時民衆易瞭解之歌曲。」

21) 任二北 前揭書, pp. 266~267.: 「其間或有懷念征夫之詞, 有怨恨蕩子之詞, 有描寫怨情之詞; 與《花間》《尊前》之內容相較, 亦無二致。」



일치하는가 혹은 차이가 있는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에 筆者의 판단에 따라 雲謠詞를 새로 크게 3項으로 나누고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詞 본문은 潘重規《敦煌雲謠集新書》에 따르고 句(·)와 韻(○)은 부분에 따라서는 筆者가 재차 校勘하여 改正한 것임을 附記해 둔다.

## II. 「征人」과 「蕩子」에 관련된 怨思

《雲謠集》 30首 가운데 「征人」을 소재로 하여 다룬 작품이 의외로 많다. 이는 모두 8首에 이르는데, 이들은 거의가 변방의 싸움터로 징발되어 떠난 남편을 원망하고 그리는 여성의 처연한 心思를 묘사한 것이나, 개중에는 〈破陣子〉 제 2수에서처럼 戰場 주변의 景物을 대하고 부인을 그리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雲謠集》 寫卷에 「闕怨」이라 注記되어 있는 〈鳳歸雲〉 제1·2수도 실제로는 「征人」을 소재로 하고 있다. 우선 그 중 1首를 들어 보기로 한다.

### 〈鳳 歸 雲〉(其一)

征夫數載，萍寄他邦。去便無消，息累換星霜。月下愁聽砧杵，擬塞雁行行。孤眠驚帳裏，枉勞魂夢，夜夜飛颺。想君薄行，更不思量。誰爲傳書與，表妾衷腸。依牖無言垂血淚，闌祝三光。萬般無那處，一爐香盡，又更添香。

군인간 저아비 몇 해나 되도록  
부평초 신세되어 타향에서 떠돌고  
가자마자 소식은 온적도 없이  
여러 번 성상은 바뀌었다네  
달 아래 수심스레 다듬이 소리 들노라니  
줄지어 날아가는 겨울 기러기의 신세  
외로이 난새의 장막 속에서 잠을 청하노라면  
헛되이 꿈속에서 밤마다 좃구쳐 하늘을 나네

넋꺼서 박절히도 가버린걸 생각하면  
더욱 아니 그리우라  
누 편에다 편질 보내  
이 내 막을 표하리까

들창가 기대서서 말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남몰래 햇님 달님 별님에게 축원을 하며  
 아무리 하여 봐도 어쩔 순 없는 터에  
 향로 가득 향불 사그러 드니  
 다시 또 향을랑 보태고 있네

여기서 「征人」과 관련된 怨思를 읊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맨 첫 귀절 “征夫數載，萍寄他邦。”이 唯一한 단서가 될 뿐으로, 전편에 걸쳐서 이로운 女性의 원망어리고 그리움에 찬 심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洞仙歌〉 제 1 수도 이와 엇비슷하다. 이 밖에도 〈鳳歸雲〉제 4 수에서 처럼 이야기 식으로 내용을 전개시켜 가면서 後段 머리에 남편이 長征을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심을 말하는 식의 작품도 있고, 〈鳳歸雲〉 제 2 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詞의 절반에 이르는 前段의 全文을 「征人」에 결부시키고 그가 戰場에 임해서의 용감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할애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 밖에 특히 注目되는 것은 作品 중에서 남편을 전장에 떠나 보내고 시름겨워 하는 婦女의 심사가 「非戰心理」로까지 발전하여 그것을 표현한 작품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洞仙歌〉 제 2 수, 〈破陣子〉 제 3·4 수에서 볼 수 있는데, 모두 하루 빨리 번방의 오랑캐를 무찔러서 복속시키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바람을 적고 있다. 그 중 한 수를 예로들어 보기로 한다.

#### 〈破 陣 子〉(其四)

年少征夫堪恨，從軍千里餘，爲愛功名千里去，攔劍彎弓沙磧邊。拋人如斷絃。 迢遞可知閨閣，吞聲忍淚孤眠。春去春來庭樹老，早晚王師歸却還。免教心怨天。

나이 젊은 남편은 한을 참고서  
 천리보다 먼 길을 군인갔다네  
 功名을 좋아하여 천리를 가서는  
 칼차고 활을 메고 사막가를 누비려고  
 이 몸을 버리기를 줄 굶듯 하였었네

아득히 멀리서도 이곳 閨閣에서는

소리 죽여 눈물참고 외로이 자는 줄 알고야 계시겠지  
 봄 가고 또 봄와서 트락 나무 늙어지고  
 그 어느 날에 우리 군사 돌아서 와서랑은<sup>22)</sup>  
 이 내 맘 하늘을 원망하지 말게 하나

그리고 〈破陣子〉 제 3 수에서는 읊은 「非戰心理」는 “早晚三邊無事了，香被重眠比目魚。”(그 어느날 세 변방이 일 없이 되어서, 향그런 이불 피서 다시금 입과 함께 比目魚처럼 잘꺼나)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念願이 처절 하리만큼 가슴깊이 와닿음을 느낄 수 있다.

어쨌든 이 「征人」에 관련된 內容을 표현한 작품은 이들이 民間人의 손으로 쓰였고, 작자 자신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작품 속의 실제 내용과 매우 밀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읊조린 詞는 공허한 心思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實在하는 心情을 吐露한 것이기에 더 큰 共感을 느끼게 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唐末 五代의 文人詞에서는 쉬이 찾아 볼 수 없으며, 실제로 花間詞나, 尊前詞에서 「征人」과 관련된 詞作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꼭같이 女人의 怨思之情을 노래한 作品으로는 또 「蕩子」(집을 떠나 먼 곳으로 유랑하는 남편)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를 소재로 한 詞는 3 수가량이 되므로 《雲謠集》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竹枝子〉 제 1 수, 〈破陣子〉 제 1 수, 〈拜新月〉 제 1 수의 詞가 이에 속한다. 우선 그 중 한 수를 들어 보기로 한다.

#### 〈拜 新 月〉(其一)

蕩子他州去，已經新歲未還歸。堪恨情如水，到處輒狂迷。不思家國，花下遙指祝神祇。直至于今，拋妾獨守空閨。上有穹蒼在，三光也合遙知。倚裊幃坐，淚流點滴，金粟羅衣。自嗟薄命，緣業至於斯。乞求待見面，誓不辜伊。

남편은 他州로 먼길 떠나더니  
 벌써 새해인데 돌아오질 않누나  
 恨스러움 참으며 情은 여울 같은데  
 도처로 미친 듯 헤메이면서

22) 本句의 「그 어느날에」는 原詞의 「早晚」을 번역한 것이다. 「早晚」은 당시의 俗語로 「何日」의 뜻이 있다. 張相 《詩詞曲語辭匯釋》 참조.

집안을 생각잖아  
꽃아래 멀리 신령님께 빌어 보네  
줄곧 지금까지  
이품을 빈 집 홀로 지키게 버려 두었네

위에는 높푸른 하늘이 있으니  
日·月·星도 응당 멀리서 아시리라  
병풍에 기대어 앉았으려니  
눈물이 흘러서 방울방울  
국화무늬 비단옷에 떨어지누나  
스스로 한탄하느니 박명한 것을  
전생의 업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나  
계발 바라노니 만날수만 있다면  
맹세코 그대를 저러리걸 앉으련만

여기서 읊은 것은 소중한 남편을 먼길 떠나 보내고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며 자신의 신세를 탄하는 내용이다. 女人의 깊은 원망과 애타는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征人」을 소재로 한 작품의 情調와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蕩子」의 동기가 「征人」의 그것처럼 절실하지 못함으로 해서인지, 이들 작품은 모두가 다른 차원의 心態로 발전하지 못하고 평범한 怨思에 머물고 말았다. 이것이 「征人」을 다룬 것과 「蕩子」를 다룬 詞作 간의 차이라 하겠다.

### Ⅲ. 一般的인 閨怨과 思慕의 情

雲謠詞에서도 역시 가장 많이 다룬 것은 女人의 心思이다. 앞에서 살펴본 「征人」·「蕩子」에 관련된 作品들도 대부분 女人의 怨思가 무겁게 깔려 있는 것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一般的인 閨情과 思慕之情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一般的이라 함은 「征人」이나 「蕩子」가 女人의 心理背景에 깔려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唐末·五代時의 文人詞에서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은 바로 이러한 類에 속한 것들이다. 여하튼 雲謠詞에서 나타나는 女人像은 그것이 妓女일 수도 있고, 여염집의 婦人일 수도 있으며, 시집 안 간 閨秀같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內家嬌> 제 1수에서처럼 女道士일 수도 있다. 閨怨과 思慕의 情을 읊은 詞는 이같이 女人이 主人公으로 등장하고,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心態를 표현하

거나 그 客觀的인 形象을 표현하고 있지만 드물게는 〈鳳歸雲〉 제 3 수에서와 같이 男子가 직접 作品 속에 등장하여 女人에 대한 愛慕의 情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詞를 들어 보기로 한다.

〈天 仙 子〉(其一)

燕語啼時三月半。煙蘆柳枝金線亂。五陵原上有仙娥，攤歌扇。香爛漫。  
留住九華雲一片。犀玉滿頭花滿面。負妾一雙偷淚眼。淚珠若得似珍珠，粘不散。知何限。串向紅絲懸百萬。

계비가 지저키니 때는 삼월 보름쯤  
안개 싸인 벼들가지 금빛 실이 어지럽고  
五陵原엔 仙女가 歌扇을 들고 있네  
좁은 죄다 사그러지고  
하늘녘엔 조각구름 하나가 머물고 있네

犀玉은 머리에 가득 꽃일랑 얼굴 가득  
이내 몸 버릴 당해 물래 우는 두눈  
눈물구슬 만약에 진주처럼 된다면  
집어서 흘지를 말고  
얼마만큼 되던지 간에<sup>23)</sup>  
붉은 실로 꿰것이 百萬개는 될 것을

이 〈天仙子〉 詞는 本意詞이다. 여기서는 「仙娥」라는 字句를 이용하였다. 情人한테서 저버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類의 작품 속에서의 憂愁는 대체로 空虛하고 無氣力한 느낌을 주기 쉽다. 그렇기는 하나 이 作品의 前段의 叙景이나 後段의 心態를 描寫한 부분은 매우 뛰어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한 文句도 대체로 質樸하고 平易하여 唐末 五代의 文人詞에서 感知할 수 있는 길은 脂粉 냄새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男女의 思慕의 情을 읊은 作品은 그 성질상 완전히 閨怨·閨情의 큰 範圍 안에서 배어내어 독립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간혹 발견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23) 本句의 原文에 「知」는 「管」의 뜻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번역한 것임.

〈鳳 歸 雲〉(其三)

幸因今日，得覩嬌娥。眉如初月，目引橫波。素胸未消殘雪，透輕羅。  
朱含磁玉，雲髻婆娑。東隣有女，相料實難過。羅衣掩袂，行步逶迤。  
逢人問語羞無力，態嬌多。錦衣公子見，垂鞭立馬。腸斷知麼。

운종계도 오늘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다네  
눈썹은 초생달 같고  
눈길은 橫波를 끄는 것 같았다네  
흰 가슴은 殘雪이 건히지 않은듯  
얇은 비단너머로 비추이누나  
붉은 입술은 玉부스러질 머금은듯  
구름같은 머릿채 훑날리었네

동녘 이웃에 딸아이 하나  
정말로 괴롭도록 생각했다네  
비단옷 입고서 소매를 가리우고  
걸음걸이 나긋나긋  
사람들이 묻는 말엔 수줍어서 힘없는듯  
교태가 넘치기도 하여라  
錦衣 입은 公子가 이를 보고서  
채찍을 늘어뜨려 말을 세우고는  
애달아 하는 줄 알거나 할까

雲謠詞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溫飛卿 등 文人詞에서 볼 수 있는 含蓄美는 적어도 修辭的인 면에 있어서는 매우 소박한 맛을 풍기고 있다. 이점은 위에 든 雲謠詞에서 뿐만 아니라 民間詞의 대부분에 걸쳐 찾아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IV. 其他의 雲謠詞

雲謠詞 중에서 넓은 의미의 閨情類로 분류해 넣기에 곤란한, 비교적 특이한 詞는 두 首가 있다. 하나는 그 내용으로 보아 「秋思」를 읊은 것이고, 다른 한 수는 皇帝의 千壽를 祈願하는 작품이다. 우선 「秋思」의 作例로 들어보기로 한다.

〈喜 秋 天〉(其二)

芳林玉露催，花葉金風觸。永夜嚴霜萬草衰，擣練千聲促。 誰家臺榭  
菊，嘹亮宮商足。暮恨朝愁不忍聞，早晚離塵土。

꽃술은 옥이슬에 스러져가고  
꽃술엔 가을바람 스치는구나  
긴긴밤 된서리에 온갖 풀이 시들고  
다듬이질 소리소리 다급만 하다

누구네 누각의 국화 꽃일고  
맑은 노래가락 훌죽히 울려 오진만  
저녁 한탄 아침 시름 차마 듣지 못하겠네  
그 언제나 속세를 떠난단 말고

이 〈喜秋天〉詞는 끝에서 各段의 세번째 句가 7言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5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표면에 主人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全篇에는 詩에서 느낄 수 있는 霧圍氣가 감돌고 있다. 이러한 類의 詞는 雲謠詞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雅正한 作品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拜新月〉詞를 들어 보기로 하자.

〈拜 新 月〉(其二)

國泰時清晏，感賀朝列多賢士。播得羣臣美，卿感同如魚水。況當秋景，  
萸葉初敷卉。同登新樓上，仰望蟾色光超。 廻顧玉兔影媚，明鏡匣參  
差斜墜。澄波美，猶怯拍衝半鈎耳。萬家向月下，祝告深深跪。 願皇壽千  
歲，登寶位。

나라가 태평하고 시절이 맑고 평안하니  
모두다 축하하네 조정에 賢士 많다고  
피져서 못 신하를 찬미하니  
卿은 물 만난 고기처럼 감동해 하네  
하물며 秋景을 당하였으니  
명첩(萸葉) 이파리 처음으로 돌아났다네  
함께 새 누각에 올라  
우러러 바라보네 달빛의 광채를

달그림자 아름답다 돌아다 보노라니  
 明鏡匣이 돌쭈날쭈 비껴어 떨어지듯  
 맑은 물결 고운 것은  
 반쪽난 갈고리 귀를 부딪친까 겁낸 건가  
 萬家 사람들이 달 아래서  
 축도하며 길이길이 뚫어 앉아  
 원하노니 우리 임금 천년토록  
 寶位 올라 계시도록 하시옵소서

이 詞는 그 읊은 내용이 매우 특이하다. 《雲謠集》내의 本意詞 4首 중의 하나로, 새로 나온 초승달을 통하여 직설적으로 國泰民安을 구가하고 임금의 千壽를 기원하고 있다. 閨怨類에서 보이는 질은 色彩나 무거운 怨思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內容의 詞는 唐·五代詞나 宋詞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 敦煌曲의 取材範圍가 넓다는 것을 여기서도 잠시 示唆 받을 수 있다. 民間詞에서 표현한 내용이 당시의 社會相을 많이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 詞는 나라가 가장 태평하였을 때인 盛唐 이전에 지어진 것일 수도 있다.

## V. 結 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雲謠集》의 詞 30首는 모든 敦煌曲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고루 표현한 것은 아니다. 다른 《花間》·《尊前》 등의 文人詞 總集에서와 같이 《雲謠集》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약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女人이 등장하는 閨情·閨怨類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대체로 詞集의 性格이 주로 酒席·宴會 등에 있어서의 「流行歌謠歌詞集」과 같은 오락성을 띠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雲謠集》이 비록 民間詞集이라 해도 이러한 特殊性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多數의 閨怨詞의 選錄이 불가피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斷定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나 무리한 추측은 아니라 생각된다.

閨情類의 詞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그 時代의 現實, 즉 社會相이 反映되어 있는 作品이 混入되어 있다. 특히 「征人」과 관련된 婦女의 怨思를 읊은 것은 非戰心理로까지 발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을 보았다. 唐의 關도가 그 이전의 어느 경우보다도 확장되어 이를 外族으로 부터 방어하는데 많은 兵力의 동원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



로 인해 남편을 정발당한 婦人이 도처에 술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詞는 현실 반영을 읊은 作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實際性을 많이 띠고 있고, 作者가 대체로 文飾에 능하지 못한 民間이었으므로 그 표현한 文字는 전반적으로 質樸하고 直說的인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修辭上의 文雅함이나 含蓄美는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民間詞다운 特徵을 잃지 않고 있는 점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귀중한 일로 여겨진다.

## 五. 結 語

今世紀에 들어선 직 후 西方으로 반출되어간 敦煌文書 속에서 세상에서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民間詞의 寫本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일컬어 敦煌曲이라 한다. 《雲謠集》은 敦煌曲의 일부이며, 敦煌曲 중의 유일한 民間詞總集이다. 《雲謠集》은 원래 그 寫本이 둘로 나뉘어져 런던과 파리 두 곳에 散藏되어 있었던 관계로 全集의 詞 30首가 모두 알려지기 까지는 迂餘曲折을 겪어야 했다. 朱祖謀의 《彊村遺書》에서 런던본과 파리本을 合刊하여 名實相符한 《雲謠集》 30首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수록된 이래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校勘·研究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雲謠集》의 出現時期 問題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으나, 수록 詞의 創作時期는 대체로 盛唐에서 唐末 사이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며, 寫本의 筆寫時期는 五代 初인 梁·唐間으로 간주되고 있다. 文人詞總集인 《花間集》이 940년에 편찬되었고 《尊前集》이 五代 末期에서 北宋 初期에 쓰여졌다는 說이 유력한데, 그렇다면 《雲謠集》은 이들보다 제법 앞서서 출현한 것이 확실해진다. 그러나 文人詞集과 같이 系統을 이어 版本으로 流傳되어 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民間의 手鈔本의 형태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集中에 많은 文字上의 誤謬가 內在하고 있어 校勘作業에 많은 時日과 努力을 요하기도 하였다.

《雲謠集》에서 쓰여진 詞調는 모두 13調에 이른다. 그 중 1調만을 제외하고 모두 唐 教坊曲名을 답습하고 있어 雲謠詞가 教坊樂曲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았다. 같은 詞牌에 있어서도 雲謠詞에서는 各 詞가 運用한 句法이 매우 융통성이 풍부하였다. 詞譜類에 보이지 않는 詞牌의 詞가 더러 보이는데 이것들은 뒤에 완전히 失傳된 것을 뜻하며, 또한 民間詞의

존재를 후세의 詞家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증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詞譜類와의 對比에서 五代 北宋初期의 文人들이 民間曲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답습한 痕跡이 보인다. 그리고 柳永이 처음으로 慢詞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柳永이 民間과 密接한 往來를 함으로써 民間詞에 이미 사용된 慢詞의 詞調를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데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清代에 나왔던 詞譜類는 그 수록 범위를 한정해 밝히든지 아니면 民間詞에서 쓰인 詞調를 補入하든지 改正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雲謠詞에서 표현한 내용은 전 敦煌曲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 중의 적은 부분에 局限되어 있다. 鬪情類가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詞集用途의 性格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女人의 怨思나 思慕의 情을 표현함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全集에 걸쳐 民間다운 素朴·樸實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일부 時代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에서는 이들이 결코 단순히 遊戲나 享樂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雲謠集》은 現傳하는 詞集類 가운데서 確認할 수 있는 最初의 詞集으로 民間詞가 文人詞를 先導하였다는 증거를 다수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그 意義는 매우 큰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 主要 參考文獻

1. <雲謠集雜曲子>(《彊村叢書本》) 朱祖謀, 廣華書局, 香港, 1970.
2. 《敦煌雲謠集新書》, 潘重規, 石門書局, 臺北, 1977.
3. <雲謠集雜曲子>(《敦煌曲子詞集》本) 王重民, 商務印書館, 上海, 1956.
4. <雲謠集雜曲子>(《敦煌曲校錄》本) 任二北, 上海文藝聯合出版社, 上海, 1956.
5. 《敦煌曲初探》任二北, 上海文藝聯合出版社, 上海, 1954.
6. 《宋詞研究》村上哲見, 創文社, 東京, 1976.
7. 《詞學季刊》龍沐勛, 學生書局影印本, 臺北, 1967.
8. 《詞律》萬樹, 中華書局, 臺北, 1966.
9. 《詞律拾遺》徐本立(上記《詞律》合訂本)
10. 《詞律補遺》杜文瀾(上同)
11. 《詞譜》王奕清 等 聞汝賢自印本, 臺北, 1976.
12. 《詞牌彙釋》聞汝賢, 聞汝賢自印本, 臺北, 1963.
13. 《詞名索引》吳藕汀, 太平書局, 香港, 1966.

14. 《敦煌曲子詞集》王重民，商務印書館，上海，1956.
15. 《敦煌曲校錄》任二北，上海文藝聯合出版社，上海，1956.
16. 《中國文學發展史》劉大杰，古文書局，香港，1972.
17. 《中國韻文史》龍沐勛，商務印書館，上海，1934.
18. 《詩詞曲語辭滙釋》張相，中華書局，臺北，1973.
19. 《花間集試論》鄭憲哲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1979.
20. 〈花間集과 尊前集의 比較研究〉鄭憲哲《慶尙大論文集》(人文系篇)第23輯 第1號，慶尙大學校 大學院，晉州，1984.



# 蔡琰 悲憤詩考

李 在 夏\*

目 次	
一. 緒 言	3. 楚歌體와 五言體의 內容比 較
二. 生平과 處境	四. 結言
三. 作品分析	參考文獻
1. 五言體	
2. 楚歌體	

## 一. 緒 言

蔡琰은 建安(AD. 196~220)時代 唯一의 女流詩人이다. 또한 漢末 政治的 社會的 大混亂이 빚어낸 典型的인 悲劇의 主人公이다.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戰亂이 人間社會에서 떠나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는 戰亂은 無수한 變革과 悲劇을 演出시켰다. 特히 中國歷史上 漢末과 같은 多樣한 戰亂相이 展開된 것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內的으로는 宦官과 外戚의 主導權 다툼, 外的으로는 天氣를 노리는 群雄들의 割據와 洶洶해진 民心에 便乘한 宗教集團의 蜂起 및 異民族의 侵入, 이 모든 것들이 漢末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王朝末의 諸現相下에서 文學은 逆作用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中國詩歌史에 있어서 建安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建安文學을 수 놓은 作家들을 「建安七子」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지만, 女流는 오로지 蔡琰밖에 없다. 이러한 見地에서 그녀의 남다른 섬세함과 몸소 經驗한데서 오는 眞率함을 究明함은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 二. 生平과 處境

蔡琰의 字는 文姬 또는 昭姬로 陳留 圉(今 河南省 杞縣 南部)人이다. 그녀에 관한 典籍 어디에서도 나이를 밝힌 곳은 없어서 生卒年月을 알 수는 없으나, 그녀가 漢王朝의 마지막 임금 獻帝 年間に 靑壯年代를 살았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漢末 大學者 蔡邕의 女息으로 태어나서 父親의 多角的인 庇護아래 薰育되었으리라. 그녀에 관한 자세한 傳記가 없음으로 인하여 作品을 理解하는데 적지 않은 곤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後世 그녀의 作品이 口說數에 오르게 된 것도 여기에서 起因한 것이다. 이제 父親 蔡邕의 行跡을 살핀은 그녀를 理解하는데 次善策은 될 수 있으리라는 見地에서 그의 大略的인 面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蔡邕의 字는 伯喈로 그의 집안은 先祖때부터 節義清白으로 名望이 있었다.<sup>1)</sup> 그의 사람됨에 관해서는 「後漢書蔡邕列傳」을 읽어보자.

邕性篤孝，母常滯病三年，邕自非寒暑節變，未嘗解襟帶，不寢寐者七旬。母卒，廬于家側，動靜以禮。有菟馴擾其室傍，又木生連理，遠近奇之，多往觀焉。與叔父從弟同居，三世不分財，鄉黨高其義。少博學，師事太傅胡廣。好辭章·數術·天文，妙操音律。

蔡邕은 「閑居玩古，不交當世」하다가 建寧年間に 官途에 나아가 郎中을 거쳐서 議郎에 올랐으며, 熹平 4年(175)에는 古經籍의 文字에 誤謬가 많은 것을 痛恨하고 楊賜 等과 함께 六經의 文字를 整理하였다. 또한 그는 整理한 六經을 손수 비석에 새겨서 太學門 밖에 세웠는데, 이를 보러오는 자와 摹寫者로 길을 메웠다고 한다.<sup>2)</sup>

蔡邕은 初平年間 董卓 專政時 中郎將에 올랐으나 未久 初平 3年 董卓이 王允 等에 의해 살해되자 그도 連坐되어 獄死하고 말았다. 이때 그는 黥首刖足으로라도 免死하고 漢史 續成을 빌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蔡邕의 著作이 많았으나 李傕之亂에 湮滅되어 버렸고 지금 전하는 것

1) 後漢書 蔡邕列傳：「六世祖勳，好黃老，平常時爲郡令。王莽初，……攜將家屬，逃入深山，與鮑宣·卓茂等同不仕新室。父棧，亦有清白行，諡曰貞定公。」

2) 後漢書 蔡邕列傳

으로는 典制를 考訂한 「獨斷二卷」과 「蔡中郎集十卷」 및 詩·賦·銘·碑 64篇이 있을 뿐이다.<sup>3)</sup>

이와 같은 蔡邕의 至極한 孝誠과 三世不分財의 親族和睦 및 博學多識 多才多能은 그의 女息 蔡琰에게 있어서 곧바로 無言之教가 되었으리라. 그리하여 蔡琰은 남달리 多情多感하고 親族間에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學問的 素養이 상당하였으리라는 점은 自明한 사실이다. 「後漢書 列女傳」 董祀妻條에서도;

博學有才辯，又妙於音律。

이라 적고 있으며, 또한 그녀의 妙於音律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逸話가 전해지고 있다.

邕夜鼓琴，絃絕。琰曰「第二絃」邕曰「偶得之耳」故斷一絃問之，琰曰「第四絃」並不差謬。<sup>4)</sup>

蔡琰의 어린시절은 이상에서 보았듯이 꽤 좋은 環境 속에서 生氣潑刺하고 優游閑寂한 生活을 보냈다. 그러나 나이들어 가면서 그녀는 점차 悲劇的 人生의 主人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不幸은 結婚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蔡琰은 河東에 사는 衛仲道와 結婚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남편 衛氏가 죽었으며 또한 所生子女도 없었던지라 親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sup>5)</sup> 그녀가 몇살에 결혼하여 몇해 뒤에 歸寧하였으며, 結婚生活의 前末이 어떠한지는 전하는 바가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一個의 女子로서 青霜寡婦가 되고 血肉所生마저 갖지 못했음은 이미 더 없는 不幸이었다.

蔡琰의 不幸은 結婚의 失敗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漢末混亂한 政局과 不安한 現實의 渦中에 휘말려 典型的인 悲劇의 主人公으로 轉落하고 만다. 「後漢書 列女傳」 董祀妻條에;

3) 同上

4) 後漢書 列女傳 董祀妻條 註引 劉昭 幼童傳.

5) 後漢書 列女傳 董祀妻條：「適河東衛仲道，夫亡無子，歸寧于家。」

興平中，天下喪亂，文姬爲胡騎所獲，沒於南匈奴左賢王，在胡中十二年，生二子。

라 하여, 這間 12년의 流離生活를 간단히 記錄하고 있어 많은 疑問의 餘地를 남겨주고 있다. 먼저 그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胡騎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上記 傳記以外에는 어디에서도 典考할 길이 없으니, 다만 이것을 根據로 하여 당시의 狀況과 對比함으로써 推論할 수 밖에 없다.

興平(194~195)은 漢의 末王 獻帝의 初平(190~193)에 이은 두번째의 年號로, 曹操가 獻帝를 맞아 許昌에 都邑한 建安元年 直前の 漢末 最大 混亂期였다. 당시 數年間에 걸친 政局을 살펴보자.

王室의 衰亂을 틈타 野心을 품고 있던 董卓은 中平 6年(189) 靈帝가 죽고 少帝가 嗣位할 즈음 宦官과 外戚의 主導權 다툼에 便乘하여 國政을 掌握했다. 그는 곧 이어서 少帝를 廢位시키고 陳留王 協을 擁立하였으니 이가 바로 獻帝다. 相國에 오른 董卓은 食財放慾하고 殘忍不慈할 뿐만이 아니라 嚴刑을 濫用함으로써 軍隊의 紀律은 解弛해지고 백성들은 그 餘波에 시달리게 되었다. 初平元年 董卓은 渤海太守 袁紹를 비롯하여 關東各州의 群雄들이 그를 聲討하고 나서자, 獻帝를 長安으로 옮기는 한편 洛陽城을 불사르고 官民 수백만을 西行하게 하니 시체가 길에 넘칠 정도였다고 한다.

董卓이 長安에 遷都한 후에도 官民을 계속 濫殺하자 民心은 極度로 洶洶했다. 初平 3年 王允 등은 董卓의 愛將 呂布와 謀議하여 董卓을 刺殺하기에 이르렀으며, 한편 卓의 部長이었다. 李催·郭汜·張濟 등이 起兵하여 長安을 함락하고 王允 등을 殺害하자 또다시 獻帝는 軍閥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sup>6)</sup>

興平元年에서 2年 사이는 李催·郭汜·韓遂·馬騰·董承 등 軍閥들의 相爭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渦中에서 曹操는 天賦的인 機智와 能手能爛한 處世로 獻帝를 맞아 許昌에 都邑하고 中原에 어느정도나마 小康狀態를 가져다 주었다.

以上에서 漢末 大激動期였던 初平·興平年間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깊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蔡琰의 父親 蔡邕이 天下共感의 怨聲을

6) 後漢書 董卓列傳 및 三國志 董卓傳 參照.



사고 있던 董卓의 부름으로 不得已 仕途에 나아가게 된 것과<sup>7)</sup>, 董卓 死後 수년간 割據했던 李傕·郭汜 등이 興平 2년에 黃巾의 餘黨과 南匈奴에 의해서 敗退당한 사실이다.<sup>8)</sup> 이제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그녀의 入胡 경위를 假定하여 보자.

먼저 蔡琰이 結婚에 失敗하고 歸寧한 以後 어디에 있었을까? 父親 蔡邕가 董卓의 부름으로 不得已 出仕하며 長安에 머물면서 卓의 상당한 禮遇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其實 邕는 당시 朝野에서 推仰받던 大學者요 名流로서 卓을 돕는다는 것은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sup>9)</sup> 또한 琰의 집안은 代代로 大家族을 이루고 한 집에서 同居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역시 그녀는 父親의 長安 出仕에도 不拘하고 故鄉 陳留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그녀가 陳留에 살고 있었다. 했을 때 이곳 陳留는 당시 匈奴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胡騎가 미치지 않았던 곳에서 어떻게 그녀가 胡騎에 사로잡힌 몸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分明 어떤 架橋가 있었을 것이다. 漢末 戰禍에 휩싸이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만, 陳留에서의 特記할만한 戰禍는 初平 3년에 있었던 李傕·郭汜·張濟 등의 무수한 殺傷과 劫略을 들 수 있다.<sup>10)</sup>

蔡琰은 바로 이 戰亂中에 李·郭 등에 의해 사로잡혔다가, 다시 興平 2年 黃巾의 餘黨과 南匈奴에 의해서 李·郭이 敗退당할 때 南匈奴의 左賢王 去卑의 手中으로 넘어가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된다.<sup>11)</sup>

南匈奴 左賢王의 手中에 들어간 蔡琰은 수많은 掠奪民과 함께 슬한 苦痛을 겪으면서 결국 胡地에 이르러 12年間의 生活을 하게 된다. 그녀는

7) 後漢書 蔡邕列傳：「中平六年，靈帝崩，董卓爲司空，聞邕名高，辟之。稱疾不就。卓大怒，……邕不得已，到，署祭酒，甚見敬重。……三日之間，周歷三臺。……初平元年，拜左中郎將，從獻帝遷都長安，封高陽鄉侯。」

8) 後漢書 獻帝紀：「興平二年，十一月，楊奉·董承引白波帥胡才·李樂·韓暹及南匈奴左賢王去卑，率師奉迎，與李傕等戰，破之。」

9) 後漢書 蔡邕列傳：「卓重邕才學，厚相遇待……邕恨其言少從，謂從弟谷曰：『董公性剛而遂非，終難濟也。吾欲東奔兗州，若道遠難達，且遷逃山東以待之，如何？』谷曰：『君狀異恒人，每行觀者盈集。以此自匿，不亦難乎？』邕乃止。」

10) 後漢書 董卓列傳：「李傕·郭汜·張濟，將步騎數萬，擊破河南尹朱儁於中牟，因掠陳留·潁川諸縣，殺略男女，所過無復遺類。」

11) 章江 魏晉南北朝文學家 蔡琰條 參照。

여기에서 두 아들을 낳아 異域萬里의 괴로움과 歸巢心을 달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또다시 정든 血肉의 生離別과 夢寐不忘 그리워하던 歸鄉의 喜悲를 맛보게 된다. 그녀의 傳記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曹操素與邕善，痛其無嗣，乃遣使者以金璧贖之，而重嫁於祀。

蔡琰이 胡中에서 지낸 햇수가 12年이라 한다면, 그녀가 曹操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것은 建安11年頃이 된다. 이때는 이미 曹操가 獻帝를 등에 업고 諸侯를 號令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족히 그의 능력으로 胡中에 있는 그녀를 贖歸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가 平素 蔡邕와 어떠한 親分關係가 있었는지는 蔡邕의 傳記나 「三國志 武帝紀」에서도 나타난 바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생각컨대 두 사람 사이의 상당한 年齡差로<sup>12)</sup> 미루어 볼 때 벗으로서의 관계는 아니었으며, 學識과 德望을 兼備했던 蔡邕의 不遇에 대한 戀憫에서 오는 結果와, 한편 曹操가 中平6年 陳留에서 家財를 털어 義兵을 모집 董卓을 聲討하고 나섰던 바, 이때 그는 陳留의 名門 蔡邕와 往來가 있었으리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sup>13)</sup>

萬端情懷를 뿌리치고 親族을 相面하고 싶은 一念으로 歸鄉한 그녀는 親族은 찾을 길 없고 殘破된 故鄉의 모습에 傷心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曹操의 주선으로 董祀와 再婚하게 되지만 결코 幸福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 남편 董祀는 屯田都尉로 犯法 死刑을 宣告 받았고, 이때 그녀는 제 치있는 言辭로 曹操를 움직여 남편의 死刑을 면하게 하였다. 그녀는 曹操의 命에 의하여 父親 蔡邕의 四千餘卷에 달하는 文集中 四百餘卷을 외어 썼다고 한다.<sup>14)</sup>

지금까지 蔡琰의 生平과 處境을 살펴 보았다. 이제 그녀의 生平을 通觀 再考하면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幼年少女時期——名門의 女息으로 태어나 優游閑寂한 生活속에서 學

12) 蔡邕이 初平3年 董卓 死後 獄死할 때의 나이가 61세였으며, 이때 曹操는 38세로 23세의 연령차가 있다.

13) 三國志 武帝紀：「太祖至陳留，散家財，合義兵，將以誅卓。冬十二月，始起兵於己吾，是歲中平六年。」

14) 後漢書 列女傳 董祀妻條 參照.

問才藝를 익히던 시절.

初嫁歸寧時期——河東 衛仲道와 結婚하였으나 夫亡無子하여 親庭에 돌아와 살고 있었던 數年間.

被虜入胡時期——漢末 群雄割據 朝不慮夕의 大擾動期에 匈奴의 捕虜가 되어 胡地에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아 기르던 12年間.

歸鄉再嫁時期——曹操의 周旋으로 歸鄉 殘破된 故鄉의 모습에 失神, 다시 董祀와 再婚한 中・老年期.

이 가운데에서 幸福한 나날이란 幼年少女時節이 고작이고 나머지 수십 년은 不幸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한 時代의 慘憺한 社會相이 빚어낸 悲劇的 生涯의 主人公이라고 말할 수 밖에 달리 表現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그녀의 典型的 悲劇은 明代 陳與郊에 이르러 「文姬入塞」<sup>15)</sup>라는 雜劇을 낳게 하기도 하였다.

蔡琰은 자신의 崎嶇한 運命의 遭遇를 詩로 읊었다. 「後漢書 列女傳」董祀妻條에;

後感傷亂離，追懷悲憤，作詩二章。

이라고 記錄되어 있고, 이어서 五言體 一首와 楚歌體 一首가 나란히 실려 있다. 또한 이 「悲憤詩」二首 以外에 宋代 朱熹의 「楚辭後語」가운데 楚歌體와 七言體가 混合된 「胡笳十八拍」이란 長篇詩가 傳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三篇의 詩들은 모두 똑같은 內容을 읊고 있어서 그 詩篇들이 僞作이라는 疑惑을 불러일으켰고, 이밖에도 많은 部分에서 說往說來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後日로 미룬다.

### 三. 作品分析

#### 1. 五言體

漢末 建安時代(196~220)에 이르러서 中國의 詩體는 五言의 確立을 이룩한다. 당시의 文士들은 끊임없이 樂府古詞를 改作하여 五言體의 詩型을 確立시키기에 이르렀으며, 한편으로는 朝不慮夕의 混亂한 政治的 社會的

15) 陳與郊의 「文姬入塞」·「昭君入塞」는 一本四折의 元劇과는 달리 一折로만 되어 있다.

不安속에서 生成된 多様な 詩의 素材로 말미암아 豊富한 內容도 함께 다루어지게 되었다.

通常 五言體의 「悲憤詩」는 「孔雀東南飛」와 함께 建安時代 長篇 敘事詩의 雙璧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中國詩歌의 大部分은 民間으로 부터 發源한 것들이다. 國風이 그러했고 樂府가 그러했으며 五言詩가 그러했다. 民間으로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그들의 純粹한 感情을 노래한 抒情詩가 大多數이고 敘事詩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敘事詩는 抒情詩와는 달리 多様な 內容과 豊富한 想像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篇幅도 길어지고 따라서 作家의 詩의 手腕도 뛰어나야 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蔡琰의 「悲憤詩」는 文義의 成就 못지 않게 詩歌發展上의 貢獻에 있어서도 그 文學的 價値가 至大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蔡琰의 「悲憤詩」 가운데 五言體 一首는 그 內容面에서 다음과 같이 三章으로 大分할 수 있다.

「漢季失權柄，董卓亂天常。」에서 「彼蒼者何辜，乃遭此虐禍。」까지 40句 200字.

「邊荒與華異，人俗少義理。」에서 「觀者皆歎歎，行路亦嗚咽。」까지 40句 200字.

「去去割情戀，邇征日遐邁。」에서 마지막 「人生幾何時，懷憂終年歲。」까지 28句 140字.

이제 理解를 于先한 側面에서 各章을 다시 몇개의 小節로 나누어 鑑賞한다.

### 〈第一章〉

#### (其一)

漢季失權柄	한말 왕권 쇠미하자
董卓亂天常	동탁 천기를 어지럽히고,
志欲圖篡弑	찬탈과 시해 이루고자
先害諸賢良	어진 신하들 죽이는고야.
逼迫遷舊邦	만백성 쫓박하여 장안으로 천도하며
擁王以自強	새 왕 옹립하여 제힘만 기르누나.
海內興義師	천하에 군웅들 봉기하여
欲共討不祥	모두 동탁의 무리 성토코자.

卓來來東下	동탁의 무리 동으로 올제
金甲耀日光	갑옷은 햇살에 눈부시다.
平土人脆弱	평원의 군사야 오합지졸
來兵皆胡羌	오랑캐의 병정들 날새기 그지없어
獵野圍城邑	휘몰아치듯 성을 포위하니
所向悉破亡	가는곳마다 거칠것이 없네그러.

여기에서는 당시의 政局과 群雄蜂起 및 軍事活動 現狀을 詠史詩의 手法으로 描寫하고 있다. 前章에서 이미 漢末 初平・興平年間の 大略的인 狀況을 살펴보았으므로 本詩의 內容은 쉽게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本詩 序頭의 「漢季失權柄」이란 文句는 疑問의 餘地를 內包하고 있어, 終局에는 僞作 是非의 發端이 되었다.<sup>16)</sup>

「漢季」의 「季」는 分明 「末」의 意味로 解釋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蔡琰이 망하지도 않은 漢帝國을 亡國으로 斷定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녀의 傳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녀가 興平中에 入胡하여 12年 뒤에 歸鄉이었으니 그 해는 建安 11年 前後가 된다. 漢帝國이 魏 曹丕에 의해 終息을 곱하게 된 것은 建安 25年이었으니 역시 상당한 時間差가 생긴다. 그러므로 本詩는 魏代나 또는 魏代以後 晉代의 詩人에 의해 假託된 것으로 推算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時間的 問題는 蔡琰이 魏代까지 生存하여 老年에 作詩하였다면, 肯定的인 方向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餘地도 看過할 수는 없다.

(其二)

斬截無子遺	사람의 씨를 말리렘인가
尸骸相撐拒	시체와 해골들은 어둥바둥.
馬邊懸男頭	말안장엔 남정네들 머리통이 열렸고
馬後載婦女	말 뒤엔 부녀자가 끌려가누나.
長驅西入關	얼마나 걸었던가 함곡관을 넘어서니
廻路險且阻	굽이 굽이 험난도 하다.
還顧望冥冥	오던길 돌아볼제 까마득
肝脾爲爛腐	애간장이 녹아나네.
所略有萬計	포로들 만명에 가까웁전단

16) 張敬文, 中國詩歌史, p.60 · 黃永武, 中國詩學 考據篇 p.189 · 鄭篤, 中國俗文學史 p.66 參照.

不得命屯聚	용기종기 모이지도 못하구요
或有骨肉俱	그중에는 부모처자 같은 신세편만
欲言不敢語	서로 말 건네고파도 말할 수도 없었대요.
失意幾微間	어찌 틈을 보아 한마디 할 양이던
輒言鸚鵡虜	어느새 눈치채고 하는 말좀보소!
要當以庖刃	「요놈에 처죽일 놈들아!
我曹不活汝	이 칼날 맛을 봐야 알겠느냐?」

戰禍의 慘狀을 이보다 더 赤裸裸하게 表現한 詩도 없을 것이다. 하기가 蔡琰과 同時代人인 曹操의 詩「蒿里」에서「鎧甲生蟻蝨，萬姓以死亡。白骨露於野，千里無雞鳴。生民百遺一，念之斷人腸。」(투구 갑옷에는 이가 슬고만 백성 죽어만 가네. 백골은 들판에 나뒹굴고, 천리엔 닭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산 백성이란 백에 하나쯤, 이를 생각하니 애간장이 끊어지네.)<sup>17)</sup>라고 읊은 적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有位者의 色彩가 加味된 것이어서, 역시 本詩와 같은 당사자의 실음과는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이다.

軍兵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시체는 쌓이고, 戰功을 위한 濫殺에는 良民이 大多數였을 것이다. 말안장에는 남자들의 首級을 매어 달고 말 뒤엔 婦女子들을 끌고 갔으니, 이들 婦女들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복이 그 말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을까? 만명에 가까운 포로들 가운데에는 한 집안 식구들도 있어서 서로 말 한마디라도 할 양이던, 서술이 퍼래서 죽인다고 고탈치는 잠시병 앞에 벌벌떠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人間의 물결은 아니었을 것이다.

(其三)

豈敢惜性命	이 한 목숨이야 아까울게 뭐냐마는
不堪其詈罵	차마 그 욕지거리야 견디기 어렵구나.
或便加極杖	어찌다 채찍에 맞고나면
毒痛參丑下	장독(杖毒)은 그 얼마나 심했던고.
旦則號泣行	날이 새면 흐느끼며 걸어가고
夜則悲吟坐	밤이 오면 서러움에 지새우네.
欲死不能得	죽자니 청춘이요

17) 李在夏, 曹操詩考, 釜山産業大學 論文集, 1983, p.251 參照.

欲生無一可    살자니 헤어날 구멍 하나 없소그려.  
 彼蒼者何辜    저 하늘도 무심하지  
 乃遭此厄禍    어찌하여 이런 재앙 내리셨나요.

심한 채찍에 杖毒은 뱀골에 스며들고, 밤이면 슬픔으로 지새다가 날이  
 새면 또다시 胡地로 향하는 被虜者들의 行列.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자 해도 앞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도 이미 自然現象으로서  
 의 그것일뿐 人間萬事 天地萬物의 主宰者로서의 그것은 아니었다.

## 〈第二章〉

### (其一)

邊荒與華異    변방 오락개 중화와 같을손가  
 人俗少義理    습속에 의리라곤 쥐꼬리타.  
 處所多霜雪    눈서리 겨울은 마냥 길고  
 胡風春夏起    봄 여름에도 북풍이 부누나.  
 翩翩吹我衣    옷깃은 필렁 필렁  
 蕭蕭入我耳    컷가엔 윙윙 바람소리뿐.  
 感時念父母    날씨 차가울제 부모님 품이 그리워  
 哀歎無終已    한숨은 끝이 없구료.

第一章에서는 漢末 混亂한 政治狀況과 그녀가 胡騎의 捕虜가 되어 入胡  
 經路의 慘狀을 읊은 것이라면, 여기 第二章 一節에서는 胡地에 이르러서  
 의 生活을 그려주고 있다.

胡地의 氣候는 中原과는 달라 바람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겨울이 유난  
 히 길었다. 그러나 이러한 氣候條件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風俗과 習  
 慣이 低級한 것은 견뎌내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名門의 女息으로  
 禮儀範節과 學問才藝가 몸에 배어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 胡地의 삭막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여기 「感時念父母, 哀嘆無終已」의 文句를 들어서 蔡琰이 父歿 以前에  
 胡騎에 사로잡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sup>18)</sup>, 이것은 現在의 狀況이라가  
 보다는 過去回想으로 봄이 妥當할 것 같다.

18) 章江 魏晉南北朝文學家 蔡琰條.

(其二)

有客從外來      멀리에서 은 손 있다기에  
聞之常歡喜      얼마나 기뻐했던고  
迎問其消息      맞아서 소식이나 물올라치면  
輒復非鄉里      고향녘 사람은 아니르고,  
邂逅徵時顯      천만뜻밖 소원 이루다니  
骨肉來迎己      이 몸 맞으러 올게 부모라도 만난듯.  
已得自解免      이미 이 몸은 풀렸으나  
當復棄兒子      이제 어린 자식 버려야 하다니.  
天屬綴人心      천륜지정(天倫之情)에 매인 마음  
念別無會期      이제 이별하면 만날 기약 없으리라.  
存亡永乖隔      한평생 영원한 이별일려니  
不忍與之辭      차마 이 말만은 못하겠구료.  
兒前抱我頸      아이들은 내 목 끌어안고  
問母欲何之      「엄마 엄마 어디로 가시려오?  
人言母當去      사람들이 말하던걸, 엄마는 여축없이 갈꺼라고!  
豈復有還時      다시 오진 못하겠지요?  
阿母常仁側      엄마는 지금껏 그렇게 자상도 하시더니  
今何更不慈      이제 어인일로 이다지 박정하다요?  
我尚未成人      저희들 아직도 어린애이건만  
奈何不顧思      어찌하여 돌보려하지 않으시나요?」  
見此崩五內      이를 보니 오장육부 무너지고  
恍惚生狂癡      눈앞이 아찔 캄캄 미치는듯 하구료.  
號呼手撫摩      통곡으로 손을 부여잡고  
當發復回疑      머뭇 머뭇 떠나기 어렵고야.

蔡琰의 胡中生活 12년에 대해서는 아들 둘이 있었다는 사실뿐이지 또다른 사실은 전하지 않는다. 아들 둘이 있었다는 사실때문에 그녀가 南匈奴의 左賢王과 結婚하였다는 말도 생겨났을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牽強附會다. 어찌됐든 그녀는 胡中生活 12년동안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시름을 달랠던 것은 기정사실이다.

他地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고향녘 사람이나 아닐까 하는 바람에서 마음 조렸던 그녀에게, 뜻밖에도 曹操의 주선에 힘입어 歸鄉할 수

19) 車相轅, 中國文學史, p. 145.



있는 제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所生子女에 대한 天倫之情은 그녀를 더욱 悲劇的인 女人으로 끌어들였다. 여기에서 母子別離의 痛切함은 杜甫의 「兵車行」에서 보는 「耶孃妻子走相送，塵埃不見咸陽橋。牽衣頓足攔道哭，哭聲直上干雲霄。」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生動感이 넘치고 있다.

(其三)

兼有同時輩	나랑 같이 끌려왔던 정년어들
相送告離別	이별이 싫다고들
慕我獨得歸	나 홀로 돌아감을 부러워 하더니만
哀叫聲摧裂	목이 네인 울음소리 찢어지는듯.
馬爲立踟躕	말도 서서 히터못거리고
車爲不轉轍	수레도 나아갈 줄 모르네.
觀者皆歔歔	구경꾼들 모두 흠쩍흠쩍
行路亦嗚咽	길쌌은 울음바다.

여기에서는 같이 胡中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不幸을 代辯해 주고 있다. 그녀가 홀로 故鄉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부러워하는 그들의 눈망울에서, 胡地生活의 萬端辛苦와 피끓는 思鄉心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被虜者들의 설움은 결국 歔歔와 嗚咽로 蔡琰의 발길을 적시게 하고 있다.

<第三章>

(其一)

去去割情戀	갈수록 애절함은 사무치고
邁征日遄邁	날로 멀어져만 가누나.
悠悠三千里	머나먼 삼천리 길
何時復交會	어느날사 다시 볼까.
念我出腹子	내몸에 태출 이은 자식 생각하니
胸臆爲摧敗	가슴이 베어지누나.

第三章 一節에서는 萬端情懷를 뿌리치고 정든 고향을 보고픈 一念으로 발길을 재촉하지만, 역시 親生血肉의 母情은 앞선핏줄보다는 진한것임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其二)

既至家人盡	집에 이르고 보니 집안 식구 혼적없고
又復無中外	내외종 정답던 사촌들도 간곳없네.
城郭爲山林	성곽은 무너져 숲이 우거졌고
庭宇生荆艾	뜰과 지붕엔 가시덤불 쑥대만 더부룩.
白骨不知誰	그 누구의 백골이런가
從橫莫覆蓋	여기저기 나뒹굴고
出門無人聲	문 나서니 인적은 자취도 없고
豺狼嘯且吠	승냥이 이리때만 짖어엘뿐.
愴愴對孤景	외로울사 처량한 내 그림자
怛唵糜肝肺	슬픔에 애간장이 무너지네.
登高遠眺望	언덕에 올라 고향산천 굽어볼제
魂神忽飛逝	넋이 훌연 스러지네.
奄若壽明盡	이 한 목숨 다하는듯하건만
傍人相寬大	주위에선 모두 잊으라시네.
爲復彊視息	억지로라마 살려한들
雖生何聊賴	무엇을 믿고 산단말인가.

蔡琰의 마지막 希望은 故郷에 돌아와서 這間의 쌓이고 맺힌 온갖 懷抱를 泣訴나마 할 수 있는 親戚 및 사람이였다. 그녀는 이 念願을 위해서 親生血肉의 情理마저 버릴 수 있는 果敢性을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바람은 虛脫과 失神으로 이어졌다.

夢寐不忘 그리워했던 親戚은 하나도 찾을 길 없고, 쑥대만 우거진 옛집에는 임자없는 白骨이 나뒹굴고, 문밖에는 들짐승만 울어대는 광경을 마주한 그녀는 天崩地壞의 아찔함을 느꼈으리라. 이러한 그녀에게 사람들이 위로한다한들 귀에 들어올리가 없었다.

(其三)

託命於新人	새사람에게 이내몸 맡겨
竭心自劬勵	정성 다하여 힘쓴다한들
流離成鄙賤	떠돌다가 비천도 함께 하였으니
常恐復捐廢	또다시 버림될까 두렵고야.
人生幾何時	살면 얼마나 산다오
懷憂終年歲	시름 안고 죽어가리라.

蔡琰이 曹操의 周旋으로 董祀와 再婚하였으며, 남편 董祀가 犯法當死의 地境에서 그녀의 諫求로 幸免하였다함은 이미 살펴보았거니와, 그녀가 再婚한 것은 本詩의 表現 그대로 「託命」에 不過한 것이지 결코 琴瑟和諧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 2. 楚歌體

中國詩歌에서 五言詩가 比較的 自由로운 形式의 民歌風 樂府詩들이 차츰 定型化하여 된 것이라면, 七言詩는 「楚辭」나 楚歌로 부터 發生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20)</sup> 이러한 見地에서 蔡琰의 「悲憤詩」中 楚歌體 一首는 七言詩 確立에 있어서 다른 여러 作家들의 詩歌와 함께 架橋的 役割과 나아가서는 先聲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漢代에는 楚歌體 詩들이 상당히 流行하고 있었다. 漢高祖 劉邦의 「大風歌」<sup>21)</sup>나 楚霸王 項羽의 「垓下歌」<sup>22)</sup>를 비롯하여, 漢武帝 劉徹의 「秋風辭」· 劉細君的 「悲愁歌」<sup>23)</sup>· 張衡의 「四愁詩」· 蔡邕의 「琴歌」<sup>24)</sup> 등은 그 代表的인 것들이다. 더군다나 이 楚歌體는 賦와도 같은 淵源을 이루고 있는 바, 漢代는 賦가 樂府와 함께 文學의 兩大主流를 形成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 流行의 形局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蔡琰의 「悲憤詩」가운데 楚歌體 一首는 이러한 漢代의 詩風과 相合하고 또한 父親 蔡邕는 漢末 有名한 辭賦家였으니, 그녀가 楚歌體 詩를 지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sup>25)</sup>

楚歌體 一首는 그 內容上 三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한장 한장 감상해 보기로 한다.

20)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p.63.

21)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22)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騷不逝. 騷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23) 吾家嫁我兮天一方, 遠託異國兮烏孫王. 穹廬爲室兮氈爲牆. 以肉爲食兮酪爲漿. 居常土思兮心內傷. 願爲黃鵠兮歸故鄉.

24) 練余心兮受太清. 滌穢濁兮存正靈. 和液暢兮神氣寧. 情志泊兮心亭亭. 嗜欲息兮無由生. 躡宇宙而遺俗兮. 眇翩翩而獨征.

25) 特別 蔡邕의 「琴歌」가 楚歌體임도 注目해야 한다.

〈第一章〉

嗟薄祐<sup>26)</sup>兮遭世患  
宗族殄兮門戶單  
身執略兮入西關  
歷險阻兮之羌蠻  
山谷眇兮路漫漫  
眷東顧兮但悲歎  
冥當寢兮不能安  
饑當食兮不能餐  
常流涕兮皆不乾  
薄志節兮念死難  
雖苟活兮無形顏

아! 박복한 이내몸 난세를 만나  
일가친척 어디갔나 문호도 옛말일세.  
이 몸 사로잡혀 함곡관을 지나서  
험한 길 넘고 건너 오랑캐 땅으로.  
산골짜기 끝이 없어 길은 아득도 한때  
동녘 고향산천 돌아보며 한숨 지울뿐.  
밤이 되어 잔다지만 잠은 오지않고  
허기져 먹고파도 넘어가지 않는구료.  
하염없는 눈물에 눈자위 마를날 없고  
지조마저 앞단말가 죽기도 어렵고야.  
비록 구차하게 살자하니 꼴이 아니로세.

第一章 11句 77字에서는 匈奴의 捕虜가 되어 入胡하는 과정의 辛苦를 읊고 있다. 여기에서 7,8句의 「冥當寢兮不能安, 饑當食兮不能餐.」은 單純히 環境의 急激한 變化에서 오는 寢食의 고충을 벗어나 言外에 無盡한 泣訴가 깔려 있으며, 9句의 表現된 눈물방울은 앞날의 不幸마저도 豫告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26) 「祐」는 「後漢書」에는 「祐」로 쓰여 있으나 沈欽韓의 「後漢書疏證」에서는 「祐」로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馮惟訥의 「詩紀」에는 「祐」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沈氏와 馮氏를 따른다.

〈第二章〉

惟彼方兮遠陽精  
陰氣凝兮雪夏零  
沙漠壑兮塵冥冥  
有草木兮春不榮  
人似禽兮食臭腥  
言兒離兮狀窈停  
歲聿暮兮時邁征  
夜悠長兮禁門扃  
不能寐兮起屏營  
登胡殿兮臨廣庭  
玄雲合兮翳月星  
北風厲兮肅冷冷  
胡笳動兮邊馬鳴  
孤雁歸兮聲嚶嚶  
樂人興兮彈琴箏  
音相和兮悲且清  
心吐思兮胸憤盈  
欲舒氣兮恐彼驚  
含哀咽兮涕沾頰

이곳은 자연의 생기마저 없는 곳  
음산함은 영기어 여름에도 눈발이 드는고야.  
사막이란 사막해 흙먼지 자욱하고  
초목이 있다면들 봄이 와도 화사하지 않는걸.  
사람들도 짐승마냥 냄새나고 비린음식 즐겨 먹고  
말도 반병어리 모습은 어둡고 더부룩하다.  
한해도 저물고 시간은 흘러만 가니  
밤은 더욱 길어지고 금분 굳게 잠졌어라.  
잠 못 이루고 일어나 서성거리다  
전각에 올라 넓은 뜰에 나서보니  
먹구름은 물려와 달빛 별빛 가리누나.  
삭풍은 드세 살을 에이는데  
들려오는 호가소리에 말 울음소리 처량코야.  
작 잃은 외기러기 끼룩 끼룩

어느 악사의 거문고와 정쟁이 소리런가  
 그 소리 어우어져 씹고도 구슬픈데  
 마음에 맺힌 시름 가슴이 베이누나,  
 한숨이 드높다간 저가 놀랄까 두려워서  
 흐느낌 감추려니 눈물은 목줄기를 타고 내리네.

第二章 19句 133字는 그녀의 胡地生活을 읊고 있다. 胡地の 陰散한 氣候와 흙먼지는 草木의 싱싱함마저 구경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람들의 強暴한 性質과 食生活의 粗雜함 및 言語의 生疎함은 그녀로 하여금 異邦人으로서의 共感帶를 形成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불붙는 思鄉心을 더욱 부채질 해줄 뿐이었다.

蔡琰이 胡地에서 누구와 인연을 맺었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本章의 內容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어느 정도 지체가 있는 집에 小室쯤이 아니었나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舍房 相對가 누구였건간에 그녀의 목줄기를 타고 내리는 悲愁는 달랠 수가 없었을 것이다.

### 〈第三章〉

家既迎兮當歸寧  
 臨長路兮捐所生  
 兒呼母兮啼失聲  
 我掩耳兮不忍聽  
 迫持我兮走蒼蒼  
 頓復起兮毀顏形  
 還顧之兮破人情  
 心攬絕兮死復生

고향의 부름 아니갈 수는 없겠지만  
 떠남이 닥쳐 어린 자식 버려야만하다니.  
 귀여운 내 새끼들 얼마나 부르다 목이 베었고  
 이 내 몸 차마 들을 수 없어 귀를 막노라.  
 가기를 재촉하니 더욱 처량하고  
 일어지고 넘어지고 얼굴은 눈물범벅.  
 인간정리 깨어짐을 생각하니  
 마음은 혼비백산 이승인가 저승인가.

楚歌體의 마지막 한장 8句 56字는 胡地를 떠나올 때의 悲憤情緒를 읊은 것으로, 그녀의 悽絕함이 極度에 이르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蔡琰의 性格은 沈著하고 條理整然하였으며 理智的이었음을 그의 生涯나 詩文에서 느낄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난 그녀의 感情의 暴發은 理性을 잃은 狂婦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다. 또한 本詩에서는 역시 質朴한 詩句에 나타난 女人다운 섬세함과 多情多感함이 풍기고 있다.

楚歌體 一首는 여기에서 끝을 맺고 있는데, 그녀의 生平에서 보았듯이 그녀의 歸鄉以後의 內容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考究토록 하겠거니와 역시 그녀의 「悲憤詩」中 五言體가 長篇小說的 結構라 한다면, 이 楚歌體 一首는 短篇小說的 結構로 東洋畫의 餘白을 간직하고 있음이 더욱 돋보이는 一面이다.

### 3. 楚歌體와 五言體의 內容 比較

本章에서는 楚歌體를 爲主로 五言體와 그 內容의 添削增刪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原因과 作詩의 時差를 提起하고자 한다.

먼저 楚歌體에서 「嗟薄祐兮遭世患。宗族殄兮門戶單。」이라고 간결하게 읊은 대목을, 五言體에서는 「漢季失權柄。董卓亂天常。」으로 부터 시작하여 「獵野圍城邑。所向悉破亡。」에 이르기까지 14句로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楚歌體에서는 그녀 자신의 薄福함으로 世上風波를 돌리고, 또한 兵亂의 慘相도 自家에 局限시키고 있는 반면에 五言體에서는 相反된 視野를 보여주고 있다. 즉 自身과 自家를 떠나 社會 全般的인 狀況에 視覺의 焦點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개의 作品中 어느 하나가, 혹은 모두가 僞作이라는 性向을 內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作者의 作詩時期에서 오는 結果도 그 原因의 하나로 등장한다.<sup>28)</sup>

楚歌體의 제 3句에서 제 6句까지, 즉 「身執略兮入西關。歷險阻兮之羌蠻。山谷眇兮路漫漫。眷東顧兮但悲歎。」 4句는, 五言體의 「馬邊懸男頭。馬後載婦女。長驅西入關。迴路險且阻。還顧逸冥冥。肝脾爲爛腐。」와 앞부분 2句 「馬邊懸男頭。馬頭載婦女。」의 具體的인 情景描寫만 빼고는 詩의

27) 特別 董祀의 求命過程에서의 沈著性과, 曹操가 그녀로 하여금 父親의 著作을 쓰도록 권유하였을 때에 「男女有別, 禮不親授。」라고 한 것 등은 좋은 例證이다. 後漢書 列女傳 董祀妻條 參照.

28) 本章 後半에서 考究한 것임.

語義가 相值하고 있다.<sup>29)</sup>

楚歌體의 제 7 句에서 11 句 「冥當寢兮不能安。饑當食兮不能餐。常流涕兮皆不乾。薄志節兮念死難。雖苟活兮無形顏。」은 五言體에서는 상당히 길어져 「所略有萬計。不得令屯聚。」로 부터 「彼蒼者何辜。乃遭此戾禍。」까지 무려 18 句로 楚歌體보다 3 倍 以上이다. 楚歌體에서는 入胡過程의 苦楚와 心理的 葛藤을 象徵的 手法으로 簡結하게 처리한 반면, 五言體에서는 客觀과 主觀이 混合되고 自家와 他家로 視眼이 交錯되었고, 또한 直接話法이 등장하는가 하면 怨天尤人의 哀痛까지 結 들어가며 具體的인 情況을 읊고 있다. 역시 楚歌體가 抒情詩的 色彩를 띠었다면 五言體는 敘事詩的 表現임이 分明하다.

다시 楚歌體의 제 12 句에서 제 30 句 「惟彼方兮遠陽精。陰氣凝兮雪夏零。」으로 부터 「欲舒氣兮恐彼驚。含哀咽兮涕沾頸。」까지의 장장 19 句는, 다른 부분에서는 볼 수 없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곧 五言體에서는 「邊荒與華異。人俗少義理。處所多霜雪。胡風春夏起。翩翩吹我衣。蕭蕭入我耳。感時念父母。哀歎無終已。」8 句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이 添削增刪되고 있다.

楚歌體에서는 그녀의 胡地生活의 具體的인 面貌를 感知할 수 있는 부분이 數句에 걸쳐서 들어있고, 또한 여기에는 夫君에 대한 言及이 皮相的으로나마 나타나 있다. 그런데 五言體에서는 胡地의 氣象과 그녀의 憂愁만 그려졌을뿐 胡地生活의 具體的인 面은 一言半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後日 더욱 철저한 考證이 있기를 期約하는 바이나, 본인의 지금 所見으로는 蔡琰의 悲憤詩에서 서로 다른 體式의 詩歌가 상당한 時差를 두고 지어진데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그녀가 楚歌體를 지은것은 歸鄉 直後였고 五言體를 지은것은 훨씬 뒤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뇌리 속에 胡中 12 年間의 生活에서 親生子息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은 영원히 잊혀질 수가 없지만 餘他生活은 점점 흐려져갔고 「人俗少義理」 下에 맺어진 피치못할 인연은 빨리 잊고 싶었을 뿐만이 아니라 口에 담기도 싫었으리라. 더군다나 이미 董祀에게 餘生을 依託한 바에 있어서는 「流離成鄙賤。常恐復捐廢。」의 투정이나 自敗心理가 作用할

29) 五言體 가운데 「斬截無子遺。尸骸相撐拒。」2 句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兩詩의 比較面에서 볼때는 楚歌體의 「宗族殄兮門戶單」과 더 많은 연관이 있으나 五言體의 內容上에 있어서는 後句와 연결되며 또한 前句 「所向悉破亡」과 重複되는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접어두었다.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코 相對方의 自尊心만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 人間의 常理가 아니었겠는가?

楚歌體의 마지막 「家既迎兮當歸寧。臨長路兮捐所生。兒呼母兮啼失聲。我掩耳兮不忍聽。迫持我兮走楚楚。頓復起兮毀顏形。還顧之兮破人情。心擔絕兮死復生。」 8句는, 五言體의 「有客從外來。聞之常歎喜。」로 부터 「念我出腹子。胸臆爲摧敗。」에 이르기 까지 무려 38句와 相值되는 데 그 主된 內容에 있어서는 別無大差이다. 다만 五言體에서는 曹操의 贖歸使者가 오기 전의 歸巢心과, 直接活法의 援用으로 母子間 離別의 生動感을 倍加시킨 句節 및 同時輩들의 送別 場面이 添增되어 있다.

五言體에는 楚歌體와는 달리 그 이후의 상황이 「既至家人盡。又復無中外。」로 부터 「人生幾何時。懷憂終年歲。」에 이르기까지 22句 110字로 읊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역시 五言詩가 楚歌體 詩歌보다 後日에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證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五言體는 楚歌體보다 몇년 뒤 어느 時代에 지어졌을까? 먼저 蔡琰의 나이를 相考해 볼 필요가 생긴다. 그녀의 傳記 어디에서도 나이를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常識的인 範疇內에서 그 近似値는 얻어질 수 있다.

그럼 먼저 그녀가 興平年間에 初婚에 失敗하고 歸寧하였으며, 다시 入胡 12년에 親生血肉 들이 있었다는 것을 分명한 既定事實로 놓고 보자. 通常 女子의 可妊太歲를 넉넉잡아 20세에서 40세로 친다면, 그녀의 在胡時期는 40세 前後로 봄이 妥當할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그녀가 曹操의 周旋으로 歸鄉한 것도 40세 前後다. 그 때는 建安 11年 쯤이었고 漢帝國은 결국 建安 25年을 마지막으로 終息을 고하고 魏나라가 들어 섰다. 이 때 蔡琰의 나이는 겨우 5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생존해 있을만한 나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蔡琰이 目擊한 漢의 終息은 그녀의 나이 耳順 以前이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悲憤詩」中 楚歌體 一首는 建安年間에 지어졌고, 五言體 一首는 魏代에 지어졌다. 이러한 觀點에서 그녀의 詩를 理解하면 「漢季」가 問題될 것이 없으며, 또한 詩體가 問題될 것이 없고 悲憤慷慨의인 長篇敘事詩의 體裁가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30) 蔡琰의 入胡時 나이가 만일 30代 중반을 넘어섰다면 어느 누구도 괴임을 주었을 심 싶지 않다.

#### 四. 結 語

한 詩人의 作品을 정확히 理解하기란 不可能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마다의 個性과 人生經緯가 결코 똑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時代가 1700餘年을 거슬러 올라가야하고 同性이 아닌 異性이며, 또한 民族이 다르고 言語가 다르다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本稿에서 다룬 蔡琰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한 人間이라는 共通分母에 놓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理解와 同情은 가지게 되리라.

지금까지 蔡琰의 얼마되지 않은 傳記를 根據로 그녀의 生平을 엮어 보았고, 그녀의 「悲憤詩」中 各其 相異한 體式의 二首를 鑑賞하고 서로의 內容을 比較 分析하여 보았다. 이제 이를 토대로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추출해낼 수 있었다.

蔡琰은 學問才藝를 兼備한 女性으로 當時의 文風에 同參할 수 있는 能力을 充分히 갖고 있었다.

蔡琰의 性格은 多情多感하고 理智的이었으므로 그의 作品은 男性이 따를 수 없는 섬세함과 완곡함에 넘친다.

蔡琰은 살아서 漢朝의 終息을 目擊했다.

蔡琰의 「悲憤詩」中 五言體는 長篇敘事詩이고 楚歌體는 敘事的 結構의 抒情詩다.

蔡琰의 「悲憤詩」中 楚歌體는 建安年間 歸鄉 直後에 지어졌고 五言體는 魏代에 이르러 그녀의 나이 55세에 이후에 지어졌다.

#### 參考文獻

1. 「後漢書」
2. 「三國志」
3. 吉川幸次郎, 「三國志實錄」, 東京: 筑摩書房, 1962.
4. 沈德潛, 「古詩源」,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64.
5. 章江, 「魏晉南北朝文學家」, 臺北: 大江出版社, 民國 60.
6. 曹操, 「曹操集」,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民國 64.
7. 余冠英, 「漢魏六朝詩選」, 臺北: 廣城出版社, 民國 65.
8. 楚儉主編, 「樂府詩選」, 臺北: 正中書局, 民國 62.
9. 楊家駱主編, 「中國中古文學史等七書」, 臺北: 鼎文書局, 民國 68.
10. 羅根澤, 「魏晉六朝文學批評史」, 臺北: 商務, 民國 65.

11. 寥蔚卿,「六朝文論」,臺北:聯合出版,民國 67.
13. 胡適,「白話文學史」,臺北:商務,民國 68.
14. 鄭篤,「中國俗文學史」,臺北:商務,民國 67.
15. 羅根澤,「樂府文學史」,臺北:文史哲出版社,民國 70.
16. 徐陵,「玉臺新詠」,臺北:世界書局,民國 69.
17. 汪中,「樂府詩選注」,臺北:學海出版社,民國 68.
18. 方祖榮,「漢詩研究」,臺北:正中書局,民國 56.
19. 鍾京鐸,「曹氏父子詩研究」,臺北:學海出版社,民國 66.
20. 蔣祖怡,「詩歌文學叢要」,臺北:正中書局,民國 64.
21. 林田愼之助,「中國中世文學評論史」,東京:創文社,1979.
22. 黃永武,「中國詩學考據篇」,臺北:巨流圖書公司,民國 70.
23. 張敬文,「中國詩歌史」,臺北:幼獅書店,民國 59.
24. 吉川幸次郎,「中國詩史」,東京:筑摩書房.
25. 魏晉南北朝文學參考資料,臺北,泰順書房.
26. 梁容若編,「古今文選」,臺北:國語日報社,民國 67.
27. 丁範嶺·金學主,「中國文學史」,서울:汎學圖書,1975.
28. 車相轅,「中國文學史」,서울:文理社,1974.
29. 車相轅,「中國古典文學評論史」,서울:汎學圖書,1975.
30. 劉勰著,姜信浩譯,「文心雕龍」,서울:玄岩社,1975.
31. 胡雲翼,「中國文學史」,臺北:三民書局,民國 63.
32. 青木正兒著,隋樹森譯,「中國文學概說」,臺北:開明書店,民國 65.
33. 李在夏,「曹植文學研究」,成均館大學院,1981.
34. 李在夏,「曹操詩考」,釜山產業大學 論文集 第四集,1983.

\_\_\_\_\_

# 識·認字之方法論研究

—以偏旁爲中心—

王 忠 儀\*

.....〈目 次〉.....	
I. 序 論	3. 「六 書」識·認字之論說
II. 識·認字之諸方法論	III. 藉「偏旁」識字之例
1. 「注音符號」識·認字之論說	IV. 結 語
2. 「漢語拼音」識·認字之論說	

## I. 序 論

中國土地廣大，人口衆多，語言，文字的流傳，以蒼頡在世年間的紀元前2665年計算，已有4600年的悠久歷史<sup>1)</sup>，而且在全世界人口總數裏，用漢字，說華語的，老早就被公認是佔最多數量的，但中國字有幾千幾萬，一個字一個面孔一個字有一個字的唸法(讀音)，我們怎麼去認得？怎麼去記得？這事實可真難爲我們的腦袋，簡直有些不可思議或不知所措。倒底我們透過何等記憶術或方法論來才能完成這項艱鉅的工作呢？

先從我們認人說起。一個人一張臉，張張不同，我們一生接觸的人少嗎有幾千，多嗎有幾萬，倒底怎麼能認得並脫口而出的叫出他的名字呢？這道理就在張張不同上頭。但是我們再一想，人的臉其實是張張一樣，除了怪胎畸形，那一張臉不是二隻眼睛，鼻子據臉部中央，下有嘴巴，旁有雙耳，張張一樣的臉爲什麼能張張不同？這道理就是臉有貌，而貌各不同。儘管每張臉的形狀輪廓都一樣、五官都一樣，部位也都一樣，但是拼起來湊起來，而相貌就不一樣，讓你可以分別出來。認中國字的道理正跟認人臉一樣，正因爲中國字一個字一

\*釜山外國語大學 中語科 專任講師

1) 許世旭，中國文化概說，p. 47.

個樣子我們才能認得。

但認得是一回事，記得又是一回事，怎麼能記得呢，當然第一是習見，這是不用談的，我們要談的就是習見以外的道理。記人靠性格，每人的舉止言談都能給我們一個不同的印象，長相的大小，神情，這都能幫助我們的記憶。

基於以上的觀點，漢字也各自具有它獨特的相貌與性格<sup>2)</sup>，我們學習中國語文學的人，尤其以中國語文學為專業的學生，往往因記數千數萬個漢字而傷透腦筋，這篇小文章就是提示怎樣透過漢字的相貌與性格來幫助認字，識字，怎麼能事半功倍的以最少的勞汗來得到最大的效果。

## II. 識·認字諸方法論

### 1. 「注音符號」識·認字之論說

注音符號的制定是中華民國國父 孫中山先生手訂的開國教育政策之一，由吳稚暉，蔡元培先生，於中華民國二年在北京召開全國讀音統一會，規定標準音，制定注音符號<sup>3)</sup>，頒布國音常用字彙，為中國語教育奠定了堅實的基礎。

這注音符號在臺灣更證實了是一套最有效率的教學華語的工具。首先，書報雜誌從頭到尾全部注音，省掉了一查再查字典的煩冗，並且防止打斷閱讀的興致，這樣一面品嘗內容，一面口裏咕唧不休的練習字音，所以只要記住三十七個注音符號與正確的發音，便可以無師自通。

就拿本人數學中國語之淺膚經驗來也可以證明這個事實，這裏先以進大學後選修中國語為第二外國語的其他學系新鮮人為例。因為選修第二外國語的學生們，在時間上只有短暫一年的安排，一年以後除了聘專師學習或到補習班去，不然就失掉授受中國語文的機會了。為了防止與補救這一點，不得不在一年當中培養選修中國語為第二外國語的學生，一年後能自行練習研究中國語文的能力。

所以在他們選修中國語的一年期間，除了教授他們簡單的語法構造之外，最重要的是以注音符號為中心，徹底教導他們正確的發音與四聲，一直到任何一個兩拼音字或三拼音字也都毫無困難為止。這樣升為二年級就是沒有老師，他們也可以透過報章雜誌以及兒童讀物來增進中國語文的實力。因為在前面也談過，中國臺灣出刊許多全面加以注音的報刊雜誌，而且很容易得手，只要有注音讀物就能夠琅琅上口的唸下去，這不就是無師自通的捷徑嗎？

2) 英文叫，中國字為 character，牛津高級 英英·英漢·雙解辭典 p.170.

3) 注音符號，原名稱是注音字母，1930年 改稱注音符號。

第二，注音符號和漢字夾用的方法，尤其是低年級的兒童，失學的成人，爭取時間的筆記，速記，更為必要。例如小學一年級的兒童，以前只能學綴字造句的，只要准許注音符號和漢字夾用，他就可以作文，記事，洋洋灑灑的意思沒有寫不出來的。我們寫筆記遇有難寫與不會寫而知其音的，用注音符號代替也是常有的事。梁容若先生說；「權衡利害輕重，斟酌緩急得失，在小學教育上，民衆教育上，緊急需要上，無可奈何的環境中，我主張堂堂正正承認注音符號與漢字夾用，則一切困難迎刃而解」並且說；「注音符號可以單用表情態，寫聲音，作序號字用，比甲乙丙丁子丑寅卯寫起來簡單而數目多，比A B C D E F中國化而通俗。大家應當有意識地充分使用這種基本符號。這注音符號雖然是受了日本假名影響而創造的，在發音學的根據上，在排列次序的合理上，自然遠超過假名，後來居上是毫無問題的；但是假名可以打電報，可以有打字機，注音符號還沒有發揮這一類的簡便作用。利用它統一國語只是一個開端，普及教育，促進文化，才是注音符號的更偉大任務。」<sup>4)</sup>

## 2. 「漢語拼音」識·認字之論說

外國人學中文差不多都以為最困難的是漢字，因為漢字不但很多而且複雜，一般的中國人大概認識三千字左右，有學識的人差不多認識六千多個字，有的字共有二十多筆劃，西方人覺得這種情形真不得了，西方語言大部分使用羅馬字，羅馬字只有二十六個，最複雜的才只有四劃，可以用二十六個很簡單的字把所有的語言都能寫得清清楚楚。因此西方人常以為中國人應該認為漢字不實用，應該採用羅馬字而把中文「拉丁化」。尤其這個時代是電腦時代，用英文，德文，法文，甚至於俄文或者阿拉伯文來吩咐電腦都沒有什麼問題，可是中文不行，所以在電腦技術方面，因為漢字這樣不實用，中國不能不落後，只有中文拉丁化了，中國才能趕上西方世界。以這種觀點認為中文非提倡拉丁化的西方學者不佔少數。所以對於漢字的價值觀漸漸趨向於否定漢字的地步了。而且他們認為漢字使中國教育落後，中國學生要是不必就誤那麼多時間學漢字，就可以用來學科學，外國語言甚麼的。

中共人民文盲率是百分之十五，也就是說有一億五千萬名是文盲，<sup>5)</sup> 他們也歸咎於漢字的不科學，不拉丁化上，認為是國家現代化建設方面的最大障礙原因之一。終於在1952年2月五日成立「中國文學改革研究委員會」時，制定了

4) 中國語文，第十七卷 第五期，pp. 22~24.

5) 人民日報，1980. 4. 19.

“拼音文字為中國文學改革之方向”的拼音方案草案後，「漢語拼音方案」便在一九五七年十一月正式誕生了。<sup>6)</sup>

「漢語拼音方案」經中共國務院通過，再提到中共人代會議中決議然後普遍推行。決議中說：「漢語拼音方案作為幫助學習漢字知推廣普通話的工具，並且在實踐過程中繼續求得該方案的進一步完善」，<sup>7)</sup> 吳玉章在這次會議也提出報告說：「至於漢字的前途問題；它是永遠不變，還是要變呢？它是在漢字固有形體範圍內變化，還是被拼音文字所代替呢？它是為拉丁字母式的拼音文字所代替，還是為別的形式拼音文字所代替呢？這些問題我們現在還不去作結論我們認為；漢字總是要變的，將來總是走世界共同的拼音方向。而且可以說，世界各個民族的語言和文字，將來總有一天會遂接近和統一。」

以上內外學人如此強調「漢語拼音」的現實性與必要性，但實際上現在只是偏重於用它作為教學普通話的正音工具和給漢字注音來幫助識字認字。換言之就是使拉丁化的「拼音字母」用作「漢字注音」，代替了原先「注音符號」的地位，而普遍應用在一般推廣普通話，拼音和學校中的語文教學等等方面。那麼在這裏簡單介紹「漢語拼音」的基本骨幹；

- 一. 正式字表是按順序使用現代的二十六個拉丁字母。
- 二. 不把附加符號ê, ü以及雙字母zh, ch, sh, ng等看成字母單位，而且不放在字母表裏。
- 三. 在外來詞的拼寫與少數民族語以及方言裏使用V字，放入字母表裏。<sup>8)</sup>

這「漢語拼音」方式問世後受到廣大民衆的支持，韓國各大專學校中語·文系採用「漢語拼音」方式教授中語的不佔少數，歐美各國，尤其美國各大學圖書館幾乎充滿了這類的書刊雜誌。那麼這「漢語拼音」方式畢竟也有它的優·缺點，優點如下；

- 一. 統一的字母可以表示出現代漢語的所有音節。
- 二. 只要知曉字母的發音與綴字法，就可以讀出它的音來。→ 推廣普及普通話的工具。
- 三. 明明白白的表明了詞形變化，詞與詞的語法關係 → 可以明皙的傳達話與思想。
- 四. 容易吸收外來語以及科學技術上的專門用語。→ 謀求漢族語彙的多樣化。

6) 金東震，中共文字改革運動動向，中國研究 第五輯(外大中國問題研究所)p. 29.

7) 張席珍，共匪「漢語拼音」分析，中國語文 第七卷 第一期，p. 36.

8) 孔在錫，漢語拼音方案之理解：中國語文學會 第六輯(嶺南中國語文學會) p. 140.



- 五. 縮短學習的時間。——一掃文盲，以及期待知識普及之效果。
- 六. 適用於機械。——電腦的活用，增進情報交流。
- 七. 外國人以及少數民族容易學習漢語。——擴大異民族之間的文化交流。

9)

缺點如下；

- 一. 分詞之連書上產生問題。
- 二. 外來語之轉書上產生問題。
- 三. 同音詞之分化上產生問題。
- 四. 聲調的標記上產生問題。
- 五. 唸與寫的方法上產生問題。
- 六. 文言體的拼記上產生問題。<sup>10)</sup>

### 3. 「六書」識·認字之論說

在談「六書」識·認字之論說之前，首先要談的是中國文字的結構。中國文字的結構，是具有條理系統，合乎科學而又具趣味性的。所以只要能用心研究中國文字，就不難發現，中國文字是易於類化學習的，假若將中國文字編排得當，很容易作為趣味性教學的材料。

中國文字的結構，不外乎形，聲，和義。它的演進過程，首先以「依類象形」的「文」，這包括有具體的象形，抽象的指事。起初，這象形文與指事文的形狀是很簡單的，可以由它的形狀認識它的意義，後來人事漸漸複雜，原來有的文字不夠應用，就加義符，聲符，或增體，減體，省體，變體，複體，於是這些象形，指事的最初文字，便成為義化，聲化，聲義化的文字。由主體之形，加上輔翼的符號，而形成許多孳乳字，由簡而繁增加了新字，新詞。然後再有兩個的「文」，合成「會意」的字，比如「人言為信」，「止戈為武」，手在目上為「看」所以，屬於象形，指事與會意的字，主要的都是以「形」表「義」，約佔中國文字百分之十左右。若將這三類文字之相關者或同類者，加以貫串排列，很容易找出它們的共同點，可以用來類化學習，也可以施行趣味的教學。

所以從事教學中國語文的工作者，若能把握文字結構的特性，讓學生瞭解文字之組成與演變，瞭解「文」與「字」的區別，便可知道字之意義。許慎說：「依類象形，故謂之文，」這是象形文字產生之說明。指事以前稱之為「象事」

9) 金東震，中共斗 文字改革運動動向，中國研究 第五輯(韓國外大 中國問題研究所) pp. 46~47.

10) 上揭書，pp. 47~52.

實為象形字應用的擴大。象形字是依賴物體的類型製造，大部分是專指一物，它的本來意義大多屬於名詞，對於物體形象的描寫，十分明確。指事字是依事之類而造的，廣泛的指象物，它的本義多為動詞，形容詞與副詞。象形是依天地，自然的真實形象體造字，而指事係依人心頌會的無形事象來造字，前者屬於物質世界的實體符號，後者屬精神世界的虛構符號。心與物乃一體之兩面，心物合一，象形與指事合一，這是廣義的解釋。而會義字，則由兩個以上的象形文，排比組合而成。只要教學生能頌悟這些原理，便能觸類旁通，無往而不利了。

至於形聲字，一半是由形符，一半是由聲符組合而成的。但是形聲字之根源是語音，我們從文字本身的發展來看，可以知道人類在老早以前就已經有了語言，而文字之形成則甚晚，文字的功用，在於記錄語言，所以文字植根於語言的聲音，由抽象的聲音，演成具體的圖形文字，經過不斷地簡化，而形成為抽象的文字符號。文字具有具體性固然很好，但有太多意思而無法以具體的符號表達出來，只好用「形」與「聲」同時來表達，所以形聲字佔全部中國文字之九十左右。<sup>11)</sup>

由於字義多源於聲，故有許多形聲字，往往是聲而兼義，或是聲中寓義，而且跟人體的發音部位有關係，我們可以按照國語注音符號的聲母與韻母來加以說明。譬如凡是以「ji·qi·xi」作聲母的形聲字，都屬陰柔。比方說以「小」作聲符的形聲字，都具有「小」或「少」的意思。像水少是「淺」，水點是「濺」，小貝是「賤」，小竹片是「箋」，小絲是「綫」，小的貨幣是「錢」。又如以「an·en·ang·eng」作韻母的形聲字，都屬陽剛。比方說以「辰」字作聲符的形聲字，都寓有「動意」，像「晨」，是太陽升起，「振」是手舉起來的動作，「娠」是女人懷孕，胎兒在腹內亂動，「唇」和「脣」是說話時口部開合的動作，「蟹」是海中大蛤，一開一合的在動，「湍」是河岸被水沖蝕，「阪」是水中小阜，常被沖蝕，「宸」是帝王的深宮有守衛巡邏，「賑」是帶錢貝來救濟災民，「賑」是人民到處走動，「震」是下雨時閃電響雷。又如「青」表示「美好」，那「倩」·「晴」·「精」·「情」……等等，都有美好的意思；「倫」表示「條理層次」，所以「論」·「掄」·「輪」·「綸」·「倫」·……也都有條理層次的意思。這些字都是聲兼意，或聲寓意的。再以偏旁·部首來看字，中國字的大部分，是可以從一個字的偏旁都首看得出這個字義的類別歸屬，例如：與金屬有關係的都用金字旁，與水有關係的用水字旁，與火有關係的屬於火字部，而且一個中國字是魚字旁的，一看就

11) 林尹，文字學概說，pp. 1~23.

知道是一種魚，或是和魚有關係，是木字旁或草字頭的，字義是屬於植物的。……這樣可以從漢字的面貌長相把字義表示出來，可以從偏旁部首的分類，聯想和明瞭字的意思。倘若在教學時，能加以類化——同類推演，可增加學生的字彙，詞彙，又可增廣記憶，是學習中國文字的極有趣味的資料。

所以說：「至於字音，則本字之音，與配合之音，相去亦無幾，例如吟從今聲，裸從果聲，吟之音近於今，裸之音近於果，故曰，祇須識數百字，而數萬字皆可觸類而通也。」<sup>12)</sup> 以這些根據六書的造字原則，講解生字的形成與組織來學中國字與教中國字，換言之也就是說明與瞭解，中國字是以象形為骨幹，以指事為肌肉，以形聲會意為血氣，以轉注假借為脈絡，而形成一種整體的有機結構，學者與教者洞澈其奧妙，知悉其道理的話，誰都能覺得；「這樣有意思的文字，很容易瞭解，並不難呀！」如此樂此不疲，那麼學中文教中文的目的，便能達到了。

但以「六書」識，認字也有它的難處，比方說「日」、「山」、「水」等簡單的象形字，也要從篆字重新教，重新學起。「上」、「下」等指事字也要先能寫出篆字才能說明，才能瞭解。形聲字比較容易，可是「錫」為什麼不讀「易」，「珪」「認」，「蛙」雖然一看就知道讀「圭」，可是「卦」、「挂」、「掛」、「誼」、「罍」，是讀 gùa，「桂」讀 gui，「鞋」，讀 xie，「剗」，讀 kui，「跬」讀 kǔi，「哇」、「蛙」，「挂」、「窪」讀 wa，「佳」讀 jia，「畦」讀 xi，同包含一個「圭」形的字，有這麼許多種不同的聲音，單就所舉出的字說，如果望形猜音可能對五個，錯二十個，這怎麼辦。（其他任何一字之例，可以參照中國國語辭典卷末的字音查字表）。所以說，事實上大家都是認字學習到很高程度，才知道所謂六書，看到一個楷體字，很難知道屬於那一書，甚至於有的字到現在屬於那一書，並無定論。以六書識認字的苦腦就在這裏。梁容若先生說：「楷書怎樣用六書教呢？我希望提倡這種學的人，編一本六書識字教法，把小學教科書中的常用字分配到六書，看看怎麼教起。我幾個兒童試試看，能不能增加識字效率呢？這不是空言說的，要用事實證明才行。」

### Ⅲ. 籍「偏旁」識字之例

我們在前面也談過，文字各自具有它獨特的相貌與性格，而某一文字的「部首」與「偏旁」，無疑就是它的貌相與性格的特徵部位。例如：訂·計·討·

12) 胡樸安，六書為識字之簡易法，高中國文，第一冊 第二十一課 中華民國四十二年 八月版。

謠·警·讓等字，都是以「言」字爲部首的字，而都以它爲特徵部位。粗·狙·俎等字以「且」字爲偏旁，住·注·柱·炷·蛀·駐·等字以「主」爲偏旁，故這「且」與「主」也就是這些字的特徵部位了。

在這裏僅以聲符「f」音結合韻符「a」·「ei」·「an」·「en」·「ang」等五對字音爲例供做參考。

### 1. 「fa」字音字…

凡含有「伐」·「去」等偏旁相係「fa」音所屬之字。例如：伐·法，讀一聲。岱·祛·筏·茂·闕·伐·法，讀二聲。伐·法，讀三聲。法·法，讀四聲。

### 2. 「fei」字音字

凡含「非」·「肥」等偏旁均係「fei」音所屬之字。例如：啡·扉·緋·菲·蜚·非，讀一聲。啡·肥·豐·讀第二聲。匪·斐·榧·篋·翳·菲·蜚·誹，讀三聲。

### 3. 「fan」字音字

凡含「反」·「凡」·「番」·「已」等偏旁均係「fan」音所屬之字。例如：反·帆·幡·旛·番·緡·翻·蕃·蕃，讀一聲。凡·帆·釵·墦·燔·璠·膳·蕃·藩·讀二聲。反·返，讀三聲。梵·汎·飯·販·販·范·範·范·犯，讀四聲。

### 4. 「fen」字音字

凡含「分」·「賁」等偏旁均係「fen」音所屬之字。例如：分·吩·氛·紛·芬·荼·酚·雰，讀一聲。芬·份·墳·賁，讀二聲。粉，讀三聲。份·分·忿·憤·憤，讀四聲。

### 5. 「fang」字音字

凡含「方」偏旁均係「fang」音所屬之字。例如：坊·妨·方·枋·肪·芳·郝·魴，讀一聲。坊·妨·房·防·魴，讀二聲。仿·倣·彷彿·紡·紡·訪·髣·髴，讀三聲。放，讀四聲。

如此我們可以利用一個字的特徵部位來認字識字，這樣除可免生吞活剝，死記強背之弊，而且可以促進對理解力的培養，進而提高學習中國語文的興趣。

#### IV. 結 語

就因為中國字一字一音，構造的複雜，字數的繁冗，使人讀誤音寫誤字，而導致很多人試圖動用各方法來解決這個難題。甚至於提起文字改革運動，把漢字簡體化來減輕學習，閱讀，書寫等困難。但是凡研究文字學的人，沒有人不知道語文是漸進，隨着時代發展而有所變化的，所以字形，字音，字義，無不與歷史有關，這樣一個具有傳統性，歷史性的悠久文字，我們怎能找出革新的方法來滿足偏狹的求知慾呢？我們反而要尊重它，愛護它。

上學的三種識·認字法，只能供欲學習中國語文的小小參考資料誘發學習的興趣，使很多人自動地努力去學習，事半功倍。語曰：「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就是這個道理。

#### 參 考 文 獻

1. 何容，「國語日報辭典」，臺北 國語日報社出版社，1974。
2. 林尹，「文字學概說」，臺北 正中書局印行，1971。
3. 孔在錫“漢語拼音方案”，中國語文學，第6輯，大邱：嶺南中國語文學會 1983。
4. 彭震球，「華文教學法新論」，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1979。
5. 許世旭，「中國文化概說」，서울 金星出版社，1980。
6. 金東震，“中共의 文字改革近況”，中國研究，第5輯，서울：韓國外國語大學校中國問題研究所，1981。
7. 胡樸安，“六書爲識字之簡易法”，高中國文第一冊第二十一課，臺北 國立編譯館，中華民國 42年。

Some Notes on the Method of Learning Chinese Characters

—focused on radicals—

# 杜甫 리얼리즘의 性格 批判 I

(杜甫·唐朝基本論理關係를 中心으로)

金 龍 雲\*

〈目 次〉	
I. 문제의 제기	의 성격
II. 논술의 시각과 범주	1. 당위론적 수용경향
III. 唐朝構成의 기본논리	2. 상대적 총군우선주의
1. 소유의 불평등 당연주의	3. 정치적 상승욕구
2. 역할의 구조적 분화주의	4. 경제적 상승욕구
3. 신분외의 史的 결정주의	5. 체제지향적 흑백논리
IV. 기본논리에 대한 杜甫認識	V. 결론

## I. 문제의 제기

60년대의 杜甫研究는 杜甫의 詩史的 가치를 리얼리즘에 입각한 민중성향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가장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의 대부분이 杜甫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형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결론에 따른 자료의 건강부회적 구성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논리의 지나친 주관화·단순화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에 발표된 蔣和森·蕭濂非 등의 논문조차 杜甫를 「寫實主義 民衆詩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실주의 민중시인 등의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적 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실주의 민중시인이었다」 또는 「사실주의 민중시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적·민중적이었다」는 식의 자기공전을 범함으로써 그것이 단지 文化大革命의 정치적 상황때문이었다기 보다는 60년대 杜甫研究가 노정한 한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 東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있는 것이다.<sup>1)</sup>

물론 太極元年(서기 712년)으로 부터 大曆五年(서기 770년)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杜甫의 현실관계와 부단한 민중계층애로의 경향성 및 작품을 통한 그 사실적 반영 등을 생각할 때 그의 리얼리즘에 대한 경의의 이같은 표현들이야말로 진보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杜甫 리얼리즘에 대한 사실주의적 민중시인으로서의 평가자체가 「杜甫 생활의 민중계층에 대한 質的 통일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서술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보편성의 결여를 의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제군주제하의 유가적 성장과정을 겪음으로써 「忠君」·「愛民」의 사회가치를 절대우선으로서 수용하였을 杜甫의 사회내적 리얼리즘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과연 사실주의적 민중시인으로 불리워질 만큼 민중에 대한 자기의 경제·사회적 수용과 그에 의한 자기의 정치·사회적 수용 등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일까?

## II. 논술의 시각과 범주

인간을 自己外的 존재와의 부단한 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실현하는 생활주체로 정의할 때, 개별체적 자기구성의 추상적 총체에 해당하는 그의 인식체계는 의적 존재 전체에 대한 부단한 자기실현 및 이에 상응하는 세계의 반대급부적 자기규정이라는 경험적 총체의 객관화·추상화로써 이루어지게 된다.<sup>2)</sup> 따라서 인식체계의 객체적 조건을 구성하는 세계의 자기논리와 그에 대한 태도로서의 인식상태는 세계와 개인의 자기발전을 규정하는 兩大 基軸으로서 그 변증법적 상호규정의 함수관계는 행위의 시각과 범주를 한정하는 기본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체적 작가인식의一端인 사조적 경향, 특히 리얼리즘에 대한 抽論 및 평가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작품내적 究明으로써 집약되어진다.

1. 사회구성의 當代的 기본논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 두보연구의 이와 같은 경향은 1962년 北京 中華書局刊 《杜甫研究論文集》(全三卷)에 수록된 논문경향으로써 개괄할 수 있다. 杜甫를 사실주의 민중시인으로 규정한 蔣和森의 〈偉大的 時代歌手〉 및 蕭滌非의 〈人民詩人 杜甫〉 등은 同書 3권 45페이지·34페이지 등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2) 1983년 2월 人民出版社刊 《哲學研究》 22페이지 王永昌 〈理性認識回到實踐活動的中間環節初探〉 全文 참조.



1. 기본논리의 실현결과인 현실적 모순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1.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관계의 새로운 형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1. 새로운 사회관계의 실현을 위한 그의 방법론은 어떠한 것인가?

1. 上述 각 항의 논리는 상호부정적 모순을 구성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제일반에 대한 전체적 究明을 위해서는 필시 방대한 양에 걸친 서술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 기본범주를 구성하는 제 1항목에 대한 杜甫 제 2·제 3 시기<sup>3)</sup> 중심의 작업으로써 제한하려 한다.

### Ⅲ. 唐朝構成의 기본논리

중국사상 미증유의 강력한 제국으로서 인식되어지는 唐朝의 사회관계는 그것이 강력했던 만큼이나 엄격한 왕권의 사회적 실현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것 이외의 제가치 및 방법론을 그 가치론적 相違함이나 무관함 때문에 현실적 고려의 범주로 부터 제외시킴으로써 상술한 왕권의 국가적 실현이라는 유일론에 입각된 사회관계를 구성한 唐朝의 권리·의무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을 구성의 기본논리로 하는 것이었다.

#### 1. 所有의 불평등 당연주의

唐朝의 사회관계는 소유관계의 엄격한 계층화에 입각한 것이었다. 王·士·良·賤으로 대별되어지는 당조 신분질서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당조의 소유관계는 엄격한 신분별 소유관계로서 소유권으로부터 제외된 천민계층을 제외한 王·士·良계층의 소유관계를 당대의 주요생산수단인 토지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왕권은 모든 소유에 대한 구체적 권리근거로서 토지 또한

3) 두보의 생명에 대한 휘본은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蕭濂非의 견해를 따랐다. 두보의 생명을 四大分한 蕭氏의 견해에 의하면 天寶五年(서기 746년)으로 부터 同 14年(서기 755년)에 이르는 두보 장안시기는 제 2시기에, 至德一年(서기 756년)으로 부터 乾元二年(서기 759년)에 이르는 陷賊爲官時期는 제 3시기에 해당한다. 1957년 山東人民刊 蕭氏《杜甫研究》하권 7페이지·44페이지 참조.

본래적으로는 왕권에 귀속된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일반의 소유권자인 왕권에 대한 기탁계층의 토지소유는 왕권과의 직접·간접적인 증여·수수관계의 결과로써 杜佑의 《通典》에 의하면 良民의 분배기본단위가 80畝였던 것에 반하여 최고사족계층의 그것은 60頃에 이름으로써 사족계층의 수권 토지 양이 양민계층의 75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물론 당조의 토지 분배대상이 京畿地域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sup>5)</sup> 《通典》자료에 따른 曾了若의 주

4) 杜佑의 《通典》(卷二)은 당조의 토지소유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36. 6. 刊《食貨》9페이지 曾了若〈唐代的均田〉에서 再引用하였음.)

大唐開元二十五年，令田廣一步，長二百四十步爲畝，百畝爲頃。丁男給永業田二十畝，口分田八十畝，其中男年十八以上，亦依丁男給。老男，篤疾，廢疾，各給口分田四十畝，寡妻妾各給口分田三十畝，先永業者，通充口分之數，黃，小，中，丁男子，及老男，篤疾，廢疾，寡妻妾當戶者，各給永業田二十畝，口分田二十畝。應給寬鄉，並依所定數；若狹鄉所受者，減寬鄉口分之半。其給口分田者，易田則倍給。其永業田：親王百頃，職事官正一品六十頃，郡王及職事官從一品五十頃，國公若職事官正二品各四十頃，郡公若職事官從二品各三十五頃，縣公若職事官正三品各二十五頃，職事官從三品二十頃，侯若職事官正四品各十四頃，伯若職事官從四品各十頃，子若職事官正五品各八頃，男若職事官從五品各五頃，上柱國二十頃，柱國二十五頃，上護軍二十頃，護軍十五頃，上輕車都尉十頃，輕車都尉七頃，上騎都尉六頃，騎都尉四頃，驍騎尉，雲騎尉各八十畝，雲騎尉，武騎尉各六十畝。其散官五品以上，同職事給；兼有官爵及勳，俱應給者，唯待多，不並給。若當家，口分之外，生有地非災鄉者，並即承受，有贖追收，不足者更給。諸永業田皆傳子孫，不在收受之限；即子孫犯除名者，所承之地亦不追。每畝課種桑五十根以上，檢壤各十根以上，三年種畢，鄉土不宜者，任以所宜樹充。所給五品以上永業田，皆不得狹鄉受，任於寬鄉隔越，射無主荒地充。其六品以下永業，即聽本鄉取還公田充，願於寬鄉取者亦聽。應賜人田，非指的處所者，不得狹鄉給。……應給園宅地者，良口三口以下給一畝，每三口加一畝，賤口五口給一畝，每五口加一畝，並不入永業，口分之限。其京城及州郡縣郭下園宅，不在此例。諸京官文武職事職分田，一品一十二頃，二品十頃，三品九頃，四品七頃，五品六頃，六品四頃，七品三頃五十畝，八品二頃五十畝，九品二頃，並去京城百里內給，……其外軍校尉一頃二十畝，旅帥一頃，隊正副各八十畝。……諸庶人有身死家貧，無以供葬者，聽賣永業田，即流移者亦如之；樂遷就寬鄉者，并聽賣口分。諸買地者，不得過本制，雖居狹鄉，亦聽依寬制；其賣者不得更請。凡賣買皆須經所部官司申牒，年終彼此除附；若無文牒輒買賣，財沒不追，地還本主。諸以工商爲業者，永業，口分田各減半給之，在狹鄉並不給。……諸田不得貼賃及質，違者財沒不追，地還本主；若從遠役外任，無人守業者，聽貼賃及質。其官人永業田及賜田，欲賣及貼賃者，皆不在禁限。

5) 1937年 2月 刊《食貨》제4권 제2기 所載 武仙卿 〈唐代土地問題概說〉全文 참조.

장에 의하자면 당조의 토지소유관계가 신분별 불평등 당연주의에 입각된 것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sup>6)</sup>

이와 같은 차등분배의 원칙은 동일계층에 대한 토지의 배분에 있어서도 그 일반을 지배하는 논리로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족계층에 대한 토지의 배분은 직급별 차등분배제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양민계층에 대한 토지의 배분은 노동력의 대소에 따른 차등분배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 사족계층내에서도 왕권과의 親疏에 따른 토지소유단위의 규모는 1:100에 달하였으며 양민계층의 노동력에 따른 분배규모상의 비율도 1:2.7에 이르렀던 것이다.

## 2. 역할의 구조적 분화주의

또한 唐朝의 사회관계는 上述한 소유관계에 기초한 신분관계의 역할분화와 종적 종속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사회관계 전체의 망라적 규정이자 왕권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당대적 방법론이었던 사회구성의 당조적 구조주의를 四大身份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감해 보면, 첫째, 권리·의무일반의 절대적 주체자였던 왕권은 기타계층에 대한 권리의 부분적인 양도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물질적 종속을 실현하는 체제의 정점을, 둘째, 왕권에 대한 질적 충성을 통한 체제내적 종속의 반대급부로서 良·賤계층에 대한 경제·경제외적 강제관계상의 권리를 왕권으로부터 양도·수권한 사족계층은 양·천에 대한 상대적 지배의 역할을, 셋째, 왕권 및 사족계층으로부터 주요생산수단인 토지의 소유 및 점유권을 이양받은 양민계층은 이에 따른 납세·빙역·요역 등의 의무를, 마지막으로 절대적 피지배계층인 천민계층은 추상적·구체적 권리 및 소유로부터 제외된 때 배양도가 가능한 비인격적 생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분담함으로써 구체적인 당조사회를 구성한 종적 종속의 합목적적 논리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 사회관계의 예외적 실례로서 易姓革命에 의한 사회질서의 전면적인 변화, 범법에 의한 사족계층의 양·천화, 금전의 수수에 의한 천민의 양민화·양민의 사족화 및 양민계층의 등과에 의한 사족화 등의 실례도 존재하였겠으나, 前三者가 일반성을 상실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는 희귀한 실례에 불과하다는 것과 後一者가 사족계층에 의한

6) 同 4.

문화의 독점과 租·庸·調의 부담때문에 비록 과거가 양민계층에게 개방되어졌다 해도<sup>7)</sup> 상대적으로 불량한 학습상의 조건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로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王·士·良·賤에 입각된 당조 사회의 구조주의적 정체성은 극복되어질 수 없는 기본논리의 일부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3. 신분의 史的 결정주의

마지막으로 당조의 사회관계는 진출한 소유관계 및 신분관계의 파생적 결과인 史的 결정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소유의 계층화·역할의 구조적 분화 등에 의한 신분의 종적 종속을 통하여 왕권의 실현에 합목적적인 사회적 통일체를 이룩한 당조의 사회관계는 이와 같은 자기논리의 영속화를 위한 역사적 장치로써 시간을 통한 계층과 역할의 轉移가 불가능한 史的 결정주의를 그 기본논리의 일부로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조 기본이론의 —소유의 불평등 당연주의 및 사회적 역할의 구조적 분화주의— 史的 外延을 위한 당연한 요구로서 인식되어지는 신분의 역사적 결정주의는 당조의 인간 전체로 하여금 王·士·良·賤의 한 계층에서 태어나 그것을 자기자손들에게 승계시켜가는 계층과 역할의 세습을 강요함으로써 사회관계의 史的 停滯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 Ⅳ. 기본논리에 대한 杜甫인식의 성격

제 2·제 3 시기 杜甫所作인 360편 내외의 詩作중에서<sup>8)</sup> 前述한 사회구성 기본이론 자체를 주요 서술객체로 삼고 있는 작품은 단 한 편도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두보의 사실인식 및 그로부터 비롯된 경향성 등이 전무한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서 「堯舜再世」의 정치이상을 피력했던 두보에게<sup>9)</sup> 한 시대의 존재양식 전체를 규정하는 논리일반에 대

7) 당조의 과거 제도는 평민계층에게도 개방되어진 것이었다. 1977년 大中國圖書公司 刊 傅樂成《中國通史》486페이지 「由於參加鄉貢的士人，不拘資格，因此成爲平民的進身之階」 참조.

8) 蕭滌非《杜甫研究》하권 10페이지·44페이지 참조.

9) 天寶 7年(서기 748년)所作〈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致君堯舜上，再使風俗淳」一句 참조.

한 인식이 결여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杜甫·기본논리관계의 객체적 인식과 주체적 경향을 제 2·제 3 시기를 전후한 杜甫所作으로써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당위론적 수용경향

杜甫의 객체적 조건에 대한 인식상의 성향은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아닌 기존사회관계에 입각된 「인간의 변화」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복고·보수적인 것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에 의하여 피력된 「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류의 정치이상<sup>10)</sup> 자체가 그렇듯 그의 이상적 당위론은 사회관계의 개혁이 아닌 「君君·臣臣·民民」의 기존사회관계를 기적으로 하는 「총체적 인간변화의 요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사회관계의 이상적 총체가 실현되지 않고 있던 당시의 현실은 이상적 사회관계의 회복을 위한 극복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두보의 지적은 사대부계층의 —왕권에 대한 질적 충성이 요구되는 체제핵심적 사족계층— 인간변화를 위한 비판으로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記言」·「記事」·「諫言」 등의 소극적 방법외에는 왕권의 질적 변화를 강요할 어떠한 강제도 존재하지 않았던 당대적 현실로 인하여 사회관계의 변화를 제의한 이상적 인간관계의 실현은 「君非君」의 현실영역을 「어찌할 수 없는」 범주로서 남겨둘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소유의 兩極化가 빚은 사회의 형평상실과 이에 따른 사회전체의 퇴행적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현상의 質的 所以가 되었던 기본논리에 대한 그의 지적이 전무하였던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객체적 조건에 대한 모순으로서의 인식 및 그에 대한 거부·극복의 실현 등 사회관계의 변화에 의한 인간관계의 재구성이란 적어도 두보에 있어서는 당초 신분질서일반에 대한 —君君·臣臣·民民의 정치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한 그 구성의 所以인 왕권의 존립자체를 포함해서— 명백한 거부·부정 이외의 다른 것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杜甫 인식상의 모순은 왕권을 등장시킨 작품의 현실비판에서 그 구체적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다.

彤庭所分帛, 本自寒女出。鞭撻其夫家, 聚歛貢城闕。聖人德備恩, 實欲邦國活, 臣如忽至理, 君豈棄此物。多士盈朝廷, 仁者宜戰慄。況聞內

10) 同 9.

金盤，盞在衛霍室。中堂舞神仙，煙霧蒙玉質。爰客貂鼠裘，悲管逐清瑟，  
勸客駝蹄羹，霜橙壓香橘。朱門酒肉臭，路有凍死骨，榮枯咫尺異，惆悵  
難再述。

조정이 배분한 비단은, 貧女로 부터 나온 것으로써, 남편을 닥달하여, 城闕에 收斂·貢納한 것이다. 主君이 貢物을 광주리로 나누어 준 것은, 邦國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써. 신하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소홀히 한 것이었다면, 主君이 무엇때문에 이 貢物을 버리듯이 나누어 주었겠는가. 많은 士大夫들이 조정에 가득하니, 仁者는 진윤함이 마땅하도다. 더구나 御殿의 金鏡반이 漢朝의 衛靑이나 霍去病과 같은 자들의 집에 다 가 있고. 中堂에서는 美女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여, 簫衣로써 玉膚를 가리게 하고. 담비가죽으로 客된 자의 몸을 녹이고, 悲管·清瑟의 음악을 연주하며. 駝蹄羹·霜橙·香橘과 같은 珍味를 客에게 물리도록 권한다는 것을 들은 바에야. 솥을 대문안에서는 酒肉이 썩어 나가고, 길에는 凍死한 者들이 덩구니. 榮枯가 咫尺間에 相異하여, 惆悵해 더 말할 수 없도다.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이처럼 당시의 정치·사회적 몰락과 퇴행에 대한 두보의 모순으로서의 인식이 결코 왕권에 대한 비난에 외면되지 않고 단지 왕권을 제외한 정치 핵심세력에 대한 비난에 그쳤다는 것은 기본논리에 대한 그의 인식자체가 이와 같은 태도의 외연선상에서 수용되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두보의 주체적 조건 및 사회의 객체로서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두보인식의 객체적 조건에 대한 당위론적 수용은 「必然」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 같은 형식의 현실비판이란 바로 두보인식의 변증법적 갈등관계가 —「愛民」에 기초한 인간변화의 객체적 당위론인 「忠君」에 대한—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의 변화에 의한 모순의 총체적 통일이 아닌 개별체적 兩者收容의 수준에서 기본논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과 현실적 모순에 대한 質的 부정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형·귀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2. 상대적 충군우선주의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모순의 양자수용적 두보 인식의 생활을 통한 구체화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봉건적 이상관계의 퇴행과 몰락으로 인한 계층이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자기인식의 분열에 의한 모순의 상호수용을 기할 수 밖에 없었던 두보의 생활은 과연 충군우선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애민우선적인 것이었을까.

충군과 애민의 극화 및 실천에 의한 양자의 모순없는 구현으로써 사족계층 최고최대의 典範을 삼고 있었던 당대적 요구에 입각해 볼 때 每飯不忘君하고 「窮年憂黎元」<sup>11)</sup>했던 두보의 생활은 충군과 애민의 극화를 갖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安史의 난을 전후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보여준 그의 사대부적 사명감과<sup>12)</sup> 생활형식의 동화에 기초된 민중지향성 등은<sup>13)</sup> 사족계층의 당조적 퇴행을 초월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대부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두보의 충군과 애민은 양대가치가 평형적 갈등관계를 구성하는 현실에 있어서 만큼은 당시 사대부계층의 일반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왕권과 민중의 당위·부당위 관계가 아닌 兩者善에 입각된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그 역시 객체적 조건의 「어찌할 수 없음」으로 인한 충군우선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두보는 天寶 10年(서기 751년) 所作 <兵事行>에서 당조의 팽창주의에 입각된 민중술역의 부당함을 왕권·민중관계의 당위·부당위론으로써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或從十五北防河，便至四十西營田。去時里正與裏頭，歸來頭白邊成邊。  
邊庭流血成海水，武皇開邊意未已。

열다섯살에 北의 黃河를 수비하러가, 사십이 되어 西로 돌아가 屯田을 산다. 떠날 땐 里長이 두건을 매어주었는데, 白頭로 돌아와 다시 술역 살이. 변방의 유혈은 海水를 이루었지만, 武皇의 팽창욕은 그칠 이 없도다.

11) 天寶 14年(서기 755년) 所作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參照.

12) 두보 자신의 정치적 승욕으로 인한 결단이었던지만 至德 2年(서기 757년) 4월 두보는 叛軍治下의 長安을 탈출하여 同 5월 갖은 고생 끝에 肅宗治下의 鳳翔으로 복귀한다.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보여준 그의 사대부적 사명감은 일반사족계층의 개인주의적 피난행각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3) 제2·제3시기의 두보생활은 至德 2年 所作 <荒村三首>·天寶10年 所作 <投簡咸華兩縣諸子> 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중생활과의 동화·화해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三吏三別>에서 나타나는 그의 민중경향도 이와 같은 동화·화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乾元 2年(서기 759년)所作 <垂老別>과 <新婚別>에서는 安史의 난으로 인한 민중슬역의 비극을 「老妻臥路啼，歲暮衣裳單。孰知是死別，且復傷其寒。此去必不歸，還聞勸加餐。」(老妻는 길에 엎드려 울고, 歲暮에 의상이 홀웃. 死別인줄을 익히 아는데, 또다시 추위에 떨어야 하니. 떠나면 다시오지 못할터인데, 더 먹고 가라는 저 소리 듣게 된다.) 및 「嫁女與征夫，不如棄路旁，結髮爲妻子，席不暖君牀。暮婚晨告別，無乃太匆忙。」(征夫에게 딸을 줌은, 길가에 버리는 것만도 못하다더니. 머리 없어 부부 되고, 잠자리 깔아 침대도 따뜻해지지 않았는데. 저녁에 결혼하고 새벽에 헤어져야 하니, 너무도 총망하지 않은가.)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중의 村老와 신부의 입을 통하여 <兵車行> 당시와는 상반된 「민중슬역 당위론」을 전개하고 있다.

萬國盡征戍，烽火被岡嶽。積屍草木腥，流血泉原丹。何鄉爲樂土，安敢尚盤桓。

전국이 정술에 처해 있고, 봉화가 산악을 덮었으니. 시체가 쌓여 草木이 비리고, 流血에 泉源이 붉도다. 어느 고향이 樂土일 것이라고, 이 이상 어찌 더 주저할 것인가. <垂老別>

誓欲隨君去，形勢反蒼黃。勿爲新婚念，努力事戎行。婦人在軍中，兵氣恐不揚。

진실로 그대를 따라가고 싶으나, 형세가 도리어 기가 막히오 신혼생각은 하지 말고, 슬역에만 전념하세요. 부인이 軍中에 있으면, 군기가 진작되지 않을까봐요.) <新婚別>

혹자는 <垂老別> <新婚別>에서 나타나는 민중슬역 당위론을 두보의 위대한 애국정신으로서 평가하거나<sup>14)</sup> 민중계층의 애국정신에 대한 두보의 시적 재구성이라고 附註하고 있지만<sup>15)</sup>, 전자는 두보 인식의 상호 모순을 간과한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라는 점에서, 후자는 당시 민중의식에 대한 평가의 지나친 주관주의라는 점에서 논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외적 강제에 입각된 당시 슬역의 불가피성과

14) 1963년 建文書局 刊 傅庚生《杜詩散釋》184페이지 참조.

15) 蕭濂非《杜甫研究》하권 80페이지·81페이지 참조.



·충군과 애민의 총체적 통일에 의해야만 하는 두보 애국의 모순성 등을 감안할 때 이상과 같은 두보의 민중슬avery 당위론은 자신이나 민중계층의 「위대한 애국정신」 때문이 아니라 두보 인식의 양대범주를 구성하였던 충군·애민의 갈등 관계가 당위 내 당위의 상황속에서 —그것도 그를 포함한 지배계층의 존립자체를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의 논리에 부합하는 충군우선적 경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두보의 경향성을 村老 및 신부에 의한 사회적 비극의 전형형 「어찌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사회 —전형적 개인— 불가피성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사실적 삼중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서술하게 될 두보 升欲과의 관계속에서 그와 같은 결과론을 규정해 보면, 이 역시 두보인식의 충군우선적 경향으로써 귀결되어질 수 밖에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된다.

### 3. 정치적 상승욕구

일정계층에 처해있는 사회내적 인간의 상대적 상부구조를 향한 이동경향으로써 정의되기 때문에 당해 사회에 대한 편승여부를 규정하는 확고부동한 시금석을 제공하게 되는 소위 「상승욕구」의 유무로써 당조구성이론에 대한 두보의 편승여부를 조감해 보자면, 무엇보다도 그는 생활관계를 통한 명백한 政治升欲을 노정함으로써 소유의 불명등 당연주의 및 역할의 구조적 분화주의등에 대한 편승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신분질서에 대한 편승에 의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상승욕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체제지향성으로 인식되어지는 정치적 상승욕구는 무엇보다도 당시 두보의 汲引을 위한 投詩行脚에서 엿볼 수 있다.

有客雖安命，衰容豈壯夫。家人憂几杖，甲子混泥塗。不謂矜餘力，還來謁大巫。歲寒仍顧遇，日暮且踟蹰。老驥思千里，飢鷹得一呼。

내 비록 安命하여도 衰容을 어찌 壯夫라 하리. 식구들이 지팡이를 걱정하니, 평생이 친구령과 함께였도다. 餘力을 자랑하지 않나니. 大儒를 알현함이라. 歲寒이 다 되도록 汲引을 바랐건만, 다시금 저를 녀에는 머뭇거리게 된다. 늙은 千里馬 千里를 생각하니, 굶은 매 一呼를 얻는다.) <贈韋左丞丈濟>

無復隨高鳳，空餘泣聚螢。此生任春草，垂老獨漂萍。儻憶山陽會，悲歌在一聽。

다시 高鳳을 따르지 못하니, 하릴없이 울며 반디를 모은다. 此生은 春草에 맡겼으니, 다 늙어 홀로 떠다니거늘. 向秀가 山陽에서 稽康을 기억했듯, 슬픈노래 들었다가 유념해 주시오. <贈翰林張四學士珩>

사실상 체제내적 관료로서의 立身이야말로 당시 두보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였을 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 대한 재건의 건무함을 개탄했을 정도의 두보에게<sup>16)</sup> 그것은 실로 유일무이한 경제·사회적 해결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汲引을 위한 投詩行脚은 생존을 위한 노력이었던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이와 같은 행위의 과정을 당조적 기본논리와외의 관계속에서 규정해보자면 기본논리에 대한 인식의 명백한 편승으로서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단한 두보의 투시행각이 비록 인식의 기본 논리에 대한 편승때문이 아니랄지라도 당조적 구조이론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인간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며 결국은 기본논리에 의한 사회적 반대양부의 기대 및 욕망이라는 논리의 동일선상에서 출현된 일체적 양면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天寶 14年(서기 755년) 姦相 楊國忠의 총신 鮮于仲通에 대한 두보의 投詩는 天寶 11年(서기 752년) 所作 <麗人行>과는 달리<sup>17)</sup> 조만간에 걸친 楊國忠에 대한 주선을 부탁하고 있어 당시 두보 升欲의 단적인 일면을 노정하고 있다.

交合丹青地，恩傾雨露辰。有儒愁餓死，早晚報平津。

친숙한 그 公卿의 집에서, 은총이 雨露처럼 쏟아질 때. 근심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士大夫가 있다고, 조만간 楊國忠님에게 잘 알려주시오. <奉陪鮮于京兆二十韻>

이와 같은 그의 정치적 升欲은 天寶末에 보여준 그의 爲官行跡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天寶 14年(서기 755년) 초, 두보는 경제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해되어지는 지방행정기구의 租·庸·

16) 乾元 2年(서기 759년) 所作 <發秦州> 「生死不自謀」 부분 참조.

17) <麗人行>에서 두보는 楊國忠의 근친상간·방약무인한 등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後來鞍馬何逡巡，當軒下馬入錦茵。楊花雪落覆白蘋，青鳥飛去衝紅巾。炙手可熱勢絕倫，慎莫近前丞相嗔。」

調관리직인 河西尉에 위촉되어졌으나 부임하지 않는다. 두보 스스로는 그 이유를 縣內의 자기만 못한 상사들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싫어서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시 두보의 극심한 빈곤을 생각할 때<sup>18)</sup> 이는 결코 납득할 만한 변명일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록 한직이기는 해도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이 대동소이한 정팔품하 率府曹參軍이라는 중앙행정기구의 창고관리인직으로 동년 중에 위촉되었을 때는 바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자기 경위를 표현한 天寶 14年 所作 <官定後戲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不作河西尉，淒涼爲折腰。老夫怕趨走，率府且趨遙。耽酒須微祿，狂歌託聖朝。故山歸興盡，回首向風颯。

河西尉를 하지않으니, 처량하게도 허리를 굽혀야 해서. 늙은이는 쫓아다니는 것을 싫어하나니, 率府는 마침 한가해. 술마시려면 적은 봉급이라도 있어야 하니, 狂歌나 聖朝에 託庇할 밖에. 고향집에 돌아가 보는 재미도 끝이났으니, 바람부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본다.

蕭滌非는 杜甫의 이와 같은 경위를 河西尉라는 직책이 租·庸·調의 수렴을 위해서는 부득불 縣民들을 직접 닥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곤장을 맞는 것도 불가피함을 附註함으로써 忠君·愛民의 두보가 할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9)</sup> 知己인 高適의 체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현실을 숙지하고 있었을 두보를 생각할 때<sup>20)</sup> 蕭氏의 이와 같은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춘 것 같기도 하지만 전술한 두보의 편승적 경향이 무시된, 다시 말해서 현실적 존재로서의 두보인식이 결핍된 두보의 지나친 이상화·추상화의 결과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전술한 두보의 升欲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기구의 말단으로 소외되어 경제적 욕구나 해결하며 주저앉기 보다는 정치적 핵심으로의 상승을 도모하기 쉬운 長安內의 한직을 고수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18) 당시 두보는 長安의 빈민구호미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長安에서 좀 떨어진 奉先縣에서 寄食중이었다. 杜甫의 幼子가 餓死한 것도 동년 11월의 일이다. <醉時歌>·<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참조.

19) 蕭氏《杜甫研究》하권 35페이지 附註 참조.

20) 高適은 <封丘作>에서 「拜迎官長心欲碎，鞭撻黎庶令人悲」라고 지방의 租·庸·調 관리직의 체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두보는 <送高三十五書記十五韻>에서 「脫身簿尉中，始與揮楚辭」라고 자기의증을 표현하고 있다.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탈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논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 4. 경제적 상승욕구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두보 정치승욕의 일체양면을 구성하였을 두보 경제승욕의 조건과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경제승욕의 자기현실에 대한 생활상의 갈등은 또한 어떠한 것이었을까?

「讀書破萬卷」 함으로써 「下筆如有神」한 詩作能力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sup>21)</sup> 등용의 길을 걷지 못했던 두보의 경제적 현실은 무엇보다도 사대 부계층으로서의 생활형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경제적 형실을 타파하기 위한 天寶 10年の 藥草行商과 구호마에 의존해야 했던 天寶 12, 13年間の 생계, 그리고 어린 아들을 아사시킬 수 밖에 없었던 同 14年の 빈곤 등이 바로 두보가 겪어야만 했던 불가사의한 현실 그것이었다.<sup>22)</sup> 제 2·제 3 시기를 전후한 두보 경제승욕의 성격이 상승욕구라기보다는 생존권에 대한 주장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飢臥動卽向一旬，弊衣何費聯百結。君不見空牆白色晚，此老無聲淚垂血。

굶고 누워 열흘이 지나니, 누더기 옷 백번만 기웠을까? 보이지 않는가? 빈담의 차가운 저물녘이면, 이 늙은이 소리도 없이 흘리는 피눈물을. <投簡威華兩縣諸子>

入門聞號咷，幼子餓已卒。吾寧捨一哀，里巷亦嗚咽。所愧爲人父，無食致夭折。

문으로 들어서니 애틋하는 소리 들려, 어린 자식이 굶어서 죽었다고. 내 차라리 이 슬픔 버릴 수 있어도, 동네가 또다시 우는 바에야. 아비 된 것이 부끄러우니, 못먹여 어린 것을 죽였음이라. <自京赴奉先縣水懷五百字>

21) 天寶 7年(서기 748년) 所作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참조.

22) 1973년 華岡出版社 간 李道顯《杜甫詩史研究》杜甫年譜 참조.

그러나 이상과 같은 두보의 경제승욕은 경제적 자기생존에 대한 요구만으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長安時期를 전후한 두보의 경제승욕은 安貧樂道의 입장에 선 생존자체의 요구라기보다는 사족계층으로부터 소외된 두보의 자기현실에 대한 —자기보다 열등함이 분명한 권력계층의 知的狀態와 상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의 경제적 풍요, 그리고 「揚雄再世」의 詩作能力을 갖춘 자신의 그들에 대한 賓客노릇과 문전걸식 등— 부조리로서의 인식에 입각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此期 두보 경제승욕의 성격은 사족계층으로부터 소외된 두보의 사족계층을 향한 경제·사회적 복귀라는 「계층회복의 당위론」에 입각된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었던 것이다.

紈袴不餓死，儒冠多誤身。

부잣집 자식은 배고픔을 모르는데, 선비는 그릇되기가 쉬워. <奉陪韋左丞丈二十二韻>

騎驢三十載，旅食京華春。朝扣富兒門，暮隨肥馬塵。殘杯與冷炙，到處潛悲辛。

당나귀로 13년, 변화한 京師에서 寄食하니. 아침이면 부잣집 문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살전 말의 먼지나 따라다녀야 했으니. 남은 술과 식은 안주, 어디서나 슬픔뿐이었죠. <同上>

赤縣官曹擁材傑，軟裘快馬當冰雪。長安苦寒誰獨悲，杜陵野老骨欲折。

赤縣의 관아에는 인걸도 많으니, 가벼운 털옷에 날랜 말로 혹한을 이긴다. 長安의 엄동설한 누구 홀로 서러운가? 杜陵野老是 뼈가 부서질 지경이네. <投簡咸華兩縣諸子>

두보의 이상과 같은 「多誤身」한 「朝扣富兒門，暮隨肥馬塵」의 현실은 10여년간에 걸친 두보의 長安生活에도 불구하고 「紈袴不餓死」·「軟裘快馬當冰雪」의 현실로 대체되어지지 않는다. 등용을 위한 행각이었다고는 하나 경제적으로는 지극히 비생산적이었던 인텔리켄차의 톰펜프로레타리아 생활은 승욕과 현실간의 갈등이 빛는 「내적 절망」과 「외적 불만」 이외의 그 무엇도 안겨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天寶 14年(서기 755년) 봄, 두보는 <醉時歌>를 통하여 생계를 구호미에 의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술을 사서 명문세족 출신 鄭虔과<sup>23)</sup> 함께 연일 만취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흉작때문에 기아가 만연해 있던 그 해의 춘궁기에 평상시보다 몇배나 비싼 술을, 그것도 생계의 주요수단인 구호미를 팔아가며 만취하도록 마셔야 했던 두보의 생활은 비록 그것이 詩的 과장이 가미된 세계와 자신에 대한 분만과 절망의 소치라 하더라도 同年 11月 奉先에 寄厝중이던 그의 幼子가 그해의 기근으로 아사했음을 감안하자면 두보 자신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杜陵野老人更嗤，被褐短窄鬢女絲。日糶太倉五升米，時赴鄭老同襟期。  
得錢即相覓，沽酒不復疑。忘形到爾汝，痛飲眞吾師。

杜陵野老는 사람들의 더한 웃음거리니, 짧고 좁은 갈 옷에 귀털머리는 허영고. 날마다 닷되의 구호미를 얻어다가, 항상 鄭虔과의 약속에 달려가나니. 돈을 받은즉 서로 만나, 술을 사는 것은 물으니 마나. 곧 드레 만드레 너·나가 없으니, 痛飲만이 나의 스승.) <醉時歌>

先生早賦歸去來，石田茅屋荒蒼苔。儒術於我何有哉，孔丘盜跖俱塵埃。

선생도 일찌감치 歸去來辭나 지으시오, 石田과 茅屋이 황폐합니다. 나에게 儒術 따위 도대체 무엇인가, 공자건 도적이건 티끌되기 일반인데. <同上>

## 5. 체제지향적 흑백논리

마지막으로 두보의 史的 결정주의에 입각된 인식의 체제지향적 흑백논리를 들 수 있다. 사대부계층에 대한 왕조사회관계의 필수불가결의 요구였던 인식의 체제론적 흑백논리는 두보의 경우 安史勢力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安史의 亂을 전후한 두보 제 3시기 所作을 중심으로 당시 정치세력에 대한 그의 인식상의 태도를 고찰해 보면 두보의 그에 대한 인식상의 논리자체가 완전한 체제론적 흑백논리에 입각된

23) 鄭虔은 玄宗의 駙馬 鄭潛曜의 外叔으로서 명문세족 출신이다. 당시 玄宗은 鄭虔의 까다로운 성격을 감안하여 廣文館이라는 유명무실한 학술기관을 개설하여 그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孟多十郡良家子，血作陳陶澤中水。野曠天清無戰聲，四萬義軍同日死。  
群胡歸來血洗箭，仍唱胡歌飲都市。都人回面向北啼，日夜更望官軍至。

초겨울 十郡의 良家子들이, 피로써 陳陶의 못물을 이루니. 들은 쉼  
하고 하늘은 맑으니 싸우는 소리 없어, 四萬의 義軍이 같은 날에 죽었  
도다. 오랑캐들은 돌아와 피물은 화살을 씻고, 오랑캐노래를 부르면서  
長安을 떠나신다.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 눈물을 짓나니, 밤낮으로  
관군이 오기만 기다린다. <悲陳陶>

寄書問三川，不知家在否。比聞同罹禍，殺戮到鷄狗。

三川으로 편지를 띄워보나니, 집이나 남아 있을는지. 함께 화를 겪  
었다는 사람에 의하면, 개나 닭도 죽여버리더라는네. <述懷>

東胡反未已，臣甫憤所切。揮涕戀行在，道途猶恍惚。

동쪽 오랑캐 반란이 그치지 않으니, 臣 두보의 울분하는 바라. 눈물  
을 닦고 임금계신곳 그리워하나, 발걸음마다 마음이 흐려져. <北征>

이처럼 두보는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사회관계와 이에 상응하는 안  
사세력을 상대적 선악관념에 입각된 흑백관계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다. 안사의 난 중에 쓰여진 두보의 많은 작품속에서 난에 대한 체제내적  
요인의 지적을 —상부구조의 부패와 하부구조의 몰락 및 모순에 가득찬  
당조의 소수민족정책 등—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전술한 「唐帝國萬歲」·  
「皇帝萬歲」등의 구호가 심심찮게 출현하는 것도<sup>24)</sup> 실은 기존사회 관계의  
존립위기에 처한 두보의 인식이 흑백논리에 입각된 당조 구조논리에의 일  
치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 V. 결 론

결론적으로 전술한 杜甫·基本論理關係의 범주에서 두보 리얼리즘의 성

24) 황제만세·당제국만세의 대표적 실례로서 <北征>의 일단을 들 수 있다. 「胡  
命其能久，皇綱未宜絕。」「都人望翠華，佳氣向金闕。園陵固有神，灑掃手不  
缺。煌煌太宗業，樹立甚宏遠。」

격을 규정해 보자면, 결코 그것이 민중계층의 경제·사회적 입장에 근거한 소위 「민중시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의 경향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인식의 총체에 대한 문학행위상의 태도일 수 밖에 없는 그의 리얼리즘은 결코 계층으로서의 인식의 사대부적 경향을 —적어도 기본논리에 대한 인식의 편승적 경향이 작품자체로부터 추론된 것인 한— 뛰어넘는 것으로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관계상의 계층이해를 초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것이야 말로 두보 리얼리즘의 사대부적 한계이겠지만— 두보 리얼리즘의 남은 문제는 그의 상부구조의 퇴행에 대한 정치·사회적 비판과 하부구조의 몰락에 대한 경제·사회적 傾向性 등을 전술한 기본논리에 대한 편승경향과의 외연 관계속에서 究明·규정함으로써 두보 리얼리즘이 구성하는 갈등과 모순의 깊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陶希聖《唐代經濟史》臺北 商務 1968.
2. 呂思勉《隋唐五代史》臺北 九思
3. 傅樂成《漢唐史論集》臺北 聯經
4. 閔斗基《中國史時代區分論》서울 創批 1984.
5. 仇兆鰲《杜詩詳註》臺北 里仁 1980.
6. 燕京研究所《杜詩引得》Harvard.
7. 郭沫若等《杜甫研究論文集》香港 中華 1962.
8. 蕭滌非《杜甫研究》香港 人民 1957.
9. 傅庚生《杜詩散繹》香港 建文 1963.
10. 李道顯《杜甫詩史研究》臺北 華岡 1973.
11. 王永昌〈理性認識回到實踐活動的中間環節初探〉香港 人民《哲學研究》1983. 2.
12. 武仙卿〈唐代土地問題概說〉臺北 食貨《食貨》제4권 제2기 1937.2.
13. 曾了着〈隋唐之均田〉臺北 食貨《食貨》제4권 제2기 1936.6.



# 中國神話의 變遷과 文學

김 세 환\*

<目 次>	
I. 序言	4. 文學과 神話
II. 本論	(1) 寓言과 神話
1. 中國神話의 概觀	(2) 楚辭와 神話
2. 宗教觀念과 神話	III. 結語
3. 歷史觀念과 神話	

## I. 序 言

近代 中國의 晚清 考證學派 學者들은 中國歷史의 再照明을 위한 시도로 歷史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였다. 과거 神話·傳說의 거짓 歷史의 部分을 과감히 제거시키고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곳에서 부터 中國 歷史의 章을 열었다. 이 결과 中國의 歷史는 千年이상 단축되었으나 이와 반대로 신화와 전설은 이제까지 歷史에 附庸되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하면서 신화로써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신화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이제까지의 史觀에 대하여 회의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일부에 국한되어 그들의 言及은 中國에는 신화가 많다, 또는 적다에서 부터 이미 견해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例로 民國初의 저명한 학자인 胡適은, 中國의 民族은 소박하여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해 게으른 南方 사람들이 종려나무아래 잠에 빠져 白日에 귀신을 본다거나 白晝에 꿈을 꾸는 등이나 하지를 못하였고, <詩經> 三百篇에는 결국 신화의 遺跡이 없다고 하였다<sup>1)</sup>. 이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의미이외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신화가 과연 白晝之夢이며, 中國 사람이 정말 「不善幻想」이었는가

\*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1) <白話文學史>《第六章 故事詩的 起來》胡適 著.

하는 점에서 中國文化의 특수성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中國에서 文·史·哲은 하나의 總體的인 개념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이 세가지는 모두가 歷代로 儒學을 正統으로 하여 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느 한 학자의 문학에 관한 언급은 실제로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儒學을 正統으로 하는 그의 史觀이나 哲學觀이 함께 복합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 각도를 달리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학 역시 철학적인 진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근거나 또는 역사의 교훈적인 의미가 항상 강조되어 왔고, 문학의 구조에서 추구될 수 있는 진리의 다른 면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신화가 과학적인 설명이나 역사적인 서술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던 신화의 形成期를 지나면 이러한 과학적·역사적인 의미는 변화를 하게 된다. 신화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역사의 기록 및 교훈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도 신화는 계속 傳承되며 이야기되었다. 즉 신화는 신화의 의미를 갖는다.

上記한 胡適의 지적은 이러한 中國의 신화관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中國의 神話의 有無와는 사실 관계없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臺灣과 中共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中國神話가 연구되고 있고 이들의 연구는 의미없는 虛構로서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의 역사이며 진리의 구현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本稿는 中國神話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中國의 이러한 신화관념을 그 본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소재였다 생각되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Ⅱ. 本 論

### 1. 中國神話의 概觀

古代 中國에 신화의 專著는 전해지지 않고 단지 詩人이나 철학자들에 의해 片段的인 신화의 기록만이 남아 있다. 때문에 신화의 原形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더욱이 歷代注釋家들에 의해 상당한 부분의 臆說의인 수정이 따랐다. 이러한 현상은 <楚辭>나 經書 또는 諸子書에 나타나는 신화 모두가 마찬가지이며 특히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왜곡은 신화와 역사의 구분울 모호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중에서 신화를 가장 原形에 가까우면서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은 <山海經>이라 할 수 있다. 現存하는 <山海經>은 모두 十八卷 三萬餘字로, 夏禹·伯益이 지었다 하나 믿기 어렵고, 대체로 빠른 것은 東周에서 부터 늦게는 漢初에 이르기까지<sup>2)</sup>, 여러사람에 의해 쓰여졌다고 본다. 이것은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同時代의 作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히 이책을 두고 巫書라 하거나<sup>3)</sup>, 中國 最初의 地理書라 하는<sup>4)</sup> 등, 책의 著作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어느 한 시대의 한 두사람의 作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四百五十餘 가지의 神靈에 관한 記述과 이에 못지 않은 역사·지리 및 二百五十餘개의 氏·部族에 관한 기록이 중첩되어 있어 巫書와 역사·지리서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역사·지리라 함은 四千餘年前의 신화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화의 역사·지리를 뜻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神話書라 할 수 있다.

<山海經>의 이러한 성격은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신화를 보존해 왔다는 점에 귀한 가치가 있다. 어떤 교훈적인 의미나 史實如否를 강조하지 않는 신화자체의 보존이며, 이는 후에 다른 서적에서 散見되는 신화의 異體를 가리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가령 西王母의 신화를 보면, <山海經>에서 「豹尾虎齒」의 怪神인 西王母가 <穆天子傳>에서는 당당한 人王으로 變身되었다. 조금 後의 <淮南子>에서는 羿가 西王母에게 「不死之藥」을 구했다가 姮娥에게 도둑맞는다는 기록이 보인다<sup>5)</sup>. 西王母는 凶神으로 부터 吉神으로 변해있는 것이다. 다시 후에 班固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六朝때의 作으로 보이는 <漢武故事>에서 西王母는 文字 그대로 西方의 王母로 되었다가, 한걸음 더 나아가 <漢武內傳>에서는 三十餘歲의 「容顏」이 「絶世」인 美女로 바뀌었고, <山海經>에서 西王母에게 먹이를 구해주는 세마리의 青鳥는 董雙成이니 王子登이니 하는 아름다운 侍女들이 되어 있다. 이것은 신화가 그 시대감각에 맞게 변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두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러 새로운 形態의 신화를 형성한다는 점이

2) <五藏山經>이 가장 이른 작품으로 遠珂는 東周시대의 作이라 하고 劉大杰은 戰國初로 보고 있으며, <海內·外經>은 秦漢에 걸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3) <中國文學發達史>, 劉大杰 著.

4) <中國神話研究 ABC·下冊>, 茅盾 著.

5)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姮娥竊以奔月」 <淮南子·覽冥訓>.

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화는 傳說과 역사속에 파묻히면서 그 자취를 잃어 간다는 점이다.

古代 治水傳說에서 禹는 가장 추앙을 받는 인물로 <詩經>에 그가 홍수를 다스린 기록이 있다<sup>6)</sup>. 그러나 이 禹와 관련하여 鯀의 묘사가 각각 다르다. 禹와 鯀은 본래 관련이 없었으나, <尙書·堯典>에서 禹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鯀의 治水는 실패로 끝낸다. 그러나 <山海經>에서는 鯀이 帝의 「息壤」<sup>7)</sup>을 훔쳐 홍수를 막았다가 帝命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帝의 뜻에 의해 祝融에게 살해된다. 이후 鯀의 뱃속에서 禹가 태어난다<sup>8)</sup>. 鯀·禹는 본래 天神에서 전설중의 인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홍수를 다스리고 흙을 퍼서 山川을 만들고 하는 神職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이렇듯 신화는 생동하면서 관련되는 系譜를 만들며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의 신화를 형성하면서 歷史化되고 있다. 이러한 系譜는 神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宇宙나 諸自然現象에 대한 初民의 思想을 그들의 생활습관에 의거해서 나타내면서 점차 인간과 혼합되어 융화된 神仙의 세계로 옮겨오다가 결국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신화는 인간생활과 별개의 二元的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간생활의 投影이라는 一元的인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볼때, 그것은 곧 인간의 神의 형상화이며 신화의 세계에 펼쳐지는 제반 현상과 사건은 原始社會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中國 신화의 세계도 결국은 당시 사람의 사회의 구조나 생리에 따라 간단한 실명에서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茅盾은 이러한 中國 신화의 세계를 여섯가지로 분류하였다<sup>10)</sup>.

- ① 天地開闢에 관한 신화로 盤古가 어떻게 천지를 개벽하였으며 女媧는 어떻게 뚫린 하늘을 막았는가 하는 宇宙創造와 관련된 신화들이다.
- ② 日·月·風·雨나 그밖의 자연현상에 관한 신화로 羲和가 태양을 모시는 것이나 羿의 아내인 姮娥가 달로 도망하는 등의 신화들이다.
- ③ 起源神話로서 中國民族의 특색으로 여기는 蠶의 신화가 있으나 아주

6) 「洪水茫茫，禹敷下土方。」<商頌·長發>

7) 郭璞注에 의하면 스스로 끝없이 生長할 수 있는 흙덩어리로 홍수를 막을 수 있음.

「息壤者，言土自長息無限，故可以塞洪水也。」

8) 「禹鯀始希土，均定九州。洪水滔天，鯀竊帝之息壤以堙洪水，不待帝命。祝融殺鯀于羽郊。鯀復(腹)生禹。」

9) 參考《古虫辨·第七册》<鯀禹의傳說> 顧頡剛.

10) 參考《中國神話研究》茅盾 著，《神話雜論》，世界書局.

적다.

④ 神들의 武功에 관한 신화로 黃帝가 蚩尤와 싸워 이긴 것과 顓頊이 共工을 伐한 등의 신화다.

⑤ 幽冥世界의 신화로 비교적 後代에 道教나 佛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⑥ 人物 變形의 신화로 후대의 增飾을 받은게 많다.

이러한 茅盾의 분류는 몇가지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이 쉽게 보인다. 먼저 起源神話로, 그에 의하면 例가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분의 片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한 項目으로 분류하기에는 불충분하며, 道教나 佛教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冥府에 관한 故事를 신화와 並論한다는 것은 그의 역사발전에 관한 관점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人物變形에 관한 신화는 앞의 여러 분류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들의 구체적인 형상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신화가 어떤 면에서 인간생활의 반영이라고 볼때 그것은 인간생활과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中國 신화에서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는, 그 기록만으로 볼때, 原始에 가까울수록 형태는 간단하며 내용은 인간생활과는 멀다는 점이다. 멀리 우주창조에서부터 人文의 발달에 따라 점차 인간의 주변으로 내려오고 이에 따라 신화중의 인물과 사건은 그 성격에 특징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화의 내용이나 소재에 의해 그것을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대신에, 신화의 계보를 찾아 그의 변천 및 발전을 더듬어 보는 것은 고대인들이 발견해낸 생활의 진리와 또 그에 대한 관념 및 신화의 후대에 미친 영향을 찾아 본다면, 이것은 역사이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2. 古代中國의 宗教觀念과 神話

신화는 人類學, 心理學, 社會學, 文學 등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 흐르는 개념이지만, 그 初期 단계에서는 종교와 분리할 수 없는, 즉 일종의 종교철학적인 관념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원시인들의 우주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호기심이나 경외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超能力이나 神性에 관한 일종의 宗教心理의 發露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민족의 종교관념의 특징은 신화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當代의 저명한 철학자인 唐君毅는 中國 古代宗教 精神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셋을 들었다<sup>11)</sup>.

① 人間과 神 사이의 거리감이 적다는 점으로, 그리스의 Troy전쟁이나 Oedippus 신화에서처럼 人·神의 충돌이나 또는 神의 惡意인 조작이 없이, 中國에서는 항상 神과 인간이 서로 위배됨이 없이 가까이 있어 왔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大禹의 治水·後羿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는 것, 共工이 怒하여 不周之山을 받아 天柱를 부러뜨렸으나 女媧가 하늘을 매운다는 등의 신화들은 인간이 자연을 이기는 의지의 반영이며 이에 따라 神은 사람의 편에 있었고 人性和 天命은 相反될 필요가 없었다.

② 조상과 신이 함께 제사를 받으며 神意와 人意는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상에 제사하는 것이 곧 하늘에 제사한다는 관념으로, 神意와 人意는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神意나 天命은 人力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占卜의 吉凶도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易의 卦·爻辭도 인간자신의 修德에 의하여 吉凶은 상대적으로 變通된다는 관념이다. 때문에 神意에만 매달리는 巫覡의 중요성은 자연히 감소되고, 종교 또한 초월하여 독립된 문화적 지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③ 天帝는 仁愛와 體恤의 德이 풍부하여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이 이를 따랐다는 관념이다. 天帝는 이러한 德으로 인간세계를 덮고 있으며 따라서 하늘을 본받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었다.

唐氏의 이러한 관념은 中國의 神話傳說에서 보여주는 종교사상의 특징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고대 중국에는 天神의 개념이 없었고<sup>12)</sup>, 殷末까지는 天은 단지 자연의 하늘일 뿐으로 神性を 지녔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sup>13)</sup>. 甲骨文에 나타나는 「天」字의 개념은 사람의 머리를 덮고 있는 茫茫한 공간을 가리킬 뿐이다. 中國人은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늘에 대하여 공포심보다는 자연을 다스리는 天帝의 개념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天帝의 관념은 殷代에 국가조직이 갖추어지면서 君王이 일체를 통치함에 따라 종교도 자연 一神敎의 형태로 발전되어 나타난 듯하다.

初期의 天帝의 관념은 우주를 主宰하면서 농업과 정치에 관여하는 사회

11) 參考《中國文化之精神價值》，唐君毅 著，正中書局，臺北。

12) 參考《中國古代宗教初探》朱天順 著，上海人民出版社，上海，1982。

13) 參考《先秦天道理之進展》，郭沫若 著。

14) 參考《古史辨·第七冊》〈中國上古史導論〉，楊寬 著。

적 기능을 나타냈다.<sup>14)</sup> 天帝는 日·月·風·雨·雲·雷 등을 다스린다. 甲骨文에 보이는 帝는 五臣을 두고 있었으며 風神·雲神이 이들 사이의 使者 역할을 하였는데 점차 자연의 제현상을 각각 다스리는 專擔神이 생겨났다. 楊寬은 〈楚辭·天門〉·〈詩經·商頌〉·〈山海經〉·〈淮南子〉·〈墨子〉·〈左傳〉·〈國語〉, 그리고 〈呂氏春秋〉等 書에 나타나는 諸神의 屬性을 여덟가지로 분류하였는데; ① 社神, ② 稷神, ③ 日神·火神, ④ 河伯水神, ⑤ 嶽神, ⑥ 金神·刑神 혹은 牧神, ⑦ 鳥獸·草木之神, 그리고 ⑧ 上帝, 이렇게 中國고대신화는 그 계보를 갖추고 신의 세계가 이루어졌다.<sup>15)</sup>

이러한 神의 계통은 唐氏의 종교관념과 비교하여 본다면 두가지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無人格의 세계에 새로운 人格의 세계를 건설하였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이로부터 신화의 인물은 바로 전설속의 영웅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無人格의 天을 主帝하는 天帝에서 시작되어, 대상자체에 神靈의 존재를 믿기 보다는 그 대상을 지배하는 神들이 따로 있어 이들은 언제나 인간세계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화를 원시인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으로 보는 입장은 中國 신화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보여진다.

### 3. 古代 中國의 歷史觀念과 神話

신화의 기원이 初期 종교사상과 관련되어 원시인의 어떤 종교적인 심리의 반영이었다면, 통치자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할 수 있었고 아울러 신화는 정치가들의 의도하에 재구성되거나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고 본다. 이것은 특히 帝王이 天帝에게 제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당위성을 신화의 교훈적이고 寓意的인 해석에서 인정받으려 했던 흔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와 의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初期에는 단지 신화중의 인물을 전설속의 英雄으로 추앙하면서 역사와의 연계를 맺으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尚書·堯典〉은 비교적 後代의 僞作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화가 거짓역사로 변모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羲氏·和氏에게 命하여 하늘을 경건히 받들어 日月·星辰의 운행에 따라 曆法을 만들어 백성에게 節候를 定하여 주라 하셨다. 별도로 羲仲에게 命

15) 參考 前揭書 〈中國上古史導論〉.

하여 暘谷이라는 耦夷계 살게하여 태양을 공손히 모시어 백성으로 하여금 耨耜에 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밤낮의 길이가 같고 鳥獸이 보기는 것으로 仲春(春分)을 정하니 그 백성들이 자기 들로 나가고 鳥獸는 交尾하며 번식하였다. 다시 羲叔에게 命하여(明都라 하는) 南方의 交趾에 살게 하여 夏耨을 다스리되 밤낮의 길이를 살피도록 하였으니, 곧 낮이 가장 길고 大火星이 보이면 仲夏(夏至)로 삼아 백성이 옷을 벗고 일하며 鳥獸는 털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또 和仲에게 命하여 서쪽의 昧谷이라는 곳에 살면서 지는 해를 공손히 전송하며 가을추수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니, 곧 밤낮의 길이가 같고 虛星이 보이는 것으로 仲秋(秋分)를 삼으니 백성들이 平地로 내려오고 鳥獸는 다시 새털이 났다. 다시 和叔에게 命하여 북쪽에 幽都라 하는 곳에 살면서 冬藏을 살피도록 하였다. 낮이 짧고 밤이 길면서 昴星이 보이는 것으로 仲冬(冬至)를 삼으니 백성들이 방안으로 들어가고 鳥獸는 숨털이 났다.

「乃命羲和，欽若昊天：歷象日月星辰，敬授人時。分命羲仲，宅耦夷，曰暘谷，寅賓出日，平秩東作：日中，星鳥，以殷仲春。厥民析：鳥獸孳尾。申命羲叔，宅南交，(曰明都)<sup>16)</sup>。平秩南訛：敬致。日永，星火，以正仲夏。厥民因：鳥獸希革。分命和仲，宅西，曰昧谷。寅饒納日，平秩西成：宵中，星虛，以殷仲秋。厥民夷：鳥獸毛毳。申命和叔，宅朔方，曰幽都。平在朔易：日短，星昴，以正仲冬。厥民隤：鳥獸氄毛。」

이것은 堯帝가 四方神을 파견하여 四時를 主帝하며 백성들의 경작을 돕도록 하는 대목이다. 神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져 신화와 역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이 기록은 周代 이후의 史官이 神話나 전설 등의 자료를 이용해 前代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록의 목적은 당시의 문화발달의 정도로 보아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당시 王朝의 正統性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가 신화로서 기재되지 않고 上記와 같이 허위의 역사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신화는 또 다른 臆說로 왜곡되었다. 淮水와 泗水는 엄연히 바다로 흘러드는데 孟子는 禹의 治績을 칭송하다가 禹가 淮水·泗水의 水路을 건설하여 江으로 흘러들게 했다고 한다<sup>17)</sup>. 孔子는 신화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당시의 전설인 「黃帝四面」에 대해 「四面」을 신체적인 열

16) <尙書正義> 鄭玄注에 의하면 「曰明都」 세 글자는 摩滅되었다 함.

17) <孟子·滕文公上> 「禹疏九河，濬濟漯，而注諸海，決汝漢，排淮泗，而注之江。」



말 넷이 아니라 黃帝가 四人을 두어 四方을 다스리게 했다고 한다.<sup>18)</sup> 寓意의인 해석을 한 것이다.

宰我是 孔子에게 물었다.

황제는 사람입니까? 아님니까? 어떻게하여 三百年을 살았습니까?

「請問黃帝者人邪，抑非人邪？何以至於三百年乎？」

孔子가 대답하되：

살아서는 民을 이롭게 한 것이 百年이고, 죽어서는 民이 그 神을 섬기게 百年이며, 잊혀져서는 民이 그의 教化를 받은게 百年이니, 이를 三百年이라 한 것이다.

「生而民得其利百年，死而民畏其神百年，亡而民用其教百年，故曰『三百年』」<sup>19)</sup>

다시 夔는 <山海經>에서 다리가 하나인 怪物인데<sup>20)</sup>, 孔子는 「夔一足」이라는 말이 이상해서 「夔一而足」라는 해석을 하여<sup>21)</sup> 夔 하나로 足하다는 뜻을 내세웠다.

孔子는 그 자신이 怪·力·亂·神을 얘기하지 않으며<sup>22)</sup>, 鬼神은 경외하되 멀리하였다.<sup>23)</sup>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화는 하나의 역사적인 故事의 불충분한 서술이며 당연히 그에 대한 수정과 寓意의인 해석이 필요하다. 鬼神을 섬기되 멀리한다는 것은 鬼神의 形而下的인 구체적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人文의 발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孔子는 현상이외의 形而上的인 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만 하늘을 언급하면서 天命을 긍정하는데 이것은 다소 심리적인 요소가 다분하다.<sup>24)</sup>

이렇듯 신화는 孔子의 입장에서 전혀 가치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따라서 왜곡된 수정을 받아 결국 허위의 역사를 꾸미는데 도움이 되고 신화자체는 孔子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儒學者들에 의해 거의 거론되지 않게 되었고 약간의 서적에 의해 보존되어 올 뿐이었다.

18) 「子貢問於孔子曰『古者黃帝四面，信乎？』孔子曰『黃帝取合己者四人，使治四方，不某而親，不約而成，大有成功，此之謂四面也』」<太平御覽·七十九引尸子>

19) <大戴禮記·五帝德>

20) 「狀如牛，蒼身而無角，一足，…」<山海經·大荒東經>

21) 「…故曰『夔一足，非一足也』」<呂氏春秋·察傳>

22) 「子不語怪·力·亂·神」<論語·述而>

23) 「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論語八佾>

24) 「生死有命·富貴在天」<論語·顏淵>

中國神話는 이상과 같이 史的이거나 哲學的인 관점에서 傳承될 수 없었으며 단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만이 片段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晚淸 學者들의 中國 역사의 再照明 作業은 이러한 허위와 왜곡을 가려내 역사와 신화를 구분하는 노력이었으니 여기서 부터 또 다른 신화의 추적이 요구되었고, 이로부터 신화는 이러한 유학자들의 관점 이외에서 그 가치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 4. 中國文學과 神話

##### (1) 寓言과 신화

신화의 종교적, 철학적 및 역사적인 면에서의 고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화는 인문과학의 발달에 따라 점차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면서 허위의 역사로 흡수되거나 또는 教化目的의 위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는 본래 神的인 것, 또는 神性的의 일부거나 그에 관련되어 형성되다가 여러 양상의 수정을 받거나 어느 의도하에서 재구성되기도 한다. 신화에서 본래 없었던 교훈적인 의미를 찾거나 寓意的인 해석을 한다거나, 본래 과학과 역사를 위해 서술된 것이 아님에도 신화에서 과학이나 역사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신화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와 가치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문화의 생명인 신화가 Socrates나 晝變학자 같은 지식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중국의 신화는 결국 깊은 학문을 담은 유학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論理的인 思考가 발달하면서 유학이 정치와 학문의 정통으로 得勢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이들 정통파의 중시를 받지 못하였으나 신화는 여전히 다른 형태에서 그 가치가 발견되고 보존되어 왔다. 또한 유학자들은 신화를 말살시키기 보다는 이의 충돌을 피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어 단지 역사적인 교훈을 찾으려 했다. 여기에서 신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 즉 철학적인 理智속에서 타당성을 유지하는 내용이 선별되어 철학적 기능을 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신화의 문학적 기능을 입증받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신화의 철학적 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孔子에서 부터 이미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신화가 문학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의 문학적 기능은 文體로 볼때 寓意를 띤 散文과 詩로서 나타난다. 산문이라 함은 곧 寓言이며, 詩는 곧 寓言詩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 筆者는 中國의 寓言과 哲學的인 散文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 두가지는 내용에 있어서는 구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잘막하고 段片的인 형태에서 思想家들에 의해 주입된 哲學的인 概念들은 곧 寓言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며, 사람들을 啓導하고 자신의 어떤 사상을 표현해내는 것은 문학과 철학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태여 구분지으려는 것은 中國의 寓言이 문학을 철학으로 부터 독립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5)</sup> 그러나 이 두가지는 형식이나 구조면에서도 중첩될 수도 있는 뚜렷한 구분을 지을 수는 없다. 단지 다음에 설명하는 寓言의 특징으로 부터 寓言에서 철학적인 산문을 제외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같은 經書라 할지라도 <論語>와 <孟子>는 그 記述方法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철학적인 산문은 대체적으로 어느 일부분의 字意가 문장 전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즉 상징적인 수법이나 隱喻 속에서 숨겨져 나타나지 않은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가 적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신화가 寓言으로 운용되거나 또는 신화 자체가 寓言으로 나타날 때 문학적 특징의 범위를 비교적 분명히 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中國에서 寓言이란 말은 <莊子>에서 보인다. <莊子>에 나타나는 寓言은 「重言」과 대비를 이루며 설명된다. 《寓言》篇에 의하면 重言이란 重復된다는 의미로<sup>26)</sup> 자신보다 경륜이 많은 사람이나 혹은 앞서 간 聖賢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의 반복을 뜻하는 것이 된다. 즉 <莊子>書에 나타나는 여러 전설적인 인물들은 곧 重言의 記述方法이며, 이는 상징의 뜻을 가지고 역사의 한 부분이나 신화·전설 중의 특정 사건의 부분 또는 인물의 특성을 대신한다. 신화가 대부분 객관적인 해석이나 설명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진리」의 표현이라 한다면, 이때 상징되는 진리는 곧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寓言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화와는 신화의 寓意의인 해석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관련되어 있다.

25) 參考 拙稿 <莊子寓言及其功用研究>

26) 參考 <莊子口義> 林希逸 著

重言의 의미에 대해 郭象은 注에서 重히 여긴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이것은 林希逸의 해석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보아 무방할 것으로 여긴다.

신화의 寓意的인 해석과 신화의 寓言的 運用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寓意的 해석이라 함은 莊子에 나타나는 重言과 같은 개념의 흐름으로, 신화를 자연적 또는 도덕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며, 이것은 또한 철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重言」에서 반복되는 상징의 진리는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리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寓言은 매우 주관적이며 합리성이나 당위성은 그 자체의 진리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 寓言은 「爲人所重」<sup>27)</sup> 되는 重言과는 달리 신화나 전설중의 사건과 인물이 작가의 虛構 속에서 확대된 隱喻로 나타난다. 司馬遷의 「莊子書 十餘萬字가 대부분 寓言이라」는 말이<sup>28)</sup> 타당성을 지닌다면, 《逍遙遊》全篇에 흐르는 신화는 곧 寓言이 신화의 발전된 형태이거나 또는 신화의 統合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라는 假說을 가능하게 해준다.

寓言은, 世人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史實이나 聖賢의 성취를 통하여 발견해낸 진리를 반복하는 重言과는 달리, 신화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裏面에 숨긴 암시적인 문학적 효과를 얻는 즉 人智의 발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화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莊子書〉에 신화의 운용이 많았음은 이미 陸德明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다.<sup>29)</sup>

신화를 자연계의 諸現象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대신에 이에 대한 인간의 宗教心理인 假託으로 파악해 보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면, 寓言은 作家의 주관적인 진리의 寄託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탁은 작가의 創意性이 작용하는 점에서는 신화의 演變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창의성은 또한 寓言의 확대를 가능케 했다. 《養生主》의 「庖丁解牛」는 약간의 신화적인 흔적 외에는 모두가 작가의 창의성에 의한 것으로 寓言은 이미 상당히 변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30)</sup>

## (2) 楚辭와 神話

中國 南方의 沅·湘江 일대에 위치한 楚나라는 그 자연환경의 풍요로운

27) 參考《莊子音義》陸德明著〈經典釋文〉

28) 〈史記〉「著書十餘萬言，大抵率寓言」

29) 參考〈經典釋文〉陸德明著。

「言多詭誕，或似山海經，或類占夢書」

30) 이점에 대하여 필자는 寓言과 寓話의 구분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寓話와 신화 사이에는 그리 의미 있는 관계가 있지 않다고 보아 여기서는 보류하려 한다.

혜택을 받으면서, 北方과는 달리 비교적 낭만적이며 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문화가 발달되었다. 특히 이들은 鬼神을 섬겨 제사하며 노래와 춤으로 諸神을 즐겁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sup>31)</sup> 이러한 환경에서 발달된 노래와 춤의 結晶이라 할 수 있는 楚辭는 北方의 詩歌와 비교해 상이한 특질을 보이고 있다.

劉大杰은 네가지의 특질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楚의 종교적인 특징을 들어, 巫術·迷信의인 풍속이 풍부한 幻想力과 各種의 神話·傳說을 발달시켜 아름다운 歌辭와 樂舞를 성장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南方의 음악의 특징으로서, 「南音」 또는 「楚聲」이라 일컬어지는 楚의 음악은 북방에 비해 풍부한 환상이나 변화곡절로 民間의 巫歌와 함께 詩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셋째로, 楚의 言語로서, 독특한 楚의 口語를 사용하여 楚辭文學 특유의 언어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네째로, 楚의 물질적인 풍요와,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정신적인 특징이 詩의 抒情的인 면을 발달시켰다는 점이다.<sup>32)</sup>

이러한 점들은 楚辭의 표면적인 특징이나 그 발생 배경의 환경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나, 楚辭 자체의 구조·형식 또는 辭로서의 어떤 특징, 즉 楚辭가 당시의 文學史의인 면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는 그리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楚辭가 詩經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의 詩歌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楚辭의 특징은 자연적인 환경보다 시대적인 前後關係에서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물질의 풍요나 수려한 景觀보다 문학적인 배경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楚辭研究에 상당한 공헌을 한 游國恩은 楚辭에서 두드러지는 네가지 관념을 지적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宇宙觀念: 자연에 관한 관념으로 《天問》에 가장 많고, 《離騷》·《遠遊》가 그 다음으로 많다.

② 神仙觀念: 脫俗의 관념으로 《遠遊》篇이 대표적이며 《離騷》에 또한 많다.

③ 神怪觀念: 幻想의인 관념으로 《招魂》에 가장 많고 《天問》이 다음이며 他篇에는 아주 적다.

④ 歷史觀念: 善惡因果에 관한 관념이거나 教訓·勸戒的인 관념으로

31) 「昔楚國南郢之邑，沅湘之間，其俗信鬼而好祠，其祠必作歌樂鼓舞以樂諸神」  
《楚辭章句，九歌序》王逸 著

32) 《中國文學發達史》《第四章屈原與楚辭》劉大杰 著

《離騷》·《天問》에 가장 많다.<sup>33)</sup>

이러한 관념들은 楚辭의 특색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游氏는 이러한 관념들을 개별적으로 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宇宙觀念과 歷史觀念은 객관화된 설명의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우주관념에서 〈尙書·堯典〉을 인용하면서 屈原이 어떻게 天地·山川·日月·星辰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天問》에는 天文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曆法·地理 등의 광범위한 소재를 쓰고 있다. 그러나 楚辭의 가치가 이러한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游氏의 역사적 관념은 楚辭의 寓意的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班固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기록의 목적은 後世에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sup>34)</sup> 游氏는 이러한 史觀에서, 〈離騷〉에 나타나는 「鯀」·「啓」·「羿」等の 신화적인 인물의 운명에 대하여 屈原이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離騷》篇을 이러한 역사의 교훈적인 產物로 볼 수는 없다. 《離騷》는 우선 長篇의 抒情詩라는 점을 游氏도 인정하며<sup>35)</sup>, 作家의 현실생활과 理想간의 갈등에서 생기는 격렬한 감정이 寄托되어 있어 詩 全篇에는 浪漫主義精神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역사적인 관념에서의 교훈적인 의미가 한편의 서정시를 훌륭하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游氏가 파악해낸 楚辭의 우주관념과 역사관념은 관념이라기 보다는 작가의 일부 소양의 확인에 가까운 것으로, 楚辭에 흐르는 어떤 문학적 관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밖에 神仙觀念과 神怪觀念은 楚辭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실 楚辭의 全篇에 흐르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神仙과 神怪는 楚辭에 있어서 거의 같은 관념이라 할 수 있다. 표면에 나타나는 神仙이나 神怪 관념은 대부분의 경우 寓言으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들이며, 작가의 진정한 의도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例로서 神怪觀念은 《招魂》에 가장 많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楚에서 행해지던, 魂을 부르는 일종의 古俗을 빌어 작가의 어떤 염원을 寄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33) 〈楚辭論文集〉《屈原考源》游國恩 著

34) 〈漢書·藝文志〉「歷記成敗，存亡，禍福，古今之道」

35) 〈楚辭論文集〉《屈原作品介紹》

36) 參考〈先秦文學史〉《第四章 楚辭與屈原》徐北文 著，1981，濟南，齊魯書社。

神仙理念의 대표라 하는 《遠遊》는 자신의 영혼의 여행을 통해서 육체의 염원을 달성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편은 근본적으로는 작가의 한 관념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즉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형이상학적인 곳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寓言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表層的으로 볼 때 《遠遊》는 《招魂》에 비하여 道家의 常用言語가 많이 나타나며 脫俗的인 경지의 추구가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游氏는 屈原의 神怪思想은 道家와 근원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것은 神仙觀念에서는 그 표면을 보고 神怪觀念에서는 寓言으로 이해하는, 즉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모순이다.

楚辭는 詩經과 더불어 中國古代文學史에서 가장 빛나는 걸작품들이다. 詩經이 많은 사람에 의해, 많은 지방에서, 그리고 긴 세월을 통해 집대성된 것이라 한다면, 楚辭는 적은 사람—혹은 한 두사람—에 의해, 한 지방에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楚辭의 문학적 성취의 원인이나 특색은 詩經에 비하여 훨씬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劉大杰의 자연환경적 특질이나 游國恩의 神仙·神怪觀念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楚辭가 갖고 있는 실제의 가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劉氏는 文學史를 다루는 입장에서 일반론에 그치고 있고, 游氏는 분명한 문학작품을 두고 지나치게 歷史나 교훈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楚辭의 문학적인 성취나 또는 특징을 論할때 神話의 運用을 가장 두드러지게 본다. 楚辭는 〈山海經〉·〈淮南子〉와 더불어 중국의 신화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다. 즉 詩歌로서 거의 全篇에 걸쳐 신화를 運用하여 성공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임을 중시해야 한다. 이 조건은 그 구조나 형식 또는 내용에서 모두 필요한 것으로 楚辭는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내용면에서 楚辭는 上記한 자연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신화와 융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北方의 儒家에 의한 현실적인 思考보다는 南方에서는 비교적 낭만적이며 특히 巫俗이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신화는 북방에서 처럼 내용의 수정이나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수 있었다. 즉 신화는 그 자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문학에서의 진리와 신화에서

의 진리는 같은 양상을 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인간생활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이 배척된 북방에서는 哲學的인 散文이 자연스런 발달을 가져오는데 비하여 남방은 이를 포용하면서 詩歌文學이 祭儀式 속에서 발달하였으니 이것은 곧 南·北方의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인간의 진리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진리라 함은 신화의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의미의 延長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원초적이며 내재적인 진리로서, 現性이나 理智보다는 感性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이룸이다. 이것은 屈原의 心的 갈등이나 어떤 理想郷이 그의 신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寓言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 볼때 楚辭는 모두가 長篇의 詩歌이다. 詩經에 비하여 韻律과 形式이 상당히 자유롭다. 이 두가지는 楚辭의 신화운동이 매우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詩經에도 신화의 흔적이 있으나 한 首 전체에 신화를 운용한 것은 한편도 없다. 주로 四言 위주의 짧은 詩 속에 說話故事의인 신화를 이용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또한 譬喻를 사용하는 것은 詩經과 같지만 楚辭에서는 비유나 隱喻가 모여 寓言의 體系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說話故事의 성격을 띤 신화가 長篇의 叙事詩에서와 같이 抒情詩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용되었음은 詩의 표면에 나타나는 인물의 형상화나 사건의 전개는 곧 신화의 서술이 아니고 시인의 抒情이 巫歌의 형식으로 신화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의 관점에서 <楚辭·離騷>를 보면, 먼저 第一人稱의 「余」가 多層的인 의미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篇中에서의 「余」는 현실적인 「나」이나, 작가는 「正則」이나 「靈均」의 이름을 도구로 현실의 「나」의 한계를 벗어나 신화의 「高陽」帝와 연결하여 현실과 理想郷을 자유로이 오르내리는 架構로 삼는다. 신화속에서 시인의 化身으로 분장된 「靈均」은 「羲和」<sup>37)</sup>를 부리며 極東으로는 태양이 뜨는 「扶桑」木에 말고삐를 매고, 서쪽으로는 태양이 잠자는 「崦嵫」山에 이르기도 한다. 그는 또한 四極八方을 여행하면서 신화속의 美女에게 求愛를 하기도 한다. <離騷>의 이러한 면은 두가지의 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작가의 끊임없는 여행이다. 그는 神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자신을 人神化하여 자유분방한 여행을 한다. 다른 하나는 작가의 이상과 현실

37) 太陽의 수레를 모는 神, 또는 太陽의 어머니로 건함. 參考<山海經>



사이에서 벗어지는 갈등으로 부터의 울분·분노 또는 열정 등의 강렬한 감정의 대비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갈등에서 작가는 끊임없는 神界의 여행을 하게 되고 또 고향의 주위를 맴돌게 한다.

〈離騷〉는 작가의 이러한 관념들이 詩속에서 寓言으로 형상화된 일종의 비극적 寓言詩라 할 수 있다. 광범하게 나타나는 神界의 神名이나 地名 등은 개별적인 상징에서 보다는 총체적 형상화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들은 종교적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변화가 없이도 人文과의 충돌을 빚지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다. 때문에 신화는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고 구태여 修飾이나 增飾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Ⅲ. 結 語

上述에서 필자는 中國 신화관념의 변천을 통해 神話의 專著가 없는 중국에서 신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래되어 왔고, 신화의 참된 의미가 어떠한 관념에서 구현될 수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신화는 그 자체가 이미 문학의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中國의 고대 종교관념으로 볼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上帝의 관념은 찾아보기 힘들며 하늘과 인간은 서로 존중하며 德으로 교통하고 있다. 따라서 巫覡이나 어느 특정종교가 특별히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신화에서의 神은 그 개별적인 神性으로 군림하기 보다는 인간과의 관계가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은 中國의 역사관념에서 더 드러나는 것으로, 기록과정에서 많은 신화의 부분이 역사속으로 흡수되어 神과 인간사이의 거리를 좁혀놓고 있다.

中國에서 신화의 본질이나 기능은 문학적인 진리의 구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신화가 신화의 형성기를 지나면서 부터 신화는 곧 도덕적인 규범의 제시나 교훈적인 의미의 表象으로, 신화에서가 아니라 역사속에서, 顯示되었다. 신앙과 儀式에 대한 연관성이 사라지면서 신화는 역사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반면 문학에서 새로운 면모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곧 寓言의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寓言의 형태는 산문에서나 詩에서 같이 나타나 古代의 중국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寓言은 신화와 人文사이의 충돌을 완충시키면서 그 운용 여하에 따라 신화는 오히려 더 사람에게 친숙하여지고 감동을 주게 되었다.

## 主要參考圖書目錄

1. 〈中國文學發達史〉劉大杰著，學林有限公司，香港，1979.
2. 〈中國文學史〉游國恩等著，北京，1982.
3. 〈古史辨〉顧頡剛等著.
4. 〈楚辭論文集〉游國恩著，九思出版社，臺北，1977.
5. 〈清人楚辭注三種〉王夫子等編著，長安出版社，臺北，1975.
6. 〈十三經注疏〉大化書局，臺北.
7. 〈大戴禮記解詁〉王聘珍撰，中華書局，北京，1983.
8. 〈中國小說史〉范烟橋著，長保出版社，臺北，1977.
9. 〈莊子集釋〉郭慶藩編著，河洛出版社，臺北.
10. 〈白話文學史〉胡適著，文光圖書有限公司，臺北，1978.
11. 〈左傳文藝新論〉高葆光著，東海大學，臺北，1969.
12. 〈中國民間文學論文選〉中國民間文藝研究會上海分會，上海文藝出版社，上海，1982.
13. 〈中國古代宗教初探〉朱天順著，上海人民出版社，上海，1982.
14. 〈民間文學叢談〉越景深著，湖南人民出版社，湖南，1982.
15. 〈中國民間文學概要〉段玉林著，北京大學出版社，北京，1981.
16. 〈原始神話論〉Malinowski著，徐永大譯，茂林社，서울，1980.
17. 〈文學과 神話〉김명옥 등 編譯，대방출판사，서울，1983.
18. 〈中國文學史論文選集〉羅聯添編，學生書局，臺北，1978.
19. 〈中國古典文學論叢〉王夢鷗等著，中國文學月刊社，臺北，1976.
20. 〈中國文化之精神價值〉唐君毅著，正中書局，臺北，1979.
21. 〈中國神話研究〉譚達先編著，商務印書館，臺北，1980.
22. 〈中國的神話與傳說〉王孝廉著，聯經出版事業公司，臺北，1977.
23. 〈先秦文學史〉徐北文著，齊魯書出版社，山東，1981.
24. 〈淮南鴻烈解〉劉保撰，河洛圖書出版社，臺北.
25. 〈山海經神話系統〉杜而未著，學生書局，臺北，1977.
26. 〈Myth and Literature〉William Righter著，London，1975.
27. 〈Studies in Chinese Literary Genres〉Cyril Birch編，California，1974.

# 稼軒詞의 인식세계

李 浚 植\*

<目 次>	
一. 가현사 접근에의 전제	1. 현실일탈의 배경
二. 가현사의 현실비판	2. 현실일탈의 성격
1. 현실비판의 조건	(1) 소망대상으로서의 일탈
2. 현실비판의 성격	(2) 완벽한 초월로서의 일탈
(1) 의적 장애에 대한 비판	(3) 불완전한 일탈
(2) 현실 타파 의지	四. 결 론
三. 가현사의 현실 일탈	

## 一. 가현사 접근에의 전제

「애국詞人」 혹은 「민족詞人」으로 중국 고전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신기질의 詞작품은 빈번한 승진·파천·파직의 시련을 겪어온 그의 관직생애 만큼 다양한 내용과 풍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의 詞는 혹은 남송 정부의 무사안일에 대한 견책과 비판으로, 혹은 폄박받음으로 인한 탄식·분노로, 혹은 抗金·故土회복에의 격앙된 열정으로, 혹은 전원 閑居 중의 순수한 자연 吟唱 등으로 각각 표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몇가지 대표적 양상이 그의 600여수나 되는 詞작품 속에서, 그 시기적 선후 관계에 따른 정연한 의미진개를 구성함이 없이 무질서한 반복으로 번주되었던 바, 후세 평자들의 소위 「애국」「민족」 운운의 도식적이고 획일화된 요약은 그것의 바른 이해에 관해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저해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稼軒詞에 내포된 신기질의 인식세계를 규명함에 있어 지금까지 그 인식을 다소라도 불투명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 더우기 한 작가가 처해있던 시대·사회적인 총체적 분위기에의

\*東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편향이나 작품 분석을 통한 어느 평자의 관용적 진술을, 작품 개개가 지니는 고유미의 정확한 파악에 우선시켰을 때 촉발되는 문제점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일련의 의문들은 가헌사나 또는 그것에 관한 평론들을 접하면서 필자가 부단히 느껴온 일종의 압박 내지는 거부감이자 본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지금까지 가헌사 평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대다수 평자들이 신기질의 詞작품에 대해 그의 문학외적 영역에서 기인한 고정관념 내지 선입견으로 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기질의 문학 외적 업적이나 활동이 그 문학활동의 성과로 비약 전이되고 있다. 물론 문학 작품에의 바람직한 접근을 전제로 작가의 삶자체·신념 및 시대·사회적 환경 등의 파악은 가치있는 일이며, 필수적인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약전이된 규정의 결과가 곧 작품 가치로 동일시될 수는 없고 과장된 구속력을 가져서도 안될 것이다.

신기질의 경우, 〈美芹十論〉〈九議〉〈議練民兵守淮疏〉〈淳熙己亥論盜賊劄子〉등의 奏議文에 나타나는 그의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항전의식 그리고 滁州·湖南·江西·福建 등지에서 발휘되었던 정치 역량 및 치적들이 가헌사의 이상화·신성화에 밀접히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詞작품의 一字一句가 한결같이 당대의 현실 상황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지닌다거나 작家的 투철한 비판 의식의 일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이러한 편견의 당연한 귀결로서, 첫째, 신기질의 농촌사·애정사 중에서 명백한 현실일탈의 성격을 띤 작품에까지 작가의 현실지향 의지의 편린이 외연되어 있다고 보는 근거 희박한 고정관념 내지는 개연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단순히 작가 개인의 공명심에 바탕을 둔 불만·탄식의 토대로 판단되는 작품군을 국가 前途나 민족 운명애의 관심표명의 맥락으로 파악하려는 경직된 환상이 암암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셋째 신기질이 당대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 인식 범위의 한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가 결핍되어 있는 점 등이다.

물론 본고에서와 같이 가헌사의 인식세계를 현실비판과 현실일탈로 양분하는데는 자칫 관찰자의 자의적 독단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가헌사에서처럼 그 의미구조가 시기적 선후 관계에 따른 질서있는 변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복적인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빚어지는 반복적인 내적 지향을 구성할 경우 그 위험도는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본고는 관찰상의

정확한 기준 설정을 위해, 詞작품 개개의 분석에서 가급적 전통적인 평론을 일단 무시한 뒤에 의미 구조를 파악코자함으로써 선입견의 배제를 의도했으며, 또한 작품 해석의 기준이 현실일탈 여부와 크게 관련하므로 그 작품의 생산과 그 당시 작가의 정치·사회적 지위 관계와의 상호 연결을 중시하고자 했다.

이 밖에 현실 일탈의 성격을 논술하는 과정의 「완벽한 초월로서의 일탈」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극히 축소화했으나 실제적으로 가헌사가 이러한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신선주의나 낭만주의라 명명될 성격의 또 다른 완벽한 현실 일탈이 상당수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비교적 표본적인 성격을 띤 일부 농촌과 유관한 부분만을 언급했으나 이 점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확인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 二. 가헌사의 현실비판

### 1. 현실비판의 조건

남송 통치 집단이 東南一隅에서 기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급급했던 신기질 당대의 지식인 계층은 대개 다음의 세 유형으로 회분될 것이니 첫째는 기득의 재영역을 현상 유지하려했던 왕실과 그 주변의 和議論者이며, 둘째는 국가 前途와 민족운명의 개척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현실을 직시하여 당대의 모순된 제현상을 통찰하고 抗金투쟁과 失地회복을 견지했던 主戰論者이며, 셋째는 행동의 실천이나 구원에의 기대를 포기한 채 전원산수로 귀의했던 자들이다.

가헌사는 작가가 속했던 둘째·셋째 유형의 반영이니, 항전·실지회복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거나 또는 그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의 강렬한 규탄, 아니면 현실을 아예 외면한 산수자연에의 함몰이 그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가헌사의 현실참여 내지는 비판정신이 매우 적극적이고 집약적인 반영은 되지 못했으나, 그것은 詞문학 고유의 한계성—可唱性 또는 운문 형식으로서의 여러 제약—외에도 작가 자신이 봉건적 사회구조 속에서 사대부 계층의 일원이었다는 근본적인 요인을 갖는다. 따라서 가헌사의 현실비판이라는 범주 속에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의

두 양상이 각각 분리되어 설명되어질 것이고,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작품 중에서 더러는 그것이 순전히 작가의 개인적인 불만 탓에 그치고 있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가현사의 현실비판은 대체로 어떤 조건하에서 그 생성의 필연성을 갖는가?

첫째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시대·사회적 환경었다.

여진의 金統치로부터 신기질이 南渡를 결행한 것은 그의 나이 23세이던 1162년이다. 이는 金太宗이 汴京으로 공략해온 지 35년이 되는 해로서 여진족이 한창 中原 민중에 대해 착취와 만행을 자행하던 시기이며, 여진통치지구에서의 민중봉기 및 抗金투쟁이 고조를 이룬 때이다. 또한 일단의 항진지사들은 신기질의 남도를 전후하여 좌천·파직 혹은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었고, 남송 통치집단은 이에 반하여 그 勝戰역량을 포기한 채 金과 이미 굴욕적인 和議조약을 체결했으며<sup>1)</sup> 이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sup>2)</sup>

둘째는 「사회관계의 강제」로 규정할 수 있으니 이는 첫항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남도 이래 신기질의 仕途는 좌천·파직·재기용의 악순환의 연속이었으니 50년이 못되는 관직생애 중 전후 18년간을 閑居로 보낸 것은 당대 권력 구조의 내부 마찰에서 결과한 것으로 사실상 작가의 失政이나 자기의지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가현사에서 작가의 不得志에 근거한 탄식과 울분의 토로가 다른 어떤 성격보다 더 빈번히 출현하는 것도 —이는 물론 작가의 비판의식의 강약과는 무관하지만— 바로 이 사회관계의 강제라는 맥락에서 보아 쉽게 파악되어진다.

셋째는 「사회관계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작가는 비록 관직에

1) 1141년 11월 主戰派의 맹장 岳飛는 秦檜등 主和派에 의해 「있어서는 안될(莫須有)」 죄목으로 살해당하고 12월 高宗은 金熙宗과 굴욕적 조약을 맺으니 紹興和議다. 그 주요내용은 ①宋은 金에 奉表稱臣하고 ②매년 銀 25만량과 絹 25만필을 공납하고 ③金主의 생일과 정월 초하루에는 축하사신을 파견하며 ④宋영토를 일부 할양하는 등이다. 신기질의 南渡 직후인 1164년 主和派인 湯思退는 북벌을 제창한 張浚등을 파직하고 隆興和議를 체결하니 銀絹의 공납은 각 5만씩 감량하되 宋황제가 金主를 숙부라 칭하였다.

2) 신기질이 죽은 이듬해인 1203년, 主和인물 史彌遠은 북벌의 주세력인 韓侂胄를 살해하여 金朝에 바치고 開禧和議를 맺으니 그 내용은 ①宋은 金主를伯父라 칭하고 ②銀 30만량, 絹은 35만필을 매년 공납하고 ③金軍 위로금으로 銀 300만량을 지급하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몸담고 있을 때라도 빈번히 그 理想실현을 위한 일관된 주장을 펴려·견지하였으니 <美芹十論><九議>등의 산문이 그 주된 언어 투쟁이 될 것이며 그것이 詞작품에까지 외연되어집은 극히 자연스런 귀결이다.

이상의 조건들은 이하 현실비판의 성격 규명에서 작품 개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詳述을 피한다. 다만 제 1항의 조건이 가현사의 전반에 걸쳐 영향하므로, 조건과 작품성격과의 특이한 상관관계를 추출해낼 수 없겠지만, 제 2·제 3항의 서로 상반되는 조건하에서 가현사는 일반 작가들과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즉 작가가 사회관계에 긍정적으로 수용되었건 아니건 간에 그 작품의 의지표현의 강약엔 극히 영향 받지않는 면을 보여준다. 물론 신기질이 판적생활중에 요직에 기용되기 보담은 미관말직이나 한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그 자신 역시 빈번히 그 불만을 노정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에 전혀 수긍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가현사를 읽으면서 그 작품의 형성이 사회관계와의 수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판별이 용이하지 않음은 어쨌든 가현사의 한 특성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싶다.

## 2. 현실비판의 성격

복층 來坡詞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배태한 花間詞風의 전통적 계승에 대한 반발기운은 남송초기 詞壇에서는 그 시대·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되고 가현사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니, 詞작품의 현실침여 내지 비판의식의 수용은 극히 자연스런 추세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가현사의 경우, 이 자연스런 추세에 편승한 詞작품의 현실 반영은 곧 사회구조나 현상의 제모순에 대한 첨예한 지적과 적절되지는 않으며, 또 한계성을 뻗쳐로 일관적인 의미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도 않다. 이제 그 구체적 양상을 다음 항목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다.

### (1) 외적 장애에 대한 비판

가현사의 주요 모티브는 자기 외적 장애 요소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비롯되거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비분강개로만 끝나는가, 혹은 자기 안주를 간구하는 소극적 지향에 머무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비판태도를 견지하는가에 대한 확연한 획분은 그 기준설정에 있어 모호성을 배제

하기 어려운 문젯점이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의 범주에 포괄되는 내용은 일단 언급의 대상으로 고려될만하다고 보여진다. 즉 남송 통치 집단의 국사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또 그들의 抗金인사에 대한 탄압 및 인재 기용의 실책에 대하여 가현사는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의 파악이 되겠다.

신기질의 당대 현실 상황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그에 상응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美芹十論> <九議> 등 남도초기의 奏議文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실제에 있어 작가 자신이 소망했던 가치규범이나 질서는 그가 관직생활을 영위해 갈수록 침예한 모순으로 전화된다. 즉 이미 金치하에 든 中原민중들은 여진족의 수탈·중과세 및 노역에 시달려 「怨望·교통 및 분노가 깊은」<sup>3)</sup> 지경에 이르고, 남송 치하의 민중들은 또 그들 지배 계층의 극에 달한 향락 생활의 재원 충당에 지쳐 佃戶로 전락하거나 「부득불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sup>4)</sup> 상황으로 치달는다. 그러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통치집단은 「남부지역의 취약성으로는 中原을 칠 수 없다」<sup>5)</sup>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으니 작가의 불만과 그에 따른 통렬한 비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신기질이 보기에 그들은 달빛을 가로막는 계수나무(<太常引>·一輪秋影轉金波)이거나 길가의 먼지(<南歌子>·玄入參同契), 말 시늬에만 능한 九官鳥(<千年調>·扈酒向人時) 또는 연못속의 개구리메(<滿庭芳>·傾國無謀) 따위의 미물과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 봉건사회의 사대부 계층의 일원으로서, 또 작가의 정치이상을 충분히 구현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官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비록 은유의 수법으로 형상화된 것이긴 하나 그가 자기 사회를 형성 지배하고 있는 사회 세력에 이만큼의 조소와 비판을 가하고 있음은 곧 현실개조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신기질은 또 그들의 개인적인 향락추구를 지적하여

「君莫舞，君不見，玉環飛燕皆塵土」<摸魚兒>

(그대여 날리지말라, 楊玉環·趙飛燕도 결국은 흩어져있음을 모르는가!)

3) 「怨已深，痛已鉅，而怒已盈也。」<美芹十論·觀舞第三>

4) 「民之所以爲盜者，由賦繁役重，官吏貪求，饑寒切身，故不暇顧廉恥爾」<淳熙己亥論盜賊劄子>

「…不去爲盜，將安之乎？」<同上>

5) 「南北有定勢，吳楚之脆弱不足以爭衡於中原。」<九議·其九>



라고 했으니 역사적 교훈(漢唐皇后)을 들어 일시적 행운의 덧없음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충고는 때로 우회적인 수법으로도 나타나는 바, 〈水龍吟〉上片에서 ;

「渡江天馬南來，幾人真是經綸手？長安父老，新亭風景，可憐依舊。夷甫諸人，神州沈陸，幾曾回首。算平戎萬里，功名本是，眞儒事，公知否？」

(남도이래 국가 다스릴 能手는 몇이었던지? 중원의 민중은 통일 기다리고, 남도한 자 新亭에서 國事한탄만. 王夷甫같은 무리들이 고국향락 돌아 보거나...? 해아려보니 오랑캐명정·공명멸침은 眞儒가 할 일, 그대는 이를 아시는지?)

라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작가가 일찌기 吏部尙書를 역임한 韓元吉의 생일 축하시로 읊은 것으로 이 때(1184年)는 조정이 남도한지 이미 60여년이 지난 무렵이다. 西晉의 宰相으로 국가 멸망을 초래했던 王夷甫같은 무리가 오늘 「神州沈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비난하는 의도가, 「平戎萬里」을 달성할 「經綸手」가 되고자하는 願望 속에 감춰져 있다. 따라서 「公知否」의 「公」은 韓氏에 대한 격려이자 작가의 자기 확인이며 또한 「眞儒事」를 망각한 「夷甫諸人」에 대한 힐책의 암시이기도 하다. 이 밖에 〈賀新郎〉에서의 「嘆夷甫諸人淸絕」라든지 〈水調歌頭〉에서 「長劍倚天誰問，夷甫諸人堪笑，西北有神州」라고 한 것 역시 같은 수법·같은 논조의 맥락 속에서 쉽게 이해된다.

「夷甫諸人」의 실책은 그들의 현실 상황에 대한 무관심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사실 金정부의 「중원민중에 대한 멸시」<sup>6)</sup>를 외면해버린다가 전쟁이 났지도 모르는<sup>7)</sup> 무감각에 빠져버린 정신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다.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한 무관심이 사회 또는 다른 개인과의 상관관계에 의연되어졌을 때 발생하는 보다 큰 폐해나 모순이다. 신기질의 불만과 분노는 그래서 통치집단의 항전인사에 대한 탄압 및 인재기용 실패에서 출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

작가 자신을 포함한 不得志의 항전지사는 가현사에서 소금수레나 끄는 天里馬(〈賀新郎〉·老大那堪說), 헛되이 비탄해진 변방의 말(〈木蘭花慢〉·漢中開漢業),知音없는 음악 연주(〈蝶戀花〉·九畹芳菲蘭佩好), 머리카락

6) 「彼視吾民如晚妾之御嬪子」(〈美芹十論·觀霧第三〉)

7) 「不知兵戈之爲何事」陳亮(上孝宗皇帝第一書)

이 오히려 태산보다 무거운 가치전도(〈水調歌頭〉·長恨復長恨), 한무제의 충애를 잃은 長門宮의 陳皇后(〈摸魚兒〉·更能消幾番風雨)등으로 비유되거나, 아래에서 보는 〈卜算子〉上片 역시 그 한 실례가 된다.

「千古李將軍，奪得胡兒馬。李蔡爲人在下中，却是封侯者。」

(고대 李장군은 포로되었다가도 오랑캐 말 뺏어왔지. 李蔡의 인품은 下中等이면서 列侯로 봉해졌네.)

작가는 《史記》〈李將軍列傳〉의 고사를 인용하여 조정의 인재 등용상의 본질적 실책을 폭로하고 있으니, 功은 크되 관직은 낮았던 李廣의 처지와 그 반대였던 李蔡의 강렬한 대조는 바로 신기질이 당면했던 남송정부 인재기용상의 부정적 증상의 한 전형이다.

## (2) 현상 타파 의지

가현사의 현실 비판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신기질의 분노와 견책은 그 자신의 개인적 인식세계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고 의적 장애에 대한 반응도 결국은 그 인식세계에 준거한 가치관의 틀에서 생산되어질 것이기에 가현사에 나타나는 작가의 사상 기초에 대하여 본장에서는 남송 조정의 안주 경향과 대조를 나타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자 한다.

두말 할 나위없이 신기질은 유가 사상의 규범과 질서 속에서 세계를 판단한다. 때로 그가 좌천·파직의 기로에서 老莊에 부합되는 언론을 노정하기는 했으며 그것은 결코 영구적이거나 총체적이지 못했고 그 자신 「眞儒!」를 소망하거나 또는 의기투합하는 주변 인물들의 인품을 역시 그것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 「功名本是，眞儒事」〈水龍吟〉라든지 「君詩好處，似鄒魯儒家」〈念奴嬌〉라고 한 것등이 이를 설명할 수 있겠다.

유가로서의 신기질에게 있어 절대적 忠君은 부동의 당위성을 갖게 되니, 궁핍이 극에 이른 민중의 반란은 실령 그 목적이 다수 민중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을지라도 추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실이 되며, 주저없이 처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되고 실천된다. 반면 최고 통치자의 실책은 그것이 통치자 자신의 오류가 아니라 주변 상황의 작용 탓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그의 현상 타파 의지는 체제의 부정은 될수없고 체제의 공고화라는 절대 명제를 전제한 것이기에 체제 개선의 모색과정으로 보아도 좋겠다. 따라서 작가의 의지표명은 곧 그의 충성심의 노정이며, 대체로 투철한 항진 의지의 발로로 요약된다. 이러한 그의 몇몇 작품은 철저히 「先抗戰, 後享樂」의 논지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는 상관이었던 韓元吉의 생일 축하연에서 「국가 사업을 완성한 뒤에 다시 축하드리겠다」<sup>8)</sup>고 했고 부임하는 친구의 전송길에서는 「전장에서 죽기를 맹세하되 다시는 향락생활을 언급할 것」<sup>9)</sup>을 당부한다. 이와같은 知己를 향한 발언은 또한 작가 자신을 향한 자기독려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 자기의지의 표출이 이미 작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실현불가능으로 귀착되는 상황도 적지않이 출현하는 바, 작가가 동료에게 「국가 사업을 완성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자」<sup>10)</sup>거나 「남아로서 죽는 날까지 굳센 마음으로 재간을 발휘하자」<sup>11)</sup>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늙어서 어쩔 수 없다」거나 「복벌이 요원하니 훗날 다시 생각해보자」<sup>12)</sup>고 말한다. 이같이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자포자기와 국가통일을 위한 신념간의 상호모순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의식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작가의 현실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미래의 기약을 想定한 체 애국적 당위론으로 변신했을 수도 있고, 현실에 착근할 수 없음에 대한 절망속에서의 위선적 발언일수도 있으며, 또는 자신의 노력이 무보상으로 결과한 것에 대하여 작가 자신의 궁핍한 심리 상태를 위안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 三. 가현사의 현실일탈

#### 1. 현실일탈의 배경

남도 아래 줄곧 지방관 혹은 중앙 말직에 머물며 적극적인 救民 정책을 전개했던 신기질은 관직 생활 근 20년만에 통치 집단과 그에 부화하는 조

8) 「待他年, 整頓乾坤事了, 爲先生壽」〈水龍吟〉

9) 「馬革裹屍當自誓, 蛾眉伏性休重說」〈滿江紅〉

10) 「了却君王天下事, 贏得生前身後名」〈破陣子〉

11) 「道男兒到死心如鐵, 看試手, 補天裂」〈賀新郎〉

12) 위의 詞에서는 각각 「可憐白髮生」, 「老大那堪說」라 했고 〈水調歌頭〉에서는 「決策尙悠悠, 此事費分說, 來日且扶頭」라 결론지었다.

적의 배척을 받아 파직하게 된다. 즉 봉건적 유가사대부로서의 한계성을 지닌대로 그의 정치 실천이 폭정에 사달린 민중의 지지는 획득할 수 있었지만 대지주·대관료들의 이익과는 대양 상충되었으니,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중이 도적으로 전락한 원인을 전적으로 탐관오리와 지방호족의 착취와 부패에 두고 있음도(〈淳熙己亥論盜賊劄子〉) 그 일례가 된다. 마침내 「외롭게 殺身봉사」한다고 자처했던<sup>13)</sup> 그는 「正道를 배반하고 어진 선비들의 심했으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sup>14)</sup> 인물인데다 「돈을 몰쓰듯하고, 인병을 초개같이 여긴」<sup>15)</sup> 관료로 王藺의 모함을 받아 파직된다. 이전부터 그 자신 남송 정부에 重用되지 않음을 한탄하며 수시로 田園閑居를 시사했던 신기질은 그 해 봄 帶湖에 新居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었으니 그로서는 파직이 예감되었던데다 지방관으로 전진했던 관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그간 누적돼 왔음을 입증한다. 결국 그의 자연귀의는 작가 자의적 소망과 타의적 강제라는 두 요소를 배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帶湖 新居는 「극히 규모가 커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sup>16)</sup> 호화관이었으니, 도적으로까지 전락할 정도로 궁핍했던 민중의 생활을 그가 은둔한 뒤에도 유념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후술할 것이지만, 실제로 閑居 중의 가현사에서는 농촌 생활의 한가로움, 농민의 소박상, 농촌 정경의 아름다움은 다소 묘사되고 있으나 농촌 생활의 본질적 문제점에 접근하여 그들의 피해상 또는 고통을 대변하는 경우란 찾기가 어려워 우너 이는 곧 그의 자의적 은둔 회구가 봉건 사대부의 현실 도피로 해석됨을 시사하며 「사람은 부지런히 노동을 우선해야 한다」<sup>17)</sup>는 그의 발언을 重農 사상의 한 노정이라고 이해함도 이 사실과 관련해볼 때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 2. 현실일탈의 성격

신기질이 관직 생활을 통해 좌절과 회의를 느끼며 전원 산수로의 귀환을 소망했던 자의적인 일탈의 성격을 면 작품을 제외한 타의적 강제의 배경을 갖는 현실일탈 작품은 비록 그것이 작가의 18년간 두 차례에 걸친

13) 「巨孤危一身久矣…殺身不顧。」〈淳熙己亥論盜賊劄子〉

14) 「反害正理，正士見疑，忠言不入」陸九淵《象山集·與徐子宜書》

15) 「用錢如泥沙，殺人如草芥」《宋史·辛棄疾傳》

16) 「甚宏麗」「潛入去看，以爲耳目所未曾睹」《陳亮集·與辛幼安殿撰書》

17) 「人生在勤，當以力田爲先」《宋史·辛棄疾傳》

한겨 생활의 소산이라는 공통점을 갖기는 하나 시기적인 전후 관계에 기인한 각각의 성격상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작가가 55세 되던 해(1194년)에 두번째 전원으로 귀의한 이후의 작품 속에는 그의 정치 현실로부터의 배척받음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더 농도 짙고 빈번하게 출현한다. 즉 前期 낙향 시기에 비해 후기에 와서는 연령상의 원인이 작용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자탄과 自嘲, 관직 생애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강렬하고 그에 따라 작가 자신의 高節을 강조한 작품이 다소 많아진 것이 굳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가현사의 현실일탈의 성격을 다음 항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작가가 관직에 머무는 중에 不如意함을 개탄하며 전원 귀의를 염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물론 관직에 따라 현실일탈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의 애국심에 기인한 현실비판의 성격으로까지 평가하기도 하나, 결론적으로 작가가 현실일탈에 이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탈 동기가 현저한만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는 그야말로 현실 비판의 의도나 불만 분노의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순수 農村詞・閑逸詞이고, 마지막으로는 은거 중에 자탄・自嘲・불만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이는 첫 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비판・현실일탈의 성격 구명에 상당한 모호성을 갖지만 작가의 소재선택, 작품이 내포한 의미구조의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참여나 비판을 때로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해탈・자기 위안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때는 불완전 일탈로 간주하여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 (1) 소망 대상으로서의 일탈

주전론자에 대한 통치 집단의 탄압과 비방은 그들의 항의・의기소침・관직에 대한 혐오등으로 표출되었던 바, 신기질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항의의 수단으로 詞작품이 동원되는 경우란 극히 드물고 역사 고사를 원용한 소극적 의지 표명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기 의지의 결렬이 은퇴의 갈망과 연계되어집은, 빈번한 좌천과 전보를 겪은 작가에게 있어 당연한 귀결이었으니 작품을 통해 그 구체적 면모를 보면, 〈水調歌頭〉下片에서;

「今老矣，擡白首，過揚州。倦游欲去江上，手種橘千頭。二客東南名勝，萬卷詩書事業，嘗試與君謀。莫射南山虎，直覓富民侯。」

(이는 늙어서 흰머리 굽으며 양주를 지나네 관직에 뛰어나님이 싫증나

서 강호로 돌아가 풀나무나 손수 심었으면 두 분은 동남에 이름나고 학식도 풍부하시지. 그때들과 의논하고 싶군요. 남산호랑이 사냥 말고 富民侯되는 일을)

이는 작가가 湖北으로 전보되는 뱃길에서 친구에게 토로한 심경이다. 한무제가 과거의 무력전쟁에 염증을 느껴 그의 丞相을 富民侯로 封해 安居케 했다는 고사를 빌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 임지에서 1년을 넘기기 힘든 관직생활을 보낸 작가로서 「倦游」는 당연하다 할지라도 현직 관리라는 입장에서 「嘗試與君謀」라는 우회적인 전제를 달지 않을 수 없다. 「今老矣, 搔白首」운운 역시 39세의 그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전제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수용했을 때 그의 관직 생활의 간난, 그에 따른 힘오는 단순한 정도가 아니겠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억지스런 발뺌이 아닐 수 없다.

그 근거를 아래에 보는 〈沁園春〉 下片에서 찾아보면 ;

「東岡更葺茅齋, 好都把·軒窗臨水開。要小舟行釣, 先應種柳, 疎籬護竹, 莫礙觀梅。秋菊堪餐, 春蘭可佩, 留待先生手自栽。沈吟久, 怕君恩未許, 此意徘徊。」

(동쪽 언덕바지 초가집 지었으니 좋기로 창문이 물을 향해 달린 것. 배 타고 낚시하러거든 우선 버들을 심어야지. 울타리로 대나무 막아도 메화 바라보기는 방해않도록. 추국은 먹을 수 있고 은란은 찔 수 있으니 이는 그때(작가 자신)가 손수 가꾸시길. 오래 이런 생각했지만 임금님이 허락하실지? 이 생각은 아직 결정 못했지요.)

작가가 최초로 은거했던 帶湖의 新居 낙성을 앞두고 자연 산수 생활의 즐거움을 실경험인양 소상히 묘사하는데, 결론인즉 이 즐거움도 최고 통치자의 재가 없이는 자기 의지로 결정치 못함을 말하고 있다. 전편과 함께 관직 생활에 대한 그의 불만이나 현실 일탈의 회구가 아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한편 보다 극명하고 강렬하게 은퇴를 간구하는 다음의 구절에서는 이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으니 「임금님 돌아셨는데 무슨 신경을 쓰랴」<sup>18)</sup>라든지, 「다 집어지자, 천고의 영웅도 풀더미에 묻힌 비석의 처지가 된 걸」<sup>19)</sup>

18) 「天心肯後, 費甚心機」〈行香子〉

19) 「都休問, 英雄千古, 荒草沒殘碑」〈滿庭芳〉

『부귀는 나와 무관, 돌아가 백구와 친하리』<sup>20)</sup> 등등이 그것이다. 일견 은거 속에서의 불만 토로로 보이는 이런 강경 어조가 관직 생활 중에서 발연되고 있음은 결국 작가의 은퇴 소망의 절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2) 완벽한 초월로서의 일탈

편의상 본고는 농촌사·閑逸詞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의 한가로운 정경의 묘사가 곧 농촌사가 될 수는 없다. 봉건 사대부 작가로서의 농촌 현실에 대한 본질적 파악이 결여된 까닭에 가현사에서의 그것은 당대 농촌 현실의 집약적 표현은 결코 되지 못했으니, 그가 前期 관직 생애에서 수편의 奏議文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관료·지주 계층의 착취로 인한 농촌의 가속화되는 파괴 현상은 철저히 의면되고 있다. 호화로움을 극했던 그의 帶湖 은거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철저한 현실 일탈의 모습을 보면 <鷗鷺天>에 ;

「春入平原薺菜花，新耕雨後落群鴉。多情白髮春無奈，晚日青帘酒易除。  
閑意態，細生涯，牛欄西畔有桑麻。青裙縞袂誰家女，去趁蠶生看外家。」

(봄이 되니 들관엔 냉이꽃, 비온 뒤 새로 간 밭엔 까마귀떼 내린다. 情 많은 백발 노인 봄날 어찌저 듯해, 해질녘 주막에서 의상술 마신다. 마음 한가하여 생활을 꿈꿈 헤아리다. 소 외양간 서쪽엔 뽕과 삼나무. 푸른 치마 흰 저고리는 누구네 딸? 누에치는 때 만나 외가에 가네.)

<清平樂>에서 ;

「茅簷低小，溪上青青草。醉裏與音相媚好，白髮誰家翁媪？大兒鋤豆溪東，  
中兒正織鷄籠。最喜小兒無賴，溪頭臥剝蓮蓬。」

(초가집 저마는 얇막하고 개울엔 푸르른 들, 취중에 듣는 남쪽 사투리 부드럽기만. 흰머리 노인 부부 어느 덕 분? 큰 놈은 개울 동쪽 콩밭을 매고, 중간 놈은 마야호로 새장 짜는데, 우습게도 막내 놈은 심심하기만, 개울가에 누워서 연밥 벗기네.)

충언부언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현실 일탈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詞작품의 농촌 현실 파악에 있어서의 적극적 기여는 작가의

20) 「富貴非吾事，歸與白鷗盟」 <水調歌頭>

신분적 한계성, 사작품 형식·풍격상의 한계성과 자주 관련되어 있지만 가현사의 적지 않은 부분이 그 형식·풍격상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음을 본다면 이는 확실히 신기질의 지주적 농촌 인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 불완전한 일탈

본 장에서 논의되는 가현사는 현실 참여와 은거 생활 간의 갈등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이미 정치 현실을 벗어났으며 관직 생활을 겪는 동안의 불만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한가로운 전원적 언급 속에 낯다른 감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내포한다. 예를 들면 〈小重山〉上片에 ;

「綠漲連雲翠拂空。十分風月處，著衰翁。垂楊影斷岸西東。君恩重，教且種芙蓉。」

(푸른 물결 구름에 닿을듯 하늘로 솟구치네. 경치 아주 좋은 곳, (나갈은) 늙은 이 머무를 곳. 수양버들 그림자는 동서쪽 방둑에 드리웠네. 임금 은혜 깊은 하되, 부용이나 심으라시니…….)

자연 묘사의 전형인듯 보이지만 그 속엔 「君恩重」과 「教且種芙蓉」의 상호 대립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教且種芙蓉」의 권고가 결코 「重恩」일 터가 없는 작가로서는 이와같은 역설적인 풍자로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다.

또 〈生查子〉에서 ;

「昨宵醉裏行，山吐三更月。不見可憐人，一夜頭如雲。今宵醉裏歸，明月關山笛。收拾錦囊詩，要寄楊雄宅。」

(어젯밤 취해서 산길 갔더니, 산엔三更의 달이 걸리고. 가련한 친구 못 만나 하룻밤에 머리칼은 눈같이 희어졌네. 오늘 밤 취해서 돌아오는데 밝은 달 아래 「關山月」피리소리. 비단 주머니 담은 시 정리해서는 楊雄집에 붙여나 볼까!)

이 역시 자탄의 소리가 자연 묘사 속에 침잠되어 있다. 만날 수 없었던 친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不得志했기에 「可憐人」으로 표현된다. 또 陸游詩 〈關山月〉에 「笛裏誰知壯士心，沙頭空照征人骨」라 했으니 작가는 陸氏



의 그 울분을 빌어온 것이다. 「錦囊詩」의 주인 李賀의 高節을 빌린 동기 역시 자기 분노의 반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현실 일탈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

〈滿江紅〉은 작가가 上饒에 은둔하고 있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은 친구를 전송하는 내용으로 그 下片에 ;

「車馬路，兒童泣。風雨暗，旌旗濕。看野梅官柳，東風消息。莫向蔗庵追語笑，只今松竹無顏色。問人間誰管別離愁，杯中物。」

(큰길엔 어린애같이 우는 사람들. 비바람 어둑어둑 깃발은 젖고. 매화·버들을 보니 동풍(봄)소식. 蔗庵에서 담소하던 일 생각지 말게, 지금은 松竹도 볼품 없다네! 분노나 인간 세상에 누가 이별 슬픔 신경써주나, 술이지.)

일견 석별의 정을 노래한 것 같으나 작가의 「杯中物」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한탄이 내면에 흐르고 있다. 또 이 작품의 上片에 「此老自當兵十萬，長安正在天西北」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故土 회복에의 자신감을 친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에서 신기질의 관직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와같은 성격은 가헌사에서 매우 빈번히 출현하고 있는데, 때로 평자의 지나친 개인적 판단에 편승되어 완전한 현실 지향의 성격으로 잘못 파악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는 바, 이는 결국 은퇴 이전 작가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평가가 곧 시적 탁월성으로 왜곡 의연되어진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四. 결 론

이상의 논술을 종합할 때 가헌사의 현실 비판은 사회 관계의 강제 또는 수용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그다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현실 일탈의 배경에도 자의적 신념과 타의적 강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명료한 도식으로 정리될 수는 없겠으나 가헌사의 현실 비판은 외적 장애에 대한 반발로서, 또는 불합리한 당대 현상을 타파하려는 자기 신념의 제확인 과정으로서 성격지워진다. 그리고 그 현실 일탈에 있어서는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소망 대상 및 완벽한 초월로서 그리고 현실 비판과 현실 일탈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불완전한 형태로서 노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족 詞人〉 〈애국 詞人〉으로서 신기질이 표방했던 내적 지향은, 작가의 정치적 실천 및 각종 奏議文을 통한 자기 의지의 표명 등에 비추어볼 때 봉건적 사대부로서의 한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완벽한 초월로서의 현실 일탈 또한 그의 지주적 농촌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강요된 가헌사의 〈민중성〉 〈애국성〉등은 국한된 조건과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稼軒詞編年箋注》鄧廣銘，華正書局，1974，臺北
2. 《辛稼軒詩文鈔存》鄧廣銘，華正書局，1979，臺北
3. 《辛稼軒年譜》鄧廣銘，河洛圖書出版社，1979，臺北
4. 《辛棄疾》鄧廣銘，河洛圖書出版社，1979，臺北
5. 《稼軒詞研究》陳滿銘，文津出版社，1980，臺北
6. 《辛棄疾論叢》劉乃昌，齊魯書社，1979，（香港）
7. 《辛棄疾詞選讀》張碧波，1982，（香港）
8. 《唐宋詞名作析評》陳弘治，文津出版社，1981，臺北
9. 《唐宋詞簡釋》唐圭璋，木鐸出版社，1982，臺北
10. 《宋詞散論》詹安泰，1982，（香港）
11. 《陳亮年譜》童振福，臺灣商務印書館，1982，臺北

# 中國古典小說對韓國古典小說之影響

李 相 圭

……………〈目 次〉……………	
壹·緒 言	肆·韓國對中國小說之導入
貳·中韓古代神話傳說	伍·中國小說對韓國小說之影響
參·中國小說發展之演進	陸·結 語

## 壹·緒 言

國際間的文學關係，從比較文學的方法上，重視歷史是最妥當之路，這自然是歷史對文學影響至深所致。從韓國文學的發達，可觀察出其無法抹殺受中國文學影響之特殊涵義，韓國曾有一長時期處在無創作文學的狀態。祇單方面的傳入中國文學，連文字亦襲用中國文字。依此事實，致使韓國長時間內使用中國文字，並且大部份的作品以中國為背景，來獲取作品的題材或資料，連作品的主題或思想，亦借用中國的。藉此來表現出來的作品也很多。中國文學在韓如此的廣為大眾使用，另一方面，韓國文學的發展就因而不受注目。因此，在國研究韓國文學史上，中國文學的比較研究，乃必要而不可或缺的工作。

大體上，一個國家的文學受其他國家影響之情形有三。第一，受某一作或作品以壓倒性的人格或精神影響所致。第二，受某一作品或作家之文體，文藝形式的技巧所影響，造成同一形式的文藝思潮。第三，在題材或主題上加以模仿或借用其資料，加以仿作。<sup>1)</sup>

韓國的古典文學作品依照以上諸條件而充分表現出受中國影響之至深。

一般說來，作家在文學的傳統上加以創作，幾乎無法憑空獨創，即使破壞傳統而創作，亦僅是程度上的差別罷了。從與外國文學關係上來看，當對自己的思想感情無法具體分明反而依外國文學，則可以明確自己的思想感情，並加以

\*全北大 中語中文學科 講師

1) 見M.F. Gyard 比較文學，全圭泰譯，頁一四四。

發揮而創作。這是因為對母國文學精神或技巧未成熟，即受外國強烈的影響所致。因此，藉外國文學要素就在不覺中表路出來，但却是一些很生硬的作品。<sup>2)</sup>

因此，在古典文學上，即使藉此影響而形成作品，亦無必要感到羞恥，不管東西方的古典作家，對內容的發明，創作一個故事或題材，均不認為是重大問題，反而注重是否能適當的在作品上，把自己的思想感情表達淋漓盡致。<sup>3)</sup>

本文之着眼點，試圖對中國古典小說給予韓國古典小說上，有何種形態釀成何種影響。遂欲利用最適當的比較文學之研究方法加以考察。而此方法為一國的作家或作品與他國相比較。透過文體，作風，題材，形式，傳說，思想，感情等等，以發現相同，類似，相異之點。並對轉移，假借，模仿等考察影響關係。

比較文學早已盛行於西歐，雖然也傳入韓國，但是仍局限於一部分，而無法到達總體性的研究比較。事實上，這種比較文學是有其存在之必然性，即使都是宿命論著的中國文學和韓國文學，也是絕對必須採用的。

中國文學史上，近代新文學運動展開之前，小說一直不如詩歌辭賦來得受人重視。在文學形態演變過程中，比起有一定情節，結構的小說，詩歌或辭賦是被認定為民族文學早期的對象。但是，中國經過小說的淵源，可追溯到上古神話的傳說，先秦諸家的寓言故事，以及在漢代正史文獻裏也在在可見。然而，其終究不能成為正統的文學，造因於中國人傳統的學問思想及偏狹的文學觀。

孔子刪詩三百篇正是中國文學的先聲，也有學者認為這正導引中國數千年的文學發展。<sup>4)</sup>

事實上，詩當中尤以抒情詩為中國文學的正統，其不論是在宗教，教育，學問或社交上，都與知識份子有密不可分的关系存在。<sup>5)</sup>

在如此環境下，中國小說文學的發展，遲遲不振，月沈滯萎靡。後來，經過六朝鬼神志怪，唐代傳奇小說，進到宋代，以平話小說的大為盛行，成為復興小說文學的契機所在。

一般而言，文學的發展，其形式與內容和時代思潮的變遷有密切的關係。而時代思潮的變遷，又與社會構造變動裏，文學主事者的學問思想，甚至於文學

2) 見中島健藏，福田隆太郎，太田三郎，比較文學講座 I「比較文學」，頁八三。

3) 同註一，頁一六七。

4) 參見聞一多選集，「文學的歷史動向」，頁一二五。

5) 西元前一二五年，漢武帝時，創立必須通過經書策試的科舉制度之後，魏晉由於門閥政治而有所改變，而隋唐時，文辭詩賦成為登科必考科目。明清代，八股文制科，在文學史上產生了莫大的作用。

觀的變化有關聯。

此外，大部分的韓國國文學者都不否認，韓國古典文學的形態和發展過程，無不受到中國文學的影響。

## 貳. 中韓古代神話傳說

不論東西洋，追溯小說文學的淵源，我們不能排除原始文學形態的神話傳說。

中國是由五十多個民族共同組成的。每族都在古代產生過許多優秀的神話，即就漢族來說，作品已不少。有的神話，今天仍在民間流傳。不論就思想內容到藝術形式，許多神話都極為積極，健康，精美。各個少數民族也是如此。即就神話的思想與藝術的質量之高與作品數量之多而論，中國神話比之印度，希臘，埃及的古代神話，是並無遜色的。即使過去曾散失過一些，這也是無損於整體的。不過也應承認中國神話，有着自己的民族特色，以簡括的形式出現的居多，有如碎金片玉，仍有着巨大的思想教育意義和異常感人的藝術魅力，無損於其偉大作品。

上古神話在原始人民口頭上創作出來後，有的通過書面記錄流傳到後代，有的是仍然通過在人民中間代代口傳而保存到後代，也有的是通過書面和口頭同時流傳下來，由於神話在古代的廣泛流傳，內容日漸豐富，主題日漸深刻，藝術也日漸完美，於是同一神話，經歷過不同的時代，流傳到不同地點後，又產生了多彩多姿的異體。它給後代小說的形成，發展以重大的影響。

不論各民族，都有其上古民族神話。中國亦然。只是比起其他民族，中國神話小說的系譜卻不明顯。三皇五帝說，牽強附會地敘述，諸神片斷地出現在古代文獻裏，其間關係模糊，個性不明顯。

魯迅概要敘述中國神話存在理由，說到……

「中國神話之所以僅存零星者，說者謂有二故。一者，華土之民，先居黃河流域，頗乏天惠，其生也勤，故重實際而黜玄想，不更態集古傳以成大文。二者，孔子出，以修身齊家治平天下等實用為教，不欲言鬼神，太古荒唐之說，俱為儒者所不道，故其後不特無所光大，而又散亡。<sup>6)</sup>

因自然和人的因素，導至了中國神話的發展。

胡適對中國神話的貧乏性，又談列如下所述……

「可見古代的中國民族是一種樸實而不富于想像力的民族，他們生在溫帶與

6) 參見魯迅著，中國小說史略，頁二八。

寒帶之間，天然的供給沒有南方民族的豐厚，他們需要時時對天然奮鬥，不能像熱帶民族那樣懶洋洋地睡在柵欄樹下白日見鬼，白晝做夢。所以三百篇裏竟沒有神話的遺跡」<sup>7)</sup>

原來，民族神話的整體化作業，必須配合高度精神的工作及知識份子的參與中國的神話，不幸得不到知識份子的協助，反而遭受支配中國學術思想儒家的迫害。儒家漠視神話傳說。從孔子的「子不語怪力亂神」，顯明可見。儒家把古來民族神話視為無稽之談，試圖使之合理化。

神話隨著漸次的發展，漸具人性化，這種人格化的神話稱為傳說。傳說所描寫的對象或為有神力的人，或為古代英雄，或是奇人異能，其神勇非凡人所能及，其所具之凡莫及的力量，或為天授，或為天助。

因為韓國的文化一直是站在吸收的立場，所以在傳說甚至小說，都受到來自中國的神話，傳說所影響。於是我們將這些傳入的別民族的神話，傳說，小說文學等都予以直接翻譯，或略加整理，使其韓國化。因此，說到韓國傳說，神話，首先必先了解中國的神話和傳說。

中國的神話，傳說並無專集，只能散見於古籍之中，在夏禹所著的「山海經」使收錄不少資料。隨書「經籍志」稱有二十三卷，現僅存十八卷。山海經包括南山經，西山經，北山經和海內外異物，神祇的傳說，我們最常引用的崑崙山西王母的典故，即載自此書。另外中國古代的說部，可以在道家書籍「列子」「莊子」寓言中看到，甚至「詩經」，「楚辭」也有所錄。當然這些古籍所載的傳說，多是有關玄鳥或怪獸的神仙故事。雖然我們有荒謬之感，但這却是中國小說的胚胎，甚且也影響到韓國早期的傳說，神話。

西王母的典故是韓國文學最常引用的故事，後人都以為崑崙山是西方天國西王母是位美貌的仙女。而在山海經中，崑崙山是天帝之都，遍地是金銀珠寶…主司其地者即是西王母。從其原始的形態為「虎身而九尾，人面而虎爪」，「虎齒豹尾而善嘯蓬髮而戴勝（首飾簪一種）的惡魔般怪物。後來漸美化成理想的仙女。

現存漢代的神話，傳說書籍，有很多不是漢人所作，而是晉以後假託漢人之名撰的，漢東方朔在看過山海經後，撰寫神話有「神異經」一卷。

「海內十一洲記」（或言東方朔作）——敘述武帝自西王母處聞十洲事，向東方朔詢問當地名物的故事。

「漢武帝故事」（舊題班固著）——敘述武帝自猗闌殿出到崩葬茂陵期間神仙怪

7) 參見胡適著，白話文學史，頁五三。

異的故事。

「漢武帝內傳」(班固著…四庫全書總目提要以爲是魏晉之僞作)一敘述武帝訪西王母的故事。

「漢武帝冥記」(後漢鄭憲作)一描述神仙的道術和異域的怪異。

「飛燕外傳」(漢伶玄子予作)一敘述武帝寵姬飛燕之事。

「穆天子傳」一敘述周穆王乘八駿馬周遊天下，尋西王母，與仙會音的故事。

(此書是汲縣民在魏襄王陵墓中所得的竹書)。

另外，還有描述後漢桓帝想立將軍梁商之女爲后的艷事「雜事秘辛」。記載世間瑣事，作者不詳的「西京雜記」，東晉初期葛洪所著的「抱朴子」。至於漢以前的「燕太子」，漢揚雄的「蜀王本紀」，趙曄的「吳越春秋」，袁康，吳平的「越絕書」雖依據史實，却含異事見聞。在詩歌方面，屈原的詩賦裏有牧錄，尤其在「天問」中收錄的神話，傳說更多。

到了六朝鬼怪，志怪之書更爲活躍。當時思想認爲世間確有幽明二界的存在人鬼都是實際存在的。所以敘述鬼異和人際事沒有什麼差別。敘述鬼怪的「隨志」中有魏文帝所作「列異傳」三卷，現今已亡佚，引用「太平御覽」篇文「武昌新縣此山上，有望夫石，狀若人立者，相傳云，昔有貞婦，其夫從役，遠赴國難，婦攜幼子，餓送此山立望而形化爲石」。

這和三國遺事(卷一紀異)所載一三國時代朴堤事之妻，率三個女兒到瑯述嶺等候到倭國一去不返的丈夫終變成望夫石的故事，內容相似。

晉張華著有記錄異地奇物和古代瑣聞的「博物志」。還有于寶因有感於父親婢女和兄長死後復生，看作有關神祇，靈異，人物，神仙，五行變化的「搜神記」和陶潛的「搜神後記」。此外，另有晉荀氏的「靈鬼志」陸氏的「異林」，祖沖之的「述異記」祖台之的「志怪」晉末宋時劉敬叔的「異苑」，臨川王劉義慶的「幽明錄」梁吳均的「續齊諧記」，「陽羨鵝籠記」敘述自人口中吐出男子和女子的奇事。齊王琰的「冥祥記」，宋劉義慶的「宣驗記」，是敘佛像的異事，闡述佛門因果。道士王浮著「神異記」，晉王賀撰「拾遺記」，牧錄從庖犧到東晉的傳說和崑崙中，九仙山的故事。

以上諸作，是中國古代神話，傳說資料比較常見的，中國古代說部一就其傳播而言，對於三國遺事，三國史記等載記的神話，傳說和「殊異傳」編錄的故事還有新羅，高麗口傳的傳說，都有直推或間接，有意識或無意識給予韓國早期說部的影響。<sup>8)</sup>

8) 見朴晟義，中國小說對韓國小說的影響，漢城高麗大學校五十周年紀念論文集 頁一二五～一二八。

## 參. 中國小說發展之演進

凡是皆有發端，文學的發生也是自原始形態中脫胎而出的。傳奇小說雖然產生唐代，但小說這一名稱事實上其早已存在。

考小說一詞，初見於莊外物篇…「飾小說以干縣令，其於大達亦遠矣。」荀子正名篇也說…「小家珍說之所願皆衰。」大達就是大道，由一小說與「大達」對文，可見莊荀所說的小說，和現代人所想像的相去很遠，却與漢志說的頗接近漢書藝文志諸子略小說家云…

小說家者流，蓄出於稗官。街談巷語，道聽塗說者之所造也。孔子曰…「雖小道，必有可觀者焉，致遠恐泥，是以君子弗爲也。」然亦弗滅也。閭里小知者之所及亦使綴而不忘，如或一言可采，此亦芻蕘狂夫之議也。<sup>9)</sup>

中國六藝諸子皆所以爲治，實用性極強，漢志列小說於諸子略中，顯然是從它的實用性來加以評定。故儒家出於司徒之官，道家出於史官，而小說家則出於稗官。余嘉錫謂稗官指天子之士，章太炎先生以爲，稗官是近民的小官。他們記錄一些有益治道的一街談巷語，道聽塗說，供朝廷施政的採擇。所以桓譚新論亦說…「小說家合殘叢小語，近取譬喻，以作短書，治家理事，有可觀之辭。」後來隨書經籍志也強論小說家的政治性，說…

小說者，街談巷語之說也。傳載與人之誦，詩美詢於芻蕘。古者聖人在上，史爲書，贊爲詩，工誦，箴諫，大夫規誨，士傳言而庶人謗。孟春，絢木鐸以求歌謠，巡省觀人詩以知風俗，過則正之，失則改之，道聽塗說，靡不畢紀，周官誦訓，掌道方志，以詔觀事，道方憲以詔辟忘，以知地俗。而職方式掌道四方之政事，與其上下之志，誦四方之傳道而觀衣物是也。<sup>10)</sup>

因此，不論是漢朝人的觀點，乃至修隨書的唐朝人的觀點，都認定小說家是有益治道的諸子百家的一家，小說的作者是管莊孟荀一流的人物，小說家的作品，是儒墨諸家同類的學術文章。

談到現代人心目中小說的觀念的形成，顯得受了西方人莫大的影響。寫小說史的人，都能根據西方理論，把小說作出明確的界說，姑舉孟璠小說史的緒論爲例，她說…

9) 見班固撰，顏師古注，漢書藝文志，頁三九〇。又見楊家駱主編二史漢書卷三十，頁一九四五。

10) 見楊家駱主編，新校隋書經籍志，頁八二。又見楊家駱主編，隋書卷三四，頁一〇一二。



「所謂小說，以我們今天的眼光來看，至少應該有故事，人物，結構三要素然後把握住嚴肅的主題，再以優美的文字所表現出的一種引人入勝的文體。」<sup>11)</sup>

根據這一觀念，來衡量中國小說的起源，自然會覺得秦漢以前根本沒有小說這回事，所以許多寫小說史的人，有的說「論中國的小說，應當從魏晉開始」，有的說「唐人始有意為小說」，有的說「小說起於宋仁宗」。因為戴上新觀念的眼鏡，去觀察中國目錄學上小說類的舊作品，自然會得到以上一系列的結論<sup>12)</sup>

又由來於歷代編纂的目錄，如隨書經籍志，新唐書藝文志，直到清代四庫金書總目提要，都是繼承漢書藝文志的觀念，把小說歸屬於子部。並且根據漢朝人說「小說」是「街談巷語」，是「殘叢小語」，就把許多叢談，雜錄，志怪，傳奇的著述，如張華的列異傳，劉義慶的世說新語等，都收入小說家。探索小說起源的人，倘若從目錄上去查究，便會發覺中國古代根本沒有小說這回事，至少從漢志著錄的十五種著作，看不出小說的跡象，而隨志以後所著錄的著述，却漸漸有接近小說作品，因此發出中國小說起源於魏晉或唐代一類的論調。這種論調，使得這個名同實異的糾纏死結更解不開，使得中國小說的源頭更難清理。<sup>13)</sup>

其實歷代最受人愛好的文學作品，多半是利用具備小說的結構和技巧而寫成的。春秋戰國是百家爭鳴，諸子爭勝的時代，各家為了發揮他的學說，特別在文辭方面下工夫，他們往往運用具備人物，故事，生動情節的文體，作為他們表達思想情意的利器，同時也是他們著作中深入人心，最具說服力的一部分。可見這種無小說之名而有小說之實的文體，乃是順應形勢，自然地滋長形式，並不需要有了小說理論，才能產生。我們試看出現在左傳，國策，史記，漢書，孟子，莊子，韓非子，列子中最具吸引力的文學性的作品…以及魏，晉，六朝的小品文桃花源記，世說新語等…唐宋以後的古文，如韓愈的毛穎傳，歸有光的先妣事略，項脊軒記等，大抵是具備小說條件的優美創作。

宋代眉山蘇氏叫學文章的人要熟讀檀弓孟子，實質上也就是叫人要讀最優美的小說。所以我們如果能夠解除掉目錄家小說這一名詞的枷鎖，直接從文學作品本身著眼，我們應該承認，小說是最優美最具吸引力的一種文學作品，它在作者的寫作技巧和客觀環境的需求下，自然而然地誕生。這類作品，往往在孟子，莊子，左傳，國策等古籍中發現，實在是極早和極優美的短篇小說，也可以說是中國小說的其正源頭，一般人喜歡稱道古代傳說，神話是小說的起源，

11) 見孟瑤，中國小說史第一冊，頁一。

12) 見潘師重規主編，中國古代短篇小說撰注，頁三。

13) 同上書，頁三～四。

但傳說，神話本身未必是小說。

我們現在從中國古代典籍作品中，發現小說的源泉，從周秦漢魏一直流注下來，從無斷絕。只爲了九流十家的小說一個名詞，糾纏不清，增加了研究小說的人無限的困惑，不過從前讀小說的人，常常指出它用的是左傳，國語，史記漢書的筆法…他們這類批評，實在已觸及小說的源頭。<sup>14)</sup> 喻世明言錄天館主人的序言，說得更清楚。他說…

「史統散而小說興。始乎周季，盛於唐而寢於宋。韓淫於宋。韓非，列禦寇諸人，小說之祖也。」<sup>15)</sup> 葛賢寧亦認爲…

「世界民族的文學，大都有其初民時代的傳說與神話，胎有而來中國小說也有此種現象。」<sup>16)</sup>

世界各民族文學的起源自傳說，神話演化而來，中國小說亦是如此至唐而有以小說形態生現之傳奇小說產生。自周秦，漢，六朝，隨至唐這段期間存在的一些神話，傳說。到以傳奇小說的形態出現，探究這段演化歷程，可由以下這段話看出…

「漢書藝文志諸子略的末段所錄，小說家者自伊尹說以至虞初周說凡十五家，千三百八十篇現在都不存在，無可考證，託名爲漢代所作如東方朔的神異經與海內十洲記，班固的漢武故事與漢武內傳，郭憲的別洞冥記，伶玄的飛燕外傳大率最早亦不過六朝人僞作吳越春秋及越絕書。雖時代較早而記事太瑣碎，在六朝間的作品中，大約可分爲二類…(一)敘述超自然的神怪故事，如搜神記，續齊諧等作。大都記瑣雜，不是整段的敘述，絕妙有文學的趣味。(二)敘述或者人間的名儔可傳言及一切瑣雜的事，如世說新語等。然而，唐代的組織完美的傳奇或短篇小說。」<sup>17)</sup>

以上這段文字說明了自發端至詠代之發展過程，同時也簡略地敘述了小說之發達史。中國小說自伊尹說到虞初的周書共有一千八十篇，雖全部失傳，却成爲小說之母源，漢代神怪，列傳和太平廣記，世說新語的故事和神怪的超自然的奇談，到了六朝產生了志怪類的小說。到了唐代給予文學興盛的機會，而產生了組織完美的傳奇小說和短篇小說。

唐代文風興盛，唐詩，古文運動，變文，詞的產生，存在都激發傳奇小說的誕生，此乃時代之必然趨勢。

14) 同上書，頁四。

15) 見臺靜農，論唐代士風與文學(中國文學論文史論文撰集三)，頁七七六。

16) 見葛賢寧，中國小說史，頁八。

17) 見開明書店刊，中國文學史大綱，頁一九一。

像這樣產生的傳奇小說，脫離神怪，志怪的原始形態而為傳奇形態之小說，全是在唐代時代成背景之下發展而成的。

文學作品都是時代的產物，其文學作品所處的時代，不可避免的都受影響支配，唐代在中國歷史上，是周秦以來的第一強大帝國，並和周圍諸國文化交流是當代亞洲文化之表率。因此，在自然文學方面都極盛，唐詩，古文運動，還有傳奇小說均趁勢而起，在此追尋這種奇小說在唐代是經歷了那些過程，如何發達？對後世有何影響的問題。

中國小說，在唐以前已具有形態和小說之特性，只是到了唐代其不可忽視之歷史理由存在，反對六朝浮華之純文學，思振興衰落之儒家思想的韓愈，柳宗元二人所發起之古文運動，對於傳奇小說之發達，有很深的影響。傳奇小說作者，如沈既濟，沈亞之，元稹，陳鴻等均是古文運動家之門生。因此，可以說傳奇小說產自古文運動。是古文運動支流之一。

「韓柳的古文運動，一面是要充實文學的內容，一面提倡樸質的文體，散文在敘事狀物言情的運用上，自然遠勝於駢文，在白話文未入小說的領域以前，這種平淺通俗的散文體，自然最適合於小說的表現，大歷元和的小說作者，都在那個古文運動潮流中，授受著這種文體，周之於抒寫世態人情而得到了成功，並且當日的小說作者，多少都與古文運動者發生關係，沈既濟是受著蕭穎士的影響，沈亞之是韓愈之門徒，至於元稹，陳鴻諸人更不必說了。古文運動最大的功勞是文體改變，間接的促進小說的成就，這一點自然是古文運動者所沒有料到的，然在整體上看起來，唐代的傳奇文的興起，不能不看是古文運動的一個支流。<sup>18)</sup>

由此可知，唐代有充分的條件讓傳奇蓬勃發展，對於這點，鄭振鐸也早就提出相同的見解。他說……「唐代傳奇文是古文運動學一支附庸。」<sup>19)</sup> 特別是傳奇小說之作家，多是才運不濟的文人，所作之內容俱是批評現實，再不就是浪漫，艷情之類，這不僅是文學發展，亦留給後代一筆非常可觀的文學遺產。

#### 肆. 韓國對中國小說之導入

由於韓，中兩國土壤相互隣接，所以高度的中國文化便流入韓國半島，隨之而來的是文獻書籍的傳入，小說方面的書也一起來。

18) 見劉大杰，中國文學發達史，頁三四四～三四五。

19) 見鄭振鐸，中國文學史，頁三七八。

影響韓國軍談小說最深的是「三國志演義」，正史「三國志」在三國時代，也已傳到韓國，「後周書」中有「高句麗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的記載。山海經則百濟時代傳入，據「和漢之才圖會」載…「晉太康五年，神應十五年（西元二八四，百濟古爾王）秋八月丁卯，百濟王遣阿直岐者員易經，孝經，論語，山海經及良馬……。」又山海經是在西元二八四年自百濟傳入日本的，所以山海經之傳入韓國，在西元二八四年以前。

看「高麗史」世家或「海東釋史」藝文志篇，可以了解高麗時王候治國之辛苦，收藏外國書之熱烈。閱「增補文獻備考」卷二四二，藝文考一可知宋帝令館伴書列向高麗需索之書目，多達一二八種，在此我們便可了解高麗朝保存了多少自中土傳來的書籍。使後來中國反向韓國探求中國之古籍。更甚者，書目中無經史類書，倒列了老莊和風土地理等各類之典籍，造成中韓文化相互交流之現象。

「搜神記」據藝文考宣宗八年的記錄，在宣宗八年（西元一〇九一）即已傳入，三國遺事等的說話，備受搜神記之影響，同樣「文獻備考」藝文考中有…「宣和間（西元一一一九～一一二五）有奉使高麗者，其國異書甚富，自先秦以後，晉唐隨梁之書皆有之，不知幾千家，幾千集」<sup>20)</sup>

儒學士子有許多人都看這類異書，這所謂「異書」是以老莊，稗官小說等為主由此我們可以推知不僅是搜神記，還有許多道家小說，六朝志怪小說，唐傳奇小說的傳入。

六朝末，因為老莊學派主張無為自然，於是產生清談文學，這類文學也和韓國文學有關。例如…晉裴啓處士撰的「語林」，東晉郭澄之的「郭子」，宋臨川王劉義慶的「世說新語」，梁沈約的「俗說」，後漢邯鄲淳的「笑林」等，都是筆記隨筆。這些筆記類文學是離俗世的，反映道家以詩酒琴棋自娛的享樂思想，不再以前期搜神志怪之鬼魂故事引人入勝，而且添加了趣味，幽默，這是文學上的一大進步。高麗鄭仲夫亂後，崔氏一派執掌政權，文官紛避居山野，且愛慕中國竹林七賢，模仿他們閑雲野鶴的生活。李仁老的「破閑集」，崔滋的「補閑集」李奎報的「白雲小說」，李齊賢的「櫟翁稗說」等，均是在此情況下產生的筆記小說。

高麗史列十五李奎報條載…「……李仁老，林椿，吳世才，趙通，皇甫杭，咸淳，李湛之等自以為一時豪俊，結為友稱七賢，每飲酒賦詩，旁若無人，世才死，湛之謂奎報曰子可補耶，奎報曰七賢豈朝廷，官爵而補其闕也，未聞稽

20) 增補文獻備考卷之，二四二。

玩之後，有承之者，皆大笑…」。

雖然很難找到傳入韓國的中國語林「笑林」之類的單行本。但從舊唐書所載…「高麗其書又有文選，尤愛重之。」可知在新羅時傳入的文選，到了高麗時備受愛重。前面曾提及文獻備考中宋帝勅令蒐集的书目中，包含了七賢蹟的「高士傳」(三卷，晉黃甫證撰)。

在中國六朝的清談說話已成為佚書，宋太宗勅令李昉撰的「太平廣記」「太平御覽」是有記載的，雖不能確定「太平廣記」是何時傳入韓土，但在高麗史卷十一肅宗六年條中…「六月，辛卯，如奉恩寺，丙甲，王緞，吳延寵，還自宋帝賜王，太平御覽一千卷。」可知太平御覽是在肅宗六年(西元一一〇一)傳入的。「太平廣記」很可能也是同時期傳入的，而且「太平廣記」是在高宗朝以前傳入韓土。在麗朝傳入的「太平廣記」是第一次，後來在近朝鮮太宗朝，又再次傳入韓土。依據徐居正在「詳節太平廣記」序文中，曾提到當時上流官僚學者喜愛閱讀此書。其序中云…「及讀太平廣記，乃宋學士李昉所撰。進之太宗者也，為總五百卷，大抵蒐集稗官小說，閭巷不知倦。」上面簡明的交代太平廣記之要點而且提到成和仲是世宗，端宗，世祖時的修撰。到了朝鮮，首先最值得提的是明瞿佑的「剪燈新話」和金時習仿作之「金鰲新話」。明洪武年間，瞿佑所撰之怪小說集「剪燈新和」傳入韓國，世宗十七年乙危童金時習仿新話作「金鰲新話」現今所存的剪燈錄是校定本，由校定本可推知「剪燈新話」是在世宗三年後五十年間傳入的。從這點來看，我們可以知道兩國文化之交流不僅頻繁，而且亦可以推測知「剪燈新話」是多受到民間的歡迎。

朝鮮時，「剪燈新話」，是被當作消遣小說，安慰人生際遇，又新話本身文章燦麗，所以當時人多引為作文範本。憲宗朝，李圭景的「五洲衍文」載…「今閭巷輩所專習者，有「剪燈新話」一書，以為讀此則爛於文云所為刀筆之熟習志氣已枯於其中，則何必苛責也，此書既為士大夫所不屑」，李晬光之「芝峰類說」作相同的評語。

如今坊間之版本，如剪燈新話之卷頭都題有「山陽瞿佑宗吉著」「滄洲訂立」「垂胡子集釋」等字，而滄洲即為明宗朝之尹春年，「垂胡子」是林芑的字號，關於這點「順菴集」卷三十，「五洲衍文」，安鼎福的「椽軒隨筆」卷下都有所說明，辯證。「五洲衍文」中「案林芑一作苾，官草奏曉白衣從事號垂胡子，松溪漫錄云，吾友林苾博洽群書，善屬文，尤長詩。」車天輅的「五山說林有「…「林芑更文學官之雄也。」「里鄉見聞錄」中有云…「芑六度赴京帶剪燈新話而來，宣廟壬辰，死於賊，子遇春丁酉亂被虜及其妻洪氏同死。」

由此看來，這叫垂胡子林芑的人不僅博通群書，精詩文，而且在史官文學方

面，民間文學方面也都有極深的修練，曾六次往來燕京，攜回明藝苑驕物「剪燈新話」於以詮釋出版，大受坊間所喜愛。

其次，再說稗官文學來看高麗時傳入，頗多之稗官文學作品，如李奎報的「白雲小說」，李仁老的「破閑集」，崔滋的「補閑集」，李齊賢的「襟翁稗說」等，當時人喜閱稗官小說，不吝巨資搜購，以飽眼福，明陳繼儒之太平清話，有如下之記載……「朝鮮人最好書，凡使臣入貢限五十人或舊典新書，稗官小說，在彼所缺日出市中各寫書目，逢人遍問，不惜重直購回，故彼國反有異書藏本。」增補文獻備考之藝文志篇亦作如是語。<sup>21)</sup>又「於于野談」中有……「今年春，中原新刊書，七十小說，目曰鍾離葫蘆，自西湖所來，淫褻不忍觀聞。」

朝鮮人承高麗朝人喜愛稗官文學之好。朝鮮初期儒者士人到中葉的文苑稗官文學風靡了很長時間。而柳夢寅「於于野談」則有「我國文筆之士，皆泛「太平廣記」之語。由此可鑒，在太宗朝再次傳入的太平廣記，已成為上流官員關心之事。又在宣，仁祖間，李植的「澤堂集」卷十五雜著中有云……「太平廣記之類，間有男女之風謠。」尚可觀採，其他荒怪之說，聊以破閑止睡。」像李澤堂如此之學者，都如此推崇太平廣記，其他一般學者，更是愛好了。大明會典有關列女傳之傳入有……「永樂間賜朝鮮國王列女傳」之語。列女傳是在永樂年間傳進韓國的，海東釋史有……「太宗四年明宗賜古今列女傳」之記載。

「青莊館全書」有載……「中國書入本朝者，太宗四年有列女傳」增補文獻備考」關於三國志之記載有言顯宗七年，民部侍郎郭元朝，宋帝賜九經史記兩漢書之國志晉書諸子歷日聖惠方等書。」由此可見，三國志是在顯宗七年傳進的。據日本內閣文庫載，元至治年間，在新安之虞氏編的「全相平話」五種中有三國志一書傳入。這全相平話三國志」在中國早已亡佚，却在日本發現，在當時交通不便的元代，小說傳至日本必經過韓境，可能在高麗朝三國志便已先傳入韓土，至於羅貫中的「三國志演義」，是在朝鮮宣朝時傳入的，「星湖僊說」類選中……「宜廟之世，上教育有張飛一聲走萬軍之語，奇大升進曰三國演義出來未久，臣未之見，後因明輩聞之，甚多誕妄云云，蓋此書始出而上偶及之，高峰之啓其得體矣。」「西浦漫筆」亦云……「今所謂三國志演義者出於元人羅貫中，壬辰後盛行於我東，婦孺皆口誦說云云。」壬辰亂後，對韓軍談小說最有影響的是三國演義。王亂正值明神宗在位之時。嘉靖萬曆年間是文化全盛時期，中國名家名作備出。而傳入韓土之書又極受民間之喜愛，影響了韓國小說界。

中國所謂四大奇書水滸傳，三國志演義，西遊記，金瓶梅和隋書，兩漢，齊

21) 增補文獻備考藝文志一。

魏，五代，唐宋等許多歷史演義小說和艷情小說，均於朝鮮時傳入韓土。許筠的西遊記跋還有他的閑情錄都列了高士傳，吳越春秋，列仙傳，何氏語林，世說新語等九種小說。沈鐸松泉筆譚有曰…「愚按西遊記，水滸傳……先輩或者跡於是書而成文章」澤堂雜著有…「許筠又作洪吉童傳以擬水滸傳」由此而看水滸傳對洪吉童傳有很深之影響，壬辰亂後，社會之破壞，政治之腐敗，想改革現狀的許筠，閱水滸百篇後，下筆作洪吉童傳。由此可知，水滸傳當時受歡迎之熱烈情形已可見，而水滸傳雖受當時儒家筆誅砥毀，讀者仍日有所增飾。在顯宗十年，就已經有水滸傳，西遊記的「小說語錄解」出版刊行了。

觀洪吉童傳便知是受水滸傳之影響，又洪允傳便可視為是水滸傳中武松為兄復仇故事的連續。此外，明代的言情小說大量流入韓國，明代言情小說有金瓶梅，肉蒲團，玉嬌李，續金瓶梅，隔簾花影，平山冷燕，鏡花仙史，古今小說三言……。就「松泉筆譚」言…「大明人物浮浪輕佻……著述文字……如金瓶梅肉蒲團等書，無非誨淫之術。」這話看來，儒生士人是大大為輕視這類艷情小說的。

明代唯一傑出的短篇小說選集「今古奇觀」四十卷，是抱甕老人編輯的。其內容描寫下流社會的性慾生活和幻滅，金瓶梅描述社會的黑暗層面，是頗為膾炙人口的書。「平山冷燕」是荻岸散文之名著，金春澤的「北軒雜說」有「如平山冷燕何等風致」之評句。此書是敘述元平如衡（洛陽才子）和美女冷縫雪結婚，狀元燕白領（雲間才子）和山黛結婚風流奇譚，根據和金春澤同時代的淘壘李宜顯的「燕行雜識」所載，肅宗四六年，入北京並攜回製錦繡二卷，艷異編十二卷，國色天香十卷，這幾冊書不單單是敘述萬曆年間文人的生活 and 雜談，也敘說才子佳人的故事。

引用「續金瓶梅」結局的「太上感應篇」亦是這時傳入。據許筠西遊記跋文中言演義也在明中葉前傳入。°「隋唐演義」是羅貫中作，內容是描述隋煬帝的淫蕩生活和唐太宗傳記的合成本。若單摘前者，則稱「艷史」，只取後者，則為「唐太宗傳」，兩漢演義和唐書演義是白話體小說，其中兩漢演義是最受民間喜愛的讀本，摘出一部份翻譯為「楚霸王實記」「張子房傳」。也有翻譯龔巖老人的「惟惟幄龜鑑」。

類似之姊妹作，如「東周列國志」也一樣受到歡迎，明末一些如「孫龐演義」，「開闢演義」，「西門湖佳話」，「好逑傳」，「平妖傳」等不斷的傳入韓國，給朝鮮中葉沈默之文壇，注入一股生氣，並且促發文藝復興。

西浦金萬重作，「九雲夢」大概是在中國夢字類小說傳入之前後產生，丙子胡亂以後，韓國盛行翻譯清代小說。<sup>22)</sup>

22) 見朴晟義，韓國古代小說史緒論篇。

## 伍. 中國小說對韓國小說之影響

韓國古代小說之受中國小說之影響，事實顯著，是不可否認。有關小說文學原之始形態一神話，傳說，和筆記文學以及稗官文學之關係，在前面已經論及現在看唐代傳奇小說，像王度著「古鏡記」，作者不詳的「補江總白猿傳」（敘述將歐陽紇之妻被白猿掠擄後生下詢之故事），沈既濟作之「枕中記」（呂翁道士在赴邯鄲途中遇盧生，聽其埋怨，送予囊中枕，使知榮華富貴如夢境），沈亞之作之「湘中怨」（鄭生別同居數載之孤女，却在畫舫中再次見面之曲折故事），「異夢錄」（敘述一名叫邢鳳的人邂逅一美女，名叫王炎的人夢見作吳王的侍從的故事），「秦夢記」（夢中和秦王之女弄玉結婚），陳鴻的「長恨歌傳」（敘述楊妃入宮避蜀，逝世之始末），「東城老父傳」（敘述賈昌經戰後榮華和沒落），白行簡的「李娃傳」，「三夢記」，李公佐的「南柯太守傳」，「謝小娥傳」，「古獄續怪」元稹的「鶯鶯傳」和隴西李朝威的「柳毅傳」，蔣防的「霍小玉傳」，許堯佐的「柳氏傳」，柳琔的「上清傳」，薛調的「無雙傳」，皇甫枚的「非煙傳」，房千里的「楊媚傳」，杜光庭的「虬髯客傳」。還有傳奇，牛僧孺的「玄怪錄」，李復言的「續玄怪錄」，蘇鶚的「杜陽雜纂」，高彥休的「牛唐關史」，段成式的「酉陽雜俎」，李義山的「雜纂」等，直接間接地影響了韓國筆記小說之作品。

韓國自古代一直到二十世紀末葉，仍舊受到中國文化的支配。對於和韓國這個古代物質文明不發達，交通不便利，相鄰之強國——中國所給之影響，前已說明過了，在此不再重述。訓民正音創制至今已有五百餘年，這五百年來一直引用漢字不輟，其於這項事實，有許多學者認為有必要再討論漢文在過去之影響如何如何。

要了解韓國古代文學，就必須先具備了解中國文學的知識，不但要了解中國文學是韓國文學之源泉，和韓國文學所具有之特性。

韓國小說的起源，亦是自古代始。韓國也和周秦六朝一樣，有神仙，志怪的說話，這種神仙志怪的故事，便是傳奇的發端。在三國史記的列傳或者是三國遺事的中的神話，傳說是韓國小說的起源，肇始。在時間而言，三國時代的神話，說話，高麗的稗官小說，假傳體小說，以及野談等都是傳奇小說產生的資料。

以上便是小說產生的過程，亦即傳奇小說之過程。

從檀君的建國神話開始，到三國的建國神話，日月神話，另外，還有旁徑說話，兄弟投金說話等，都具備了小說的故事形態，內容也成爲小說之基本形



態。

張德順教授將三國遺事所載之小說分爲四類…

(一) 神話—(a) 日月神話 (b) 建國神話 (c) 國王神話(又說英雄神話)

(二) 傳說—(a) 地名 (b) 姓名 (c) 其他(樹木)

(三) 民間說話—(a) 交婚，結婚 (b) 妊，誕生 (c) 忠孝烈 (d) 圖識  
占卜・凶兆，豫言 (e) 夢 (f) 英雄，復讐 (g) 陰助護國 (k) 動物 (i) 其他

(四) 佛教緣起說話<sup>23)</sup>

金富軾三國史記中所載之列傳，稗官小說，野談全部都是傳奇小說之礎石。其中史記的列傳，特別是君王列傳和名人列傳，成爲傳奇小說。這類小爲是經由口傳到高麗朝始用文字記載下來<sup>24)</sup>

高麗朝崔致遠，朴寅亮的特殊異傳介是於街談巷語，傳奇小說之間的稗官小說。這種稗官小說盛行於中國漢朝。在宋，元兩朝，透過文物交流，而輸到高麗。高麗人喜愛稗官小說集，有世說新語，山海經，太平廣記經，在景幾體二聯中…「唐漢書，莊老子，韓柳文集，李杜集，蘭台集，白樂天集，毛詩，尚書，周易，春秋，周戴禮記，上景幾如何，葉，太平廣記，四百餘卷上，歷覽景幾如何……」可資證明。

傳奇小說是唐代產物，調是宋代產物，戲曲是明清代的產物。這是傳奇小說對後代的影響。但這並不表示著宋代以後就沒有傳奇小說產生。只是那並不是當代的主流而已。

朝鮮的傳奇，就是受唐，明代傳奇的影響，再經蠶蛹蛻化，然後開創韓國文學之新紀元。朝鮮傳奇小說是韓國小說文學之發端。其演化程序，是由說話→稗官文學→傳奇小說→韓國小說漸次演變成的。

唐代傳奇小說的影響，可從內容，形態上來說明……

#### (一) 主角一生的記錄

唐傳奇中有描述主角一生的作品，朝鮮傳奇小說亦是如此。像金鰲新話中所描述的梁，洪，李，朴，韓等都是敘述他們一生的故事。還有雲英傳，崔孤雲傳也是典型的例子。不唯傳奇小說，朝鮮小說大部份都描寫主角一生的故事<sup>25)</sup>

23) 見張德順，三國史記所載的小說分類，人文科學二輯。

24) 金富軾三國史記卷一～二八帝王列傳內容可謂爲英雄小說，卷四一～五〇個人列傳可謂爲傳奇的傳記。

25) 見朴晟義，韓國古代小說史，頁三五。

## (二) 借用小說標題

唐代傳奇小說的標題，略分為「傳」，「記」，「錄」等<sup>26)</sup>。而且這些唐人作品的寫作動機，有些會在篇末加以說明，部份也會略而不題。例如離魂記一文，作者就在篇末指定此篇既不稱傳奇，也不稱為小說，而是自己從某地耳聞，以其敘述極詳。「故記之」，遂稱為「記」。換言之，唐人對自己的作品，認為是「筆記」…而且這情況也很普遍。例如李娃傳的作者白行簡，他寫的傳奇作品「三夢記」篇末說正裏載夢甚多，此三夢雖未記載，以其有趣，故詳細的記載下來<sup>27)</sup>。這也是「記」的一種。

其次是「傳」。例如沈既濟作品「任氏傳」故事，是中國狐狸故事之鼻祖，後代聊齋雖多承襲於此而多不能及。篇末他也說明撰寫此篇之動機…那是有次他被貶官放逐，其夜與一些同罹其罪的犯人聊天，眾人談到任氏的故事多有感嘆，遂請他「傳之」<sup>28)</sup>。「傳之」的傳，讀傳記的「傳」或流傳的「傳」皆可，即把故事傳下去，目的是寫一篇「傳」。緊接著到了中唐，一位官做得不大，小說卻寫得很多的作家李公佐，他在唐憲宗前後的傳奇作品地位頗高。幾篇作品中「南柯太守傳」未提出為何稱為「傳」，可是在「盧江馮媼」文末就記載了作傳經過<sup>29)</sup>。此外白行簡「李娃傳」，篇末說明李娃這種悲歡離合的故事，易於動人，故撰寫了「傳」<sup>30)</sup>。

最後可注意到「錄」。在唐人撰成的兩種小說集子裏，由一人所作的總集，可稱為「錄」。如牛僧儒之玄怪錄。另外選篇成集，也是一種形式。如陳翰異聞集。

唐代這些與內容及故事來源有關的作品名稱，往往被韓國朝鮮傳奇沿用，依鄭鈺東教授的統計，韓國古代小說三二十篇之中，「傳」有一七五篇，佔百分之五五。「錄」有五六篇佔百分之十八。「記」有二六篇，佔了百分之八。再次是「逢」，「夢」，「曲」。由這項考察可以了解韓國傳奇在標題上襲用唐代傳奇的梗

26) 見王夢鷗，唐代小說概述，中國古典小說研究專集三輯，頁三七～四七。

27) 「行簡曰…春秋及子史，言夢者多，然未有載此三夢者也。世人之夢亦衆矣，亦未有此三夢，豈偶然也？抑亦前定也？予不能知。今備記其事，以存錄焉。

28) 原文作…「衆君子聞任氏之事，共深嘆駭，因請既濟傳之，以志異云。」

29) 原文作…「元和六年夏五月，江淮從事李公佐使至京，回次漢南，與渤海高鉞天水趙代，河南宇文鼎，會於傳舍，宵話微異，各盡見聞。鉞具道其事，公佐為之傳。」王夢鷗考李公佐撰此篇「已久歷江湖，其為此傳，實出於微異好奇」（唐人小說研究二集，頁五五）

概<sup>31)</sup>。

由此可知，中國古典小說對韓國古典小說有影響。

## 陸. 結 論

雖然韓國小說產生之原因很多，但其中稗官小說的影響最大，特別是像太平廣記，山海經之類的中國古代稗官小說傳入韓土，激起韓國小說的產生，是其主因，其中包含韓國神話，說話的列傳，稗官小說的傳奇小說——金鰲新話最後終於發展成韓國傳奇小說。金鰲新話首先在地下播了種子，然後洪吉童傳開了花，春香傳結了果。其中西浦的「九雲夢」也佔了一席之地。

中國古典小說，對於韓國朝鮮漢文小說的影響更是深鉅…有許多都是從中生，翻版的。根據太平廣記載，唐代傳奇小說自高麗後半期便不斷傳入韓土。從這點我們可以看出，唐代傳奇小說在韓國本性格小說產生前，一直晉受一般學者的注意和關心，甚至是文士休閒時的主要讀物。

朝鮮的儒學之士視小說有若蛇蝎，草芥，嚴禁子女習誦。但朝鮮的漢學者，卻偷偷地閱，讀中國小說…甚或模仿其文體，直至正祖時「文體反正事業」<sup>32)</sup>發生，始告一段落。由此可見朝鮮時代之受中國小說影響之深遠。

朝鮮初期可謂為韓國古代小說之始孕期。在此時期，學者對太平廣記的注意與興趣，可從史書中得到論證<sup>33)</sup>。因此可以了解並看出中國古典小說早已深

30) 原文作…「貞元中，子與隴西公佐話婦人操烈之品格，因遂述研國之事。公佐拊掌竦聽，命子為傳。久握管搦翰，疏而存之。」唐人小說研究二集有「研國夫人傳」校註，並「李娃傳之來歷及其寫作年代」有詳細考證。

31) 見鄭鈺東，古代小說論，頁七二。

32) 韓國朝鮮的文風，受到中國的影響很大，尤其漢文小說不僅受到中國小說的影響，同時明代漢文學的風氣也予以很大的刺激。面對這種情形，正祖（一七七六～一八〇〇年）倡「文體反正事業」，目的在避免作品中滲入低格調的辭彙，以致降低文章的質。這種意見正是古文派或所謂正統派強調的。但對厭倦古文喜好奇的文人士子，由於他們感染當時實學，嗜讀小說，更而創造了混用小說文體辭彙的「新文體」，以致正祖所倡「文體反正」的復古運動未得到響應。

33) 世祖貴為一國之尊，而雅好太平廣記亦到了命臣列章上奏的程度。王朝實錄載梁誠之熟稔太平廣記，世祖命其舉一章，梁乃述一勸戒故事諷之…「上與中宮御仁政殿，王世子與宗親宰樞進豐呈，上謂梁誠之曰…『卿知太平廣記，其語廣記中之言。』誠之啓…『昔唐宰相蘇懷，李嶠二兒皆童年，中宗召置於前，賜與甚厚，因語曰…爾讀書，何事最好？懷子擲曰…惟木受繩則正，后從諫則聖。嶠子曰…斷朝涉之脛，剖賢人之心。中宗曰…蘇懷有子，李嶠無兒』上笑曰…『卿可謂因事勸誡者也。』」

植，影響了韓國先祖的心境。在韓國小說發展史上，開朝鮮傳奇小說風氣之先的「金鰲新話」，是金時習仿明人霍祐之「剪燈新話」而作的，雖是模仿明朝的作品，但頗受唐傳奇小說之影響。

朝鮮中葉以後，韓國本格性小說開始發展。這些作品在跟前半期的漢文小說作品比較下，我們可以發現由於此前作品的寫作方法未臻成熟，遂常在文章中披露其名稱，甚至引用，襲取唐傳奇中的片段，明顯地顯示其相關處。而稍後的作品，在創作領域方面，這些作品已得到長足的進步，而開創了韓國小說的新天地。

在中國古典小說如此的影響下，單純的一對一關係，根本不存在，大部份的作品是擷取幾篇作品為寫作之體裁，資料，用以輔助或襯托主要事件…同時，又襲用其組織，結構，手法而發展新的內涵與技巧。總之，中國古典小說對韓國古典小說，不唯在內容，形態方面的影響，另一方面也刺激推動了韓國小說邁向新的里程碑。

#### 參 考 書 目

- 。太平廣記 李昉撰 臺北，文史哲出版社
- 。喻世明言 馮夢龍撰 臺北，河洛出版社
- 。舊小說 賈善翔編 臺北，商務印書館
- 。西陽雜俎 段成式撰 上海商務印書館縮印明刊本
- 。唐人傳奇小說 楊家駱主編 臺北，世界書局
- 。中國古代短篇小說選註 潘師重規主編 臺北，學生書局
- 。歷代小說筆記選 江畚經編 臺北，商務印書館
- 。韓國漢文小說全集 林明德主編 中國文化大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發行
- 。漢書 班固撰 臺北，鼎文書局
- 。舊唐書 劉昫等撰 臺北，鼎文書局
- 。新唐書 歐陽修撰 臺北，鼎文書局
- 。隋書 魏徵撰 臺北，鼎文書局
- 。三國史記 金富軾撰 先進文化社
- 。三國遺史 釋一然撰 東國文化社
- 。中國文學史初稿 邱師燮友等撰 臺北，石門岡書公司
- 。中國文學史大綱 臺北，開明書局
- 。中國文學發達史 劉大杰著 臺北，中華書局
- 。中國小說史 葛賢寧著 中國文化出版事業委員會
- 。中國小說史 孟瑤著 臺北，傳記文學出版社

- 中國小說史略 魯迅著 臺北，明倫出版社
- 中國文學史 金學主，丁範鎮合著 凡學圖書
- 中國文學史 車相鏡著 東國文化社
- 朝鮮小說史 金台俊著 學藝社
- 中國古典文學研究叢刊 林明德等編 臺北，巨流圖書公司
-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叢刊 樂蘅軍主編 臺北，幼獅文化事業公司
- 中國文學史論文選集 羅聯添編 臺北，學生書局
- 中國古典小說論集 林以亮等著 臺北，幼獅期刊社
- 比較文學論 P. Van Tighen著 戴望舒譯 臺北，商務印書館
- 比較文學 M.F. Gyard著 全圭泰譯，正音社
- 韓國古典文學理論 全圭泰著 正音社
- 韓國文學背景研究 朴晟義著 二友出版社
- 古代小說論 鄭鈺東著 螢雲出版社
- 古典小說研究 國語國文學會編 正音社
- 李朝時代小說論 金起東著 精研社
- 中國古典小說研究 羅振民著 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 唐人小說研究 王夢鷗撰 臺北，藝文印書館
- 唐代傳奇研究 于兆莉撰 臺北，文化中研所民國六十七年碩士論文
- 韓國小說研究 李在秀著 螢雲出版社
-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金鉉龍著 一志社
- 中國小說對韓國小說之影響 朴晟義撰 高大五十周年紀念論文一九五五年
- 三國遺事說話分類 張德順撰第二輯 漢城大學校論文集人文科學一九五九年



# 詩經訓詁 研究

—朱熹의 詩集傳에 나타난 義訓을 中心으로—

金 海 明\*

<目 次>

- |            |                 |
|------------|-----------------|
| 1. 머릿말     | 4. 義와 關係있는 訓詁術語 |
| 2. 詩經과 詩集傳 | 5. 義와 關係있는 訓詁條例 |
| 3. 詩學과 訓詁學 | 6. 맺는말          |

## 1. 머릿말

中國最古詩歌總集인 詩經(The Book of Odes, Shih Ching)은 中國의 고전이라기 보다는 이미 東洋의 고전으로 불리울 정도로 동양자국에 미친 영향은 자못 深大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선비들의 必讀書로서 그리고 文人들의 指針書로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 詩文學史에 끼쳐진 영향중 그 어느 요소보다도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詩經은 그 原初的 抒情性으로 해서 今人들의 情感의 乾燥狀態를 完化시켜 줄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로 까지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漢字文化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대상으로 추천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줄곧 서구식 교육만을 받은 지금의 세대가 이러한 詩經을 접함에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할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空間的으로는 우리나라에서 產生되어 우리말로 읽혀지는 詩歌가 아니라는 점과, 時間的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年 前인 上古時代에 수집된 詩歌集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장벽을 타개하지 못하고서는 詩經이 아무리 抒情性이 풍부하고 文學性이 높은 作品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아무런 단서와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東義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中國에서로 古來로 여러 學者와 文人들이 「訓詁」라고 하는 古文解讀法을 통해 詩經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詩經을 접한 時代와 詩에 대한 觀點이 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訓詁의 手法 또한 통일되지 않아, 수많은 異說과 軼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漢代에 와서 訓詁學이 勃興하였고, 다시 清代에 이르러 考證學의 일환으로 隆盛을 보았으며, 現代에 와서는 서양의 意味論(Semantics)의 도입으로 새로운 問題點을 提起하고는 있지만, 詩經이 日常的인 言語가 아닌 詩的 言語라는 점에서 더 한층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의도하에, 우선 詩經學의 歷史와 朱子の 「詩集傳」이 나오게 된 背景내지 그 特點을 약술하고, 訓詁에 대한 先人들의 概念과 訓詁學이 가능케 하는 詩學에 대한 一般原理를 검토해 본 연후에,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詩集傳에 나타난 訓詁方式을 고찰해 보려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義와 관계 있는 訓詁術語의 同異點을 중심으로 詩語의 意味變遷과 그 類型을 추적하고, 또 義와 관계있는 訓詁條例의 適用範圍를 중심으로 詩語의 義界와 比喩方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 2. 詩經과 詩集傳

「詩經」은 본래 「詩」 또는 「詩三百」으로 불리었던 것을, 後代에 와서 이를 尊尙한다는 뜻에서 「經」字를 붙여 일컫게 되었다. 詩經에는 위로는 周初(BC 1122)로 부터 아래로는 春秋末(BC 570)까지의 詩 311篇<sup>1)</sup>이 수록되어 있다. 「詩」라는 말이 經典에 처음 나타나기는 書經堯典의 「詩言志, 歌永言」으로 부터 시작되며, 周에 이르러 朝廷에 采詩官을 두어 列國의 歌謠를 채집하게 하고, 이로써 政治의 得失과 風俗의 良否를 관찰하는 한편, 이를 宗廟鄉黨 또는 士君子의 교제에 응용하였다는 기록<sup>2)</sup>도 있다.

漢代에 이르러 詩를 傳하였다고 하는 四家, 즉 魯의 申公이 전한 「魯詩」, 齊의 轅固生이 전한 「齊詩」, 燕의 韓嬰이 전한 「韓詩」, 魯의 毛公이

1) 이 중 제목만 전하는 「笙詩」가 6篇(南陔·白華·華黍·由庚·崇丘·由儀) 있음.

2) 漢書藝文志…「古有采詩之, 官王者所以觀風俗知得失自考正也。」  
國語, 周語篇…「召公曰… 爲民者宜之使言. 故天子聽政使公卿至於列士獻詩。」 등이 있음.



전한 「毛詩」가 있었는데, 章帝 때 群儒로 하여금 毛詩만을 익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毛亨(大毛公)이 毛詩詁訓傳을 지어 毛萇(小毛公)에 전수하고 이에 鄭玄이 注를 지어 箋이라 하게 되자, 이윽고 나머지 三家詩를 제압하고 毛詩만이 세상에 널리 행하여지게 되었다. 唐代에 이르러서 語文의 번창으로 인하여 詩解讀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孔穎達이 鄭箋에 대한 疏를 짓게 되었고, 宋代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經典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 毛傳의 건강부회가 심한 점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많은 新說을 내세웠다.<sup>3)</sup>

毛詩에는 詩 各篇의 취지를 해설하고 있는 「序」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各詩의 배열에 의해 詩의 제작시대를 정하였을 뿐 아니라, 各詩를 爲政者의 교훈으로 삼는 道德的인 견해만을 강조하고 있다. 漢代의 鄭玄이 이러한 毛詩序를 전혀 비판없이 받아들여 詩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宋代의 학자들이 詩의 原文에 의거하여 詩의 本義를 찾고자 하였던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일찌기 歐陽修가 詩本義를 내면서 詩序를 의심한데 이어, 王質·蘇轍·鄭樵등이 나와 역시 詩序의 잘못 해석된 부분을 맹렬히 비판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후에 朱熹(1130~1200)도 이들의 견해에 동조하여 詩序를 廢하고 詩의 本義를 구명하고자 노력한 결과, 종래 도덕적인 詩로 떠받들던 詩 속에서도 淫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역시 독자의 마음 여하에 따라 修養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하에 문제의 「詩集傳」을 짓게 되었다. 이 책의 특색이라면, 우선 詩文句에 의거하여 作詩된 時代와 그 까닭을 정하였다는 점과, 역시 文句 자체로써 淫詩의 여부를 가려내었다는 점이 될 수 있겠다. 그의 訓詁方式이 비록 毛·鄭의 說을 많이 따랐다고는 하나, 위에서 말한 그의 독특한 견해와 宋 이후 朱子學의 흥성에 힘입어, 그의 詩集傳은 鄭箋과 더불어 詩經學의 兩大註釋書로 손꼽히기에 이른 것이다.<sup>4)</sup>

朱熹는 詩集傳序에서,

「詩者，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

라고 하면서 詩에 대한 定義를 내렸고,

3) 中國學藝大辭典, 弗威文化社, 東京, p.461, 「詩經」 항목.

4) 李家源譯, 詩經, 弘新出版社, 서울, p.8~10.

「言之所不能盡，而發於咨嗟咏歎之餘者，必有自然之音響節奏而不能已矣。」

에서는 詩創作의 動機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詩心에 비롯되는 原初的이고 自然스런 發露로서의 詩를 가장 높이 사려 하였던 그의 기본 입장을 알 수 있다. 朱熹는 본디 周敦頤의 「文以載道」를 재차 闡明하였고, 程伊川의 「作文害道」에 이어 「逐末之弊」를 주장한 道學家的 文學觀을 지닌 자였다.<sup>5)</sup> 그는 또 「作詩」에 대해서는 謙虛와 淡泊의 정신을 중시하였고, 「知詩」에 대해서는 風格을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用詩」에 있어서는 功利的 敎化主義와 더불어 古人의 高風遠韻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sup>6)</sup>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詩集傳序에 나타난 詩의 定義와 動機는 자연 그의 道學家的 詩論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또 그가 이러한 입장에서 詩經을 訓詁하였음이 자명한 이치이고 보면 그의 訓詁方式을 분석해 본다는 것은 그의 詩學을 연구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다음 章에서 우선 「詩學과 訓詁學」이라는 제목하에 訓詁學이 가능케 하는 詩學을 고찰해 보고 나서 그의 訓詁方式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 3. 詩學과 訓詁學

言語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表示(denotation)과 含蓄(connotation)으로 분류하는데, 表示란 단순히 辭典的이며 日常的인 意味만을 말하는 것이고, 含蓄은 言語가 지닌 冢圍氣·多義性·暗示力·聯想, 그리고 象徵的인 意味까지를 뜻한다.<sup>7)</sup> 이 중 含蓄을 주로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양식이 곧 文學이라 할 수 있다.

文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作品을 둘러싼 외면적인 조건 내지는 상황을 중시하는 外在的 方法(extrinsic approach)과 作品의 내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內在的 方法(intrinsic approach)이 있다.<sup>8)</sup> 그 중 言

5) 車相轅著, 中國文學評論史, 汎學圖書, 서울, p. 281.

6) 張健著, 朱熹의文學批評研究, 臺灣商務印書館,臺北, p. 51.

郭紹虞著, 中國文學批評家與文學批評(2), 學生書局,臺北, p. 45.

7) 「John Stuart Mill's distinction」 R. A. Waldrom, Sense & Sense Development, Andre Deutsch, London, p. 78.

8) Wellek & Warren, Theory of Literature; 金載弘, 現代詩의 讀解方法論, 「心象」誌 Vol. 7~9, p. 55.

語藝術로서의 詩에 대한 연구는 後者의 방법을 핵심으로 하고 前者의 방법을 보조수단으로 하여 전개되는 데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詩에 대한 그 內在的 方法論으로는 우선 詩語의 表現方法을 풀이하는 기본적인 分析(analysis)과정과, 詩語의 문맥적 의미관계와 총체적인 象徵性을 결합하여 詩의 의미를 드러내는 解析(interpretation)과정이 있겠는데, 이들은 詩를 評價(judgement)하고 鑑賞(appreciation)하는데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文學史的으로 볼 때, 詩에 있어서의 이러한 分析和 解釋을 위해 수많은 文學研究家와 批評家들이 言語學·歷史哲學·美學·社會學 등의 人文科學을 토대로 하여, 詩와 詩批評에 관한 여러가지 說을 수립해 왔다. 中國에서도 傳統的으로 옛 文章이나 詩를 상세하게 訓詁註釋하던 방법이 있는데, 原文 자체의 해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內在的 方法을 중심으로 한 分析·批評과 궁극적인 의도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訓詁」라 함은, 漢武帝때 魯恭王이 孔子의 故宅을 헐다 발견한 古文尙書·禮記·論語·孝經 등 수십편을, 孔子의 12代孫인 孔安國이 當代의 語文으로 해석한 데서 부터 기인한다. 그 후, 詩·易·春秋에 대한 訓詁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爾雅·釋名·方言 등 訓詁專門書들이 출현하기에 이르게 되어 자못 一家를 이루게 되었다. 이들 訓詁專門書를 비롯하여 몇몇 문헌을 통해 「訓」·「詁」 두字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訓」에 관한 설명

- a. 說文解字 「訓」字下注…「說教者，說釋而教之，必順其理」
- b. 爾雅 釋詁篇…「訓，道也」
- c. 禮記 曲禮疏…「訓謂訓談理義」

(2) 「詁」에 대한 설명

- a. 說文解字 「詁」字下注…「故言者，舊言也，十口所識前言也」
- b. 毛詩詁訓傳疏…「詁者，古也，古今異言，通之使人知也」
- c. 漢書 揚雄傳注…「詁謂指義也」

이들을 종합해 보면, 「訓詁」라 함은 「古今語文의 異同을 疏通시킨다」라는 말로 줄일 수 있으며, 漢字의 三要素인 「形·音·義」중 특히 「義」에 관한 연구임을 알 수 있겠다.

이렇듯 과거의 訓詁가 字義에만 치중하였던데 반하여, 昨今에는 語義一般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어 가히 주목할 만하다. 現代 言語

學者인 周法高는 中國訓詁學發凡<sup>9)</sup>에서 오늘날訓詁學의 적용범위를

- (1) 訓詁法에 관한 연구
- (2) 字義와 語義에 관한 연구
- (3) 詞群(word-groups)에 관한 연구
- (4) 象聲語(sound symbolism)에 대한 연구
- (5) 語義의 變遷에 대한 연구

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점에서도 그러한 추세를 짐작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재료가 일상적인 言語가 아닌 詩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만이 그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詩가 言語라는 媒介體(medium)를 빌릴 수 밖에 없는 既定的 事實과 詩經이 上古時代의 作品임을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言語學 특히 意味論의 측면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第一次의 分析을 위해 다음 章에서는 義와 관계있는 訓詁術語와 訓詁條例에 대한 사항에 대해 거론하기로 하겠다.

#### 4. 義와 관계있는 訓詁術語

소위 術語라 함은, 마치 복수에게 있어서의 諸般工具와 같아 각기 그 사용처가 다르다. 訓詁에 사용되는 술어도 그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術語間의 서로 다른 점을 명확히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訓詁術語는 본디 漢儒들이 古書를 읽기 위해 창안한 語句로서, 形과 관계있는 것·음과 관계있는 것·義와 관계있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중 義와 관계있는 모든 術語를 수집·분류해 나가면서, 詩經에 수록된 詩語의 意味論의 一般原理와 特殊原理를 歸納해 보고자 한다.

##### (1) 某, 某也

이는 모든 訓詁術語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玉篇에 보면 「也, 所以窮上成文也」라고 되어 있어, 本字(처음의 某)에 대한 풀이가 이미 끝났음을 표시하는 술어이다. 두 字 이상의 本字를 계속해서 풀이하고

9) 中國語文研究, 華岡出版部, 臺北, p.58~81.

자 할 때는, 아래 [例2]와 같이 마지막 釋義之字(나중의 某)에만 「也」字를 쓰고 그 앞에서는 생략한다. 또 釋義之字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길 때는 아래 [例3]과 같이 의미가 相通하거나 展轉相釋할 수 있는 다른 字를 덧붙이고 釋義之字마다 「也」字를 붙인다. 이 術語의 적용범위가 다른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넓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상세히 조사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例 1) 「肅肅鷁行，集于苞桑。」(唐風，鷁羽)

「行，列也」

例 2) 「舒而脫脫兮，無感我帨兮，無使尫也吠」(召南，野有死麕)

「感，動；帨，巾；尫，犬也。」

例 3) 「視爾不藏，我思不閔。」(鄘風，載馳)

「閔，閉也，止也」

## (2) 某者，某也

說文解字「諸」字下注에 보면, 「者, 別事詞也, 諸與者音義皆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사물의 상황을 다른 것과 구별짓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某諸, 某也」로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某者, 某也」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某者, 某也, 某也」와 같이 連釋할 수도 있다. 文言의 「者」는 現代 中國語의 「這」와 같은 것으로서, 아래 [例1]을 보면 이 字의 기능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例 1) 「爾公爾侯，逸豫無期」(小雅，白駒)

「大者王，小者侯也」

例 2) 「美無度，殊異乎公路」(魏風，汾沮洳)

「公路者，掌公之路車」

例 3) 「在其板屋，亂我心曲」(秦風，小戎)

「板屋者，西戎之俗以板爲屋」

## (3) 某某曰某

이는 字句에 대한 直說的 表現法이며 本字(최후의 某)의 義界를 확정해 주는 술어이다. 아래 [例3]과 같이 「某某爲某」로도 쓰이는데, 모두 일반 文言에서 자주 사용되던 어투이다. 반드시 古語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널리 通用되는 말이 아닌 경우와, 문맥상 詩語가 지칭하는 바가 모호해지면서

詩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경우에, 평상적인 언어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訓詁術語를 사용한다.

例 1) 「憂心如醉，誰秉國成」(小雅，節南山)

「病酒曰醉」

例 2) 「陟彼岵矣，我馬瘠矣」(周南，卷耳)

「石山戴土曰岵」

例 3) 「整我六韜，以脩我戎」(大雅，常武)

「我，爲宣王之自我也」

#### (4) 某，某之稱

本字가 專門語이거나 引申의 정도가 자못 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때 사용되는 술어이다. 이는 또 아래 [例 2]·[例 3]에서와 같이 「某，某之名」이나 「某，某之辭」로도 사용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語助를 나타내는 술어인 「某，某辭」와는 구별되어야 하겠다. 아래의 [例 3]에서는 詩義의 「本義」·「引申義」·「推衍義」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를 느끼는데， 여기서는 「歸」字의 「本義」인 「女嫁」로 쓰이지 않았음을 訓詁로 인하여 알 수는 있지만， 이런 類의 詩語는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다.

例 1) 「曾孫維主，酒醴維醑」(小雅，行葦)

「曾孫，主祭者之稱」

例 2) 「嘒彼小星，維參與昴」(召南，小星)

「參·昴，西方二宿之名」

例 3) 「惠而好我，攜手同歸」(邶風，北風)

「歸者，去而不反之辭也」

#### (5) 某猶某也

이 술어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용법이 있다. 첫째， 說文解字 「讎」字下注의 「…凡漢人作注云猶者，皆義隔而通之」에서 밝혔듯이 本字와 釋者之字의 본래 의미는 같지 않으나， 展轉하여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둘째， 同書 「讎」字下注의 「…此則通古今之語」에서와 같이 當代의 말로써 古代의 말을 설명하는 것이 있으며， 셋째로는 聲音으로 부터 語詞의 音과 義의 來源을 찾아 그 命名되어진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다.

① 展轉하여 通用되는 例

아래 例에서도 보듯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각기 그 뜻하는 바에 差別이 있겠으나, 통상 별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일상성을 벗어난 本字의 의미가 釋義之字보다는 詩語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는 반면에, 後者は 비교적 一般的 概念의 言語라는 점이 다르다 하겠다.

例 1) 「有女懷春，吉士誘之」(召南，野有死麕)

「吉士，猶美士也」

例 2) 「式微式微，胡不歸」(邶風，式微)

「微，猶衰也」

例 3) 「所可讀也，言之辱也」(鄘風，牆有茨)

「辱，猶醜也」

② 今語로써 古語를 비유하는 例

과거에 관례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描寫語를 역시 관례적인 後代의 描寫語에 비유하고 있음을 아래 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단어들은 주로 雙聲·疊韻 관계를 갖고 있거나 疊字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音樂的인 語感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例 1) 「魯道有蕩，齊子遊遨」(齊風，載驅)

「遊遨，猶翱翔也」

例 2) 「綢繆束薪，三星在天」(唐風，綢繆)

「綢繆，猶纏綿也」

例 3) 「摻摻女手，可以縫裳」(魏風，葛屨)

「摻摻，猶織紵也」

③ 語源을 규명하는 例.

이들은 주로 卅字로 된 描寫語로써, 本字와 釋義之字가 [例 1]과 같이 흡이 비슷하거나 [例 2]·[例 3]과 같이 흡이 완전히 같은 관계에 있으며, 本字의 意味를 語源學的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例 1) 「風雨瀟瀟，雞鳴膠膠」(鄭風，風雨)

「膠膠，猶啾啾」

例 2) 「昧見君子，憂心沖沖」(召南，草蟲)

「沖沖，猶衝衝也」

例 3) 「願言思子，中心養養」(邶風，二子乘舟)  
「養養，猶漾漾」

### (6) 某謂某某

이 술어에는 다음 세 가지 사용법이 있다. 첫째, 狹義로써 廣義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直義로써 曲義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 分名으로써 總名을 설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① 狹義로 설명하는 例

무릇 각 단어에는 義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義界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기 일쑤이다. 특히 古代詩歌에 사용된 詩語는 그 多義性(ambiguity)으로 인해 그 義界가 무한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정짓고자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詩의 문맥을 통해 가장 합당한 狹義로써 그 애매성을 감소해 보려함이 이 술어를 사용하게 된 동기라고 하겠다.

例 1) 「升彼大阜，從其羣醜」(小雅，吉日)  
「醜，衆也，謂禽獸之羣衆也」

例 2) 「賓載手仇，室人入又」(小雅，賓之初筵)  
「室人，有室中之事者，謂佐食也」

例 3) 「之子于釣，言綸之繩」(小雅，采芣)  
「之子，謂其君子也」

#### ② 直義로 설명하는 例.

曲義가 은유적 표현법이라면, 直義는 直說的 표현법이라 하겠는데, 이 直義와 曲義간의 의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詩에서의 修辭와 推衍 등의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아래 [例 1]에서의 「治」가 그 本義인 「理」나引申義인 「懲處」·「經營」등의 義界를 넘어 推衍義로 발전된 詩語라는 것이 그 본보기이다.

例 1) 「綠兮絲兮，女所治兮」(邶風，綠衣)  
「治，謂而織之也」

例 2) 「乃如之人也，懷昏姻也」(邶風，蟋蟀)  
「昏姻，謂男女之欲」

例 3) 「魯道有蕩，齊子發夕」(齊風，載驅)  
「發夕，謂離於所宿之舍」



③ 分名으로 설명하는 例

總名이 總體的인 이름 또는 名稱의 廣義라고 한다면, 分名은 細分化된 이름 또는 名稱의 狹義라고 할 수 있다.

例 1) 「彼路斯何, 君子之車」(小雅, 采芣)

「君子, 謂將帥也」

例 2) 「正大夫離居, 莫知我勸」(小雅, 雨無正)

「周官八職, 一曰正, 謂六官之長, 皆上大夫也」

例 3) 「豈伊異人, 兄弟甥舅」(小雅, 頍弁)

(甥舅, 謂母姑姊妹妻族也)

(7) 某, 言某某也

「言」은 文中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드러내며 또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所在를 밝히려는 술어라 할 수 있다. 아래 [例 2]에서와 같이 詩語가 象徵化되었을 경우, 文字 그대로의 補助觀念(vehicle)만으로는 詩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詩의 本義 즉 原觀念(tenor)을 드러내려 할 때 사용된다.

例 1) 「彼其之子, 美無度」(魏風, 汾沮洳)

「無度, 言不可以尺寸量也」

例 2) 「有匪君子, 如金如錫」(衛風, 淇奥)

「金·錫, 言其鍛鍊之精純」

例 3) 「豈不夙夜, 謂行多露」(召南, 行露)

「豈不, 言有是也」

(8) 某謂之某

이는 한 사물에 두 가지 명칭이 있을 때, 그 명칭 사이에 사용되는 술어이다. 여기서는 앞의 某가 釋義之字이고, 뒤의 某가 本字가 되는데, 이 두 名稱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概念은 하나이지만, 詩語가 주는 言語感覺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例 1) 「庶見素韞兮, 我心蘊結兮, 聊與子如一兮」(檜風, 素冠)

「冕服謂之韞, 其餘曰韞」

例 2) 「中唐有甕, 邛有旨苕」(陳風, 防有鵲巢)

「廟中路謂之唐」

例 3) 「習習谷風，以陰以雨」(鄘風，谷風)  
「東風謂之谷風」

### (9) 某之言某也

說文解字「祿」字下注에 보면, 「…凡云之言者，皆通其音義以爲詁訓，非如讀爲之易其字，讀如之定其音」이라고 되어 있어, 本字와 釋義之字는 雙聲 혹은 疊韻관계에 있어야 하며, 意味 또한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또 「某爲言某」·「某之言某」라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例는 아래와 같다.

- 例 1) 「君子偕老，副笄六珈」(鄘風，君子偕老)  
「珈之言加也，以玉加於笄而爲飾也」  
例 2) 「心乎愛矣，遐不謂矣」(小雅，隰桑)  
「遐，與何同，表記作遐，瑕之言胡也」  
例 3) 「心之憂矣，曷維其亡」(鄘風，綠衣)  
「亡之爲言忘也」

### (10) 某亦某也

이는 本字와 釋義之字간에 의미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의미로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술어로서, 「某，且某也」로도 쓰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첫째가 修辭上字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글자로 바꾸어 사용된 引申義를 訓詁하는 경우이며, 그 둘째는 現代 中國語의 「也」의 의미로 새길 수 있는 경우이다.

#### ① 名異實同의 例

修辭上의 필요로 인해 다른 字로 내치한 부분을 訓詁하는 경우인 아래 [例 1]과 [例 2]에서, 우리는 詩經의 詩가 音樂的 效果를 살리고 있는 일종의 民요임을 알 수 있게 된다.

- 例 1) 「鬢彼兩髦，實維我儀」  
「鬢彼兩髦，實維我特」(鄘風，柏舟)  
「儀，匹也」, 「特，亦匹也」  
例 2) 「我生之初，尙無爲」  
「我生之初，尙無造」(王風，兔爰)  
「造，亦爲也」

例 3) 「心之憂矣，聊以行國」(魏風，園有桃)

「聊，且略之辭也」

② 「也」의 뜻으로 쓰인 例.

같은 詩 안에서 한 번 이상 제기되었던 설명을 다른 사물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될 때 이 방식을 쓴다.

例 1) 「彼黍離離，彼稷之苗」(王風，黍離)

「稷，亦穀也」

例 2) 「清人在軸，駟介陶陶」(鄭風，清人)

「軸，亦河上地名」

例 3) 「俟我於庭乎而，充耳以青乎而，尙之以瓊瑩乎而」(齊風，著)

「瓊瑩，亦美石似玉者」

### (11) 某如今某

이는 今制를 古制에 빗대어 설명하는 술어로서, 「某若今某」라고도 쓰인다. 아래 [例 I]에서 보듯이, 한 概念(concept)에 대한 古今名稱(symbol)의 異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古今의 名稱의 지칭하는 서로 다른 概念간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當代人的 이해를 돕기 위한 형태라 하겠다.

例 1) 「以御賓客，且以酌醴」(小雅，吉日)

「醴，如今甜酒也」

例 2) 「其車既載，乃棄爾輔」(小雅，正月)

「輔，如今人縛杖於輻，以防輔車也」

例 3) 「大邦有子，倪天之妹」(大雅，大明)

「倪，磬也，如今俗語譬喻物，曰磬作然也」

### (12) 古謂某曰，某今謀某曰某

이는 한 사물에 대한 名稱이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을 때 그 名稱간의 소통을 위한 訓詁法이다. 이는 또 「古謂某爲某，今謂某爲某」·「古曰某，今曰某」·「某，今謂之某」로도 사용된다. 當代에 사용되지 않는 古語에 대한 考證은 주로 옛 문헌이나 爾雅·釋名 등의 訓詁專門書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古代言語로 부터의 變遷과정을 추적할 수 있겠다. 또한 名稱에 대한 先人들의 言語感覺을 통해 새로운 詩語의 개발까지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

例 1) 「條其獻矣，遇人之不淑矣」(王風，中谷有蓷)

「古者謂死喪飢饉，皆曰不淑」

例 2) 「既見君子，錫我百朋」(小雅，菁菁者莪)

「古者貨貝，五貝爲朋」

例 3) 「有車鄰鄰，有馬白顛」(秦風，車鄰)

「白顛，額有白毛，今謂之的顛」

### (13) 某，或曰某

春秋公羊傳 莊公25년에 보면 「或曰者，或人辭，其義各異也」라고 하였고, 說文解字 「禮」字下注에 보면 「凡義有兩岐者，出一曰之例」라고 되어있어, 「或曰」이나 「一曰」이, 사람에 따라 해석이 같지 않으나 서로 통하는 바가 있을 때, 그 두 說 사이에 사용되는 술어임을 알 수 있다. 古語의 사용법에 대한 새로운 고증과 諸說의 합리적인 정리, 그리고 多義語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例 1) 「無則選兮，射則貫兮」(齊風，猗嗟)

「選，異於衆也，或曰，齊於樂節也」

例 2) 「正大夫離居，莫知我勳」(小雅，雨無正)

「周官八職，一曰正，謂六官之長，皆上大夫也」

例 3) 「蟋蟀在堂，歲聿其莫」(唐風，蟋蟀)

「蟋蟀，或謂之促織」

### (14) 某，所以某也

說文解字 「聿」字下注에 보면 「以，用也；聿者，所用書之物也」라고 되어있어, 사물의 功用을 밝히고 있으며, 그러므로 「所以」앞에 있는 本字가 대부분 名詞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同書 「鞞」字下注에서는 「凡許書所以字，淺人往往刪之」라고 하면서, 古人들이 이 「所以」의 의미를 단순히 補語에 지나지 않은 정도로 알고 넘기는 사례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例 1) 「玉之瑱也，象之擗也」(鄘風，君子偕老)

「擗，所以摘髮也」

例 2) 「羔羊之皮，素絲五它」(召南，羔羊)

「皮，所以爲裘，大夫燕居之服」

例 3) 「淇水悠悠，檜楫松舟」(衛風，竹竿)

「楫，所以行舟也」

### (15) 某, 某屬

說文解字「屬」字下注에 보면 「凡異而同者曰屬」이라 하여 대개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술어임을 알 수 있다. 때때로 「某, 某別」또는 「某, 某屬別」로도 사용되기도 하나, 엄밀히 따지면 同書 「烝」字下注의 「重其同, 則言屬, …重其異, 則言別」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질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屬」을, 이질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別」을 쓴다.

- 例 1) 「殷士膚敏, 裸將于京」(大雅, 文王)  
「殷士者, 商孫子之臣屬也」
- 例 2) 「鶉之奔奔, 鶉之疆疆」(鄘風, 鶉之奔奔)  
「鶉, 鶉屬」
- 例 3) 「江有沱, 之子歸, 不我過」(召南, 江有沱)  
「沱, 江之別者」

### (16) 某, 某之屬

本字가 의미하는 義界에 속하며 통상적인 다른 명칭을 예로 들면서 그 總稱을 설명하는 술어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某, 某之屬」이 위와 같은데 반해, 「某, 某屬」이 사물의 유사성으로부터의 구별을 나타내하고자 하는 점이다. 아래 [例 1]을 보면, 고대에는 비교적 포괄적인 總稱으로 쓰였던 것이 후대에 와서 명칭상의 分化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例 1) 「誰謂河廣, 一葦杭之」(衛風, 河廣)  
「葦, 蒹葭之屬」
- 例 2) 「私人之子, 百僚是試」(小雅, 大東)  
「私人, 私家阜隸之屬也」
- 例 3) 「汎汎楊舟, 載沉載浮」(小雅, 菁菁者莪)  
「載沉載浮, 猶言載清載濁・載馳載驅之類」

## 5. 義와 관계있는 訓詁條例

前章에서는 術語를 중심으로 그 訓詁形態를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術語의 한계를 넘어, 義와 관계있는 모든 訓詁條例, 즉 義訓을 중심으로 그 訓詁方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古來의 많은 訓詁學者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이를 분류해 왔기 때문에, 그 說의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이 극심하다. 그중 陳應棠의 분류<sup>10)</sup>가 詩語의 義訓方式으로서는 가장 적합하게 여겨져, 그의 21항목중 특히 詩語의 意味變遷과 義界를 확정짓는데 필요한 10항목을 추리고, 林尹의 분류<sup>11)</sup>에서의 「以廣義釋狹義」·「以狹義釋廣義」 두 항목을 첨가하기로 한다.

### (1) 古義로 訓詁함

무릇 古義라 함은 今義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과거에 사용되어진 일이 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王引之는 그의 經義述聞에서 말하기를, 「詩字在古義, 但明今義不可也」라고 하여, 今義로 해석하면 義界를 명확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詩本義에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訓詁方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例 1) 「牆有茨, 不可褻也」(邶風, 牆有茨)

「襄, 除也」

例 2) 「彼候人兮, 何戈與祲」(曹風, 候人)

「何, 揭也」

例 3) 「靈輿之故, 不違啓處」(小雅, 采芣)

「啓, 跪也」

### (2) 通義로 訓詁함

본디 두 字간의 意味는 엄격한 차이가 있지만, 음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이유로, 통상 별 구분없이 사용되는 字를 「通字」라 하며, 그 의미를 「通義」라 한다. 古書에는 通字가 많이 나타나는데, 通字는 반드시 通義 관계에 있으므로, 通訓의 예는 자못 빈번하다. 俞樾은 그의 古書疑義舉例에서 말하기를, 「不達古書通用之例, 而以後世文理讀之, 則往往失其解矣」라고 하여 通義 관계에 대한 물이해가 빚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10) 毛詩訓詁新詮, 臺灣中華書局, 臺北, p.199~356, 本論文에 소개한 義訓 10 항목 외에도, 「義理爲訓」·「釋詞爲訓」·「重文訓單文」·「單文訓重文」·「他經爲訓」·「破字爲訓」·「比事爲訓」·「風俗爲訓」·「制度爲訓」·「狀物爲訓」·「隨文爲訓」 등이 있음.

11) 訓詁學概要, 正中書局, 臺北, p.165~183; 本論文에 소개한 義訓 2항목의 예, 「詮釋一詞之義」·「詮釋對詞之義」·「以今制況古制」·「以雅言釋方言」이 있음.

- 例 1) 「有洗有澣，既盥我肄」(邶風，谷風)  
 「肄，勞也」  
 「正大夫離居，莫如我勩」(小雅，雨無正)  
 「勩，勞也」
- 例 2) 「曷其有恬，羊牛下括」(王風，君子于役)  
 「恬，會也」  
 「匪飢匪渴，德音來括」(小雅，車牽)  
 「括，會也」

### (3) 同義로 訓詁함

어느 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른 단어로 풀이한 예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가장 빈번하다. 오늘날 모든 字·辭典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적용 범위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爾雅 釋詁篇에 보면, 「初·哉·首·其·肇·祖·元·胎·俶·落·權輿，始也」라고 되어 있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字가 무려 12개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 각 方言에서 기인하는 同義語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예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詩經」에 수록된 各詩는 그 산생지에 따라 향토색 짙은 어휘를 많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 詩안에서 각 方言이 갖는 ニュ앙스(nuance)등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例 1) 「令終有假，公尸嘉告」(大雅，既醉)  
 「假，始也」
- 例 2) 「人涉卬否，卬須我友」(邶風，匏有苦葉)  
 「卬，我也」
- 例 3) 「我生之後，逢此百罹，尙寐無吪」(王風，兔爰)  
 「吪，動也」

### (4) 今義로써 古義를 訓詁함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는 古語의 의미를 그에 상당하는 今義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제기되었던 「古今語文의 異同을 疏通시킨다」함이 「訓詁」의 原泉的 目的이라는 사실에 가장 합치되는 예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한 개념에 주어지는 명칭의 개변과정을 가늠할 수 있으며 言語의 代替現象에 대한 時間的 空間的 要因을 추적할 수 있겠다.

- 例 1) 「因是謝人，以作爾庸」(大雅，崧高)  
 「庸，城也」
- 例 2) 「南山有臺，北山有萊」(小雅，南山有臺)  
 「臺，夫須也」
- 例 3) 「監觀四方，求民之莫」(大雅，皇矣)  
 「莫，定也」

### (5) 比義로 訓詁함

比義로 訓詁하는 예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比字로 訓詁」하는 예이고, 둘째가 「比喩로 訓詁」하는 예이다. 禮記 學記篇에 보면, 「古之學者，比物醜類」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서로 비슷한 성질의 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새로운 사물의 성질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위의 첫번째 예와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同書에 보면 「不學博依，不能安詩」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博依」라고 하는 것은 詩作法的 일종으로 今인들이 즐겨쓰는 譬喩에 해당된다. 이는 또 위에서의 두번째 경우와 그 사용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 ① 比字로 訓詁하는 例

이는 주로 「某猶某也」라는 訓詁術語를 택하여 本字와 釋義之字를 비교한다. 例에서도 보듯이 字와 字, 辭와 辭간의 의미가 대칭꼴로 비교되는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例 1) 「有女懷春，吉士誘之」(召南，野有死麋)  
 「吉士，猶美士也」
- 例 2) 「魯道有蕩，齊子遊遨」(齊風，載驅)  
 「遊遨，猶翔翔也」
- 例 3) 「君子偕老，副笄六珈」(鄘風，君子偕老)  
 「珈之言加也，以玉加於笄而爲飾也」

#### ② 比喩로 訓詁하는 例

이는 앞의 「比字」와는 달리 「某，言某也」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本字에서 사용된 여러가지 比喩的 手法을 설명하는 訓詁方法이다. 그 외에도 다음 [例3]에서와 같이 「某，如今某」·「某，若今某」의 형태로써 古代의 事物을 今代의 事物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



- 例 1) 「親結其綯，九十其儀」(邶，東山)  
 「九十其儀，言其儀之多也」
- 例 2) 「有匪君子，如金如錫」(衛風，淇奥)  
 「金·錫，言其鍛鍊之精純」
- 例 3) 「大邦有子，倪天之妹」(大雅，大明)  
 「倪，譬也，如今俗語譬喻物，曰譬作然也」

### (6) 申義로 訓詁함

申義라 함은 詩句의 의미를 字面義로 해석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제 시적인 의미로 引用하여 풀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訓詁方法을 통하여 詩句의 여러 의미중 한 의미로만 고착시킨 注釋者의 主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째, 詩에서 사용된 字를 引申하여 字義를 설명하는 예이고, 둘째, 詩義를 引申하는 예가 있으며, 셋째, 위의 두 방법을 겸용하는 예이다.

#### ① 字義를 引申하여 訓詁하는 例

아래 例에서도 나타나듯이 詩語를 그대로 引用하면서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訓詁方法이다.

- 例 1) 「在其板屋，亂我心曲」(秦風，伯兮)  
 「心曲，心中委曲之處也」
- 例 2) 「如山之苞，如川之流」(大雅，常武)  
 「如山，不可動也。如川，不可禦也」
- 例 3) 「龍盾之合，豸以腹納」(秦風，伯兮)  
 「畫龍於盾，合而載之」

#### ② 詩義를 引申하여 訓詁하는 例

詩語의 의미 자체를 중시하기 보다는 詩에서 나타내려고 하였던 言外의 뜻으로 引申하여 이를 부연 설명하는 訓詁方法이다. 다분히 注釋者의 상상력과 文學觀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 例 1) 「參差荇菜，左右芼之」(周南，關雎)  
 「彼參差之荇菜，既得之，則當采擇而亨芼之矣」
- 例 2) 「汎彼柏舟，亦汎其流」(邶風，柏舟)  
 「婦人不得於其夫，故以柏舟自比」

例 3) 「王事靡盬，不能蓺稷黍，父母何怙」(唐風，鴛羽)  
「民從征役而不得養其父母」

③ 字義와 詩義를 引申하여 訓詁하는 例.

이는 앞의 ①과 ②를 혼합한 訓詁方法으로 詩를 分析·批評하는데 가장  
긴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例 1) 「十月之交，朔月辛卯」(小雅，十月之交)  
「交，日月交會，謂晦朔之間也」

例 2) 「皎皎白駒，食我場苗」(小雅，白駒)  
「駒，馬之未壯者，謂賢者所乘也」

例 3) 「汎汎楊舟，載沉載浮」(小雅，菁菁者莪)  
「載沉載浮，猶言載清載濁，載馳載驅之類，以興未見君子而得不定也」

#### (7) 借義로 訓詁함

字의 本義에서 引申義가 파생되면 소위 「一字多義」의 관계가 성립되는  
데, 訓詁學者들은 이 引申義를 「他義」라 불러 왔다. 詩에서 本字가 他義  
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에 적합한 他字를 빌어와 訓詁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것이다. 아래 例의 訓詁法을 통해 우리는 詩語의 引申 정도로 가늠할 수  
있으며, 詩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무리한 확대를 제어할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例 1) 「四牡脩廣，其大有顛」(小雅，六月)  
「廣，大也」

例 2) 「大車嘽嘽，轟衣如璫」(王風，大車)  
「嘽嘽，重遲之貌」

例 3) 「抑馨控忌，抑縱送忌」(鄭風，大叔于田)  
「聘馬曰馨」

#### (8) 連義로 訓詁함

連義란 兩者의 의미가 서로 이어져 連語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本字와 釋義之字간에는 의미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계로 인하여 이  
두 字를 합쳐 사용하던 예가 非一非在하였다. 現代 中國語에 있어서의 「聯  
合式 複音節詞」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例 1) 「樂只君子，福履成之」(周南，樛木)

「成，就也」

例 2) 「胡轉予干恤兮，靡所止居」(小雅，祈父)

例 3) 「哿矣富人，哀此惻獨」(小雅，正月)

「獨，單也」

### (9) 展轉하여 訓詁함

轉訓의 例로서는 聲轉과 義轉이 있으나, 여기서는 義轉만을 다루기로 한다. 孔穎達의 詩正義에 보면, 「釋詁云, 介右也, 右助也, 展轉相訓, 是介爲助也」라고 되어 있어 「介·右·助」가 서로 展轉하며 訓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爾雅·釋名·說文解字 등의 訓詁 根底書籍을 참고하여 訓詁할 경우 이러한 結果를 갖게 됨은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例 1) 「樂只君子，福履成之」(周南，樛木)

「成，就也」

「謀夫孔多，是用不集」(小雅，小旻)

「集，韓詩作就」

「我行既集，蓋云歸哉」(小雅，黍苗)

「集，成也」

例 2) 「天作高山，大王荒之」(周頌，天作)

「荒，大也」

「載錫之光，受祿無喪，奄有四方」(大雅，皇矣)

「奄，大也」

「南有樛木，葛藟荒之」(周南，樛木)

「荒，奄也」

### (10) 正面·反面引申을 같이 訓詁함

段玉裁는 說文解字 「靠」字下注에서 「古人謂相背爲靠，今俗謂相依爲靠，猶分之合之皆曰離」라 하면서, 「靠」字의 의미가 反面引申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本義에서 반대 方向으로 引申되는 이 反面引申은 古文獻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字義學에서는 이를 「美惡同辭」라고 하고, 訓詁學에서는 「正反同訓」이라고 칭한다.

例 1) 「既曰告止，矧又鞠止」(齊風，南山)

「鞠，窮也」

「父兮生我，母兮鞠我」(小雅，蓼莪)

「鞠，養也」

例 2) 「誨爾諄諄，聽我藐藐」(大雅，抑)

「藐藐，忽略貌」

「寢廟既成，既成藐藐」(大雅，崧高)

「藐藐，深貌」

例 3) 「心之憂矣，自詒伊戚」(小雅，小明)

「戚，憂也」

「戚戚兄弟，莫遠具爾」(大雅，行葦)

「戚戚，親也」

### (11) 狹義로 訓詁함

字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가리키는 바의 概念이 자못 광범위하거나, 文中에서 의미하고 있는 義界가 다른 곳에 쓰여졌을 때보다 모호해졌을 경우, 그 字義의 범위를 축소하여 義界를 구체화 할 필요를 갖는다. 다만 이 訓詁法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작품의 구조나 本義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字의 절대의미를 정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例 1) 「升彼大阜，從其羣醜」(小雅，吉日)

「醜，衆也，謂禽獸之羣衆也」

例 2) 「賓載手仇，室人入又」(小雅，賓之初筵)

「室人，有室中之事者，謂佐食也」

例 3) 「綠兮絲兮，女所治兮」(邶風，綠衣)

「治，謂理而織之也」

### (12) 廣義로 訓詁함

修辭의 필요로 해서 한 文章안에 서로 다른 字를 썼지만, 결국 한 의미로 간주할 수 있거나, 특수한 詩語에 대한 평상적인 해석이 가해져야 할 필요를 가질 때, 이러한 訓詁方法을 채택한다. 다만 의미가 확대되는 데 따라, 작품의 言語藝術의 측면이나 詩語의 堅實性에 대한 침해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例 1) 「寤言不寐，願言則嘯」(邶風，終風)

「願，思也」

「女子善懷，亦各有行」(鄘風，載馳)

「善懷，多憂思也」

例 2) 「相彼鳥矣，猶求友聲」(小雅，伐木)

「相，視也」

「天監在下，有命既集」(大雅，大明)

「監，視也」

例 3) 「匪載匪來，憂心孔疚」(小雅，杖杜)

「疚，病也」

「匪舌是出，維躬是瘁」(小雅，雨無正)

「瘁，病也」

## 6. 맺는 말

본문에서는 주로 義와 관계있는 訓詁術語와 訓詁條例를 여러각도로 분류해 봄으로써, 訓詁學이 가능케 하는 詩의 一般原理와 特殊原理를 추출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각 術語와 條例의 사용방식에 따라, 詩의 本義를 해석하는데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이 때로는 詩의 均衡을 파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으나, 또 때로는 未曾有의 詩의 眞實을 발견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도 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詩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오류를 범하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眞理를 발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바로 이 訓詁方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詩批評史上 수많은 方法論이 거론되고, 또 사용되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철저한 의식과 뚜렷한 관점을 지닌 것이 바로 訓詁學이라 여기는 所以이다. 다만, 詩가 總體的인 思想이며 藝術인데 반해, 詩學으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原理는, 한낱 단편적인 知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뿌리깊은 좌절을 얼마나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하겠다.

### <參考圖書>

1. 金時俊, 毛詩研究, 瑞林文化社, 서울, 1981.
2. 南星祐 譯, 意味論의 原理(Stephen Ullmann 原著, The Principles of Sem-

- antics) 塔出版社, 서울, 1979.
3. 李家源 譯, 詩經, 弘新文化社, 서울, 1977.
  4.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臺北, 1977.
  5.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家與文學批評(2)…… 朱子之文學批評, 學生書局, 臺北, 1971.
  6. 杜學知, 訓詁學綱目,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74.
  7. 林尹, 訓詁學概要, 正中書局, 臺北, 1972.
  8. 方師鐸, 訓詁學的新構想, 東海大學報第21卷, 臺中, 1980.
  9. 徐善同, 訓詁學,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73.
  10. 楊鴻烈, 中國詩學大綱,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76.
  11. 王雲五·傅緯平, 中國訓詁學史,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80.
  12. 張健, 朱熹的文學批評研究,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73.
  13. 陳應棠, 毛詩訓詁新詮, 臺灣中華書局, 臺北, 1969.
  14. 齊佩瑢, 訓詁學概論, 廣文書局, 臺北, 1979.
  15. 朱熹, 詩集傳,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7.
  16. 中國學藝大辭典, 弗威文化社, 東京, 1967.
  17. James J.Y. Liu, The Art of Chinese Poe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0.
  18. R. A. Waldron, Sense & Serse Development, Andre Deutsch, London, 1979.

# 中文教學感言

吳慶第\*

## 一. 前 言

身為學習韓國語文的一份子，一直認為韓文是世界上最難習得的語言，為其複雜的子音接變，尊敬語與卑語的無窮變化，不知吃過多少苦頭。

數年前，在某校擔任中文講程以後，才發現中文的複雜性亦不亞於韓文，尤其是發音的變調，白話文與文言的交錯運用(文言的白話，或白話的文言)等等似乎皆不是外國人所能輕易完全正確學習的。

綜觀韓國大學內的中文課程，大體上可以分為二類，第一類是第二外國語文的中文課，學習期間只有一年，大致上每學期各只有兩小時，一學期裡，最多只能教到三十小時，在如此短暫的授課時數中，欲求學生習得正確的發音、會話、以及作文等等，幾乎是不可能的。故而教學重點，偏重於基礎文法的講解，培養學生的閱讀能力，主要目的仍在求學生能把中文作為追求學問的另一種語言工具而已。

第二類則為中文系內的專攻課程。其中又分文學與語學，二者相輔相成，並不相悖。本文所言，即專指中文系內的語言教學略述所感。

## 二. 發 音

中文系的學生不能不重視發音，一年級新生的中文課程，也以發音練習消耗了最多的時間。由於中文發音的部份與方法較韓文複雜，每個音的聲調，又各有區別，舉例言之，中文的聲母，韻母一共有三十七個，韓文則只有二十四個發音規模範圍顯而易見的比較龐雜，另外加上陰·陽·上·去，與輕聲的聲調變化，其難學度當然數倍於韓文。

一年級上學期教學重點不得不置重於發音，文法講解速度自然緩慢，進度的遲緩對發音感覺比較突出的少數學生，成了變相的虐待。即便如此，多數學生的發音仍然問題重重。以下簡述一二，供斯界先進同仁參考。

\* 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 1) 第一聲音值

陰·陽·上·去，四個聲調中，對韓國學生而言，感覺上，第一聲是最容易習得的發音，卻也是最常被疏忽的聲調。不能正確把握第一聲音值的學生，大多數也不能正確掌握緊接在第一聲後面的聲調。依筆者教學經驗，初學中文者的第一聲音值不妨拉長，使學習者獲得較多的餘裕，去掌握下一個字的聲調。如「他是軍人」

在練習發音時，屬第一聲的「他」與「軍」，拉長的話，下面的第四聲「是」與第二聲的「人」，正確的比率就比較高。初學中文者，急促的發出第一聲，不但導致第一聲本身走調，更影響呼吸調節，絕少能發出下一個字的正確聲調。

外國人(包含韓國人)說中文，令中國人覺得發音不錯的，幾乎都是因為正確的掌握了第一聲音值。換言之，正確的第一聲可以令人有「感을 잡았다」的印象，可見第一聲的重要性多麼大了。

### 2) 第三聲的變調

對外國人而言，第三聲的變調似乎是最頭痛的問題了。雖然在每本中文教材中，對第三聲的變調理論，都有詳細的說明分析，亦即三聲之後緊接一聲，二聲，四聲，及輕聲時，變調為半三聲，三聲重疊時，前面之三聲變為第二聲。

變調法則的理論講解，對學生的第三聲練習帶來了更多的困擾，教學者也有手足失措之感。究其因乃半三聲為變則聲調，教學者在講解某個單字的聲調時，只能練習其本身聲調，必須另舉詞彙之例，來練習半三聲，如「北平」，「小河」，「可憐」，「打雷」，「旅行」等等。進而言之，如「小河」的「小」為第三聲，「很小」的「小」發完全的三聲，「小河」的「小」則必須變為半三聲，多數的學生就被這第三聲，半三聲困住，不能脫身，苦不堪言。

另外一種奇妙的現象似乎是韓國華僑所引起的困擾。部份熱心學習的學生，積極熱誠的與華僑接觸，無論是對聽力、會話能力，皆有莫大的助益。鼓勵學生與華僑來往，當然是一種可行的學習方法。然而華僑語言中，四聲的混亂現象似乎相當嚴重。

據筆者經驗所了解，知識水準較高的華僑，都能說標準國語，對陰·陽·上·去，四個聲調也都能掌握得很好。唯韓國學生所接觸的華僑，大部份以此地高中學生為對象，華僑學生的方言問題就比較嚴重。尤其是三聲化現象最為突出。換言之，第二聲，第四聲的走音問題極為普遍。如「不對」( / \ → ∨ / )



「吃吧」(一·→∨·)，「我會呀」(∨\·→∨∨-)等等。

與華僑接觸的韓國學生，似乎由於上述華僑方言三聲化的影響，對半三聲後面的發音，尤其是三聲與二聲連接時，不論是前面的半三聲，或後面的二聲都容易變調走音。

第三聲的變調中，如「總統府」，「蔣總統」等三個第三聲連結的狀況，或「老李買酒」等，四個第三聲連結在一起時，聲調的變化就更複雜了，對初學中文的學生，也只能點到為止。

總之，為使學生正確掌握第三聲，及半三聲的變調，除了單純練習第三聲外，似乎尚須另外編出各種半三聲變調的詞彙，供學生練習，以明白區分三聲與半三聲的不同。

### 3) 輕聲

輕聲是中文四聲中獨特的另外一種聲調。在中文裡，任何聲調都有讀成輕聲的可能，沒有甚麼規則可循。當然如名詞，動詞重疊時，或部份的詞尾，助詞，某些狀況下的輕聲原則仍不是無例可循的。

然而如：

這是秘密地道。 (四聲)

他的中國話說得很地道。 (輕聲)

或

東西兩頭一樣近。 (一聲)

東西很好。 (輕聲)

等等，特殊的語詞，輕聲與非輕聲的意義決然不同。

上述的輕聲字，在初學中文者的教材中，經常可見。如「先生」，「原子筆」，「今天」，「晚上」等等，皆屬特殊狀況的輕聲字音，實際上這些輕聲字，「生」·「子」·「天」·「上」，都有它本來的原音。為避免學生產生誤會，似有必要在練習這些輕聲字時，強調說明它的原音，避免增加學生的困擾。

## 三. 文 章

韓國學生練習中文作文，最大的毛病有二種。第一是使用韓文文法，第二是誤用漢字。

### 1) 韓文式中文

初學中文者中，不乏聰明優秀發英才，然而部份英才，卻有聰明反被聰明誤

之遺憾。自以為才智超人的學生，不專心聽講，作業中，或考試時，就會自創妙文如下：

1. 我在圖書館去，座位沒有。  
(我去圖書館，沒有座位。)
2. 我帶弟弟去看賞花。  
(我帶弟弟去賞花。)
3. 我要見面老師。  
(我要和老師見面。)
4. 今天還是雨下了。  
(今天還是又下雨了。)
5. 我天今天要出發釜山。  
(我今天要從釜山出發。)
6. 我們對學校生活談話。  
(我們對學校生活交換意見。)
7. 我起來六點鐘。  
(我六點鐘起來。)

由上述妙文可見，韓文式中文最大的特徵即是動詞的倒置現象與文法的不求熟解，如「我要見面老師」(和……見面)，「出發釜山」(從……出發)等等連接詞的誤用，是部份學生作文中，常見的錯誤。

## 2) 漢字誤用問題

韓國漢字雖然源自中國，然而經過時間和空間的隔離，部份漢字的意思解釋在中文中，已完全不同。初學中文者未能完全分辨其差異性，乃有混用現象，此亦是初學者易犯的錯誤。

舉例言之：

1. 我們覺得很不便。  
(我們覺得很不方便。)
2. 他在會社工作。  
(他在公司裡工作。)
3. 他和我約束去漢城。  
(他和我約好去漢城。)
4. 昨天我讀了二時間中國語。  
(昨天我讀了二小時中文。)

5. 我有很多親舊。  
(我有很多朋友。)
6. 中國語演講比賽快開擢了。  
(中國語演講比賽快舉行了。)
7. 我們要結束才能成功。  
(我們要團結才能成功。)
8. 花謝了，我們很愛惜。  
(花謝了，我們很傷心。)

西洋人學習中文，乃自一片空白出發，不會有類似韓國學生的誤用漢字現象，更不會有：

文理大李學長坐汽車去漢陽  
(文理學院李院長坐火車去漢城)  
甚或把「中國文化學院」解釋成「中國文化補習班」的笑話了。

#### 四. 結 言

一年級新生中，每年總有三兩名成績特別優秀的學生，不論是發音，文法理解，以及作文能力各方面，都能令人相當滿意。這些學生的優異表現，決非因為他們天賦資質的超越常人，而是由於他們學習意願比較強烈，亦即學習動機(Motive)明顯，刺激他們在課堂時間之外，花費更多的時間，反覆溫習課堂內所學，或上補習班，或與華僑接觸，練習發音，使生硬的發音器官能自然、正確的發生各種聲調，並深入了解中國文法。

一年級的中文課程時間，一週只有三小時，扣除各種假日、考試期間，一學期能正常授業四十小時，就很難得了。缺乏積極學習動機的學生，除了課堂授業時間，未能去自我練習，即便授課時間，再怎麼認真學習，也很難期待他們有水準以上的成績。

故而，對一年級新生而言，如何提高他們的學習興趣，刺激他們自動學習的動機，似乎是最要緊的前提。

在學習中文的各種過程中，作文能力的培養，似乎是最艱難的一環，普通會話則相對的簡單易學。同時，由於會話的生動、活潑性，最容易引發學生的學習興趣，簡單的會話運用練習配合文法講解，所獲得的教學效果最大。如以下的句型教學為例：

今天	}	是	{	星期	{	一
明天				二		
後天				三		

如果單純的講述每個字詞的意思，反覆練習每個字的發音，仍是不夠的，務必加上問句型態的「嗎」，或「星期幾」，以問答方式，使學生運用思考能力，尋找出答案，以口頭回答，如此既可訓練發音，又可以習得文法句型，並且提高學生的學習興趣，一舉數得。此外，學生之間，也能互相練習，造成學習氣氛。一年級中文課程的會話練習是絕不可少的。

二年級以上的學生，在基礎文法，發音練習完成之後，仍有許多困難的過程須要克服，如成語和俗諺，甚或歇後語等等，都不能不去深入了解。然而最困難的一環仍是前面提到的作文能力。

中文文體有許多型式，文言文、白話文之外，一般書籍，報章，雜誌，以及論文的文章，常都是最簡潔的語錄體(文言的白話，白話的文言)，林語堂言：「語錄體可簡練如文言，質樸可如白話，有白話的爽利，無白話的囁嚅。」舉例言之：

「曩者曾僱吾子安置銅扉，儼然一新，和風曉日得以入而無礙焉，快甚。嗣見蚊蚋麀集如故，倖非窗沿有隙，蚊蠅乘間而入，曷克臻此？」(文言)。

「不久的以前，你們曾經把我們家裡的鐵絲障安裝起來，現在邊沿並不聚貼發生空線。現在滿屋都是蚊子和其他的蟲蠅，在這懶洋洋的夏天，這是如何地壓迫人啊！」(白話)

「前日安置紗窗，因邊沿有縫，蚊子遂得而入，令人日間坐不得，夜間眠不得，苦甚。」(文言的白話)

文言，白話，或語錄體既皆屬中文的一種，中文系學生不能不全部通曉，欲克服此種困難，唯多讀多看古今中外文章，勤於暗誦與寫作練習，久之，自然能融會貫通。教學者亦應不厭修正，如此方能幫助學生取得事半功倍之效。

以上就過去年餘間之教學經驗，略述雜感，尚盼斯界先進同仁不吝指教。

# 敦煌變文 定義 및 起源에 관한 考察

金 泰 寬\*

## I. 引 言

AD 1900年 敦煌石室寶藏이 發掘된 이래, 「敦煌學」이 새로운 學問으로 대두한 것은 約五十五年前의 일이며, 「敦煌學」이 國際漢學者들이 公認하는 새로운 學問으로 대두한 것도 어언 約 四十五年前의 일이다.<sup>1)</sup>

敦煌石室에서 發見된 寫卷은 어느 것 하나 學者들의 注目을 받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學者들의 注目을 받고 있는 것은 變文이다.

敦煌變文이 體系的으로 研究되기 시작한 것은 1957年 王重民先生 등이 「敦煌變文集」을 出刊한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1931년 出刊된 그의 遺稿에서 王重民先生은 「敦煌變文集」의 編輯過程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2)</sup>

敦煌所出變文寫本，據現在所知，已接近一百九十種。其中，有一些是複本，有一大部分是殘本，比較完整的卷子不多。複本可以互相校正文字，殘本可以互相補足殘缺，經過整理之後，有一些不明白的字句可以明白了，有一些殘缺的本子可以補全了。

一九五七年，向達，周一良，啓功，王慶菽，曹毅公等和我，把可能找到的一百九十個變文寫本，滙校爲「敦煌變文集」，這可以說是最後最大的一次整理：

「敦煌變文集」이 出刊된 이래 敦煌變文을 研究하는 學者들은 대부분이

\*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 1) 蘇瑩輝 著, 敦煌學概要는 引言에 그 歷史的 背景이 說明되어 있는 데, 筆者는 이 引用文을 要約하면서 年代는 이를 參考하여 換算하여 고쳐썼음.
- 2) 王重民先生의 遺稿 敦煌變文研究는 中華文史論叢(1981年 刊本)에 실렸는데, 潘重規先生은 敦煌變文論輯을 編輯하면서 이 글을 이 책속에 실었는데 本稿에 引用된 것은, 이를 발췌 引用한 것임.

이를 底本으로 하여 研究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수십년의 研究에도 불구하고, 變文의 起源·變文의 後代文學에의 影響等 諸問題는 아직도 未解決된 狀態로 남아 있으며, 變文의 文學史的 位置는 아직도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諸問題들은 變文의 定義 및 「敦煌變文集」의 分類에 直接的인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問題들에 관하여 諸先學들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諸問題點들을 찾아보고, 또 問題解決을 위한 새로운 方向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Ⅱ. 變文의 定義

王重民先生은 그의 編著「敦煌變文集」引言에서 그가 當時 使用한 變文의 定義를 아래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3)</sup>

敦煌所出說唱體之文學作品，最初誤認爲佛曲，如羅振玉在敦煌零拾中所著錄的幾篇，就是這樣標題的。後來因爲像目連變，八相變等等，變文的名稱尚保存在原卷之中，於是又把這一類作品泛指爲變文。但是像這一類的作品，固然有些是題上變文的名稱的，是否就可以一律稱爲變文文學呢？或者還是有其他的通稱呢？二十年來，我們根據唐代段安節的樂府雜錄，盧氏雜說，以及九世紀上半期日本僧人圓仁入唐後所作的入唐求法巡禮行記，知道唐代寺院中盛行一種俗講。後來又發現巴黎藏伯字三八四九號卷子紙背所書俗講儀式，對於俗講的內容算是比較清楚一點。現在可以肯定地說佛曲的名稱是錯誤的，同時我們也提出這樣一個說法，唐代寺院中所盛行的說唱體作品，乃是俗講的話本。變文云云，只是話本的名稱而已。但變文一稱，世已習用，所以本書仍稱之爲變文。

위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같이 「但變文一稱，世紀習用，所以本書仍稱之爲變文。」과 같은 敦煌變文의 定義의 曖昧模糊함이 수십년간의 研究에도 불구하고 文學史的 位置가 確立되지 못한 直接의 原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3) 王重民等編「敦煌變文集」은 書名을 바꾸어 楊家駱主編，中國俗文學 名著叢刊第二輯，敦煌變文으로 1980년 六版이 出刊되었는데，本稿는 이를 발췌 引用한 것임.

### (1) 「變」字의 名義

敦煌變文의 「變」字의 命名에 관하여 現在까지 發表된 學者들의 見解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梵文으로부터 轉譯해 온 名稱이라는 說이고, 다른 하나는 漢名中 이미 存在하고 있던 固有한 名稱이라는 說이다. 이를 하나하나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가) 「變」字는 梵文으로 부터 轉譯해 왔다는 說

ㄱ) 周一良先生은 「讀唐代俗講考」一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4)</sup>

「變」是梵文 *citra*로 翻譯. 有變化, 變奇等意思, 亦有繪畫之意.<sup>5)</sup>

ㄴ) 關德棟先生은 變字의 來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乃梵文曼荼羅(*mandala*)로 音譯.

나) 「變」字가 漢名中 이미 存在하던 固有한 名稱이라는 說.

ㄱ) 鄭振鐸先生은 中國俗文學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6)</sup>

在 唐代有所謂變相的, 即將佛經的故事, 繪在佛舍壁上的東西. ……像變相一樣, 所謂變文之變, 當是指變了佛經的本文, 而成為俗講之意(變相是變佛經爲圖相之意). 後來變文成了一個專稱, 便不限定是敷演佛經之故事了.

ㄴ) 向達先生은 「唐代俗講考」一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欲溯變文之淵源, 私意以爲當於南朝清商舊樂中求之. ……漢世以來, 南朝舊樂自有所謂變歌及以變名之子夜歡, 聞長史諸曲, 合之名君, 與屬於清樂也. ……凡此皆可以見南朝清商樂中, 本有以變名之一種. ……唐代變文宜亦可以被諸絃管, 是以唐末吉師老有看蜀女轉昭君變一詩, 變文之音樂成分, 由此似可推知. 而其祖禰, 或者即出於清商舊樂中變歌之一類也.

4) 向達先生의 「唐代俗講考」는 1934年 燕京學報第十六期에 發表되었는 데, 다시 1943年 文史雜記卷九, 十期合刊에 增補發行되었는 데, 周一良先生은 1947年 2月 圖書週刊第六期에 向達先生의 글을 批評하여 이 글을 發表하였고, 關德棟先生도 또한, 1947年 4月, 圖書週刊十五期에 「讀「唐代俗講考」의 商榷을 썼으며, 向達先生은 1947年 5月 圖書週刊第十八期에 「補說唐代俗講二三事兼答周一良, 關德棟兩先生」을 發表하였고, 周一良先生은, 1947年 6月, 圖書週刊第二十一期에 「關於俗講考再說幾句話」를 發表하여, 몇차례의 論爭이 계속되었는 데, 本稿는 林聰明先生의 敦煌俗文學研究에서 再引用한 것임.

5) 參考註4.

ㄷ) 程毅中先生은 「關於變文之幾點探索」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文之得名，大致可以認為和佛家所謂的變相有關係，變文就是變相圖的說明文字。「變」大概就是從變字的意思來的，佛家所謂變，就是顯現出某種幻境，又稱變現。

ㄹ) 周紹良先生은 「敦煌變文彙錄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文者，刺取佛經中神變故事，而敷衍成文，俾便導俗化衆也。維摩詰經佛國品第一，……「既見大聖以神變，普觀十方無量土。」是故以圖畫顯經中神變之事，謂之變相，靈山變，淨土變，降魔變是也。以文字顯經中神變之事，謂之變文，今日所發現者是也。但其中亦有非佛經故事，因其體相同，故亦歸諸文之例。

ㄱ) 孫楷第先生은 「讀變文雜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今敦煌寫本演說故事之書，有題「變文」者，亦作變。變字之義，近時治敦煌學者皆未有明確解釋。或者竟疑爲音譯。余按……變者，奇異非常之謂也。……非常事之屬於妖異者，謂之「變怪」(倒文作怪變)，「妖變」。……非常事之屬於靈異者，謂之「神變」，「靈變」。……單言則只作變。……更以圖像考之，釋道二家凡繪仙佛像及經中變異之事者，謂之「變相」，如云地獄變相，化胡成佛變相等是……亦稱曰「變」，如云彌勒變，金剛變，華嚴變，法華變，天請問變楞伽變，維摩變，淨土變，西方變，地獄變，八相變等是(以上所學見張彥遠歷代名畫記，段成式酉陽雜俎寺塔記及高僧傳，沙州文錄等書，不一一舉其出處)。其以變標立目，與變文正同，蓋人物事蹟以文字描寫之，則謂之變文，省稱曰變，其義一也。然則變文得名，當由於其文述佛諸菩薩神變及經中所載諸變異之事，亦猶唐人撰小說，後人因其所載者是新奇之事，而目其文曰傳奇，元明人作戲曲，時人因其所譜者是新奇之事，而目其詞曰傳奇也。

ㄴ) 王文才先生은 任二北先生著 「敦煌曲初探」에 序를 써 다음과 같이 말했다.

民間變文……在名稱上，初期純唱詞形式者，其名稱尚不固定，或稱「詞文」或稱某某「文」，可能就是隨唐以來「說話」的話本……及受講經文的影響以後，



更借用了講經文的俗名變文，而稱爲「變文」。「變」字的意義，本取用佛經「轉換舊形名變」，故佛教塑像，畫圖亦稱爲變。如以民間「變文」而言，其內容皆爲流行的傳說故事，根本沒有變字的意義，而其文體始創時，也沒有固定的稱法，正有待於有了相同形式的講經文後，才借用其變文的名稱，定名爲變文。

ㄱ) 王重民先生은 「敦煌變文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文命名的釋義有兩說，一謂從梵文轉譯，一謂爲漢名所固有，並且爲「變」字作了釋義。主張從梵文轉譯的，至今還沒有找出譯文或對音的梵文。我個人的意見，即便找出相應的梵文，而「變」字在梵語內應首先具有相適應的意義。如果再進一步探求「變文」(特別是講經文)的體製，是在我國人民大眾的文學創作中發展起來的。……從漢語釋義的，以孫楷第的「變文之解」爲最好。……變就是變化，所以凡是正常的轉化成爲不正常的(非常)，都可叫作變。……茲更就變相與變文而論，變相的產生是在變文之前的，最初所謂變相，疑是對真容而言的，……但是不可能不顯著他們的一些行爲(故事)……「變」字自從帶有了故事的意義以後，在文法構造上，也必然作相適應的變化，即站穩名詞的地位。……「變文」命義的轉化，正和變相一樣的。

ㅇ) 蘇瑩輝先生은 「敦煌學概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文的體裁，是以詩歌與散文合組而成，與俗文相似，但變文之主旨，則在敷陳故事。故事內容，則多採取佛經或中國原有之故事，重加敷演，使變爲通俗而生動，故曰「變文」。質言之，亦即此新興的文體，係從散文變化而來，所以就稱爲變文。

ㄴ) 潘重規先生은 「敦煌變文新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我們觀察變文這一「變」字的來源，我們應該承認，它是首先用在佛相方面。……所謂變相，可能是變現出來的形相的意思，……省稱便叫作變。

ㄷ) 日人 澤田瑞穗先生은 「支那佛教唱導文學の生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乃以經典中的「神變」爲題材。其以繪畫表現者，爲「變相圖」，以文章表現者，爲「變文」。

㉞) 日人 那波利貞先生은 「俗講と變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爲「變相圖」, 「變文」之省稱, 以圖畫表示佛典內容者爲變相, 其說明的文字即爲變文。

㉟) 日人 梅津次郎先生은 「變と變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爲變相畫, 變文乃附屬於變相畫的圖解文。

㊱) 日人 金岡照光先生은 「敦煌の文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由現存以「變」, 「變文」爲題名的高本, 與其他類似結構的高本中, 可知變文與繪畫有不可分的關係, 變文即是圖解的講唱, 繪畫爲變文的支柱。

이상 諸說들을 살펴보면, 或者是「變」字의 來源과 語義를 重視하고 있으니 鄭振鐸先生의 「變更」說, 孫楷第先生의 「神變」說, 周一良·關德棟先生의 「從梵語轉譯」說 등이 그것이다. 또 或者是「變」의 具體的 實態를 重視하고 있으니, 澤田瑞穂·那波利貞先生 등의 「畫爲變相, 文爲變文」說 등이 그것이다.

王重民先生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變」字가 梵文으로 부터 轉譯해 왔다는 說은 아직까지는 確實한 梵語의 對音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信憑性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漢名中 이미 存在했던 固有的 것이라는 說도 諸說이 紛紛하여 아직까지는 通說로 認定되는 것은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상 나열한 13가지 說은 「從梵語轉譯」說이나 「漢名中 所固有」說을 莫論하고, 하나의 共通點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變字의 意味속에는 「變化」, 「變更」 내지는 「改變」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變文은 素材의 選擇에 있어 모두가 故事를 選擇하고 있다. 즉 講經變文은 모두 佛經故事를 背景으로 하고 있고 講史變文은 民間故事나 民間傳說 등을 그 背景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降魔變文은 賢愚經卷十 「須達起精舍品」을 改變하여 講唱體作品으로 만든 것이다. 그 밖에도 現存하는 作品中 「變」或 「變文」의 標題를 가지고 있는 作品, 즉 八相變, 降魔變神(後題作破魔變一卷), 大日乾連冥間救母變文

并圖一卷并序(後題作大目捷連變文一卷·另一寫卷附記作目連變一卷), 頻婆娑羅王后宮綵女功德意供養塔生天因緣變(又出簡題作功德意供養塔生天緣), 醜女緣起(後記云……「上來所說『醜變』」·另一寫卷作醜女金剛緣·又寫一卷後題作金剛醜女因緣一本) 諸講經變文은 모두가 佛經中の 故事로 부터 改變하여 講唱體作品으로 만든 것이다. 또 漢將王陵變(後題作漢八年楚滅漢興王陵變), 舜子變(後題作舜子至孝變文), 前漢劉家太子傳(後題作劉家太子變一卷) 等 講史變文은 모두가 史籍에 실린 歷史的 事實에 民間傳說을 加味敷演하여 改變한 것이다. 또한 文字의 記錄은 없으나, 民間에 流傳되어 온 民間故事, 傳說 等을 이러한 體裁에 依據하여 쓴 作品도 變文이라고 稱하고 있다. 孟將女變文·張義潮變文, 張准深變等은 原標題는 없으나, 後人들이 變文의 이와 같은 特徵에 依據하여 擬題한 것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결국 變文은 一種의 文字記錄을 또 다른 하나의 體裁의 文字記錄으로 改變해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深奧한 經文을 通俗한 文字로 바꾸어 놓은 것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상의 論學를 綜合해 보면 筆者의 私見으로는 變字의 名義는 「變更」·「變化」·「改變」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所謂 講經變文이라고 하는 것은 곧 「某某佛經故事」로 부터 改變하여 「某某變」 또는 「某某變文」으로 만든 것이며, 所謂 講史變文이라고 하는 것은 곧 「某某民間故事」로 부터 改變하여 「某某變」 또는 「某某變文」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 (2) 變文의 體裁

世上에 存在하는 모든 文學의 장르는 제각기 그 나름대로의 獨特한 體裁를 갖추고 있다. 敦煌變文이 發掘된 이래 가장 학자들의 注目을 받고 있는 部分은 說白과 說唱을 兼한 講唱體作品中 가장 오래된 것이 敦煌變文이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文體가 文學史的으로 차지하는 位置의 定立에 관심이 集中되고 있다.

王重民先生은 「敦煌變文集」 引言에서 自身の 敦煌變文集을 編輯할 當時에 使用했던 變文의 定義를 아래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7)</sup>

唐代寺院中所盛行的說唱體作品，乃是俗講的話本。變文云云，只是話本的名稱而已。但變文一稱，世已習用，所以仍稱之爲變文。

7) 參考 註3.

위의 引用文으로 부터 그가 생각하고 있던 典型的인 變文의 定義는 「唐代寺院中所盛行的說唱體作品，乃是俗講的話本。變文云云，只是話本的名稱而已。」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에 있어, 그가 敦煌變文集을 編著할 當時에 사용한 變文의 定義는 「但變文一稱，世已習用，所以仍稱之爲變文。」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不確實하고 曖昧 模糊한 定義는 後來學者들의 變文研究에 심한 混亂을 招來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變文定義에 對한 그의 見解는 「敦煌變文集」에 실린 作品中 原標題가 亡失된 作品의 擬題에 잘 나타나 있다. 敦煌變文集에 실린 七十八篇作品中, 原標題가 있는 것은 三十八篇에 不過하며, 나머지 四十篇은 後人들이 擬題한 것이다. 擬題한 四十篇中 伍子胥變文, 孟姜女變文, 李陵變文, 王昭君變文, 董永變文, 張義潮變文, 張淮深變文, 秋胡變文, 太子成道變文(外 四篇), 目連變文, 地獄變文, 不知名變文(外 二篇) 등 十八篇만이 變文이라 擬題했는데 그中 秋胡變文, 董永變文, 太子成道變文五篇等 七篇을 제외한 나머지 作品은 모두 講唱體作品으로 되어 있다.<sup>8)</sup>

그 後, 一九八一年 發表된 遺稿 敦煌變文研究에서<sup>9)</sup> 다음과 같은 說明들을 附言했다.

「太子成道經」, 「敦煌變文集」, 還收了五篇「太子成道變文」, 第一篇好像是 押座文, 其餘有說無唱, 不像變文。

「紙園因由記」, 這一篇也沒有唱詞, 也不像是變文。

「目連變文」, 這一殘卷開端說, 「上來所說序分竟, 自下第二正宗者」, 頗似 講經文, 但裡面不唱經文, 所以大家都把它分入變文類。

이상 引用한 三句로 부터 그의 變文에 對한 見解는 說唱兼體의 講唱體 作品을 典型的인 變文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羅宗壽先生은 「敦煌講經變文與講史變文之比較研究」에서 講經文과 變文의 差異를 아래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10)</sup>

8) 以上, 標題가 원래 있는 作品과 後人들이 擬題한 作品의 分類는 敦煌變文集에 收錄된 作品은 매 作品마다 註를 달고 있는 데, 註 1은 모두가, 版本과 標題有無를 說明하고 있는 데, 이를 根據로 하여, 敦煌遺書總目索引에서 對照해서 얻은 결과 위. 단, 여러 版本中에서 한편만이라도 原標題가 있는 것은 標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9) 潘重規 著, 「敦煌變文論集」은 「敦煌變文研究」를 실고 있는 데, 이 책의 p. 191, 1行, 7行, 10行을 참고 바람.

10) 本 引用文의 앞에, 作者인 羅教授는 敦煌變文集所輯의 七十八篇變文(廣義)라는 句絶을 使用하고 있는 데, 廣義의 概念定義가 없다. 筆者가 推測하기로는 作者는 變文을 廣義와 狹義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데, 여기에 나타난 變文의 定義는 아마도 作者가 생각하는 狹義의 變文이라고 여겨진다.

大乘法苑義章第七云……「轉換舊形名變」。本來宣演「變文」的形式和宣演「講經文」的程序，並沒有顯著的差異。然而「變文」却採用「轉換舊形」的「變」字為名其間必定有着重大的轉變。比較講經文和講經變文的寫卷，可以看出兩者最重大的分別是，講經文必以某一經貫串全篇，而變文則以故事為主，縱引了經文，也只是為了故事的需要，這一主奴地位的轉換，才符合「變」字的名義。而俗講話本在文學發展史上的地位，至此方告奠定。

講經變文(包括緣，緣起，因緣等)，除了不用經文來貫串全篇以外，其體裁和講經文幾乎完全相同，也有押座，開經，開讚，廻向發願等節目，其正文部分，也必定是韻散間則一也就是講一段，唱一段的，至於講史變文，有的和講經變文相近一像漢將王陵變，除了頭尾的不見保存下來外，其正文也是講一段，唱一段。可是有的却不如此一像舜子變，通篇都押韻，而且以六言句為主，其次就是四言句了，其體裁稍近於賦，像劉家太子變(用後題)却又通篇用散句，全同於變文集成的「記」。

舜子變의 文體에 關하여 王重民先生은 「敦煌變文研究」에서 아래와 같이 說明했다.<sup>11)</sup>

有說無唱的變文，實際上已經轉化成爲話本。但較早的作品仍然沿用變文，如「舜子至孝變文」是九四九年寫本，若稍晚，也許改稱「舜子至孝話」。「鱸山遠公話」是九七二年寫本，若稍早，也許就題爲「鱸山遠公變」了。爲甚麼在名稱上可以這樣的轉化，是因爲在九七二年的時候，有說有唱的文已經衰微，而話本的含義已轉化成爲講故事的書本，由於這種新興的文體，重說不重唱，所以話本便取變文而代之。

舜子變·劉家太子變(羅宗濤先生은 그 創作年代를 五代로 推定했다.<sup>12)</sup>) 같은 作品은 變文發展史上 比較的 最晩期의 作品에 속한다. 王重民先生의 이러한 主張은 必로 變文의 全體的인 文體를 說明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變文의 文學史의 發展過程을 잘 說明해 주고 있다. 위의 引用文에서 본 바와 같이 晚唐·五代에 이르러선 當時에 이미 상당한 概念上的 混亂이 있었으며, 또한 質的인 面에서도 상당한 變化가 있었을 것으로 判斷되어 이들을 모두 典型的인 變文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變文의 末期的

11) 王重民先生이 推定한 成立年代는 그 推定의 根據를 밝히지 않아, 信憑性이 부족하여 羅教授의 成立年代를 참고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羅教授의 推定도 唐宋, 五代로 잡고 있어, 論理展開에는 矛盾이 없다.

12) 參考, 敦煌講經變文與講史變文之比較研究, 第四章 各篇變文之成立時代.

現狀으로 봄이 마땅하다 여겨진다.

이상의 討論의 結果를 綜合해 보면 典型的인 變文은 世上에 存在했던 모든 文學장르가 그러했듯이, 마땅히 그 나름대로의 固有한 體裁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나의 文學장르로서의 價値를 認定할 수 있을 것이니, 곧 說唱兼體인 講唱體의 體裁가 그것이라 하겠다.

### (3) 變文의 定義

王重民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唐代에 寺院에서 盛行되었던 說唱體作品은 곧 俗講의 話本인데, 變文이라고 云云하는 것은 단지 話本의 名稱일 뿐이다.

俗講이라는 것은 그 本質上 강한 公演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첫째의 關門은 觀衆동원에 있었을 것이다. 俗講은 僧侶들을 對象으로 하는 僧講과는 달리, 그 聽衆이 일반 庶民이었으므로 一般적으로 興味本位의 公演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講經文이 某一經으로 全篇을 講唱한데 반해, 變文은 어떠한 經典中에서 가장 興味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 발췌한 부분을 代表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現存하는 變文 가운데 原標題가 保存되어 내려오고 있는 作品인, 八相變, 降魔變, 破魔變, 頻婆娑羅王后宮綵女功德意供養塔生天因緣變 等 諸篇은 모두가 經典의 內容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掘稿 敦煌變文「太子成道經」, 「八相變」, 「破魔變」, 「降魔變」與佛經比較研究에서 有關佛經條와 對照表가 나타내 주고 있는 것처럼 有關한 佛經의 內容이 大同小異하여 正確히 어느 한 經을 根據로 하여 쓰여졌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그들이 經典의 內容에 根據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또 講史變文에 있어서는 모두 어느 한 民間故事를 根據로 하여 그것을 講唱體로 角色한 것이다. 이러한 民間故事를 根據로하여 角色했다함은 聽衆이 이미 알고 있던 民間故事나 說話를 그 主題로 함으로써 聽衆들로 하여금 陌生感을 解消하고 더욱 親密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그 興味를 倍加하는 效果를 거두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典型的인 變文은 韻散文을 混用해서 쓰는 體裁, 즉 講唱體를 쓰고 있는 데, 그 韻文과 散文을 運用하는 方法은 먼저 散文으로 설명한 然後에 韻文으로 이를 敷演說明하여 聽衆들의 記憶을 돕는 方法, 먼저 散文으로 說明한 然後에 韻文으로 이를 敷演說明하는 동시에, 末尾에는 다음의 散文을 이끌어 내는 韻文을 써서 앞뒤의 散文을 연결하는 方法, 散文과 韻文을 獨立해서 運用하는 方法 等 세가지를 使用하고

있다.

以上の 내용을, 앞에서 學論한 (1) 變字的名義, (2) 變文的體裁와 聯關 지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變文中의 變字의 名義는 「某某故事」(佛經故事, 民間(歷史)故事, 民間說話 등을 포함함.)로부터 改變하여 「某某變文」(變은 變文의 簡稱이라 본다.)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니, 典型的 變文은 반드시 그 素材에 있어 이미 存在하고 있던 故事에 根據를 두고 있다는 點이다.

둘째, 하나의 獨立된 文學장르로서 存在하는 모든 文學이 그 固有한 體裁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變文도 그 體裁面에서 散文과 韻文을 并用한, 變文固有의 講唱體를 갖추고 있을 때, 하나의 獨立된 文學장르로서 價値를 認定받을 수 있다는 點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變文으로 일컬어 지는 作品들에 對한 定義는 王重民先生이 敦煌變文集 引言에서 밝힌 「唐代寺院中所盛行的說唱體作品, 乃是俗講的話本. 變文云云, 只是話本的名稱而已. 但變文一稱, 世已習用, 所以本書仍稱之爲變文.」라는 莫然하고 曖昧模糊한 것이었다. 個人的 私見으로는 이러한 定義의 曖昧模糊로 因하여, 敦煌變文의 文學史의 位置의 定立에 많은 差質을 招來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變文은 典型的인 變文과 그 밖의 것으로 嚴格히 區分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것은 아마도 文學流變史의 立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典型的인 變文은 上述한 두가지 條件을 滿足시킬 때 限하여 典型的變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變文의 起源

變文의 起源問題는 諸學者들의 變文의 名稱來源에 對한 見解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諸說이 紛紛한데 이를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가) 印度佛典으로 부터 왔다는 說

鄭振鐸先生은 中國俗文學史 第六章 變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3)</sup>

變文是講唱的, 講的部分用散文, 唱的部分用韻文. ……在古代, 散文裏偶然也雜些韻文, 那也「引詩以明志」的舉動, 和變文之韻散交互使用者決非同

13) 以下, 가)에서 바)까지의 引用文은 林聰明先生의 敦煌俗文學研究 第二章 第二節 節一目에서 再引用하여 討論의 根據로 삼았음.

科。劉向列女傳之「讚」和班固漢書的「贊」，雖用的韻文，散文不用，其作用則一也。韓詩外傳所用的「詩」，也不外是以故事來釋「詩」，都非變文的祖彌，變文的來源，絕對不能在本土的文籍裏來找到。我們知道，印度的文籍，很早的便已使用到韻文散文合組的文體。最著名的馬鳴的本生鬘論，也曾照原樣的介紹到中國來過。一部分的受印度佛教的陶冶的僧侶，大約曾經竭力的在講經的時候，模擬過這種新的文體，以吸引聽衆的注意。得了大成功的文淑，便是其中的一人。從唐以後，中國的新興的許多文體，便永遠的烙印上了這種韻文散文合組格局。講唱變文的僧侶們，在傳播這種新的文體結構上，是最有功績的。

또 鄭振鐸先生은 挿圖本中國文學史第三十三章「變文的出現」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一種新的文體，決不會是天上平空來的，若不是本土才人的創作，便當是外來影響的輸入。在唐以前，我們所見的文體，俱是以純粹的韻文，或純粹的散文組織起來的，(韓詩外傳一類的書之引詩，列女傳一類書之有「讚」，那是引用韻文作為說明或結束的，並非韻散合組的新體的起源)並沒有韻文和散文合組起來的文體。這種新文體究竟如何是產生的呢？榴在甚麼時候產生的呢？最可能的解釋，是這種新文體是隨了佛教文學的翻譯而輸入的。重要的佛教經典，往往是以韻文散文聯合起來組織成功的，其他各經，用此體者也極多。佛教經典的翻譯日多，此新文體便為我們的文人學士所耳濡目染，不期然而然的也會擬仿起來了。

鄭振鐸先生에 의하면 唐以前の 文學은 韻文과 散文을 混用해서 쓴 文體가 없었으며, 印度에서 佛典을 翻譯輸入한 이후에 變文이 產生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林聰明先生은 「敦煌俗文學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然而事實上，唐以前已有韻散組合以說唱故事的形式，如列女傳之，「古者婦人娘子，寢不側，坐不邊，立不蹀，……夜則令瞽誦詩，道正事」，既云誦詩，又道正事，殆即邊說邊唱之意。故鄭氏之說，恐未得其實。

그러나, 林聰明先生은 誦詩와 道正事에 對한 한 句의 說明도 없다. 私見으로는 誦詩와 道正事는 전혀 別個의 일로 보아지며, 또 앞에서 내린



變文의 正義에 입각하여 볼때, 「某某故事」를 改變하여 「某某變文」으로 만들었다는 變字의 意味는 전혀 없으며, 만약 先生이 설명한 것처럼 邊說邊唱的 意味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本質面에 있어 여러번 반복하여 說唱을 행하는 變文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진다.

나) 南朝清商舊樂으로 부터 왔다는 說

向達先生은 唐代俗講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唐代俗講話本, 似以講經文爲正宗, 而變文之屬則其支裔。換言之, 俗講始興, 只有講經文一類之話本, 寢假而採取民間流行之說唱體如變文之類, 以增強其化俗之作用。故變文一類作品, 蓋自由淵源, 與講經文不同, 其體製亦各異也。欲溯變文之淵源, 私意以爲當於南朝清商舊樂中求之。……漢世以來, 南朝舊樂自有所謂變歌, 及以變名之子夜歡, 聞長史諸曲, 合之名君, 舉屬於清樂也。……唐代變文宜亦可以被諸弦管, 是以唐末古師老有看蜀女轉昭君變一詩, 變文之音樂成分, 由此似可推知。而其祖彌, 或者即出於清商舊樂中變歌一類也。

向達先生은 俗講話本은 講經文이 그 正宗을 이루고 있으며, 變文은 그 旁支(別派)이며, 그 淵源마저도 각기 다른 것으로 說明하고 있으니, 즉 變文은 南朝清商舊樂中の 變歌에 그 淵源을 두고 있으며, 講經文과 동시대에 並行했는데, 그후에 講經文이 變文의 形式을 採取하여, 講經文의 化俗作用을 增強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私見으로는 向達先生의 說은 그가 變文으로 學論하고 있는 對象이 아마도 拙稿 敦煌變文 「太子成道經」, 「八相變」, 「破魔變」, 「降魔變」, 與佛經比較研究의 第一章 第三節 標題探討에서 分類한 中國已有的 民歌流傳來的의 分類에 屬하는 「大漢三年季布罵陣詞文」, 「季部詩詠」, 「下女[夫]詞」 등의 作品이 아닌가 생각된다.

林聰明先生 敦煌俗文學研究에서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古代民間已流行敘事歌謠, 如詩經衛風氓, 北風谷風, 生民, 公劉等, 皆具敘事性質。漢魏樂府中, 敘事詩較前發達, 如陌上桑, 孔雀東南飛以至北朝의 木蘭詩, 故事情節更曲折複雜。至玉台新詠古詩八首中云……「四座且莫喧, 且聽歌一首, 請說銅爐器, 崔嵬像南山。」顯爲對大衆喧演的敘事詩。宋書樂志云……「六變諸曲, 皆因詩制歌。」, 可見南朝變歌具有故事內容, 如現存的上

聲歌八首與聞變歌六首，約略具有不甚連貫的故事情節。上聲歌云…「初歌子夜曲，改調促鳴箏。四座暫寂靜，聽我歌上聲。」亦為當衆演唱的故事詩。此種民間傳統的敘事歌謠，促成唐代詞文的形成與發展。」

만약 向達先生이 變文의 對象으로 한 것이 「大漢三年季布罵陣詞文」, 「季布詩詠」, 「下女[夫]詞」等이라는 推論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作品들이 變歌, 즉 南朝清商舊樂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은 異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作品들은 敦煌變文集에 收錄된 七十八篇作品中, 극히 一部에 지나지 않으며, 前述한 典型的인 變文의 要件으로 미루어 볼때, 비록 「某某故事」로 부터 改變하여 「某某變文」으로 만들어졌다는 「變」字의 名義의 條件을 充足시켜 주고 있으나, 그 體裁面에 있어서 說唱兼備라는 講唱體의 條件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南朝清商舊樂을 變文의 直接的인 來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變文과의 影響授受관계面에서 연구되어야 할 줄로 생각된다.

講經文과 變文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그가 變文으로 생각한 對象이 典型的인 變文이 아닌 「詩詠」이나 「詞文」 등의 名稱이 붙여진 作品들이 아닌가 하는 疑念을 더욱 굳혀준다.

다) 中國에 이미 存在하였던 賦體로 부터 來源했다는 說 程毅中先生은 關於變文的幾點探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變文和變相有關，但是我們不能說變文這種文體，也是僧人演唱佛經故事以後才產生的。……變文這種文學形式，主要是由漢語特點所規定的四六文和七言詩所構成的。難道這種最地道的民族形式，可能是從印度傳來的嗎？變文作為一種說唱文學，遠可以從古代的賦找到來源。漢書藝文志詩賦略中著錄的賦把孫卿(荀子)的賦作為一類，和屈原賦，陸賈賦成為三個不同派別。我們知道荀子的賦包括有成相篇和賦篇，近代的研究者都認為成相就是當時的曲藝形式。漢書藝文志中還有雜賦一類，……劉向，班固所謂雜賦，應該是一種接近民間文學的歌謠文體。漢代除了歌功頌德的大賦，和抒情寫景的小賦之外，還有一種敘事體俗賦，如韓朋賦，燕子賦等，它在演述故事上和變文是相同的，只是在形式上還保存著雜賦的格局。我們如果把燕子賦和曹植的鸛雀賦比較下，就會發現它們之間有很近之血緣關係，無論在體裁和題材上都有一脈相承之處，我覺得變文和這種雜賦是有密切關係的。當然，變文中經常是韻文(詩讚)和散文(廣義的散文可以包括駢文在內)交錯運用，和燕子賦等似乎有所不同，但是

這種體製也可以在賦中見到。如蔡邕的短人賦是一篇以四言爲主而駁以楚辭體歌詞的賦，這本騷體賦的常例，它就是在不歌而誦的賦之後，結以不誦而歌的亂辭。趙壹的刺世病邪賦末尾附了兩首五言詩，則可以說是賦和詩相結合的新發展。到了六朝人的小賦中，這個特點更爲顯著，如庾信的春賦，開頭和結尾是七言詩，中間是韻的四六文，和變文中的詩文相見形式相似，差別就在散文部分押不押韻而已。不過，像舜子至孝變文就是一篇押韻的賦，可見變文和賦之間，並無不可逾越的界限。……我們有理由設想，變文是在我國民族固有的賦和詩歌駢文的基礎上演進而來的。

程毅中先生에 依하면 韓朋賦, 燕子賦 等과 같은 作品은 漢魏의 雜賦에서 淵源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믿어 의심할 바가 없으나, 舜子至孝變文에 있어서 앞에서 王重民先生의 說明을 引用한 바와 같이 唐末五代에 있어서 變文의 概念에 많은 混亂이 일어났으며, 많은 文體가 서로 混舍되는 末期現狀으로 봄이 좋지않을까 생각된다.

또 韓朋賦나 燕子賦는 비록 敦煌變文集에 收錄돼 있기는 하나, 이를 典型的인 變文으로 보기는 어렵고, 中國에 이미 存在하고 있던 固有한 文體인 賦體로, 變文과는 別個의 文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漢魏의 雜賦를 敦煌變文의 來源으로 보기는 어렵다.

鄭阿財先生은 敦煌孝道文學에서 程毅中先生의 說을 批評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觀其持以立論者，可謂證據確鑿，頗能令人信服。然若必謂此類漢魏雜賦即爲變文之來源，則實有待斟酌。蓋變文乃講唱兼施之通俗文學，其形式則韻散並行，交互運用，其中韻文與散文實具有相等之分量與地位，其體裁絕非偶引一二詩歌之雜賦所能比擬。又程氏以爲舜子至孝變文乃一以六言爲主之賦體，且其後亦附有兩首詩，則與漢代之雜賦無異，而持之以爲雜賦乃變文之祖禰。若此則秋胡變，前漢劉家太子傳，唐太宗入冥記，孔子相託相問書，韓擒虎話本，祇園圖記等有說無唱之散文體，當如何處置？豈不亦可謂散文體即變文之祖禰，而可將之溯源至先秦，不亦更能滿足民族意識乎？程氏亦深知此一抵牾難以自圓其說，因之乃將此類散文體之作品，自變文中剔除，而將之視爲小說，是以其近著古小說簡目一書，即收有此類散文體之「變文」。程氏一向強調科學研究，注重客觀事實，其知伯三六四五號卷子，首題爲「前漢劉家太子傳」，豈獨不知此卷之尾題作「劉家太子變一卷」乎？

鄭阿財先生의 이와 같은 批評은 그 長點과 短點을 同時에 가지고 있으

니, 變文은 說唱兼施하는 文體로, 韻文과 散文을 並行함에 있어, 韻文과 散文은 서로 對等한 分量과 地位를 갖추고 있어, 그 體裁面에 있어 偶然히 한 두가지 詩歌를 引用하는 雜賦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의 主張은 變文이 漢魏의 雜賦에서 淵源했다는 程毅中先生의 說의 不合理性을 잘 指適한 長點이라 하겠다.

그러나, 또 敦煌秋胡變, 劉家太子傳, 唐太宗入冥記, 孔子相託問書, 韓擒虎話本, 祇園因由記 등의 作品들을 引用하여 散文體變文이라 여겨, 이로써 程先生의 說을 反駁한 것은 異論의 餘地가 많으니, 그 短點으로 指適하지 않을 수 없다.

拙稿, 敦煌變文「太子成道經」, 「八相變」, 「破魔變」, 「降魔變」與佛經比較研究, 第一章 第三節 標題探討에서 밝힌 바와 같이 文學流變史의인 立場에서 보면 中國已有的 文體, 中國已有的 民歌流傳來的, 新出現의 「押座文」, 「講經文」, 「變文」, 晚出而爲後來話本之先驅者等 네 가지 類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事實上 韓擒虎話本, 秋胡變, 唐太宗入冥記, 驢山遠公話, 葉淨能詩 등은 私見으로는 晚出而爲後來話本之先驅者의 部類에 歸屬시키고 韓朋賦, 燕子賦, 孔子相託問書, 祇園圖記(或祇園因由記), 劉家太子傳 등은 當時中國已有的 文體類인 賦體, 記體, 書體 등에 歸屬시킴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이 程先生의 中國에 이미 存在하던 賦體로 부터 來源했다는 說이나 鄭先生의 散文體變文之說은 그 學論의 對象이 이미 典型的인 變文으로 부터 떠나있어, 淵源을 學論하는 方向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라) 中國韻文을 繼承했다는 說

王文才先生은 任二北先生著 敦煌曲初探에 序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一般所稱變文, 如就其本質和故事內容與體裁形式及固有名稱的不同來劃分, 應分別爲民間性的「變文」和宗教性的「講經文」(附「押座文」)兩種。……民間說唱的「變文」, 有三種形式, 即純唱詞的, 唱兼說白的與附歌曲的。這三種不同的形式, 正代表著不同階段的發展過程, 從這三種由簡而繁的形式, 可以看出民間說唱「變文」, 正是由低級發展到高級, 故其產生, 不能擬想爲源於講經文再由講經文形式而漸失說白, 成爲簡單形式。民間「變文」的興起, 其最初形式當來自民間, 惟與佛教經典中長篇敘事詩者應有一定的關係。但求之中國文學傳統形式, 亦非上無所承。六朝以來文士所作頌贊銘誄等類文章, 莫不

以韻文爲主，而附以散文的序。則純唱詞的民間「變文」，因其本以韻文爲主，前附說白可以自由增損，故寫卷中亦可只留唱詞而省去說白之文，元劇中尙有此例。此雖文人作品的形式，但與民間文學互有消息。講經文的興起，正採用民間形式以便說教，故應在民間歌唱變文以後。

이에 關하여, 林聰明先生은 敦煌俗文學研究에서 王文才先生的 說을 批評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王氏以爲「變文」應分民間性變文與宗教性講經文兩類，而以民間性變文的產生爲最早，乃承襲中國傳統的韻文形式，逐漸增加散文的說白，而成韻散兼施的形式。按講經文的產生，當在民間性變文以前，王氏之說，對於變文的流變情形，適爲倒因爲果的錯誤，且其所謂純唱詞的「變文」，殆指大漢三年季布罵陳詞文，蘇武李陵執別詞，下女賦詞一類作品而言……實則這類作品應是唐代的「詞文」，而不應籠統的稱爲「變文」，故王氏所謂最早變文爲純韻文形式，乃承襲中國固有韻文之說，並不正確。

林聰明先生의 批評은 매우 適切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이러한 反論의 展開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一般的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講經文이 맨처음 나왔고, 다음이 講經變文이며, 講史變文은 講經變文과 同時나 바로 直後에 나왔다는 說에 根據하고 있다.

마) 寺院變相에서 來源했다는 說

梅應運先生은 敦煌變文與佛寺壁畫之關係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實則變文源出變相，其蛻演之跡，可得而言。大抵釋門設象行道，圖繪神佛以轉變佛經故事者，是爲變相(佛寺壁畫)，而釋子唱導講經，每據變相宣講，以悅衆要施，是謂俗講。逮後變相衍爲畫卷，俗講寫成話本，此即變文之淵源，其初本圖文並行，厥後圖亡而文存。世人但見變文，忽其所起，而徒學孳孳鑽研其名義，不知其出於壁畫也。

變文과 變相은 確實히 密接한 관계에 놓여 있으니, 그 共通點은 둘다 佛經故事를 敷演했다는 點에 있으며, 相異點은 變文이 文字로써 敘述한데 반하여 變相은 圖畫로써 表現하고 있다는 點이다. 비록 서로 表現形式이 다르다고 하나, 그 表現의 目的은 같은데 있다. 굳히 그 產生의 先後를 따지자면, 王重民先生이 敦煌變文研究에서 밝혔듯이 變相의 產生이 變文

에 앞서서는 것 같다. 梅應運先生은 아마도 王先生의 이러한 說을 根據로 하여 變文이 變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같다. 現存의 敦煌寫卷伯四五二四號를 보면 全卷이 圖畫로 이루어져 있는 데, 卷子의 背面에는 唱詞가 쓰여져 있는데, 비록 佛寺의 壁面에 그려진 壁畫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本質面에서는 壁畫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伯四五二四號一卷을 놓고 얼핏 보기에는 變文은 變相을 說明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說明이 可能하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그러나, 수많은 文體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講唱體인 變文이 說明의 道具로 쓰였으며, 前에 없던 이러한 文體가 왜 갑자기 태두하였으며, 現存하는 降魔變文寫卷五卷中, 伯四五二四號를 除外한 其他 四卷은 왜 變相이 없는가 하는 點에 이르러선 그를 說明할 方法이 없다. 이로부터, 變文과 變相의 關係는 마땅히 相輔相成의 關係로 보아야 하며, 서로 內容面에 있어서 서로 가까울 뿐, 하나는 文字를 道具로 삼고 있고, 다른 하나는 圖畫로써 道具로 삼고 있으니, 비록 共히 佛經故事를 그 根據로 하고 있으나, 그 來源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 佛家唱導에서 來源했다는 說  
 邱鎮京先生은 敦煌變文述論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變文起於佛家之唱導，而唱導之流行，則由於佛經之翻譯，與佛教之傳播…遂形成散文韻語夾雜之新文體。此種新文體與當日流行之駢文，古文不同，亦與中國文學一向散韻分制之單純體裁有異。中國古代文學中，雖偶有於散文內夾雜韻文之作，然其體制則與是項新興文學迥異其趣，……皆不得謂一已具定形之特殊文體。至於佛經中，散韻夾雜並用之典籍則極多，彼等每於散文敘述之後，再以韻語重述一遍，以增進讀者之趣味。如鳩摩羅什譯大莊嚴論經卷第一(大正大藏經第四卷二五七頁)，首敘韻文一段，以爲引子，其後即……

說曰…我昔曾聞，乾陀羅國有商賈客，到摩突羅國，至彼國已，時彼國中有一佛塔，衆買客中有一優婆塞，日至彼堤恭敬禮拜，向堤中路有諸婆羅門，見優婆塞禮拜佛堤皆共嗤笑。更於餘日，天甚丞熱，此諸婆羅門等食訖，遊行而自放散，或在路中，或立門側，有洗浴者，有塔香者，或行或坐。時優婆塞禮塔廻還，諸婆羅門見已，喚言，「來，優婆塞，就此作。」語優婆塞言…「爾今云何不識諸彼摩醯首羅毘紐天等而爲致敬，乃禮佛塔，得無煩那？」時優婆塞即答之曰…「我知世尊功德少分，是故欲仰恭敬爲禮，未知汝天爲何道德，而欲令我向彼禮乎？」諸婆羅門聞是語已，瞋目呵叱…「愚癡之人，汝云何不我天所有神德，而作是言？」諸婆羅門即說偈言

阿修羅城郭 高顯周三重

懸處於虛空 男女悉充滿

我天彎弓矢 遠中彼城郭

一念盡燒滅 如火焚乾草

時優婆塞聞是偈已，大笑而言…「如是之事，吾之鄙薄所以敬尚。」以偈答言…

命如葉上露 有生會當滅

云何有智者 弓矢加殘害

時諸婆羅門等聞是偈已，咸共通聲呵優婆塞言是癡人，彼阿修羅有大勢力，好爲惡事，我天神德，力能殺害，云何乃言非有智那？時優婆塞被呵責已，喟然長歎，而說偈言…

美惡諦觀察 智者修善業

能獲大果報 後者轉受樂

云何於過惡 反生功德想

那見既增長 歎惡以爲善

以賦惡業故 後獲大惡報

諸婆羅門聞是語已，豎目舉手，慄瀉攘袂頓足戰動，而作是言…「汝甚愚癡不吉之人，此等諸天不加恭敬，而恭敬誰？」時優婆塞意志閑裕而語之，言…「吾雖單獨，貴申道理，不應以力朋黨競說。」時優婆塞復說偈言…

以下又接韻語一段，再接散文。如此參差交錯，反覆敘述，將諸婆羅門與優婆塞爭辯經過，化爲生動有趣之故事，令人讀之，幾忘其爲勸善信佛之書，因其薰染，滋生宗教信念。再如法護譯普曜經王爲太子，求妃品第九（大正大藏經，第三卷），敘白淨王欲爲太子求妃事，菩薩使上工師立妙金像以書文字，開列諸種條件，令梵志巡行訪求，文亦或散或韻，交雜使用，體裁新穎，興味盎然，與中國文籍中偶一錯用者截然不同。他如法華經，佛本行經等皆有此等類似體裁。是故，苟欲深求變文來源，實應自當日浩瀚之譯經中追尋，方免緣木求語之譏，若乃競競乎中國本土文籍之搜覽，當乏線索可獲也。

林聰先生은 敦煌俗文學研究에서 邱鎮京先生의 說을 批評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按邱氏之蓋本自周紹良敦煌變文彙錄序之說，且與鄭振鐸「源自印度佛典」的理論相近，變文固爲俗講的產物，俗講以唱導，轉讀方式爲之，由此以論變文與唱導的關係密切，自無可疑，然必如邱氏之言，變文的產生，與中國固有文學毫無關聯，則又不確。唐以前早有韻散組合以說唱故事的形式，只是未如變文的繁複多端而已。

林聰明先生の 이러한 批評은 스스로 밝혔듯이 「只是未如變文的繁複多端而已。」라는 限界性を 가지고 있으며, 反對로 邱鎮京先生の 說을 引用해서 林先生の 批評을 再批評해 보면, 그 不合理性を 곧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諸說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外來文學의 影響으로 발생했다는 說인데, 印度佛典으로 부터 來源했다는 說, 寺院變相에서 來源했다는 說, 佛家唱導에서 來源했다는 說 등이 그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指稱하고 있는 變文의 對象이 王重民先生이 내린 變文의 定義, 즉 「唐代寺院中所盛行的說唱體作品, 乃是俗講的話本. 變文云云, 只是話本的一種名稱而已.」라는 範圍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作品들이다. 다른 하나는 本土에서 產生했다는 說인데, 南朝清商舊樂에서 來源했다는 說, 中國에 이미 存在하였던 賦體로 부터 來源했다는 說, 中國韻文을 繼承했다는 說 등이 그것이며, 이를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指稱하고 있는 變文의 對象이, 王重民先生이 내린 定義, 즉 「但變文一稱, 世已習用, 所以本書仍稱之爲變文」이라는 範圍에 속하는 作品들이다.

以上을 綜合해서 말하면, 王重民先生이 敦煌變文集을 編輯할 때 使用한 定義, 즉 「但變文一稱, 世已習用, 本書仍稱之爲變文」이라는 定義는 흔히들 文學史를 이야기할 때, 唐詩, 宋詞, 元曲, 明清小說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敦煌에서 발견된 當時를 풍미했던, 한 文學의 風格을 代表할 수 있을 뿐이지, 敦煌에서 발견된 文學全體를 包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敦煌俗文學」, 또는 「敦煌文學」하는 것이 더욱 事實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變文」의 定義는 이미 누차 說明한 바 있는 「唐代寺院中所盛行的說唱體作品, 乃是俗講的話本. 變文云云, 話本的名稱而已.」가 되어야 하며, 그 起源 또한 外來의 影響에서 찾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까지의 研究는 하나의 限界性を 가지고 있는데, 이는 變文 본래의 問題이기도 하다. 그 限界性이란 곧 文獻의 亡失로 因하여, 그 研究의 範圍가 現存하는 敦煌變文寫卷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中唐以來 寺院의 俗講은 이미 盛行했다고 보여지는데, 唐憲宗元和末 이래, 往錫菩提寺의 僧侶인 文淑가 이미 俗講僧이라고 불리워진 것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文淑은 元和, 長慶, 寶歷, 開成, 會昌 등 諸朝를 두루 거치며 俗講을 행했는데 그 事蹟이 記錄에 나타난 것만도 적지 않다. 즉, 段成式의 酉陽雜俎續卷五, 唐趙璘의 因話錄卷四, 段成式의 樂府雜錄 「文淑子」條, 日僧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卷三, 資治通鑑唐紀敬宗記 「寶



經二年六月」條，太平廣記卷二百四「文宗」條，盧氏雜說 等이 바로 그것이다.<sup>14)</sup>

이 밖에도, 敦煌變文集에 收錄된 嶺山遠公話는 釋慧遠과 釋道安의 民間傳說을 記錄한 作品인데, 本文中 當時行해졌던 俗講의 實態는 敦煌變文集에 收錄된 講經文 進行順序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民間傳說 이어서 可信性의 問題에 있어선 상당히 問題가 되나, 만약 이 傳說이 事實이라면, 마땅히 現存하는 俗講記錄中 가장 빠른 것으로 보아진다. 可信性의 問題를 차지하더라도, 이 作品을 通하여, 中國엔 이미 비교적 빠른 時期에 俗講이 盛行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流行하던 地域도 比較的 廣範圍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佛經의 譯經事業으로 부터 그 起源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 王文顯先生은 佛典漢譯之研究에서 講經形式의 譯場을 아래와 같이 說明했다.<sup>15)</sup>

至於國境內的譯場，其形式之演進，大概可粗分為兩期，前期以講經形式之譯場為主，譯場同時也是弘法的講堂，往往有數千數百位信徒一起聽受，譯經大師一面宣譯佛典，一面開示所譯佛典的內容，後期則以專家爲組成的譯場爲主，講經爲副，因爲參加譯經工作的人員，都是深通佛理的義學沙門，或是具備專業知識的佛門弟子，他們領會經義的能力，遠較一般信徒強，因而可以省略許多講釋經文的程序。

또 講經形式之譯場을 아래와 같이 區分하여 說明했다.

早期來華的西方僧侶，弘法是他們的主要目的，爲了弘法，不得不翻譯佛典因爲佛典是他們弘法的依據，基於此項原因，譯經和弘法就結爲一體。一般而言，他們都採取「譯講同施」的方式，弘法大師一面傳譯經典，一面宣譯所譯經典的內容，藉以開示在座聽講的信徒，從以下三種早期的譯場現象，我們可以了解當時譯講同施的情形。

其一，一位名聞遐爾的大師譯經師，在其譯場中協助譯經和聽受宣法的徒衆

14) 向達先生의 唐代俗講考中 二, 唐代寺院中之俗講은 이를 說明하고 있는 데, 筆者는 이를 根據로 要約한 것임. 筆者가 참고한 것은 潘重規署, 敦煌變文集에 收錄된 것임.

15) 王文顯先生의 博士論文 佛典漢譯之研究는 됐으나 아직 印刷가 완료되지 않아 正確한 페이지 수는 밝힐 수 없음.

多者數千人，少者數百人。例如姚秦時代鳩摩羅什在長安所主持的譯場即是如此出三藏記集卷八僧叡法師小品經序云…

以弘始五年，歲在癸卯四月二十三日，於京城之北逍遙園中出此經……與諸宿舊義業沙門釋慧恭，僧翹，僧遷，寶度，慧精，法欽，道流，僧叡，道恢，道標，道恒，道宗等五百餘人，詳其義旨，審其文中，然後書之。（中略）

其二，譯場之中時常有論辯的現象，譯經大師把經典譯成漢文之後，同時宣釋經典的內容，在座聽受的信徒如果覺得譯經大師所譯的內容不清楚，或是義理不妥，能夠當面提出質詢，要求譯經大師回答問題，例如前文所引羅師語通津要，佛陀耶舍「共相徵決」，都是討論譯文妥當與否的例子，兩曇無讖與「道俗數百人疑難縱橫，讖臨機釋滯，未常疑礙」則近於激烈的論辯。

論辯的行為是佛教講經的傳統規矩之一，出三藏記集卷六僧會法師安般守意經序云

世尊初欲說…斯經時，大千震動，人天易色，三日安般，無能質者，於是世尊化為兩身，一曰何等，一尊主演，子斯義出矣，大土上人六雙十二輩，靡不執行。湯用彤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第五章解釋云

世尊所化之一身，就安般事數分條問曰何等，另一尊身答之，而敷演其義，前者當中國佛家講經之都講，後者乃所謂法師。按佛教傳說，結集三藏時，本系一人發問，一人唱演佛語，如此往復，以至終了，集為一經，故佛經文體，亦多取斯式。

後來沙門講經時，因上座法師沒有世尊的廣大神通，不能化為二身一問一答，所以就設有一都講，專司發問，例如大明度無極經（支謙譯）第一品云…「善業為法都講」。通常的講經，都講只要照本宣科發問，上座法師也只須照本回答，不會發生尖銳的論辯，但有時為了提高聽眾的興趣，不妨事先擬好一些針鋒相對的問答，借以製造講堂上的緊張氣氛……。

都講是上座法師的指定發問人，上座法師當然有能力回答其問題，但是在場的聽眾如果臨時提出問題，上座法師就不一定能順利的回答，因此一位優秀的上座法師不但要善講，而且要善辯，僧傳義解篇之中就載有許多善辯的法師…

其三，在譯場中聽受譯經大師宣法譯經的佛門弟子，除了記錄佛典譯文外，同時也將譯經大師闡釋經文的內容一并記錄下來，所以譯成一部經典的同時，這部經典的義疏也一道完成。例如出三藏記集卷八僧肇法師維摩詰經序云……

余以閑短，時豫聽次，雖思乏參玄，然庶得文意，輒順所聞，而為注解，略記成言，述而無作，庶將來君子，異世同聞焉。（下略 引文）

앞에서 인용한王先生이 말한 서로 다른 성격의 3가지 講經形式의 譯場으로 부터, 서로 다른 성격의 두가지 法會를 推測해 볼 수 있겠다. 그

가 分類한 첫번째의 講經形式의 譯場은, 주로 阿舍部類(주로 釋迦牟尼의 一生故事 및 佛教故事를 주로 담고 있음)의 經典을 講經한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阿舍部類의 經典은 그 內容이 平易하여 注疏의 必要性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또 論難의 餘地도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講經法會는 都講의 必要性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그 講經의 方法도 곧이 經典의 句絶에 얽매어 弘法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 세번째部類의 講經形式의 譯場은 주로 敎理와 有關한 佛經(涅槃經, 般若, 華嚴, 法華部 等 經典을 주로 담고 있음)을 講經한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敎理와 有關한 經典은 그 內容이 아주 어려워, 자연 注疏의 必要性이 높으며, 論難의 餘地도 많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性格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法會와 「講經文」 및 「變文」이 모종의 影響授受關係에 놓여 있지않나 하는 推測도 可能해지는 것이다.

現存의 講經文을 宣演한 俗講과 講經形式의 譯場과의 關係에 이르러선 現存의 講經文에서 어렵지 않게 注疏의 傾向을 發見해 낼 수 있으니, 王先生이 分類한 第二類의 論辯式의 講經形式의 譯場과 大同小異하며, 단지 專門的으로 質詢을 提起하는 都講의 역할이 專門的으로 經文을 唱하는 都講의 역할로 代體되어 있는 것이 곧 差異點이라 할 수 있겠다. 또 變文을 宣演한 俗講과 講經形式의 譯場과의 關係에 있어선, 譯場에서 譯經法師가 說法한 佛祖(釋迦牟尼) 및 佛教故事가 오늘날 佛經의 內容임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內容이 때로는 너무 長況하여 重言復言한데가 많고 또 때로는 中國人의 習俗에 適合하지 않은 데서 오는 陌生感을 解消하기 위하여 後來의 俗講僧들이 때로는 縮小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의 改變을 가하기도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이름하여 「變」이라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拙稿 敦煌變文 「太子成道經」, 「八相變」, 「破魔變」, 「降魔變」 與佛經 比較研究에서, 佛經과 變文과의 關係를 일일이 對照標를 만들어 그 關係를 따져 보았다. 그 結果, 講經變文의 內容은 完全히 佛經의 佛祖, 佛教故事에 그 根據를 두고 있으며, 故事의 進行順序나, 人物, 背景 等 모두가 佛經과 一致하고 있으며, 조금의 不一致를 보이는 곳은, 當時의 社會的 背景이나, 中印兩國의 顯著한 文化的 差異에서 오는 摩擦을 解消하기 爲한 意圖的 改變이 아닌가 하는 結論을 내려보았다. 文體面에 있어서는, 多數의 佛經들이 韻・散文을 混用하는 說唱體의 形態를 띠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散文으로 敘述한 後에 다시 이를 韻文으로 重述하는 形態를 取하고 있는 데, 變文에서는 韻文과 散文을 兼用하는 說唱體의 原形을

維持하면서, 時代思潮의 變化에 따라, 때로는 駢偶의 傾向을 띄기도 하고 또 四六文의 文體의 傾向을 띄기도 하여, 韻文과 散文은 當時文體의 流行에 따라 變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以上の 論述을 綜合해서 말하면, 變文의 起源을 中國本土에서 產生했다는 說은 向達·程毅中·王文才先生 등이 說明한 바와 같이, 中國本土에서 產生된 文學가운데서도 가끔 韻散並行的 文體를 찾아 볼 수는 있으나, 이들은 本質面에서 新興文體인 變文과는 그 性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外來文學의 影響으로 產生했다는 說은, 鄭振鐸, 邱鎮京等先生 등이 說明한 바와 같이, 그 文體나 性格面에서, 佛經과 상당한 一起點을 보이고 있으나, 이 說明들 만으로는 具體的 對比가 어려워 이들 主張들의 信憑性이 反感하였다. 私見으로는, 佛經의 譯經過程에서 보여진, 講經形式의 譯場에서 一般庶民을 상대로 한 譯經大師의 說法은 이미 俗講의 形式과 別로 다른 바가 없으며, 講經文과 變文의 差異는 教理性을 띤 經典과, 故事性을 띤 經典, 즉 서로 性格이 다른 두 種類의 經典을 講經한데서 오는 方法上의 差異에서 온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講經文과 變文은 性質이 서로 다른 두 種類의 俗講이며 이들의 起源은 마땅히 講經形式의 譯場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IV. 結 論

以上, 敦煌變文의 定義와 起源을 中心으로 한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반드시 그 限界性을 우선 밝혀두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도 잠시 學論한 바와 같이 俗講의 盛行은 地域的으로는 敦煌뿐만이 아닌 좀더 廣範圍한 地域에서 이루어졌으며, 時期的으로도 年代가 밝혀진 現存하는 作品들 보다는 좀더 廣範圍한 時期에 걸쳐서 行해졌음이 거의 確實하다. 이러한 時間的, 空間的 空白을 어떻게 메워 주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研究의 文獻의 亡失으로 부터 오는 限界性이었다.

지금까지의 學者들의 研究는 敦煌에서 發掘된 文獻을 中心으로 한 考證學的 方法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새로운 試圖으로써 典型的인 變文의 典型을 設定하고 이에 依據하여 變文의 起源을 追跡해 보았다.

文學流變史의 觀點에서 보면, 하나의 새로운 文體의 出現은 반드시 이미 存在하고 있던 文體의 影響을 받아 演變하여 하나의 새로운 風格을 形

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새로운 文體의 출현은, 바로 一代前的 文體의 影響을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몇代前的 文體의 影響을 받기도 한다. 또 本國에 이미 存在하던 傳統文體의 影響을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其他 各種의 外來文體의 影響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變文의 定義를 앞에서 내린 바와 같이 變字의 名義는 「某某故事」에서 改變하여 「某某變文」으로 된 것으로 定하고, 體裁面에서 散文과 韻文을 並用한 說唱體인 즉 講唱體의 定形을 具備한 特殊文體로 定한다면 變字의 名義는 漢名中 이미 存在하던 固有한 名稱이라는 說이 信憑性이 있으며, 講唱體인 新興文體의 起源은 印度文學(佛經의 韻散並用體)의 影響으로 봄이 妥當할 것 같다. 단, 變文에 使用된 韻文과 散文을 빼어놓고 文體를 論하면, 이들 韻文과 散文들은, 모든 翻譯文學들이 그러한 것처럼 當時의 中國의 韻文이요, 散文인 것이다. 또 이러한 韻文과 散文들은 中國文學思潮의 變化에 敏感하게 反應하여, 그 變化를 좇아 流變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典型的인 變文과, 變文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作品들은 嚴格히 區分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作品들은 이미 存在하고 있던 다른 장르의 文學들과 變文의 影響授受關係라는 測面에서 研究가 繼續되어질 때 變文의 文學史的 地位는 定立되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參考文獻

- 敦煌變文集, 王重民等 編, 世界書局影印本.  
敦煌講經變文研究, 羅宗濤 著, 文史哲出版社.  
敦煌變文, 羅宗濤 著, 時報出版公司.  
敦煌變文述論, 邱鎮京 著, 商務印書館.  
敦煌遺書總目索引, 王重民 著, 源流出版社.  
敦煌學概要, 蘇蜚輝 著, 臺灣學生書局.  
敦煌變文字義解釋, 蔣禮鴻 著, 中華書局.  
中國文學發達史, 臺灣中書書局.  
中國俗文學史, 鄭振鐸 著, 明倫出版社.  
唐代小說研究, 劉開榮 著, 上海商務印書館.  
敦煌俗文學研究, 林聰明撰, 東吳大學博士論文.  
佛典漢譯之研究, 王文顯撰, 政治大學博士論文.  
敦煌孝道文學研究, 鄭阿財撰, 文化大學博士論文.  
敦煌石室講經文研究, 邵紅撰, 臺灣大學碩士論文.

〈期刊類〉

變歌·變相與變文，羅宗濤撰，中華學苑七期。

敦煌講經變文的變—講經變文運用佛經的方法，羅宗濤 著，幼獅月刊第十卷四期

敦煌變文論輯中 收錄之 諸論文，潘重規 署，石門出版社。

唐代俗講考，向達

唐代俗講軌範與其本之體裁，孫楷第。

讀變文，孫楷第。

說話考，孫楷第。

詞話考，孫楷第。

關於變文的幾點探索 程毅中。

敦煌變文彙錄序，周紹良。

敦煌變文新論，潘重規。

敦煌變文研究，王重民。

# 現代漢語의 介詞에 關於 研究

李 根 孝\*

## 目 次

- |                |                 |
|----------------|-----------------|
| I. 序 言         | 2. 介詞의 用法       |
| II. 介詞의 意義     | 1) 一般的인 文法上의 作用 |
| III. 介詞의 種類    | 2) 常用되는 介詞의 用法  |
| IV. 介詞의 特徵과 用法 | V. 結 語          |
| 1. 介詞의 特徵      |                 |

## I. 序 言

現代漢語에서 介詞는 名詞 代名詞 앞에 位置하여 時間 地位 方法 原因 動作 對象 可能的 關係를 表示하는 것으로 一名 前置詞(preposition)라 한다.

「介」라는 것은 「紹介한다」<sup>1)</sup>의 뜻으로 本來는 動詞로부터 轉用된 것이 많고, 動詞와 똑같이 뒤에 名詞 및 代名詞를 取하고 介詞構造를 만든다. 이러한 介詞構造는 그 다음에 놓여지는 動詞 및 形容詞를 修飾하는 것이 一般的인 例라 할 수 있다.

你從哪兒來了?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這間屋子朝北很冷(이 방은 북향이므로 대단히 춥다.)

介詞의 뒤에 오는 名詞 代名詞 以外에 連語도 使用되어서 「擴大된 介詞連語」가 構成된다.

在良好的情況下……(좋은 상황 하에서……)

介詞 「在」가 「修飾連語」인 「良好的情況下」와 어울려 「擴大된 介詞連語」

\*釜山産業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江天 著, 《現代漢語語法通解》, 遼寧人民出版社, 一九八〇年, p. 90.

「介詞是起介紹作用的詞, ……………」

를 만들고 있다.

對於學生和工人……(학생과 노동자에 대하여……)

介詞「對於」가 「並列連語」인 「學生和工人」과 어울려 「擴大된 介詞連語」를 構成하고 있다.

爲了建設民主主義……(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介詞「爲了」가 「動賓連語」인 「建設民主主義」와 어울려 「擴大된 介詞連語」를 構成하고 있다.

介詞의 分類를 大略 아래의 四種으로 列擧할 수 있다. 時間 空間의 關係를 表示하는 時地介詞에는 「在」「當」「于」「從」「自」「向」「往」「到」 등이 있다.

我在去年到韓國來了。(나는 작년에 한국에 왔다.)

「在」「到」는 「去年」「韓國」의 위에 와서 「來」의 時地의 關係를 表示한다.

事實 行爲의 目的, 原因의 關係를 表示하는 原因介詞에는 「因(爲)」「爲了」「由于」「替」「給」「被」「叫」 등이 있다.

你爲什麼要回去?(당신은 왜 돌아갈려고 하는가?)

事物 動作의 方式 狀態 對象 關連 比較 排除 등을 表示하는 方法介詞에는 「照」「以」「對於」「比」「用」「拿」 등이 있다.

老師用毛筆在白紙上寫字。(선생님은 붓으로서 백지에다 글을 쓴다.)

「用」은 「毛筆」의 위에 와서 「寫」의 一種 方法을 表示한다.

所有的 關係를 表示하는 領攝介詞에는 「的」「底」 등이 있다.

這個人的人情味濃厚。(이 사람의 인간미는 두텁다.)

以上에서 時地介詞 原因介詞 및 方法介詞를 前置介詞라 하고 領攝介詞



를 後置介詞라 한다.

古代 漢語에서의 介詞는 一般的으로 「於」「以」「爲」「由」 등이 있다.<sup>2)</sup>

介詞 中에는 文語에서 現代語로 流入하여 온 것이 있고, 이것은 現代 漢語에서는 介詞로서만 使用되고 動詞로 利用되는 일은 없다. 狀態 方法 手段 等を 나타내는 「以」는 그 하나이다.

本稿는 介詞의 種類를 把握하고 特性 및 用法의 考究에 重點을 두었으며, 더욱 用法이 多樣한 介詞를 어떻게 理解해야 될 것인지를 分析 檢討하고자 한다.

## II. 介詞의 意義

名詞 代名詞 數量詞 等の 앞에 使用되어 이들의 말과 다른 말(動詞, 形容詞)의 關係를 다룬다. 또한 「介詞連語」를 만들어 動作 行爲의 場所 方向 時間 原因 方式 目的 對象 關連 比較 排除 等を 나타내는 것을 「介詞」라 한다.<sup>3)</sup>

介詞에 의한 構造에 「不」와 「沒」 뒤의 事項이 否定된다. 介詞의 構成은 大端히 不規則하다. 「從」「把」「被」 등의 虛詞가 純粹介詞인 「到」「在」「給」와 같이 動詞에서 借用하는 것도 있다. 介詞는 大部分이 動詞에서 變해 온 것이나 어떤 것은 變하여 介詞로 쓰이고 動詞로 쓰이지 않는다. 例示하면, 「于」「對於」「關於」「被」 등이다. 어떤 것은 變化過程에서 介詞와 動詞를 兼한 特徵이 있다.

① 他在學校念書. (그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② 他在學校. (그는 학교에 있다.)<sup>4)</sup>

2) 「三代之得天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離婁》

3) 介詞是什麼：

① 黃潔如 編, 《文法與作文》, 臺灣開明書店發行, 民國七十一年七月台五版發行, p. 70.

「實體詞做附加語, 常藉一種詞的介詞: 這種詞便是介詞.」

② 董長志 著, 《實用國語文法》, 學生出版社印行, 民國六十一年四月再版, p. 40.

「一種詞是用來介紹實體詞到副位上去, 以表示述語的時間, 地位, 方法, 原因等關係的; 或介紹實體詞到領位上去, 以作某種事物的領有者統攝者種種關係的, 都叫作“介詞”.」

③ 江天 著, 《現代漢語語法通解》, 遼寧人民出版社, 一九八〇年, p. 90.

「介詞是起介紹作用的詞, 它帶上詞, 或詞組共同表示行動, 性狀的時間, 處所, 對象, 方式等意義.」

4) ①의 「在」는 介詞이며, ②의 「在」는 動詞이다.

介詞結構는 恒常 句의 狀語 補語 定語로 充當한다.

- ① 這本小說在一九八四年出版。(이 소설은 1984년에 출판되었다.)
- ② 他哥哥生于一九三九年。(그의 형님은 1939년에 출생했다.)
- ③ 這是對咱們學生的一點心意啊!(이것은 우리 학생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다.)<sup>5)</sup>

### Ⅲ. 介詞의 種類

#### (1) 時間을 나타내는 介詞

時間<sup>6)</sup>; 「在」「當」「于」<sup>7)</sup> 「從」「自從」<sup>8)</sup> 「到」  
起點; 「從」「自從」「起」「距」「到」  
終點; 「到」

#### (2) 場所 方向을 나타내는 介詞

場所; 「在」「當」「于」  
起點(距離): 「從」「打」「由」「離」「自」  
方向; 「向」「往」「望」<sup>9)</sup> 「到」「朝」<sup>10)</sup> 「衝」「奔」「上」「下」

#### (3) 目的을 나타내는 介詞

「爲」「爲了」「給」「替」「爲着」

- 5) ①의 介詞結構는 狀語가 되며, ②는 補語가 되고, ③은 定語가 된다. 定語가 될 때는 뒤에 助詞「的」를 添加한다.
- 6) 同一한 하나의 介詞는 몇 개의 意義를 表示할 수 있다. 몇 가지 例를 보면, 「自」「從」「在」「于」「到」는 時間을 表示할 수 있고, 또한 處所를 表示할 수 있다.
  - ① 在漢城出生.(서울에서 출생했다.)
  - ② 在韓末出生.(한말에 출생했다.)①의 「在」는 處所를 表示하고 ②의 「在」는 時間을 表示한다.
- 7) 現在 廣州話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方言에서 「于」「於」의 두 글자를 같이 읽고 있다. 이 두 글자의 音義가 分別되지 않기 때문에 近來에 와서 筆劃이 簡單한 「于(yu)」字를 使用한다. 「于」는 現在도 역시 文言에서 普通的 介詞로서 「在」와 비슷하게 使用된다.
- 8) 「自從他走了以後, 我一直老不放心.(그가 떠난 이후부터 나는 언제나 안심하지 못한다.)」
- 9) 「望前頭看.(앞을 본다.) 北平話의 用法에서 舌尖音 捲舌音 또는 舌面音의 聲母 앞에서는 「望」을 「wan」으로 읽고, 「wang」으로 읽지 않는다. 「望」은 動詞로도 使用되기도 한다. 「你幹麻老望着月亮?(너는 왜 계속 달을 보고 있는가?)」
- 10) 方向을 가르킨다. 「~을 향해서」「這間屋子朝南很暖和.(이 방은 남향이므로 대단히 따뜻하다.)」

- (4) 原因을 나타내는 介詞  
「由于」「因爲」「因」
- (5) 對象 關連을 나타내는 介詞  
對象; 「對」「對于」「連」「把」  
關連; 「關於」「至于」<sup>11)</sup> 「和」<sup>12)</sup> 「同」<sup>13)</sup> 「跟」
- (6) 手段 方式을 나타내는 介詞  
手段; 「把」「將」「拿」「用」「以」  
方式; 「依」「靠」<sup>14)</sup> 「依靠」「憑」「仗」「照」<sup>15)</sup> 「照着」「按」「按着」「按  
照」「趁」<sup>16)</sup> 「據」<sup>17)</sup>
- (7) 共同을 나타내는 介詞  
「和」「同」「與」「跟」
- (8) 比較를 나타내는 介詞  
優劣; 「比」  
類似; 「和」「同」「與」「跟」「像」<sup>18)</sup> 「如同」
- (9) 排除를 나타내는 介詞

- 11) 「至于課外的活動, 他們就不管了。(과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계하지 않는다.)」
- 12) 「和」는 「跟」과 通用되나 機會는 많지 않다. 白話文에서는 「和」字의 筆劃이 「跟」字 보다 적어 많이 使用된다. 通常 「he」로 읽고, 連詞로도 使用된다. 「就是你和我倆人在這兒。(바로 너와 나 두 사람이 여기에 있다.)」 1950年代의 臺灣에서 小學生의 冊에서는 介詞와 連詞로 읽을 때에 「han」으로 읽은 적이 있으나 다시 「he」로 읽게 되었다.
- 13) 連詞로도 使用되며 元來는 華中方言과 廣州話로서 國語의 「跟」과 같다. 北方人들은 現在에도 恒常 使用하기 때문에 白話文에서 볼 수 있다.
- 14) 「~에 의해서」「他的家<sub>他</sub>靠<sub>他</sub>一個人吃飯。(그의 가족은 그 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밥을 먹는다.)」「~의 쪽에 치우쳐서」라 할 때에는 「靠右邊兒走。(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다.)」
- 15) 「~대로」「~과 대조하여 보니」「~의 하면」「照本兒賣給您。(원가대로 당신에게 판다.)」「照規定辦。(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16) 「~에 틀을 타서」介詞로서 「趁早預備。(서둘러서 준비하다.)」 또한 動詞인 「~틀타서 뒤쫓다」로서 「你趁哪班飛機? (당신은 어느 비행기를 타니까?)」
- 17) 「~에 의해서」「據我想還是那麼辦好。(나의 생각에는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 18) 「~처럼」「像他那麼高(그이처럼 그렇게 키가 크다.)」「像我這麼做。(나처럼 이렇게 한다.)」 또한 性質動詞로 使用된다. 「像他父親。(그의 부친을 닮았다.)」

- 「除」「除了」「除非」「除(了)~外, (以外, 之外)」<sup>19)</sup>
- (10) 受動을 나타내는 介詞  
「被」「讓」「叫」「教」「給」
- (11) 方式 狀態를 表示하는 介詞  
「以」「按照」「根據」「就」「通過」「遵照」「沿着」「隨着」「本着」
- (12) 處置를 表示하는 介詞  
「把」「將」<sup>20)</sup>
- (13) 工具를 나타내는 介詞  
「用」「拿」

#### IV. 介詞의 特徵과 用法

##### 1. 介詞의 特徵

介詞는 虛詞이며 單獨으로 使用하지 않고, 介詞構造(介詞+詞 혹은 詞組)를 만들지 않으면 文의 要素로 될 수 없다. 一般的으로 動詞 또는 形容詞의 修飾語로 된다.

- 從漢城來。(서울에서 온다.)  
往村裏進去。(촌으로 들어간다.)  
比昨天冷。(어제보다 춥다.)

介詞는 重疊해서 「同同」「從從」「向向」처럼 使用할 수 없고, 時態助詞 「着」「了」「過」나 方向動詞의 「來」「去」「上來」「下來」 등을 添加할 수 없다. 아울러 表示詞尾 「起來」도 使用하지 않는다. 「爲了」「爲着」「沿着」「順着」「除了」경우의 「了」「着」는 어떤 意義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詞構成의 要素에 屬한다.

動詞중에 「到」「在」「給」「叫」「讓」「比」「跟」「用」「經過」 등은 動詞로서 一般的 特徵과 介詞로서 一般的 特徵을 兼해 갖추고 있다. 即 이들이 單獨으로 使用될 때는 動詞에 屬하고, 名詞 代詞 等の 앞에 使用되어 이들과 아울러 動詞 또는 形容詞의 修飾語로 될 때는 介詞에 屬한다.

19) 介詞로서 「除了你以外沒人會。(당신 이외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또한 連詞로 使用된다.

20) 賓語를 他動詞에 先行시키는 경우에 使用한다. 「他將合同作廢。(그는 契約를 어긴다.)」

- ① 年底到, 英淑也就到了。(연말이 되면 영숙이도 곧 온다.)  
 ② 他在哪兒呢?(그는 어디에 있는가?)  
 ③ 我給你這本書。(내가 당신에게 이 책을 준다.)  
 ④ 我到車站送妹妹去。(저는 역에 여동생을 전송하러 간다.)  
 ⑤ 他在戲院裏看電影。(저 사람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⑥ 你給他幫忙吧。(당신은 그에게 도와 주시지요.)<sup>21)</sup>

大多數의 介詞는 動詞에서 轉用되기 때문에 介詞의 特徵을 알려면 動詞와 한번 比較해야 한다. 介詞는 介詞結構을 만들어 句의 成分을 만든다.

我從學校來。(나는 학교에서 온다.)  
 你往哪兒去?(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이 두 例示에서 「從」「往」類의 詞 뒤에는 名詞 代詞를 갖지 않고는 될 수 없다. 例示하면, 「我從來」「你往去」는 모두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被」는 例外다. 마치 「書被他拿走了」를 「書被拿走了」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의 「被」는 紹介하여 使用할 수 없어 介詞가 되지 않는다. 特殊한 助詞를 만들어 뒤에 오는 動詞의 被動性을 表示한다.

動詞는 單獨으로 問題를 回答할 수 있다. 「他走了嗎?」를 「走了」라 回答할 수 있다. 그러나 介詞는 오히려 單獨으로 問題를 回答할 수 없다. 「這座房子朝東嗎?(이 집은 동쪽으로 향하니까?)」에서 곧 「朝」로 回答할 수 없고 「朝東」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介詞와 動詞는 同一하지 않다.

一般動詞는 重疊할 수 있고 重疊後에 반드시 附加意義가 있다. 「比」에서 보면 介詞語法의 特徵과 動詞語法의 特徵을 具備하고 있다. 「比」는 重疊하여 「咱們比比」라 하고, 時態助詞를 携帶할 수 있다. 「我們比過了」라 한다.<sup>22)</sup>

介詞 中에는 助詞 「着」와 結合하여 되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動詞와 境界線에 있는 介詞는 「~着」의 形態를 取하고, 다음에 있는 主要한 動詞의 方法 手段 등을 나타낼 수 있다.

他父親主張一切照着老習慣辦喜事的好。(그의 부친은 일절 관습대로 결혼식을 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한다.)

21) ①②③은 어느 것이나 動詞에 屬하고, ④⑤⑥은 介詞에 속한다.

22) 江天 著, 《現代漢語語法通解》, 人民出版社, 一九八〇年, pp. 91~93.

## 2. 介詞의 用法

### 1) 一般的인 文法上의 作用

介詞는 「介詞連語」를 構成해서 비로소 文의 成分이 될 수 있다. 文法上의 作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介詞結構의 基本功能은 狀語가 된다.

「你上哪兒去?」의 「上哪兒」는 介詞構造를 만들고 있으나, 「去」에 대해서 狀語의 役割을 다하고 있다. 介詞構造의 狀語는 一般的으로 主語와 動詞의 사이에 位置한다. 介詞構造의 基本的인 役割은 狀語로써 動詞나 形容詞를 修飾하는 作用을 갖고 動詞의 앞에 온다.

- ① 他從教室裏走出來。(그는 교실에서 걸어서 나온다.)
- ② 他天天在那個門前走。(그는 매일 저 문 앞을 지나고 있다.)
- ③ 這本書在一九八二年出版的。(이 책은 1982년에 출판된 것이다.)
- ④ 我不跟他說話。(나는 그와 말을 하지 않는다.)
- ⑤ 今天比昨天涼快。(오늘은 어제보다 서늘하다.)
- ⑥ 那裏的氣候跟此地一樣。(저쪽의 기후는 여기와 같다.)<sup>23)</sup>

「介詞連語」가 狀語로 되는 것에는 主語의 앞에 두어지는 것도 있다. 「從」「對」「在」「當」「對於」「由于」「除了」「爲了」 등의 介詞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는 흔히 主語의 앞에 位置한다. 특히 「關於」「至于」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는 반드시 主語의 앞에 位置한다. 主語의 앞에 두어지는 「介詞連語」는 一般的으로 語音의 段落이 있고 그 뒤에는 逗號(,)를 使用한다.

- ① 從這封信上, 我們可以看到他們快到釜山來。(이 편지에서 우리들은 그들이 빨리 부산에 오는 것을 알았다.)
- ② 當我們去的時候兒, 他們熱烈歡迎。(우리들이 갔을 때는 그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 ③ 關於財政問題, 我們還沒得到結論。(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아

23) ①에서 ④까지는 ··表示의 「介詞連語」가 狀語로써 動詞를 修飾하고, ⑤⑥은 形容詞를 修飾하고 있다.

적 결론을 얻지 못했다.)

- ④ 由于不斷的努力，他終於成功了。(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그는 드디어 성공했다.)<sup>24)</sup>

둘째, 定語가 된다.

「對」「對於」「關於」等を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도 定語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介詞連語」의 뒤에 助詞「的」을 添加해야 한다.

我不了解他對這個問題的看法。(나는 그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이해 못한다.)

中國有很多關於神話，寓言的小說。(중국에는 신화 우화에 관한 소설이 많이 있다.)

셋째, 補語가 된다.

모든 「介詞連語」가 補語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到」「在」「自」「往」「向」「于」等の 介詞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動作의 時間 場所를 나타내는 「介詞連語」가 흔히 補語에도 使用된다.

太陽射到房子裏，很暖和。(햇빛이 집안까지 비쳐서 매우 따뜻하다.)

他躺在床上，看書哪。(그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다.)

魯迅最初學醫，是出自一種愛國的熱情。(노신이 최초로 의학을 배운 것은 일종의 애국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다.)

他坐上飛機，飛向藍藍的天空。(그는 비행기를 타고 푸르고 푸른 하늘로 날랐다.)

## 2) 常用되는 介詞의 用法

一般的으로 廣範圍하게 常用되는 介詞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分類하여 그 用法을 比較 分析하여 본다.

### (1) 在

어떤 場所를 알고 있고 그 場所에서 「~한다고」 할 때에 利用된다.

24) 冒頭의 介詞構造의 狀語와 主語의 사이에는 停頓을 두는 것이 普通이다. 이와같은 介詞構造를 冒頭에 두는 것은 英語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在家吃飯。(집에서 밥을 먹는다.)

在外邊看書。(밖에서 책을 본다.)

「我不在家裏吃。」에서 「不」에 의해 「在家裏吃」가 否定되지만, 萬若 「你在家裏吃飯嗎？」라고 質問 받았을 때에는 「我在家裏不吃飯」이라 對答하는 것이 自然스럽다.

「在」는 動詞와 介詞의 特徵을 兼하고 있고, 名詞 代名詞의 앞에 있어서 動詞 形容詞의 連帶成分이 될 때만 介詞로서 作用한다.

弟弟在公司工作。(동생은 회사에서 일한다.)

介詞 「在」는 時間과 處所를 表示하지만 다음에서 處所를 表示한다.

坐在椅子上。(의자에 앉다.)

너 方位詞와 結合하여 使用된다. 例示하면, 「在…中」「在…上」「在…裏」「在…以前」「于…之後」等이다. 「上」「裏」「中」은 各各 物건의 位置와 모양을 가리킨다. 「在…上」은 어떤 때는 「在…方面」과 같으며 具體的인 方位를 가리키지 않는다. 例示하면, 「在政治上」「在思想上」「在發展生產上」等이다. <sup>25)</sup>

## (2) 從

介詞結構를 만들어 處所를 表示한다.

火紅的太陽從東方升起。(붉은 태양이 동방에서 오른다.)

時間의 起點을 表示한다.

他們從天明一直工作到夜晚。(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한다.)

以上에서 「從」과 「到」는 相應하여 서로 關連된 介詞結構를 만들어 時間과 事物의 始作과 마침을 表示한다.

老李從早到晚不困着。(이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곤란하지 않는다.)

25) 湖南師範學院中文系漢語教研室編, 《現代漢語語法基礎知識》, 湖南人民出版社, pp. 34~35.



「～부터～까지」이라 할 때는 「從～到」라 하고, 때로는 「從」을省略할 수 있다.

從早起<sub>ㄉ</sub>到晚上<sub>ㄉ</sub>. (아침부터 저녁까지.) 十點<sub>ㄉ</sub>到十二點<sub>ㄉ</sub>(10시에서 12시까지)  
從漢城<sub>ㄉ</sub>到東京<sub>ㄉ</sub>. (서울에서 동경까지.)  
韓國<sub>ㄉ</sub>到中國<sub>ㄉ</sub>. (한국에서 중국까지.)

介詞「從」이 起點을 나타낼 뿐 아니라 經由하는 場所를 말 할 때에도 利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他從那兒走過來了。(그는 거기에서 건너왔다.)

### (3) 到

介詞「到」는 動作 行爲의 終點(時間, 場所)를 가리킨다.

他到大禮堂去。(그는 강당에 간다.)  
你到什麼地方去了? (너는 어느 곳에 가느냐?)

더욱 動詞와 介詞와의 性質을 兼하고, 名詞 代名詞의 앞에 있어서 動詞 形容詞의 連帶成分이 될 때만 介詞로써 作用한다.

到圖書館去看書。(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간다.)

더욱 介詞結構을 만들어 時間과 處所를 表示한다. 要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到達의 時間을 表示한다.

大家一直工作到夜裏十點。(모두들 저녁 10시까지 계속 일한다.)

둘째, 到達의 處所를 表示한다.

我到工廠走了一趟。(나는 공장에 한 번 갔다.)

이 외에 「到」는 動詞가 될 수 있고, 單獨으로 謂語가 된다.

① 貴賓們到了漢城。(귀賓들이 서울에 도착했다.)

② 昨天代表團從釜山到了大田。(어제 대표단이 부산에서 대전에 도착했다.<sup>26)</sup>

#### (4) 把

特殊한 介詞로서 文에서는 一般的으로 動詞의 뒤에 位置하는 賓語를 「把」의 도움을 받아 動詞의 앞에 둘 수 있다. 이것을 「前置賓語」라 한다.

請你把衣裳穿上。(청킨대 옷을 입으세요.)

「把」는 賓語를 動詞에 先行시키는 作用을 할 뿐만 아니라 이 前置賓語와 어울려 「介詞連語」를 構成해서 動詞에 대해 修飾語의 作用을 하는 것이다. 介詞 「把」를 使用하려면 많은 條件을 必要로 한다.

첫째, 「把」로 構成되는 「介詞連語」의 修飾을 받는 動詞가 나타내는 行動은 一般的으로 事物을 對象으로 하고, 「把」를 使用해서 恒常 賓語가 나타내는 사람 또는 事物에 對해서 一種의 處置를 加하는 意味를 갖는 것이 된다.

둘째, 이 種類의 動詞는 다음 數種의 條件 中的 하나를 具備해야 한다.

가) 動詞 自體가 「動補式」인 動詞의 뒤에 補充의 意味를 密着하고 複合語를 構成한다.

我們把他說服了。(우리들은 그를 설득했다.)

나) 動詞의 뒤에 補語 또는 補助의 要素를 隨伴한다.

他把那個自來水筆, 擱在桌子上。(그는 저 만년필을 책상 위에 두었다.)

他把事情描寫得這樣好。(그는 사정을 잘 묘사했다.)

我把那件事忘了。(나는 그 일을 잊어 버렸다.)

다) 動詞가 重疊된다.

你把門開開。(당신은 문을 열어라.)

26) 「到」가 ①②에서는 動詞로써 使用된다. 두 文章에서 다른 動詞가 謂語가 되는 것이 없고, 아울러 「到」는 動詞 特徵을 具備하였다. 卽 「了」를 添加하여 單獨으로 問題를 答할 수 있다. 이 外에 「到」는 構詞成分과 다른 詞組를 이루는 「感到」「聽到」「看到」「想到」「遇到」等이다.

라) 動詞의 앞에 어떤 種類의 修飾語가 붙는다.

你得把這個回信趕緊地寫。(당신은 이 회신을 빨리 쓰지 않으면 안 된다.)  
你不應該把自己應負的責任往別人身上推。(당신은 자기가 해야 하는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把」는 어떤 境遇에는 副詞와 呼應하여 能動 및 受動의 關係를 나타낼 수 있다.

把他批評一頓。(그를 한번 批判한다.)  
把鉛筆拿去。(연필을 갖고 간다.)

#### (5) 被

受動關係를<sup>27)</sup> 나타내는 特殊한 介詞이며, 受動의 文에서 主動者를 끌어들이는 作用을 한다.

兩個警察拿住了一個賊。(두 명의 경찰이 한 사람의 도적을 잡았다.)

위의 文에서 「一個賊被兩個警察拿住了。」<sup>28)</sup>로 되면 受動의 關係가 되고, 「被兩個警察」은 「介詞連語」를 構成해서 動詞「拿住」에 對해서 修飾의 關係가 된다. 또한 「被」代身 「叫」「讓」도 흔히 使用된다.

那個小孩子叫汽車輾死了。(저 작은 아이는 자동차에 깔려 죽을 뻔했다.)  
時間的大半讓公務占去了。(시간의 대부분을 공무에 빼앗겼다.)

「被」는 主動者를 끌어들이지 않고 直接 動詞의 앞에 두어서 受動의 關係를 나타낼 수 있다.

那個玻璃器被打碎了。(저 유리제품이 깨져 부서졌다.)

말의 앞뒤로 萬若 受動의 關係가 分明한 境遇에 「被」는 省略된다. 이

27) 受動文의 形式은 「受動者+被(叫)+主動者+動詞」가 된다.

28) 「~被兩個警察拿住了」에서 單純히 「拿了」라 하지 않고 補語 「住」를 補充하면 꼭 붙잡았다고 하는 固定된 狀態가 分明해진다.

때에는 動詞 自體가 動補式의 複合語나 또는 動詞가 補語를 지니는 「補充連語」에 限한다.

大衣洗得很乾淨。(외투는 세탁되어서 매우 깨끗하게 되었다.)<sup>29)</sup>

「被」字 格式과 「把」字 格式은 비슷한 點이 있다.

첫째, 「被」「把」의 뒷邊에 否定詞가 있을 수 없고, 否定詞는 「被」「把」의 앞邊에 있어야 한다.

他沒把課本帶走。(그는 교과서를 갖고 가지 않았다.)

둘째, 「把」字와 같이 「被」字 句의 謂語動詞는 또한 單獨으로 存在하지 않고, 「了」「着」「起來」「下去」를 添加하고 前面에는 狀語가 있고 뒷面에는 補語가 있다. 一般的으로 動詞 뒤에는 大部分 賓語를 添加하지 않는다.<sup>30)</sup>

셋째, 動詞에 助詞 「給」를 붙일 수 있다. 이 「給」는 어떤 뜻이 없고 다만 語氣의 作用이 있다.

我們國家被共產黨給害苦了。(우리나라는 공산당에 의해서 손상되었다.)

共產黨把我們國家給害苦了。(공산당은 우리나라를 해롭게 했다.)

「給」가 動詞도 되고 介詞도 된다.

學生們給了他很多幫助。(학생들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動詞 「給予」의 뜻을 表示)

我給她提了意見。(나는 그 여자에게 의견을 제시했다.)(介詞 「向」「對」의 뜻을 表示)

이 以外도 「給」는 構詞成分으로 나타날 수 있다. 「送給」「交給」「發給」「付給」「供給」 등이 있다.

「被」는 直接 動詞의 앞에 놓을 수 있고, 「把」는 이렇게 할 수 없다.

29) 「洗得很乾淨」은 「補充連語」이다.

30) 江天 著, 《現代漢語語法通解》, 遼寧人民出版社, 一九八〇年, pp. 97~98.

他的兩脚被浸濕了。(그의 두 발은 축축하게 젖었다.)

「被」字가 直接 動詞의 앞에 놓이면 紹介의 作用을 할 수 없어 介詞가 되지 않고 다만 助詞로 볼 수 있다. 뒷면에 表示된 動詞는 被動性이다.<sup>31)</sup>

#### (6) 連

「連」은 副詞인 「都」「也」와 서로 呼應하여 使用된다. 動作의 對象에 對하여 더욱더 強調의 作用이 있다.

連樹葉都吃。(나무 잎까지 먹는다.)

連雜誌也不看。(잡지까지 보지 않는다.)

위의 兩 例文의 「連」은 介詞이며 動作의 對象과 介詞結構를 만든다. 此外에 어떤 때는 「連」은 결코 介詞結構를 만들지 않고 다만 句中에 하나의 成分에 對해서 더욱더 強調를 表示한다. 이렇게 使用하는 「連」은 助詞로 본다.

① 在場的人都受到了感動，連七，八歲的孩子也落了淚。(장소에 있던 사람은 모두 감동을 받아 7, 8세의 아이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② 周圍已經成了花的海洋，連樹上都掛滿了花。(주위는 이미 꽃의 바다물 이루어졌고, 나무 위에도 우뚝 꽃으로 연결되었다.)<sup>32)</sup>

「連」은 또한 構詞成分을 만들 수 있다. 「串連」「連累」 등이 있다. 「連」이 어떤 때에는 動詞로 될 수 있다.

我們應該把兩只船連起來。(우리들은 응당히 두 배를 이어 닻추어야 한다.)

#### (7) 比

「比」는 比較를 나타내는 介詞이며 그 賓語는 比較의 基準이 되는 人이나 事物을 指稱한다. 中國語의 形容詞는 比較形이 없기 때문에 이 「比」를 利

31) 前掲書 p. 99 參照.

32) 例文 ①에서는 主語를 強調하고, 例文 ②에서는 狀語를 強調한다.

用한 文에서도 形容詞는 그대로 된다. 「比」를 사용한 文에서 比較한 結果의 程度를 나타내는 데에 二種의 方法이 있다.

첫째, 形容詞의 앞에 程度를 나타내는 副詞를 둔다. 그러나 「很」「大」는 使用할 수 없다.

他比我更高。(그는 나보다 더욱 키가 크다.)  
那個比這個比較好。(저것은 이것보다 비교적 좋다.)

둘째, 形容詞의 뒤에 「一點兒」 또는 다른 數量詞를 둔다.

他比我大三歲。(그는 나보다 세 살 많다.)  
這個比那個好一點兒。(이것은 저것보다 조금 좋다.)

이 「一點兒」은 比較한 結果의 程度를 나타내기 때문에 形容詞의 뒤에 붙는다.<sup>33)</sup>

「比」는 動詞로써 「比較한다」로 解釋되지만, 介詞로써 恒常 性質 狀態 등의 程度上的의 差를 比較하는 데 使用된다.

今天比昨天熱。(오늘은 어제보다 덥다.)  
他的個子比我高。(그의 키는 나보다 높다.)

萬若 具體的으로 程度의 差를 나타내려면 例文 ①②를 參考할 수 있다.

- ① 他借來的比我多十個(그가 빌려 온 것은 나보다도 10개 많다.)  
② 那個比這個好得多。(저것은 이것보다 훨씬 좋다.)

兩者의 程度의 差를 比較할 때는 「比」를 使用하지만, 兩者의 程度가 같거나 같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면 「同」「跟」을 使用하고 「比」를 使用하지 않는다.

你說的中文同他一樣好。(당신이 말하는 중국어는 그이처럼 잘한다.)

33) 安藤 彦太郎 著, 《中國語への招待》, 大學書林, 昭和五十二年十月二十日, pp. 80~81.

他的態度跟以前完全不一樣。(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같지 않다.)

(8) 對, 對於

「對」와 「對於」는 「~에 대해서」「~에 關係서」로 解釋되며, 對象 또는 關連을 나타내는 介詞이다. 「對」「對於」는 「前置賓語」를 끌어내는 作用을 한다.

「他還不十分了解漢城的風俗習慣。(그는 서울의 풍속습관을 아직 충분히 이해 못한다.)」는 「對」를 使用해서 「他對漢城的風俗習慣還不十分了解.」라고 할 수 있고, 「他非常關心這裏的情形。(그는 여기의 상황에 매우 관심을 갖는다.)」는 「他對於這裏的情形非常關心.」이라 할 수 있으므로 「對」「對於」를 使用해서 賓語를 一層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對」「對於」의 다른 用法은 반드시 「前置賓語」를 끌어내지는 않는다.

大家對他的看法都表示同意。(모두들 그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했다.)  
他對於考試問題說出了自己的看法。(그는 시험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말했다.)

두 例文에서 「對」「對於」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의 뒤에 더욱 「動賓連語」인 「表示同意」「說出看法」가 붙는 경우에 「對」「對於」는 「前置賓語」를 끌어내는 것이 되지 않는다. 「對」「對於」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도 主語의 앞에 들 수 있다.

「對於」는 단지 介詞가 될 수 있고, 「對」는 介詞와 動詞에 屬한다. 「一對一」의 「對」는 動詞이며, 「對他說來」의 「對」는 介詞이다. 介詞 「對」가 運用되는 範圍는 比較的으로 넓고, 「對於」는 比較的으로 좁다. 一般的으로 「對於」를 使用하는 곳에는 「對」를 바꿀 수 있다. 「向」「對待」로 解釋되는 「對」는 「對於」로 바꿀 수 없다.<sup>34)</sup>

(9) 于

34) 湖南師範學院中文系漢語教研室編,《現代漢語語法基礎知識》, 湖南人民出版社, 一九八〇年七月, p.30.

「于」는 文言의 介詞로 應用의 範圍가 매우 넓다.

첫째, 處所와 時間을 表示한다.

朴正熙大統領生于慶尙北道善山。(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났다.)  
李舜臣死于一五九八年。(이순신은 1598년에 돌아가셨다.)

둘째, 對象을 表示한다.

忠于國家, 忠于領袖。(국가에 충성하고 영수에 충성한다.)  
献身于民主國家的建設事業。(민주국가의 건설사업에 헌신한다.)

셋째, 其他 意義를 表示한다.

異于過去(比較를 表示) (과거와 다르다.)

開始于經驗(起源을 表示) (경험에서 시작하다.)

「于」는 「在」로 解釋되는 것 以外에 「對」「比」「同」「由」「給」 등으로 解釋할 수 있다.

他下定決心, 献身于學校的教育事業。(그는 학교의 교육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于」는 「給」로 解釋된다.)

#### (10) 關於

「關於」는 主로 關連되는 사람이나 事物 및 어떤 種類의 範圍를 나타낸다. 「關於」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는 主語의 앞에 位置한다.

關於期末考試的事情, 我不多說了。(기말고사의 일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는다.)  
關於教育方面的事情, 他知道得很詳細。(교육방면의 사정에 관해서 그는 매우 상세히 알고 있다.)

「關於」에는 또한 提示의 作用이 있어서 흔히 文章의 標題 等に 使用된다.

關於《閩中日記》, 他研究得很詳細。(난중일기에 관해서 그는 매우 상세한 연구를 하고 있다.)

#### (11) 由

元來「從」과 같이 起點을 나타내는 介詞지만 動詞로써 「따르다」「말기



다. 「의지하다」라는 意味가 있고 「信不信由你」, 文脈에 依해 介詞로서 「~에 의해」의 뜻을 나타낸다.

他由他兩個孫子攙着走了進來。(그는 두 사람의 손자에게 부축되어 들어 왔다.)

#### (12) 由于

「由于」는 「~에 의해」 「~을 爲해」의 原因을 나타낸다. 「由于」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는 흔히 主語의 앞에 位置한다. 다음의 두 例文은 「由于」와 「主述關係」 및 「擴大된 介詞連語」를 만들고 있다.

由于雨水缺乏, 植物生長也不好。(비물이 부족하여 식물의 生長도 좋지 못하다.)

由于天氣不好, 到郊外去運動的人很少吧。(날씨가 좋지 않아서 교외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 (13) 爲了

「爲了」는 一般的으로 「~을 爲해서」로 解釋되고 行爲의 目的을 나타낸다. 「爲了」를 使用해서 構成되는 「介詞連語」와 「擴大된 介詞連語」는 主語의 앞에 位置한다.

爲了語言的統一, 我們都應該用標準話。(언어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더욱 主語의 뒤에도 位置한다.

我爲了那件事, 不知道做過多少的努力。(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때로는 「主述連語」의 뒤에 두어서 語意를 一層 強하게 하는 일도 있다.

我這麼早來, 爲了要跟你討論一個問題。(내가 이렇게 일찍 온 것은 자네와 하나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다.)

#### (14) 用

「用」은 「介詞結構」를 만들어 方式 혹은 手段 材料 등을 表示한다.

我用原子筆寫字(나는 보울펜으로써 글자를 쓴다.)  
用刀割斷一根繩子。(칼로서 하나의 끈을 자른다.)

例示된 種類의 句에서는 「用」이 動詞性이 없이 다만 介詞의 語法 特徵이 있다. 그리하여 介詞는 動詞의 語法 特徵을 잃어 重疊할 수 없고, 時態助詞 「着」「了」等을 添加할 수 없다. 그러나 單獨으로 謂語가 될 때는 動詞의 語法 特徵을 具備한다.

我正在用着呢。(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sup>35)</sup>

介詞構造를 同伴한 動詞에 否定의 「不」나 禁止의 「不要」가 合할 때에는 「用左手不吃飯」이라 하지 않고,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것」全體를 否定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不」를 介詞構造 「用左手」의 앞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他是個左撇子, 用左手吃飯寫字畫畫兒什麼的。(그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 (15) 上

어느 場所를 目標로 하여 갈 때에 利用된다.

你上哪兒去?(당신은 어디에 갑니까?)  
我上學校去。(나는 학교에 간다.)

위의 例文과 같이 말하지만 이때의 動詞도 大概 「去」 또는 「來」이다.

#### (16) 往

「往」은 어느 場所로 갈 때에 利用되지만 이것은 大概 方向 및 方角을 말할 경우이다. 「往」의 뒤에 나오는 말은 普通 單音節이다.

往哪兒走?(어디로 갑니까?)

35) 江天 著, 《現代漢語語法通解》, 遼寧人民出版社, 一九八〇年, p. 100.

往北走。(북으로 간다.)

(17) 跟

「跟」은 「누구누구와...하다」「누구누구와...가 되다」라고 할 때에 利用된다.

他跟我講話。(그는 나와 말한다.)

我跟他做好朋友。(나는 그이와 좋은 친구가 된다.)

「跟」은 北方에서는 常用하고 連詞로도 使用된다. 介詞로 될 때는 英語의 「with」의 뜻이나 連詞로 될 때는 「and」로 된다.

이 「跟」이 元來 사람의 뒤에 붙어서 「간다」고 하면 動詞이지만 「一塊兒」「一起」 등의 範圍副詞과 함께 「我跟他一塊兒去了。(나는 그이와 함께 갔다.)」와 「老張跟老李一起來了。(장형과 이형은 함께 왔다.)」로 使用된다. 「그와 이야기를 한다」는 「跟他說話」라 말하지만 이것의 否定은 否定詞를 「跟」의 앞에 놓는다. 「老張不跟老李一起來。」와 「不跟他說話」라 한다.

時間副詞인 「昨天」「常常」은 「跟」의 앞에 놓아 「老張昨天跟老李一起來了。」로 되고, 또한 狀態副詞인 「很快地」「高高興興地」는 「跟」의 앞에 놓아 「老張高高興興地跟老李一起來了。」로 되며, 더욱 能願動詞 「肯」「願意」는 「跟」의 앞에 놓아 「老張願意跟老李一起來」으로 된다.<sup>36)</sup>

(18) 給

動詞과 介詞와의 性質을 兼하고 있고, 名詞 代名詞의 앞에 있어서 動詞 形容詞의 連帶成分이 될 때에 介詞으로써 作用한다. 「~을 위하여」의 뜻이다.

媽媽給小弟買一個梨子。(어머니가 동생에게 하나의 배를 사 준다.)

我們給她介紹了一個男朋友, 可是她完全不滿意。(우리들은 그녀에게 한 사람의 남자 친구를 소개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다.)

(19) 離

空間的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時間의 空間 經過나 距離의 길고 짧은 것을 表現할 경우에 介詞로서 利用된다.

36) 湯廷池 著, 《國語語法研究論集》, 臺灣學生書局印行, 國民七十年二月 再版, pp. 8~9.

離開車的時間只有五分鐘了。(발차의 시간까지 나머지 겨우 5분이다.)  
火車站離這兒有多遠?(정거장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0) 拿, 向, 除了

「~을 손에 들고」「~을 利用해서」라고 할 때에 「拿筆寫字.(펜으로써 글자를 쓴다.)」라고 한다. 「~에 向하여」라고 할 때에 「走向勝利.(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다.)」「向左轉(왼쪽으로 돌다.)」이라 한다. 「~을 除하고」라고 할 때에는 「除了他之外在沒有別人.(그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21) 替

動詞와의 境界에 있는 介詞로써 「대신하다」(代替)라는 意味로 利用된다. 口語에서는 「給」의 「~때문에」「~위해서」가 「替」보다도 자주 使用된다.

我托她替我辦這件事情。(나 대신에 이 일을 해 주도록 그녀에게 부탁했다.)  
替他打排球。(그를 대신하여 배구하다.)

(22) 叫, 教

「叫」「教」는 使役을 나타내는 介詞로써 뒤에 名詞 또는 人稱代名詞가 位置하고, 그 다음에 動詞가 놓여지면 「~에게~시키다」라는 使役을 나타낸다.

「叫」以外에 使役을 나타내는 말에 「讓」「使」「令」이 있다. 「叫」는 積極性이 있고, 「讓」도 積極性을 띠고 있다. 「叫」가 使役이나 受動에 使用되는지의 判斷은 動作의 種類 前後의 關係에 依한다. 「令」은 主動者에 使役의 意志가 없고, 단지 主動者의 動作의 結果가 自然히 그렇게 시킨다라고 할 경우에 흔히 使用된다.

他辦事很認真, 實在令人佩服。(그는 일을 처리함이 아주 신실하여 실로 사랑으로 하여금 감복하게 한다.)

使役文의 否定形은 各各 介詞의 앞에 「不」를 添加하여 나타낸다. 또한 「由于」와 「因」은 原因을 나타내는 것에 使用된다. 兩者의 差異는 「由于」의 편이 普通 文頭(主語의 앞)에 位置한다.

## V. 結 語

介詞은 動詞과 比較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主語로서 「連我也笑了. (나까지도 웃었다.)」, 賓語로서 「大家對於中文很關心. (모두들 중국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 補語로서 「我住在釜山. (나는 부산에 산다.)」, 定語로서 「朝大街的窓子是開着的. (큰 길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다.)」의 機能이 그것이다.

介詞과 動詞의 境界線은 確實하지 않지만 介詞은 바로 英語의 前置詞과 똑 같은 機能을 갖고 單獨으로 述語가 될 수 없는 것이다. 介詞은 動詞로부터 轉用된 것이 많을뿐더러 動詞과 介詞의 뜻을 兼하고 있는 것도 있다. 名詞 代名詞 앞에 놓여 이들과 어울려 文章構成을 한다. 介詞의 重要點을 다음과 같이 要約 整理할 수 있다.

첫째, 介詞은 單獨으로 謂語가 될 수 없고, 또한 單獨으로 答을 할 수 있는 文章을 만들 수 없다.

他把店舖賣了. (그는 상점을 팔았다.)

그러나 工具의 「用」, 終點의 「到」, 處所의 「在」는 單獨으로 謂語도 되고 答句도 된다.

他用匙子吃飯. (그는 숟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다.)

介詞 「到」 「在」를 사용한 介詞結構는 補語가 되고, 「對」 「對於」 「關於」를 사용한 介詞結構는 定語로 될 수 있다.

둘째, 介詞은 반드시 名詞 代名詞 앞에 놓여 介詞結構를 만들고, 動詞 또는 形容詞의 修飾語로 된다.

셋째, 一般動詞은 重疊할 수 있으나 介詞은 重疊해서 使用할 수 없다. 그리고 直接으로 期間, 回數, 情狀의 補語를 添加할 수 없다.

넷째, 動詞은 時態助詞 「着」 「了」 「過」를 添加하여 반드시 語法意義를 表示한다. 그러나 介詞은 時態助詞인 進行의 「着」, 完成의 「了」, 經驗의 「過」나 方向動詞의 「來」 「去」 「上來」 「下來」, 始作의 「起來」, 繼續의 「下去」 등

을 添加할 수 없다. 「爲了」「爲着」의 「了」「着」는 어떤 意義를 添加하는 것이 아니고 語構成의 要素에 屬하며 「爲了」「爲着」로 따로 構成한다. 비록 少數의 介詞에 있어서 「了」나 (例示하면, 「爲了」「除了」) 혹은 「着」를 (例示하면, 「爲着」「靠着」「藉着」「憑着」「朝着」「望着」「沿着」「順着」) 添加할 수 있으나 이러한 介詞는 결코 完成이나 進行의 뜻을 含有하지 않는다.

다섯째, 「到」「在」「給」「比」 등은 單獨으로 使用될 때는 動詞에 屬하고, 名詞 代名詞의 앞에 使用되어 動詞 形容詞의 修飾語로 될 때는 介詞의 一般的인 特徵을 갖게 된다.

여섯째, 「跟」「比」「用」「到」「在」 등은 動詞에 가깝다. 「自從」「根據」「依照」「關於」「對於」「由于」 등은 動詞의 機能을 잃어 根本적으로 動詞이라고 볼 수 없다.

일곱째, 介詞와 그 賓語는 主要動詞 앞에 一定하지 않게 出現한다.

爲了求學他放棄了一切。(학문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對於這個事情我沒有把握。(이 일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다.)

어떤 介詞는 (例示하면, 處所의 「在」, 終點의 「到」, 起點의 「自」 등) 恒常 主要 動詞 後面에 出現한다.

여덟째, 介詞와 連詞의 限界 또한 分明하지 않다.

① 老張昨天跟老李來了。(장형은 어제 이형과 왔다.)

② 老張跟老李都昨天來了。(장형과 이형은 모두 어제 왔다.)<sup>37)</sup>

其他 「爲了」「因爲」「由于」 등은 介詞와 連詞의 用法을 兼하고 있다.

끝으로 이 介詞를 分類 考察함에 介詞 動詞 連詞 등으로 일일이 比較 分析할 수 없었지만, 馬建忠의 《馬氏文通》 出刊 (光緒 二十四年三月十九日) 以後 複雜한 文法用語를 直面할 때 이 介詞에 關한 것은 再三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37) ① 時間副詞인 「昨天」이 「跟」의 앞에 와서 介詞用法이 되고 ②의 「跟」은 老張과 老李의 對等한 成分을 接續하는 連詞用法이다.

## 參 考 文 獻

1. 趙元任 著，丁邦新 譯，《中國話的文法》，香港中文大學出版社，香港，一九八二年十月第二次印刷
2. 湖南師範學院中文系漢語教研室編，《現代漢語語法基礎知識》，湖南人民出版社，湖南，一九八〇年七月
3. 江天 著，《現代漢語語法通解》，遼寧人民出版社，遼寧，一九八〇年
4. 邢福義，《現代漢語語法知識》，湖北人民出版社，湖北，一九八〇年八月第一次印刷
5. 高明凱 著，《國語語法》，洪氏出版社印行，臺北，民國六十五年九月一日出版
6. 黎熙 著，《國語文法》，臺灣商務印書館印行，臺北，民國六十七年十月臺三版
7. 馬建忠 撰，梁家駱 主編，《文通校注》，世界書局印行，臺北，民國六十八年十月三版
8. 幼獅月刊社編，《中國語言學論集》，幼獅文化事業公司，臺北，民國六十八年二月再版
9. 湯廷池 著，《國語變形語法研究》，學生書局，臺北，民國七十一年二月修訂三版
10. 周法高 著，《中國語文研究》，華岡出版部印行，臺北，民國六十四年一月再版
11. 王雲五 編，鄧熾昌 編，《國語文法概要》，臺北，民國六十五年七月臺三版
12. 董長志 著，《實用國語文法》，學生出版社印行 臺北，民國六十一年四月再版
13. 郭紹虞 著，《漢語語法修辭新探》上，下冊，商務印書館出版 北京，一九七九年七月第一版。
14. 三野昭一 著，《中國語文法の基礎》，三修社，東京，一九八三年五月一日第八版發行。
15. 宮島吉敏 著，《中國語四週間》，大學書林發行，東京，昭和八三年十二月三十日，第三改訂第一九四版發行。
16. 周法高 著，《中國古代語法》造句編上，臺灣國風出版社印行，臺北 民國六十一年三月重刊。
17. 湯廷池 著，《國語語法研究論集》，臺灣學生書局印行，臺北，民國七十年二月再版，
18. 王協 著，《中國語法理論》上，下冊，臺灣商務印書館發行，臺北，民國六十六年三月臺一版。
19. 劉復 著，《中國文法講話》，古亭書屋印行，臺北，民國六十四年三月臺一版。
20. 呂湘 著，《中國文法要略》上，中，下冊，臺灣商務印書館發行，臺北，民國六十六年三月臺一版。
21. 李維琮 著，《中國文法概論》，臺灣商務印書館發行。
22. 張以仁 著，《中國語文學論集》，東昇出版事業公司，臺北，國民七十年九月初版。
23. 黃貴放 著，《國語文法圖解》，台灣書局印行，臺北，國六十八年四月再版。
24. 許世瑛 著，《中國文法講話》，臺灣開明書店，臺北，民國六十五年三月修訂十二版發行。
25. 甘居正 著，《中文文法與標點符號》，黎明文化事業公司，臺北，民國六十九年七月七日。

26. 周法高 編著，《中國語文論叢》，正中書局印行，臺北，民國七十年十月臺三版。
27. 高本漢 著，張世祿 譯，張仁青 主編，《中國語與中國文》，文史哲出版社印行，臺北，民國六十六年十二月臺一版。
28. 趙元任 著，《語言問題》，臺灣商務印書館發行，臺北，民國七十一年八月四版。
29. 趙元任 著，《國語語法》，學海出版社印行，臺北，民國七十年十月初版。
30. 黃潔如 編，《文法與作文》，臺灣開明書店發行，臺北，民國七十一年七月台五版發行。
31. 黎錦照 編，《國語文法》，里仁書局，臺北，民國七十一年十月十五日。
32. 香坂順一 著，《中國語學の基礎知識》，光生館，東京，昭和五十六年六月二十五日四版發行。
33. 安藤 彦太郎 著，《中國語への招待》，大學書林，東京，昭和五十二年十月二十日第十二版發行。
34. 土屋申一 編著，《中國語文法入門》，大學書林，東京，昭和五十四年八月十五日第一版發行。
35. 倉石武四郎 著，《ローマ字中國語語法》，東京，一九七八年四月二十日第六刷發行。
36. 輿水 優 著，《せさしい中國語の作文》，大學書林，東京，昭和五十三年十月一日第十一版發行。
37. 邢 鑑生 著，《中國語會話》，創元社，大阪，昭和五十三年五月十日第一版第二刷發行。
38. 土屋申一 著，《基礎中國語》，大學書林，東京，昭和五十四年八月二十日第四十八版發行。
39. 張志公 著，香坂順一 譯，《中國文法基礎》，江南書院，東京，一九五五年十月九日第一刷發行。



附 錄 I

韓國中國語文學關係學位論文總目錄

※ 이 자료는 國會圖書館〈韓國博士 및 碩士學位論文總目錄〉에 근거함.

博 士 學 位 論 文

저 자 명	논 문 제 목	대 학 명	발표연도
董 作 賓	殷曆法	서 울 대	55. 5.24
車 相 幘	中國古典文學理論	서 울 대	67. 8.31
車 柱 殷	鍾山榮詩品校證	서 울 대	68. 8. 3
張 基 權	傳奇小說研究	서 울 대	69. 8.26
李 丙 疇	杜詩研究—韓國文學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동 국 대	70. 9.30
李 慶 善	三國志演義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 울 대	73. 2.26
姜 信 沆	四聲通解研究	서 울 대	74. 2.26
金 學 主	漢代詩研究	서 울 대	75. 2.26
李 炳 漢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서 울 대	75. 2.26
金 鉉 龍	韓國說話小說에 끼친 〈太平廣記〉의 影響 研究 —주요 그 素材의 關聯性에서	전 국 대	76. 8.21
尹 乃 鎬	商王朝史의 研究	단 국 대	78. 2.25
丁 範 鎭	唐代傳奇研究	성균관대	78. 8.31
金 時 俊	毛詩研究	서 울 대	81. 2.26
成 百 仁	滿州語音韻論研究	서 울 대	81. 2.26
李 相 翊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 울 대	81. 2.26
李 昌 龍	韓國詩文學에 대한 杜詩影響의 研究	성균관대	81. 2.25
洪 寅 杓	柳河東詩研究	서 울 대	81. 2.26
李 錫 浩	李白詩研究—道敎의 特色을 중심으로	서 울 대	81. 8.31
盧 東 善	現代中國語動體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82. 2.25

李章佑	韓愈의 古詩用韻	서울대	82. 2.26
金興圭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	82. 9.10
楊八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건국대	83. 2.26
黃鍾東	梁啓超研究	영남대	82. 8.31

### 碩士學位論文

저자명	논문제목	대학명	발표년도
張深鉉	詩經章句法研究	서울대	52. 3.22
車柱環	陶淵明詩의 特性	서울대	54. 3.12
朴泰洪	漢字語史	연세대	56. 3.17
李鍾殷	中國小說이 韓國小說에 미친 영향	연세대	56. 3.17
金鍾觀	中國新詩論考	서울대	56. 3.28
徐首生	上代漢文研究	경북대	56. 3
李元植	中國音表記法의 變社考	서울대	56. 3.28
閔斗基	<鹽鐵論>研究	서울대	58. 3.28
李東潤	王安石의 文教政策에 대한 考察	서울대	58. 3.28
金時俊	離騷論攷	성균관대	59. 3.10
金永浩	晚淸小說의 研究	서울대	59. 3.28
李聖學	殷王朝時代의 考古學的 考察	경북대	58. 3
崔完植	陶淵明研究	성균관대	60. 9.30
金龍燮	古詩十九首研究	서울대	60. 3.28
韓相虎	晚淸小說의 研究	서울대	60. 9.30
金相勳	비교학적으로 본 洪吉童傳과 水滸傳의 考察	경희대	61. 3.27
范善均	屈原論	서울대	61. 3.28
李炳漢	搬神記論	서울대	61. 3.28
李錫浩	金聖歎論	서울대	61. 3.28
權德周	韻鏡研究	서울대	61. 3.28

金 喆 洙	魯迅研究	성균관대	61. 3. 10
安 炳 周	詩書天命政治思想과 孔子의 尙古主義	성균관대	61. 3. 10
李 啓 遠	吳敬梓論	서울대	62. 2. 26
李 忠 憲	王安石的 變法政策	경희대	62. 2. 28
崔 根 德	朝鮮古代軍談小說에 있어서의 中國〈三國志演義〉의 影響	성균관대	62. 2. 10
金 揆 鎮	傳奇小說研究	서울대	63. 2. 26
金 鴻 楚	辭小考	서울대	63. 2. 26
金 益 杉	聊齋志異考	서울대	63. 8. 30
李 爽 九	中國語品詞論	성균관대	63. 2. 22
河 正 玉	孔子의 文學思想	서울대	64. 2. 26
金 載 雨	杜甫의 研究	성균관대	64. 2. 10
李 相 珣	四書에 있어서의 學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64. 2. 10
陳 祝 三	三·一과 五·四文學 運動史에 대한 比較文學	성균관대	64. 2. 10
金 琇 成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 比較研究	성균관대	65. 9. 30
成 元 慶	關東別曲과 赤壁賦의 比較研究	건국대	65.
李 章 佑	韓退之의 散文研究	서울대	65. 2. 26
韓 武 熙	五·四文學運動의 研究	성균관대	65. 9. 30
孔 在 錫	中國文字構成論	서울대	66. 2. 26
徐 張 源	章炳麟의 文學觀	서울대	66. 2. 26
宋 昌 基	中國語組織論—文章構造語詞配列을 중심으로	서울대	67. 8. 31
楊 森	白樂天和 그의 詩	서울대	67. 8. 31
尹 芳 烈	漢語聲母考	서울대	67. 8. 31
李 鳳 麟	水滸傳의 洪吉童傳에 미친  영향	대구대	67. 2. 14
洪 淳 孝	中國近代語文改革運動의 研究	성균관대	67. 2. 28
安 振 高	王充의 文學觀—그의 〈論衡〉을 중심으로	서울대	68. 2. 26
金 得 洙	白居易研究	성균관대	69. 2. 28
임 계 순	曾國藩과 그의 思想	이화여대	69. 2. 24
全 寅 初	韓·唐傳奇小說研究	연세대	69. 2. 24

鄭 恩 相	漢文構造文法論—「之」字를 중심으로	연 세 대	69. 2
姜 啓 哲	中國新劇論考	서 울 대	70. 8. 31
申 熙 媛	嚴復研究	이 화 여 대	70. 2. 23
李 玲 子	魚迅小説의 研究—그의 作品에 나타난 民衆像	서 울 대	70. 2. 26
李 俊	胡適研究	서 울 대	70. 2. 26
朴 魚 春	回文體詩歌考察	건 국 대	71. 2. 27
權 重 達	王夫之의 詩論	중 앙 대	71. 8. 31
黃 泰 運	顧炎武의 詩와 文學觀	서 울 대	71. 8. 30
황 수 경	淸國重興大臣曾國藩의 政績에 대한 史的 考察	경 회 대	72. 2. 28
李 鍾 振	曹植詩 論考	서 울 대	72. 2. 26
李 鴻 鎮	東坡詩考	서 울 대	72. 2. 26
翁 家 燮	中·韓語音韻의 比較研究	명 지 대	73. 2. 24
洪 瑀 欽	蘇東坡文學이 韓國文學에 끼친 영향	영 남 대	73. 2. 28
權 瓊 順	漁父詞研究	서 울 대	74. 2. 26
金 仁 經	<老乞大>의 中國音 表記法 研究	서 울 대	74. 2. 26
吳 秀 美	三國志演義의 演變 및 比較文學의 研究	서 울 대	74. 2. 26
許 成 道	陶淵明의 四言詩考	서 울 대	74. 2. 26
吳 惠 純	松江學에 나타난 中國文學的 요소	영 남 대	73. 8. 25
최 영 주	韓國古代小説에 끼친 三國志演義의 영향	연 세 대	74. 2. 18
金 振 益	顏真卿 研究	고 려 대	74. 2. 25
盧 東 善	中國語 속의 外來語 研究	성 균 관 대	74. 2. 25
蘇 秉 彥	中國語의 處所를 표시하는 副司와 前置詞句에 대하여	서 울 대	74. 2. 26
崔 相 翼	聊齋志異研究—특히 小文을 통한 그 性格을 중심으로	성 균 관 대	74. 2. 25
金 翰 奎	賈誼의 政法思想—漢帝國確立의 思想史的 過程	서 강 대	74. 8. 27
張 柱 玉	水滸傳과 洪吉童傳의 比較	성 신 여 대	74. 9. 17
金 在 乘	王維研究	서 울 대	75. 2. 26
王 海 倫	韓國의 近代詩人 金素月과 中國의 近代詩人 徐志摩에 대한 比較研究	경 회 대	75. 2. 22

尹乃鉉	甲骨文을 통해 본 殷王朝의 崇神思想과 王權 變遷	단국대	75. 2.27
李榮德	司馬光思想의 研究	성균관대	75. 2.25
朴鍾哲	杜詩諺解聲調研究	서강대	75. 2.20
林明德	韓·中夢幻小說研究	서울대	75. 8.31
陳文錦	韓·中神話의 比較研究	성균관대	75. 8.30
李源綱	韓國詩話類에 있어서의 詩觀에 관한 研究	단국대	75. 8.20
설명영	李清照研究	성균관대	76. 8.31
禹弘濟	六朝小說研究	서울대	76. 8.30
徐敬浩	山海經研究	서울대	77. 2.26
吳相勳	黃巾亂에 대한 一考察	서울대	77. 2.26
李星	儒林外史研究	서울대	77. 2.26
李鍾洙	胡適思想研究—그의 中國의 傳統의 再評價에 대하여	서강대	77. 2.17
曹秉漢	曾國藩의 경제체학과 그 역사적 기능	서울대	77. 2.26
朴權圭	尙書의 文獻的 考察	성균관대	77. 8.31
楊八從	韓國漢字音과 中國閩南音의 比較研究	건국대	77. 8.20
殷茂一	孟浩然研究	서울대	77. 8.30
陸銀均	孫文의 初期思想形成에 관한 小考	고려대	77. 9.16
李賢淑	미아석고 분석	서울대	78. 2.27
池榮在	益齊長短句의 研究	성균관대	78. 2.27
黃秉國	王績研究	서울대	78. 2.27
盧惠淑	唐代夢幻類小說研究	숙명여대	79. 2.24
李致洙	放翁詩研究	고려대	79. 2.24
李弘子	董西廂과 雜劇西廂의 比較	서울대	79. 2.26
李氣銅	鷄林類事語彙攷	고려대	79. 9.12
이영구	京本通俗小說研究	서울대	79. 8.30
정헌철	花間集試論	서울대	79. 8.30
조명화	敦皇變文研究—維摩詰經講經文을 중심으로	서울대	79. 8.30
고민희	紅樓夢研究의 傾向을 論함	고려대	80. 2.25

金明燦	魯迅小說研究	고려대	80. 2. 25
宋永程	鮑照詩研究	서울대	80. 2. 28
申洪哲	關漢卿雜劇研究	외대	80. 2. 27
오창화	元代神怪雜劇研究	연세대	80. 2. 18
우준호	蘇東坡散文研究	외대	80. 2. 27
李吉培	陶淵明研究	고려대	80. 2. 25
정원지	桃花扇研究	서울대	80. 2. 28
金勝心	王維詩研究	숙명여대	80. 9. 13
이기연	陶謝比較研究	외대	80. 10. 8
金在烈	莊子の 藝術論研究	고려대	81. 2. 26
김동진	中共의 漢語拼音方案評考	외대	81. 2. 27
김진영	王士禛詩論研究	서울대	81. 2. 26
민병삼	莊子の 文學的 構成研究	외대	81. 2. 27
박성주	創造社研究	서울대	81. 2. 26
申英愛	白居易新樂府研究	숙명여대	81. 2. 25
안병균	孟子修辭論	서울대	81. 2. 26
양희석	元散曲研究	서울대	81. 2. 26
위행부	清末譴責小說研究	서울대	81. 2. 26
尹泰順	〈西遊記〉대요天官研究	숙명여대	81. 2. 25
李載勝	助詞「了」에 관한 考察	고려대	81. 2. 26
丁一	詩經二南研究	서울대	81. 2. 26
鄭在書	葛洪의 文學觀	서울대	81. 2. 26
崔民和	陸機研究一文賦를 통해 본 文學理論中心	숙명여대	81. 2. 25
李相殷	儒家の 藝術思想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81. 2. 25
郭利夫	李白研究	성균관대	82. 2. 25
金容春	李清照의 生涯와 詞研究	성균관대	81. 8. 25
金 權	說文解字 部數의 차와 그 의의	서울대	81. 8. 31
李根孝	白居易詩의 社會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81. 8. 25
任秀宰	李賀詩研究	숙명여대	81. 8. 31

김 덕 균	文選 李善注引說文考	외 대	82. 2.27
朴 雲 錫	茅盾研究—장편소설 “자야”를 중심으로	서울대	82. 2.26
宋 龍 準	晏幾道詞研究	서울대	82. 2.26
宋 天 鎬	孟袁陽研究	성균관대	82. 2.25
吳 台 錫	黃山谷詩研究	서울대	82. 2.26
유 희 주	朱自淸의 散文研究	외 대	82. 2.27
李 在 夏	曹植文學研究	성균관대	82. 2.25
陳 玉 卿	蘇東坡記文考	서울대	82. 2.26
최 두 열	文心雕龍文學論	서울대	82. 2.26
崔 鍾 世	韓愈詩研究—諷刺性を 중심으로	고려대	81. 9.10
崔 昌 國	文字改革을 통해 본 漢語의 規範問題	영남대	82. 2.22
하 운 청	李賀詩研究(作品論)	서울대	82. 2.26
許 錦 蘭	山海經研究	숙명여대	82. 2.25
고 인 덕	歐陽修詞研究	연세대	82. 8.27
金 榮 哲	茅盾의 初期小說 研究	고려대	82. 9.10
白 永 吉	茅盾初期文學研究—作家意識의 小說의 展開過程	고려대	82. 9.10
유 연 환	關雲長實記와 三國演義의 比較研究	고려대	82. 9.10
鄭 基 先	儒林外史 研究	단국대	82. 9.11
고 혜 숙	曹植詩研究	숙명여대	83. 2.25
공 경 신	現代中國語彙詞研究	계명대	83. 2.22
郭 魚 鳳	歐文의 修辭研究	외 대	83. 2.26
金 河 林	魯迅小說의 主題思想變貌過程 研究	고려대	82. 9.10
김 해 명	詩經研究—詩語와 詩意간의 諸樣相을 중심으로	연세대	83. 2.21
김 혜 순	張子野詞考	서울대	83. 2.26
노 경 퇴	顏之推文學論研究	서울대	83. 2.26
盧 光 玉	陶潛研究	성균관대	83. 2.25
柳 瑩 杓	王安石詩研究—그의 絕句詩를 중심으로	서울대	83. 2.26
文 明 淑	蘇東坡詩研究—黃州詩를 중심으로	고려대	83. 2.25
백 명 균	李漁의 戲曲論—劇作論을 중심으로	서울대	83. 2.26

변성규	阮籍詠懷詩研究	서울대	83. 2.26
李大周	漢字의 音·訓研究—千字文을 중심으로	고려대	83. 2.25
이병관	<莊子>, 代名詞研究—人稱代名詞와 疑問代名詞를 중심으로	연세대	83. 2.21
이우정	唐近體詩의 구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	83. 2.21
李鍾漢	歷代論詩絕句研究	서울대	83. 2.26
李哲理	人間詞話研究	영남대	83. 2.22
張秀烈	歐陽修研究	성균관대	83. 2.25
조대호	정령의 문학 치중론과 작품연구	연세대	83. 2.21
崔在赫	陶淵明詩의 形式과 詩語研究	외대	83. 2.26
龐紹義	陳岩日叢知編小說研究	고려대	83. 2.25



## 附 錄 II

### 釜山大學校所藏中國語文學關係圖書總目錄

※ 期別로釜山·慶南 所在 各大學의 中國語文學關係所藏圖書目錄을 收錄할 예정임.

#### I. 總 類

- | 書 名   | 著(編) 者 | 冊數   | 出版社     | 年度   |
|---|--------|------|---------|------|
| 1. 四部叢刊正編<br>(1-100)(23-32缺本)   | 王 雲    | 五 90 | 臺灣商務印書館 | 1979 |
| 1)周易, 尚書, 毛詩, 周禮, 儀禮, 禮記 2)春秋經傳集解, 春秋公羊經傳解詁, 春秋穀梁傳, 孝經, 論語, 孟子, 爾雅, 京氏易傳, 尚書大傳 3)韓詩外傳, 大戴禮記, 春秋繁露, 經典釋文, 方言, 釋名 4)說文解字, 玉篇, 說文解字繫傳通, 釋, 廣韻 5)竹書紀年, 前漢紀, 後漢紀 6-9)資治通鑑 10)資治通鑑考異, 資治通鑑目錄, 稽古錄, 資治通鑑外紀, 資治通鑑釋文 11-13)通鑑紀事本末 14)汲冢周書, 國語, 戰國策校注, 晏子春秋, 古列女傳 15)五朝名臣言行錄, 三朝名臣言行錄, 吳越春秋, 越絕書, 華陽國志 16)水經注, 大唐西域記, 史通 17)孔子家語, 荀子, 孔叢子, 新語, 新書, 鹽鐵論, 新序, 說苑 18)揚子法言, 潛夫論, 申鑒, 徐幹中論, 文中子中論, 孫子集注六韜, 吳子, 司馬法, 管子, 鄧析子, 商子, 韓非子, 齊民要術 19)黃帝內經索問靈樞經, 難經集註, 金匱要略方論, 註解傷寒論, 脈經 20)重修政和證類本草, 周髀算經, 九章, 算術 21)太玄經, 焦氏易林, 墨子, 尹文子, 慎子 22)鶡冠子, 鬼谷子, 呂氏春秋, 淮南子, 人物誌, 顏氏家訓, 白虎通德論, 論衡 32)王右丞集高常侍集, 孟浩然集, 元次山文集, 顏魯公文集, 岑嘉州詩, 劉隨州詩集, 韋江州集昆陵集, 錢考功集 34)陸宣公翰苑集, 權載之文集, 朱文公校昌黎先生集 35)註釋音辯唐柳先生集, 劉夢得文集, 呂和淑文集, 張司業詩集, 皇甫持正文集, 李文公集, 歐陽行周文集, 孟東野詩集, 賈浪仙長江集, 李賀歌詩編, 36)沈下賢集, 李文饒文集, 元氏長慶集 37)樊川文集, 姚少監詩集, 李義山詩集, 溫庭筠詩集, 丁卯集, 劉曉集, 孫樵集, 李羣玉詩集, 碧雲集, 披沙集, 皮子文藪, 甫里先生文集 38)玉川子詩集, 司空表聖文集, 司空表聖詩集, 玉山樵人集, 桂苑筆耕集, 黃御史公集, 甲乙集, 白蓮集, 禪月集, 浣花集, 廣 |        |      |         |      |

成集 39)徐公文集, 河東先生集, 小畜集, 小畜外集, 林和靖先生詩集, 河南穆公集 40)范文正公集, 河南先生文集, 蘇學士文集 41)溫國文正司馬文集, 直講李先生文集 42)丹淵集, 元豐類纂 43)宛陵先生集, 伊川擊壤集 44-45)歐陽文忠公集 46)嘉佑集, 臨川先生文集 47)集註分類東坡先生詩, 經進東坡文集事略 48)樂城集, 樂城應詔集 49)豫章黃先生文集, 后山詩註, 張右史文集 50)淮海集, 石門文字禪, 濟北晁先生鷄肋集 51)浮溪集, 增廣箋注簡齋詩集, 簡齋詩外集, 于湖居士文集 52-53)朱文公文集 54)止齋先生文集, 梅溪王先生文集 55)攻媿集 56)象山先生全集, 盤洲文集, 石湖居士詩集 57-58)誠齋集 59)渭南文集, 精選陸放翁詩集, 水心先生文集 60)鶴山先生大全文集 61)西山先生真文忠公文集, 白石道人詩集 62-63)後村先生大全集 64)文山先生全集, 閑閑老人滄水文集 65)滄南遺老集, 遺山先生文集, 澹然居士文集 66)秋澗先生大全文集 67)剡源戴先生文集, 松雪齋文集, 靜修先生文集, 清容居士集 68)牧菴集, 道園學古錄, 翰林楊仲弘詩集 69)揭文安公全集, 范德機詩集, 淵頌吳先生文集, 金華黃先生文集 70)圭齋文集, 柳詩制文集, 薩天錫詩集, 句曲外史貞居先生詩集, 九靈山房集, 倪雲村先生詩集 71)東維子文集, 鐵崖先生古樂府, 宋學士文集 72)誠意伯文集, 清江貝先生集, 蘇平仲文集 73)高太史大全集, 高太史堯藻集, 遜志齋集 74)匏翁家藏集 75)王文成公全集 76)荆川先生文集, 震川先生文集 77)亭林餘集, 亭林詩文集, 南雷集, 薑齋先生詩文集 78-79)牧齋初學集, 牧齋有學集 80)梅村家藏集, 漁洋山人精華錄, 堯峯文鈔 81)曝書亭集 82)陳迦陵文集 83)敬業堂詩集, 方望溪先生全集 84)樊榭山房集, 惜抱軒詩文集, 戴東原集 85-86)鮎埼亭詩集, 鮎埼亭詩集 87)洪北江詩集 88)孫淵如詩文集, 抱經堂文集 89)潛研堂文集 90)述學, 容甫先生遺詩, 嘏經室集 91)大雲山房文稿, 定齋文集, 定盦文集補編, 茗柯文, 補編外編, 曾文正公詩文集 92)六臣註文選 93)玉台新詠集, 中興閨氣集, 河嶽英靈集, 國秀集, 才調集, 古文苑, 唐文粹 94)西崑酬唱集, 樂府詩集 95-96)皇朝文選 97)中州集, 谷音, 河汾諸老集, 國朝文類 98)皇元風雅, 皇明文衡 99)文心雕龍, 唐詩紀事 100)增修詩話總龜, 花間集樂府雅詞, 唐宋諸賢絕妙詞選, 中興以來絕妙詞選, 增修箋註草詩餘, 朝野新聲太平樂府

2. 古今圖書集成 集成原編者：陳夢雷 79 鼎文書局 1980  
類編主編者：楊家駱

1)序例, 簡目彙編, 原目錄 2)乾象典 3)歲功典 4)曆法典 5-6)庶徵典(上·下) 7)坤輿典 8-17)職方典(1-10) 18-20)山川典(上·中·下) 21)導裔典 22-24)皇極典(上·中·下) 25)宮闈典 26-31)官常典(1-6) 32)家範典 33)交誼典 34-37)氏族典 38)人事典 39-41)閨媛典(上·中·下) 42-48)藝術典(1-7) 49-50)神異典(上·下) 51-52)禽蟲典(上·下) 53-54)草木典(上·下) 55-58)經籍典(1-4) 59-60)學行典(上·下) 61-62)文學典(上·下) 63)字學典 64)選舉典 65)銓衡典 66-68)食貨

典(上·中·下) 69-71)禮儀典(上·中·下) 72)樂律典 73-74)戎政典(上·下) 75-76)  
 詳刑典(上·下) 77-78)考工典(上·下) 79)考證

- |                             |                  |   |      |      |
|-----------------------------|------------------|---|------|------|
| 3. 漢學彙編 淮南集證<br>(上·中·下 各2册) | 劉家立 拚            | 6 | 廣文書局 | 1978 |
| 4. 南華真經正義<br>(上·下 各2册)      | 陳義昌 輯            | 4 | 廣文書局 | 1978 |
| 5. 南華真經影史                   | 周振辰 注            | 2 | 廣文書局 | 1978 |
| 6. 呂晚邨先生四書講義<br>(上·中·下 各2册) | 呂留良 講<br>陳鏜 編次   | 6 | 廣文書局 | 1978 |
| 7. 四書考輯要<br>(上·中·下 各2册)     | 陳宏謀 撰<br>陳蘭孫 編校  | 6 | 廣文書局 | 1978 |
| 8. 呂晚邨先生四書語錄<br>(1-4 各2册)   | 呂留良 講<br>周在延 編次  | 8 | 廣文書局 | 1978 |
| 9. 管子學(1-4)                 | 張佩綸 撰            | 4 | 廣文書局 | 1978 |
| 10. 墨子校注(上·下 各2册)           | 吳毓江 校注           | 4 | 廣文書局 | 1978 |
| 11. 戲學指南(1-4)               | 馮春航 校正<br>羅鷲 新編次 | 4 | 廣文書局 | 1978 |
| 12. 清代七百名人傳(上·中·下)          | 蔡可園 纂            | 3 | 廣文書局 | 1978 |
| 13. 孔子演義(上·下)               | 丁寅生 著            | 2 | 廣文書局 | 1978 |
| 14. 孟子時事考徵                  | 陳寶泉 編撰           | 2 | 廣文書局 | 1978 |
| 15. 孟子字義疏證                  | 戴震 撰             | 2 | 廣文書局 | 1978 |
| 16. 中庸章句質疑                  | 郭嵩燾 著            | 2 | 廣文書局 | 1978 |
| 17. 莊子南華經解                  | 宣穎 撰             | 2 | 廣文書局 | 1978 |
| 18. 論語旁證                    | 梁章鉅 撰            | 2 | 廣文書局 | 1978 |
| 19. 四書古人典林                  | 江永 撰             | 2 | 廣文書局 | 1978 |
| 20. 莊子淺說                    | 林紓 撰             | 2 | 廣文書局 | 1978 |
| 21. 孫子十家注                   | 魏武帝 解            | 1 | 廣文書局 | 1978 |
| 22. 湘綺樓說詩                   | 王闕運 著            | 1 | 廣文書局 | 1978 |
| 23. 李二曲全集                   | 李中孚 著            | 1 | 廣文書局 | 1978 |
| 24. 曝書亭集詞注                  | 朱彝尊 撰<br>李富孫 注   | 1 | 廣文書局 | 1978 |
| 25. 小倉山房尺牘箋釋                | 袁枚 著<br>胡光斗 箋釋   | 1 | 廣文書局 | 1978 |
| 26. 隨園詩法叢話                  | 袁枚 纂輯            | 1 | 廣文書局 | 1978 |
| 27. 旭書                      | 章太炎 著            | 1 | 廣文書局 | 1978 |
| 28. 鮑紅葉叢書                   | 鮑祖祥 輯            | 1 | 廣文書局 | 1978 |

- |             |              |    |             |      |
|-------------|--------------|----|-------------|------|
| 29. 詩詞韻輯    | 姚詩雅輯         | 1  | 廣文書局        | 1978 |
| 30. 唐三藏取經詩話 | 羅振玉等跋        | 1  | 廣文書局        | 1978 |
| 31. 中國藝術家徵略 | 李放撰          | 1  | 廣文書局        | 1978 |
| 32. 漢鏡歌釋文箋正 | 王先謙撰         | 1  | 廣文書局        | 1978 |
| 33. 近代名家畫寶  | 汪惟甫輯         | 1  | 廣文書局        | 1978 |
| 34. 中國文化史叢書 | 王雲五主編<br>平緯傳 | 50 | 臺灣商務印<br>書館 | 1978 |

1)中國俗文學史(上·下) 鄭篤 2)中國救荒史 鄭雲特 3)中國水利史 鄭肇經  
4)中國法律思想史 楊鴻烈 5)中國田賦史 陳登原 6)中國監政史 曾仰豐 7)中國  
稅制史(上·下) 吳兆華 8)中國政黨史 楊幼炯 9)中國政治思想史 楊幼炯  
10)中國道教史 傅勤家 11)中國理學史 賈豐臻 12)中國倫理學史 蔡元培 13)中  
國經學史 馬宗霍 14)中國目錄學史 姚名達 15)中國建築史 伊東忠大原著·陳  
清泉譯 16)中國民族史(上·下) 林惠祥 17)中國考古學史 衛聚賢 18)中國地  
理學史 王庸 19)中國駢文史 劉麟生 20)中國散文史 陳柱 21)中國韻文  
史 澤田總清原著·王鶴儀編譯 22)中國算學史 李人言 23)中國音韻學史(上·  
下各2卷) 世張祿 24)中國訓詁學史 胡樸安 25)中國文字學史(上·下各2卷)  
胡樸安 26)中國婦女生活史 陳東原 27)中國婚姻史 陳顧遠 28)中國殖民史  
李長傳 29)中國南洋交通史 馮承鈞 30)中國日本交通史 王輯五 31)中國交  
通史 白壽彝 32)中國教育思想史 任時先 33)中國小說史 郭斌一 34)中國音  
樂史 田邊尚雄著·陳清泉譯 35)中國繪畫史(上·下) 俞劍方 36)中國陶瓷史  
吳仁敬·辛安潮 37)中國醫學史 陳邦賢 38)中國商業史 王孝通 39)中國漁盜  
史 李士豪·屈若寒 40)中國度量衡史 吳洛

- |                   |      |     |       |      |
|-------------------|------|-----|-------|------|
| 35. 玉函山房輯佚書(1-6)  | 馬國翰輯 | 6   | 文海出版社 | 1974 |
| 36. 石刻史料叢書(1-60函) | 金石萃編 | 420 | 藝文印書館 |      |

1)隸釋(1-5) 5冊 2)隸釋(6-8) 3冊, 隸續 3冊 3)兩漢金石記 8冊 4)古刻叢  
鈔 1冊, 金琳琅 4冊 5-16)金石華編(1-82) 82冊 17)金石華編未刻彙 3冊,  
金石續編(1-4) 4冊 18)金石續編(5-12) 8冊 19-26)入瓊室金石補正(1-56)  
56冊 27)希古樓金石華編 4冊, 十二視齋金石過眼錄 4冊 28-29)陶齋藏石記  
(1-12) 12冊 30)金石苑 8冊 31-32)羅氏冢墓遺文(1-14) 14冊 33-35)山右  
石刻叢編(1-24) 24冊 36-73)常山貞石志(1-12) 12冊 38-39)山左金石志(1-  
12) 12冊 40-41)兩浙金石志(1-14) 14冊 42-43)江蘇金石志(1-16) 16冊  
44-45)甯右金石錄(1-10) 10冊 46)海東金石苑 4冊, 海東金石苑補遺 4冊  
47)集古錄 5冊, 元豐題跋 1冊 48)金石錄 5冊 49)寶刻叢編 8冊 50)寶刻類  
編 4冊, 輿地碑記日 2冊, 石墨鐫華 2冊 51)金石文字記 3冊, 曝書亭金石文  
字跋尾 2冊, 金石錄補 6冊 52)潛研堂金石文跋尾 6冊 53)潛研堂金石文字目

錄 2册, 揆堂金石跋 5册 54)鐵橋金石跋 1册, 平津讀碑記 4册, 海東金石存  
攷 1册 55)藝風堂金石文字目 8册 56)寰宇訪碑錄 2册, 寰宇訪碑錄刊謬 1册,  
寰宇訪碑錄校勘記 2册 57)補寰宇訪碑錄 2册, 補寰宇訪碑錄 刊誤 1册, 補寰  
宇訪碑錄 校勘記 1册, 續補寰宇訪碑錄 4册, 再續寰宇訪碑錄校勘記 1册  
58-60)金石彙目分編(1-22) 22册

37. 景印四部善本叢刊第一輯 王雲五主持 70 臺灣商務印書館  
1)武經七書 1-3册 2)南華真經 1-5册 3)昭德先生郡齋讀書誌 1-8册 4)太宗  
皇帝實錄 1-4册 5)重校三體圓 1-4册 6)春秋公羊疏 1-2册 7)永樂大典本水  
經注 1-8册 8)樂善錄 1-3册 9)謝幼槃文集 1-2册 10)編年通載 1-4册  
11)演蕃露 1-3册 12)山谷外集詩注 1-8册 13)詩本義 1-2册 14)說文解字  
1-5册 15)密菴稿 1-4册 16)乖崖先生文集 1-4册
38. 合佛燕京學社引得 燕京大學圖書館 29  
1)說苑引得 1册 2)白虎通引得 1册 3)引得說(特刊) 1册 4)歷代同姓名錄引  
得 1册 5)四庫全書總目及未收書目引得 1-2册 6)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作者引得 1册 7)藝文志二十種綜合引得 1-4册 8)佛藏子目引得 1-3册 9)太  
平廣記篇目及引書引得 1册 10)水經注引得 1-2册 11)爾雅引得 1册 12)宋  
詩紀事著者引得 1册 13)太平御覽引得 1册 14)文選注引書引得 1册 15)禮  
記引得 1册 16)春秋經傳注疏引書引得 1册 17)毛詩注疏引書引得 1册 18)三  
國志及裴注綜合引得 1册 19)漢書及補注綜合引得 1册 20)周禮引得 1册  
21)爾雅注疏引書引得 1册 22)後漢書及注釋綜合引得
39. 潛夫論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0. 淮南子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1. 呂氏春秋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2. 方言校箋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3. 輟耕錄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4. 風俗通義附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5. 大金國志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6. 文心雕龍新書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7. 戰國策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8. 山海經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49. 新序通檢 1 成文出版社 1968  
50. 四書全經總目(1-8) 8 藝文印書館 1979  
51. 周秦漢魏諸子知見書目 嚴靈峯編著 6 正中書局 1979  
(1-6)

52. 國學論文索引(上·中·下)	國立北平圖書館編	3	維新書局	1968
53. 二十五史人名索引	臺灣開明書店編者	1	臺灣開明書店	1977
54. 詩經傳說彙纂	蔣紀周發行	1	維新印刷廠	1978
55. 國學基本叢書(400種)	王雲五主編	2380	臺灣商務印書館	
56. 叢書集成簡編	王雲五主編	861	臺灣商務印書館	1966

## II. 哲學·宗教

書名	著(編)者	冊數	出版社	年度
57. 吳子今註今譯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6
58. 孫子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59. 新序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7
60. 大戴禮記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7
61. 尉繚子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7
62. 司馬法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7
63. 墨子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64. 黃石公三略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69
65. 孝經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66. 說苑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67. 韓詩外傳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68. 荀子今註今譯	"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69. 春秋公羊傳今註今譯(上·下)	"	2	臺灣商務印書館	1976

70.	史記今註(1-6)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6	臺灣商務印書館	1980
71.	中國歷代經籍典(1-8)	臺灣中華書局編輯部	8	臺灣中華書局	1970
72.	中國歷代思想家(1-10)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	10	臺灣商務印書館	1979
73.	周易今註今譯	王雲五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74.	中庸今註今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75.	尚書今註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76.	莊子今註今譯(上·下)	王雲五編	2	臺灣商務印書館	1978
77.	禮記今註今譯(上·下)	王雲五編	2	臺灣商務印書館	1980
78.	孟子今註今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79.	周禮今註今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80.	大學今註今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9
81.	論語今註今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69
82.	老子今註今譯及評介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83.	詩經今註今譯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84.	荀子集解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8
85.	荀子約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86.	新語, 新書, 春秋繁露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87.	鹽鐵論, 新序, 說苑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8
88.	法言義疏(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68
89.	潛夫論, 申鑒, 中論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90.	家語等五十七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2

91. 老子新考述略 老子本義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3
92. 莊子集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93. 莊子集解，列子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8
94. 管子，商君書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3
95. 韓非子集解等九種	楊家推編	1	世界書局	1974
96. 名家六書，墨經校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97. 定本墨子閒詁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98. 墨子閒詁箋等七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99. 鬼谷子等九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100. 呂氏春秋集釋 (上·中·下)	楊家駱編	3	世界書局	1975
101. 淮南子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8
102. 論衡集解(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5
103. 雜家震家等州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104. 諸子治要，意林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105. 諸子平義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3
106. 諸子平義補錄， 諸子管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107. 隨唐子書十種(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67
108. 宋四子抄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2
109. 張子正蒙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110. 近思錄集解，北 溪字義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111. 朱子年譜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3
112. 陸象山全集，陽 明傳習錄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113. 朱舜水全集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114. 日知錄集釋(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115. 黎州船山五書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116. 四存編，原善， 孟子字義疏證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117. 朱子語類(1-8)	黎靖德	8	正中書局	1973
118. 四書今註今譯	王雲五主編	1	臺灣商務印 書館	1979



119.	許慎之經學	黃永武著	1	臺灣中華書局	1972
120.	魏晉思想論	本局編輯部編	1	臺灣中華書局	1979
121.	燕丹子墨子	宋墨翟撰	1	臺灣中華書局	1966
122.	經學概述	裴普賢著	1	臺灣開明書店	1978
123.	六經道論	褚柏思著	1	臺灣開明書店	1971
124.	十三經索引		1	臺灣開明書店	1978
125.	十三經經文(斷句)		1	臺灣開明書店	1978
126.	孟子荀哲學證義	黃公偉編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5
127.	中國近代學術思想變遷史	黃公偉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128.	中國思想之研究(1-3)	宇野精一編	3	幼獅文化事業公司	1979
		1)儒家思想 2)道家與道教思想 3)墨家·法家·邏輯思想			
129.	宋明清理學體系論史	黃公偉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1
130.	先秦諸子導讀	徐文珊著	1	幼獅書店	1972
131.	梁啟超教育思想	鄭世興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80
132.	先秦兩漢之陰陽五行學說	李漢三原編	1	維新書局	1968
133.	六祖壇經箋註		1	維信書局	1977
134.	四書發微類編	徐文珊編著	1	維信書局	1979
135.	老子辭證譯釋	張揚明編	1	維新書局	1971
136.	經學源流考	清甘鵬雲原編	1	維新書局	1968
137.	經義彙記(上·下)	清藏玉林原編	2	維新書局	1968
138.	哲學概論	王文俊編著	1	正中書局	1976
139.	哲學大綱	Bertrand Russel著 正中書局審委員會譯	1	正中書局	1975
140.	中國哲學概論	王璧如譯	1	正中書局	1970
141.	心體與性體(1-3)	牟宗三著	3	正中書局	1979

142.	王陽明全書	正中書局編審委員會	4	正中書局	1979
143.	王陽明傳習錄	正中書局編審委員會著	1	正中書局	1980
144.	大學中庸今釋	陳槃譔述	1	正中書局	1976
145.	中庸探微	陳兆榮	1	正中書局	1977
146.	四書通論	內野台嶺原著 鄭明東譯述	1	正中書局	1972
147.	大學中庸精注	國學萃編，萬心權，蔡愛仁注	2	正中書局	1979
148.	孟子會箋	國文教材編輯室輯	1	正中書局	1979
149.	孟子本義	胡毓寶編著	1	正中書局	1972
150.	孟子分類選注	孫云遐選注	1	正中書局	1970
151.	詩經選注	國學萃編，屈萬里選注	1	正中書局	1979
152.	孔墨思想乙比較	周長耀著	1	正中書局	1979
153.	孔子學說	陳大齊著	1	正中書局	1979
154.	孔子學說論集	陳大齊著	1	正中書局	1978
155.	老子哲學	張起鈞	1	正中書局	1970
156.	宋元學案	國立編譯館重編	4	正中書局	1976
157.	孔子哲學思想源流	唐華著	1	正中書局	1977
158.	墨子思想之研究	周長耀	1	正中書局	1977
159.	墨經哲學	本局編委會編	1	正中書局	1974
160.	明儒學案(上·下)	李心莊編	2	正中書局	1979
161.	莊子選注	嚴靈峯編	1	正中書局	1971
162.	美學原理	Benedetto Croce原著 正中書局重譯	1	正中書局	1979
163.	顏子研究	黃紹祖撰	1	正中書局	1977
164.	韓非子研究	趙海金編著	1	正中書局	1977
165.	儒家倫理思想	顧兆駿編著	1	正中書局	1967
166.	王陽明聖學探討	鄧元忠撰	1	正中書局	1975
167.	諸子通考	蔣伯潛編著	1	正中書局	1978
168.	朱子語類日鈔	陳澧編	1	正中書局	1971
169.	經學纂要	蔣伯潛編著	1	正中書局	1969

170.	禮記選注	王夢鷗選注	1	正中書局	1976
171.	中國先賢學說	胡懷琛編著	1	正中書局	1977
172.	中國道德思想精義	張定宇著	1	正中書局	1977
173.	儒家倫理思想述要	劉真著	1	正中書局	1976
174.	名理論叢	陳大齊著	1	正中書局	1968
175.	孔子的道德哲學	葉經柱著	1	正中書局	1979
176.	墨子選注	李漁叔選注	1	正中書局	1977
177.	哲學概論	吳康·周世輔著	1	正中書局	1979
178.	比較倫理學	黃建中編	1	正中書局	1979
179.	論語今釋 (上·中·下)	趙龍文講述 錢中鳴筆記	3	正中書局	1977

## V. 語 文 學

書 名	著(編)者	冊數	出版社	年度
180. 韻史(1-14)	何萱撰著	14	臺灣商務印書館	1936
181. 古文辭類纂評註(1-4)	王文濡評校	6	臺灣中華書局	1970
182. 四聲韻譜	梁僧寶撰	1	廣文書局	1967
183. 甲骨學(上·下)	嚴一萍撰	2	藝文印書館	1978
184. 董作賓先生全集(1-12)	董作賓著	12	藝文印書館	1977
185. 漁洋精華錄箋註(1-2)	金榮箋註	2	臺灣中華書局	1968
186. 吳稚暉先生全集(1-18)	羅家倫, 黃季陸編	18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1969
1)哲理 2)文教 3)文教 4)科學與工藝 5)國音與文字學 6)國音與文字學 7)國是與黨務 8)國是與黨務 9)國是與黨務 10)國是與黨務 11)山川人物 12)山川人物 13)山川人物 14)山川人物 16)雜著 17)雜著 18)雜著,附錄				
187. 戴季陶先生文存續編	陳天錫編	1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1967
188. 戴季陶先生文存三續編	陳天錫編	1	"	1971
189. 聊齋全集選注(上·下)	劉階平編	2	臺灣中華書局	1975
190. 經史百家雜鈔(1-4)		4	臺灣中華書局	1973
191. 李太白詩集(1-3)		3	臺灣中華書局	1975
192. 清初鼓詞俚曲選(1-4)	劉階平編著	4	正中書局	1968

193.	書傭論學集	屈萬里著	1	臺灣開明書店	1980
194.	梅園論學集	戴君仁著	1	臺灣開明書店	1970
195.	說文解字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2
196.	說文通訓定聲(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2
197.	詩詞曲語辭滙釋 (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8
198.	古書疑義例等七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199.	六書音均表 說文段注撰要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2
200.	楚辭注八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2
201.	曹子建集評注二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3
202.	陶靖節集注 鮑參軍詩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03.	王摩詩全集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04.	李太白全集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05.	杜詩錢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06.	文文山全集		1	世界書局	1965
207.	鐵函心史 廷平二王遺集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208.	曾文正公全集(1-5)	楊家駱編	5	世界書局	1978
209.	十八家詩鈔(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210.	古文辭類纂注 (上·中·下)	楊家駱編	3	世界書局	1977
211.	全唐五代詞(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67
212.	南唐二主詞·陽春集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5
213.	二晏詞六一詞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214.	樂章集·東坡樂府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9
215.	蘇門四學士詞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216.	張子野詞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217.	稼軒長短句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218.	白石道人歌曲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219.	夢窗詞集補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220.	納蘭詞·水雲樓詞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6
221.	樵風樂府·彊村語業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222.	蕙風詞 蕙風詞話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223.	花間集等三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8
224.	詞綜(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68
225.	近代詞選三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8
226.	詞律(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227.	詞林正韻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2
228.	世說新語(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229.	唐摭言·唐語林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230.	剪燈新話等九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31.	聊齋志異(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232.	水滸傳楊	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33.	水滸後傳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8
234.	三國演義(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5
235.	陸放翁全集(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80
236.	平妖傳·四遊記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8
237.	西遊記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38.	西遊補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9
239.	東周列國志(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9
240.	玉台新詠·古詩源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6
241.	初刻拍案驚奇(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5
242.	今古奇觀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6
243.	二刻拍案驚奇(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5
244.	石點頭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245.	斬鬼傳·儒林外史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246.	醒世姻緣(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8
247.	野叟曝言(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8
248.	紅樓夢(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3
249.	鏡花緣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250.	三俠五義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251.	官場現形記(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252.	文明小史等三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8
253.	二十年目睹之怪現狀 (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5
254.	痛史, 恨海, 九命奇 冤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255.	老殘遊記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256.	孽海花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6
257.	續孽海花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0
258.	夢溪筆談校證(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8
259.	隋唐演義(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68
260.	詩人玉屑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261.	中國笑話書七十一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80
262.	敦煌變文(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80
263.	中國歌謠·中國俗文學概論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80
264.	中國文學家大辭典(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4
265.	宋元平話四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266.	文心雕龍注等六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6
267.	古今文綜(1-6)	張相譔錄	6	臺灣中華書局	1962
268.	說郛(1-8)	陶綜儀編	8	臺灣商務印書館	1972
269.	續說郛(1-3)	陶珽撰	3	新興書局	1972
270.	盛明雜劇(1-6)	明沈泰編	6	廣文書局	1979
271.	太平御覽(1-7)	王雲五主持	7	臺灣商務印書館	1980
272.	太平廣記附:索隱(1-5)	宋李昉撰	5	新興書局	1979
273.	古文辭通義(上·下)	王葆心著	2	臺灣中華書局	1965
274.	中國近代小說史料彙編(1-26)	廣文編譯所編	26	廣文書局	

1)石點頭十二樓 2)江湖怪異傳, 今古奇聞, 繁華夢 3)奇聞怪見錄, 桃花女鬥法六月雪, 鬼話 4)九尾狐, 秘本蓋三國奇錄, 再生緣 5)驚人奇案, 客中消遣錄, 九命奇冤 6)鐵花仙史, 苗宮夜合花, 趣味奇譚, 武則天歷史演義 7)袁世凱演義, 蘇小小全史, 西施演義, 西廂記故事新編, 海上蜃樓 8)蝶花劫, 西廂記演義, 海棠箋哀史蕙芳秘密日記 9)情海指南, 花月尺牘, 余之妻, 蘭蘭浪 10)藝蘭日記, 芳草天涯, 雙熱浪罷, 啼鵲錄 11)留西外史, 黃金崇, 火中蓮 12)青泥蓮花記, 羽翠麟紅集 13)茶餘隨筆, 古今騙術大觀, 殘墨, 蓮英痛史 14)孽海濤 15)崇禎慘史, 浪漫情史, 蝶媒恨, 梅雪爭芳記 16)雙淚痕, 返生香, 名花劫, 明珠緣 17)六十萬元之慘史, 思齊錄, 六合內外瑣言 18)燕子李三, 繪圖鴛鴦夢, 新編王燕姻緣傳記, 繡像白牡丹 19)繪圖續今古奇觀, 繡像

雙鳳奇緣，繡像金台金傳 20)四才子平山冷燕，繡像花月痕全傳，蕙鄉贊筆  
 21)繪圖筆生花 22)夢歷雜著，不可說，金不換 23)水滸人物論贊，艷鏡  
 24)孽海花 25)續孽海花 26)石頭記索隱，斷鴻零雁記，上海黑幕一千種，古  
 今妖怪大觀，此中人語

- |      |   |               |    |              |      |
|------|---|---------------|----|--------------|------|
| 275. | 六十種曲(1-12)  | 毛晉編           | 12 | 臺灣開明書店       | 1970 |
| 276. | 戚蓼生序鈔本石頭記<br>(1-4)  |               | 4  | 廣文書局         | 1977 |
| 277. | 庚辰鈔本石頭己<br>(1-4)  |               | 4  | 廣文書局         | 1977 |
| 278. | 程乙本新鐫全部繡<br>像紅樓夢  |               | 6  | 廣文書局         | 1977 |
| 279. | 程丁本新鐫全部繡<br>像紅樓夢(1-6)   |               | 6  | 廣文書局         | 1977 |
| 280. | 王希廉評本新鐫全<br>部繡像紅樓夢(1-8)   |               | 8  | 廣文書局         | 1977 |
| 281. | 乾隆鈔本百二十回<br>紅樓夢稿(上·下)   |               | 2  | 廣文書局         | 1977 |
| 282. | 平劇史料叢刊(14冊)   | 劉紹唐·沈葦窗<br>主編 | 14 | 傳記文學出<br>版社  | 1974 |
|      | 1)富連成三十年史，1冊 2)京劇二百年歷史，1冊 3)京戲近百年瑣記，1冊<br>4)源代燕都梨園史料續編，1冊 6)菊部叢刊，2冊 7)菊部叢譯，1冊 8)梨園<br>影事，1冊 9)梨園話，1冊 10)譚鑫培全集，四郎探母全集，1冊 11)大戲考，<br>1冊 |               |    |              |      |
| 283. | 孤本元明雜劇(1-10)  | 元王實甫等撰        | 10 | 臺灣商務印書<br>館  | 1977 |
| 284. | 新古文辭類纂(1-6)   | 蔣瑞藻輯          | 6  | 臺灣中華書局       | 1967 |
| 285. | 六十年來之國學(1-5)  | 程發軔編          | 5  | 正中書局         | 1974 |
| 286. | 散曲叢刊(1-4)   | 任中敏選          | 4  | 臺灣中華書局       | 1980 |
| 287. | 杜詩鏡銓(上·下)   | 楊倫輯           | 2  | 臺灣中華書局       | 1975 |
| 288. | 中國文學史(上·下)  | 李鼎彝著          | 2  | 傳記文學出版<br>社  | 1978 |
| 289. | 中國戲曲史(1-4)  | 孟瑤著           | 4  | 傳記文學出版<br>社  | 1979 |
| 290. | 唐代的詩人們  | 前野直彬著         | 1  | 幼獅文化事業<br>公司 | 1978 |
| 291. | 現代詩論衡   | 張漢良著          | 1  | 幼獅文化事業<br>公司 | 1978 |

292.	中國語言學論集	幼獅月刊社編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293.	中國古典小說論集第一輯	林以亮等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294.	中國古典小說論集第二輯	夏志清等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295.	詩經研究	白川靜著 杜正勝譯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296.	當代中國小說論評	高全之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297.	中國詩學	劉若愚原著 杜國清中譯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298.	國學治要(1-8)	張文治編	8	臺灣中華書局	1968
	1)經傳治要 2)史書治要 3)諸子治要 4)理學治要 5)古文治要(上) 6)古文治要(下) 7)詩詞治要 8)書目治要				
299.	曲學例釋	汪經昌著	1	臺灣中華書局	1979
300.	六也曲譜(上·F)	怡庵主人編	2	臺灣中華書局	1977
301.	國學概論(上·中·下)	程發軔著	3	正中書局	1979
302.	藝術的奧秘	姚一葦著	1	臺灣開明書店	1979
303.	陶淵明批評	蕭望卿編著	1	臺灣開明書店	1978
304.	小說詞語匯釋	臺灣中華書局 編輯部編	1	臺灣中華書局	1978
305.	繪畫與文學	臺灣開明書店	1	臺灣開明書店	1978
306.	文藝心理學	臺灣開明書店	1	臺灣開明書店	1979
307.	中國文學批評史大綱	臺灣開明書店	1	臺灣開明書店	1979
308.	談 美	臺灣開明書店	1	臺灣開明書店	1979
309.	文言虛字	臺灣開明書店	1	臺灣開明書店	1979
310.	中國文法論	何容著	1	臺灣開明書店	1978
311.	文法與作文	黃潔如編	1	臺灣開明書店	1978
312.	北平音系小叢編	張洵如編著	1	臺灣開明書店	1972
313.	國音字彙	方師鐸輯	1	臺灣開明書店	1978
314.	古籍導讀	屈萬里著	1	臺灣開明書店	1979
315.	中國音韻學研究	高本漢著	1	臺灣商務印書館	1975
316.	國音標準彙編	臺灣省國語推行委員會編	1	臺灣開明書店	1979



317.	中國文學發達史	臺灣中華書局 編輯部編	1	臺灣中華書局	1979
318.	詩詞曲語辭匯釋	張 相著	1	臺灣中華書局	1978
319.	中國聲韻學通論	林 尹著	1	世界書局	1977
320.	中國大陸反共文藝思潮	王章陵著	1	黎明文化事業公司	1979
321.	論中共的文字改革	汪學文著	1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322.	中國書學輯要	潘維鑑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80
323.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叢刊；文學批評	張健·簡錦松編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80
324.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戲劇類	曾永義·陳芳英編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80
325.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叢刊；小說類	樂蘅軍·康來新編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80
326.	文學欣賞與批評	W. L. G., E. G. L. L. M., J. R. W編 徐進夫譯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9
327.	文藝選粹(第二集)	中華文化復興運動委員會文藝研究促進委員會編選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7
328.	中國詩歌史	張敬文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0
329.	元詩研究	包根弟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330.	中國文學概論	褚柏思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0
331.	詩聖杜甫對後世詩人的影響	胡傳安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332.	文學原理概論	黃公偉著	1	維新書局	1977
333.	成吉思汗之歌	丁向賓編著	1	維新書局	1973
334.	中國語文津梁	侯傳勛著	1	維新書局	1978
335.	文論講疏	許文雨編著	1	正中書局	1976
336.	胡林翼集		1	正中書局	1969
337.	詩詞曲韻總檢	盧元駿	1	正中書局	1978
338.	繪圖列女傳(上·下)	仇英繪圖	2	正中書局	1979

339.	南有堂集，娛書堂詩話	王穉登 趙興誠撰	1	正中書局	1970
340.	讀書改過齋叢錄	陳鶴撰	1	正中書局	1969
341.	鶴林玉露	羅大經撰	1	正中書局	1969
342.	六十年散文選(1-2)	王志健外	2	正中書局	1972
343.	五十年來中國俗文學	臧子匡，朱介凡 編著	1	正中書局	1975
344.	大小戴記選注	中央政治學校 國文教材編	1	正中書局	1971
345.	唐詩集解(上·中·下)	許文雨集注	3	正中書局	1977
346.	現代中國文學史話	劉心皇 著	1	正中書局	1979
347.	吳康先生全集 續編	吳康著	1	正中書局	1980
348.	六十年詩歌選	王志健外編選	1	正中書局	1976
349.	中華民國文藝史	尹雲曼編	1	正中書局	1976
350.	詩品注	國學萃編	1	正中書局	1979
351.	賦選注	傅隸樸選注	1	正中書局	1977
352.	詩選注	國學萃編	1	正中書局	1975
353.	先秦文學選注	國學萃編	1	正中書局	1968
354.	駢文選注	成惕軒選注	1	正中書局	1974
355.	校讎目錄學纂要	蔣伯潛編著	1	正中書局	1969
356.	漢書藝文志問答	正中書局編審 委員會編	1	正中書局	1976
357.	文選李善注引尚書考	葉程義編著	1	正中書局	1975
358.	三國志選注	國學萃編	1	正中書局	1972
359.	明清散文選注	國學萃編 孔德成選注	1	正中書局	1979
360.	唐宋散文選注	申丙選注	1	正中書局	1978
361.	陸游評傳	劉維崇著	1	正中書局	1979
362.	五十年來的中國詩歌	葛賢寧·上官 子編著	1	正中書局	1976
363.	唐詩宋詞選	葉楚儉編	1	正中書局	1977
364.	歷代名家筆記類選	葉楚儉編	1	正中書局	1980
365.	唐宋散文選	葉楚儉編	1	正中書局	1978
366.	明清散文選	葉楚儉編	1	正中書局	1968
367.	元明清曲選	葉楚儉編	1	正中書局	1968

368.	革命詩文選	唐盧鋒編著	1	正中書局	1977
369.	孟玉詞譜(1-3)	孟玉沈英名著	3	正中書局	1980
370.	晚清宮庭實紀	吳相湘著	1	正中書局	1977
371.	文學研究法	郭象升編著	1	正中書局	1970
372.	賦史大要	鈴木虎雄著	1	正中書局	1976
373.	宋詞辨正	沈英名著	1	正中書局	1978
374.	飲水詞箋	李勛 編注	1	正中書局	1973
375.	僞楚錄輯補	朱希祖著	1	正中書局	1969
376.	先浩氣詩選注	張長弓編著	1	正中書局	1970
377.	敦煌雲謠集新校訂	沈英名撰	1	正中書局	1979
378.	王平陵先生論文集	王平陵著	1	正中書局	1975
379.	文學論	王志健編著	1	正中書局	1979
380.	現代文學批評面面觀	格瑞柏斯坦著	1	正中書局	1979
381.	話說人物	臬子匡著	1	正中書局	1978
382.	三國晉南北朝文選	葉楚傖編	1	正中書局	1975
383.	大學國文選	國立編譯館大學用書編輯委員會編選	1	正中書局	1972
384.	學術論文規範	宋楚瑜編	1	正中書局	1977
385.	訓詁學槩要	林尹撰	1	正中書局	1972
386.	漢學論集	周法高著	1	正中書局	1977
387.	文字學概說	林尹編著	1	正中書局	1978
388.	修辭學	傅謙樸著	1	正中書局	1977
389.	文字學論叢	杜學知著	1	正中書局	1974
390.	中國語文論叢	周法高編著	1	正中書局	1963
391.	玄圃遺書(上·下)	邵元沖著	2	正中書局	1954
392.	歷代名人短簡	葉楚傖編	1	正中書局	1978
393.	三國人物論	祝秀俠編	1	正中書局	1975
394.	文藝選粹(第一集)	中華文化復興運動委員會·文藝研究促進委員會選編	1	正中書局	1972
395.	詩人元遺山研究	李冠禮著	1	正中書局	1975
396.	右任詩文集(1-3)	千右任著	3	正中書局	1973
397.	唐代詩學	正中書局編審委員會編著	1	正中書局	1973

398.	現代文學與新存在主義	尹雪曼著	1	正中書局	1975
399.	國學萃編·楚辭精注	何敬羣著	1	正中書局	1978
400.	宋詞賞心錄校評	端木埙選錄	1	正中書局	1975
401.	四照花室曲稿	盧元駿著	1	正中書局	1970
402.	國劇故事溯源(1-7)	孫賢照編著	7	正中書局	1977
403.	談修養	張羣著	1	中央文物供應社	1979
404.	中國文學家故事	李滄, 方祖榮, 邱燮友著	1	中央文物供應社	1978
405.	西廂記雜劇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6
406.	孤本儒函數額(1-24)	王雲五主持	24	臺灣商務印書館	1970

## VI. 歷史

書名	著(編)者	冊數	出版社	年度
407. 資治通鑑(1-20)	司馬光撰	20	臺灣中華書局	1976
408. 續資治通鑑	畢沅撰	14	臺灣中華書局	1970
409. 冊府元龜(1-20)	臺灣中華書局	20	臺灣中華書局	1972
1)帝王部一 2)帝王部一(續), 帝王部二 3)帝王部二(續) 4)帝王部二(續), 閩位部 5)閩位部二(續), 僭偽部, 列國君部 6)列國君部(續), 儲宮部, 宗室部, 外戚部 7)外戚部(續), 宰輔部, 將帥部一 8)將帥部一(續) 9)將帥部一(續), 將帥部二 10)將帥部二(續), 臺省部, 邦計部 11)邦計部(續), 憲官部, 諫諍部 12)詞臣部, 國史部, 掌禮部, 國史部, 學校部 13)學校部(續), 刑法部 14)令長部(續), 宮臣部, 幕府部, 陪臣府, 總錄部一 15)總錄部一(續) 16)總錄部一(續), 總錄部二 17)總錄部二(續) 18)總錄部二(續) 19)總錄部二(續), 總錄部三, 外臣部 20)外臣部(續), 附類目索引				
410. 二十五史(1-9)	二十五史刊行委員會編	9	臺灣開明書店	1974
1)史記, 漢書, 後漢書 2)三國志, 晉書, 宋書, 南齊書, 梁書 3)陳書, 魏書, 北齊書, 周書, 隋書, 南史 4)新唐書, 五代史, 新五代史 5)宋史 6)宋史上 7)宋史下, 遼史, 金史 8)元史, 新元史 9)明史				
411. 二十五史補編(1-6)	二十五史刊行委員會編	6	臺灣開明書店	1974

412. 明清史料(1-15)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編 15 維新書局 1972.
- 1)甲編 第一本至第三本 2)甲編 第四本至第六本 3)甲編 第七本至第十本  
 4)乙編 第一本至第三本 5)乙編 第四本至第六本 6)乙編 第七本至第十本  
 7)丙編 第一本至第三本 8)丙編 第四本至第六本 9)丙編 第七本至第十本  
 10)丁編 第一本至第三本 11)丁編 第四本至第六本 12)丁編 第七本至第十本  
 13)戊編 第一本至第三本 14)戊編 第四本至第六本 15)戊編 第七本至第十本
413. 大清歷朝實錄(1-94) 94 華文書局股份有限公司 1970
- 1)太祖高皇帝, 1册 2)太宗文皇帝, 2册 3)世祖章(順治)皇帝, 3册 4)聖祖仁(康熙)皇帝, 6册 5)世宗憲(雍正)皇帝, 3册 6)高宗純(乾隆)皇帝, 30册  
 7)仁宗睿(嘉慶)皇帝, 8册 8)宣宗成(道光)皇帝, 12册 9)文宗顯(咸豐)皇帝, 8册 10)穆宗毅(同治)皇帝, 10册 11)德宗景(光緒)皇帝, 8册 12)宣統帝, 2册 13)總目, 1册
414. 宋元明善本叢書 王雲五主編 100 臺灣商務印書館 1969  
 (1-100)
- 1)百陵學山, 6册 2)子彙, 5册 3)歷代小史, 12册 4)夷門廣牘, 16册 5)兩京遺編, 8册 6)交獻彙言, 4册 7)古今逸史, 20册 8)紀錄彙編, 26册 9)濟生拔粹, 2册 10)武經七書, 1册
415. 民國史料叢書 吳相湘·劉紹唐主編 38 傳記文學出版社 1971  
 (1-38)
- 1)第一次 中國教育年鑑, 5册 2)第二次 全國教育會議始末記, 1册 3)專科以上學校教員名, 2册 4)國立中山大學現況, 1册 5)國立北京大學紀念刊, 3册 6)國立武漢大學一覽, 1册 7)江蘇教育概覽, 2册 8)定縣農民教育, 2册 9)中國經濟志, 2册 10)東三省經濟實況攬要, 1册 11)貴州經濟, 3册 12)杭州市經濟調查, 2册 13)中國農業論文索引, 3册 14)江蘇武進南通田賦調查報告, 1册 15)試辨句容縣人口農業總調查報告, 1册 16)西湖博覽會籌備特刊, 2册 17)魯案善後月報特刊—鐵路, 1册 18)正太鐵路接收紀念刊, 1册 19)粵漢鐵路株韶通車紀念刊, 1册 20)江河修防紀要, 1册 21)中國銀行二十四年發展史, 1册 22)抗戰前後中國鐵路建設的奮鬥, 1册
416. 資治通鑑今註 司馬光撰 15 臺灣商務印書館 1978  
 (1-15)
417. 宋范文正公(仲淹)年譜 王雲五主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8
418. 金元遺山先生(好問)年譜 王雲五主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8

- |      |             |       |   |         |      |
|------|-------------|-------|---|---------|------|
| 419. | 明倪文正公(元璐)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0. | 宋周濂溪先生惇頤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1. | 清曾文正公(國藩)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2. | 清岑襄勤公毓英年譜   | 清張藩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3. | 周孟子年譜       | 元程復心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4. | 國民王靜安先生國維年譜 | 趙萬里撰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5. | 周孔子論語年譜     | 元程復心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6. | 三國蜀諸葛武侯亮年表  | 清張鵬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7. | 宋司馬文正公光年譜   | 王雲五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8. | 唐杜少陵先生甫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29. | 唐李太白先生白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0. | 唐柳先生宗元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1. | 明王船山先生夫之年表  | 張四堂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2. | 清王湘綺先生閩運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3. | 宋元戴剡源先生表元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4. | 晉陶靖節先生潛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5. | 清顧亭林先生炎武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6. | 漢劉向, 歆父子年譜  | 王雲五主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7. | 清崔東壁先生述年譜   | 王雲五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 438. | 清章實齋先生學誠年譜  | 王雲五編  | 1 | 臺灣商務印書館 | 1978 |

439.	唐元微之先生稹年譜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8
440.	清蒲松齡先生留仙年譜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8
441.	唐杜君鄉先生佑年譜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442.	宋岳武穆公飛年譜	王雲五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80
443.	後漢賈景伯先生達年譜 後漢馬季長先生融年譜	王雲五主編	1	臺灣商務印書館	1978
444.	先秦史	臺灣開明書店	1	臺灣開明書店	1977
445.	兩晉南北朝史	臺灣開明書店編譯部	2	臺灣開明書店	1977
446.	宋代政教史	劉伯驥	2	臺灣中華書局	1971
447.	秦漢史	臺灣開明書店編譯部	1	臺灣開明書店	1977
448.	舊唐書校勘記附舊唐書逸文		2	正中書局	1971
449.	逸周書集訓校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450.	竹書紀年八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451.	國語韋氏解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5
452.	戰國策(上·中·下)	楊家駱編	3	世界書局	1977
453.	吳越春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454.	越絕書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455.	華陽國志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9
456.	洛陽伽藍記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457.	水經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80
458.	徐霞客遊記(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5
459.	國史年表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6
460.	帝王世系圖三種 史譚譜例二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461.	明記(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67
462.	重訂清鑑綱目(上·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67
463.	梁任公年譜長編(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2

464.	史通通釋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3
465.	文史通通釋等三種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4
466.	廿二史劄記 (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80
467.	廿五史述要	楊家駱編	1	世界書局	1977
468.	讀通鑑論(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3
469.	中國文化史(上·下)	楊家駱編	2	世界書局	1979
470.	續資治通鑑編(1-15)	楊家駱編	15	世界書局	1974
471.	皇朝經世文編(1-8)	楊家駱編	8	世界書局	1964
472.	清朝經世文編及索引 八種彙刊(1-46)	楊家駱主編	46	文海出版社	1973
	1-8)文編 9-13)文續編 14-15)文三編 16-17)文四編 18-20)文新編 21-22)文新編續集 23)文新增時洋務續編 24-45)文編續編 46)總目錄索引 (日本：近代中國研究委員編)				
473.	中央研究院歷史語言 研究所集刊(1-22)	中央研究院歷史 語言研究所集刊 編輯委員會編	24	維新書局	1971
474.	清史列傳(1-10)	中華書局編	10	臺灣中華書局	1964
475.	萬曆邸鈔(1-3)	國立中央圖書館 出版	3	正中書局	1969
476.	漢魏叢書(1-2)	程榮校刻	2	維興書局	1977
477.	民國大事日誌 (1-2)	劉紹唐編	2	傳記文學出版 社	1979
478.	左傳選讀	臺灣開明書店選	1	臺灣開明書店	1975
479.	文史小史	宋海屏著作	1	臺灣開明書店	1970
480.	史記考索	臺灣開明書店編	1	臺灣開明書店	1976
481.	春秋史	童書業著作	1	臺灣開明書店	1978
482.	中國通史	胡 軌著	1	幼獅文化事業 公司	1977
483.	中國近代史	近代史教學研討 會編	1	幼獅文化事業 公司	1979
484.	中國近代現代史	國立編譯館編	1	幼獅文化事業 公司	1974
485.	臺灣通史	連 橫著	1	幼獅文化事業 公司	1979
486.	民國史二十講	李雲漢等編	1	幼獅文化事業 公司	1979



487.	中國史學論文選集 (1-3)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	3	幼獅文化事業公司	1979
488.	臺灣古蹟概覽	林衡道·陳秀芳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8
489.	中共史學批判論集	吳安家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9
490.	理論與歷史 (Theory and History)	米塞斯著	1	幼獅文化事業公司	1973
491.	中國史學概論	徐文珊編	1	維新書局	1973
492.	中國歷朝興亡紀	高越天編	1	維新書局	1974
493.	黃埔簡史	龔樂羣編著	1	正中書局	1971
494.	中華文化概論	徐久珊著	1	維新書局	1980
495.	史記今釋	楊家駱編	1	正中書局	1971
496.	韓國史大觀	李丙燾著 許宇成譯	1	正中書局	1979
497.	夷事六	國立中央圖書館	1	國立中央圖書館	1970
498.	中國國民黨八十年大事年表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1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1974
499.	七十年來之中國國民黨與中國	羅家倫著	1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1973
500.	北伐簡史	國防部史政局	1	正中書局	1970
501.	故宮文物淺說	索予明著	1	正中書局	1970
502.	北亞游牧民族與中原農業民族間的和平戰爭與貿易之關係	札奇斯欽著	1	正中書局	1977
503.	唐代政制史	楊樹藩著	1	正中書局	1974
504.	王安石新法研述	帥鴻勳著	1	正中書局	1973
505.	中國通史(下·上)	羅香林著	2	正中書局	1977
506.	俄國史(上·下)	李邁先編	2	國立編譯館	1979
507.	國史唯疑	黃景防著	1	正中書局	1969
508.	國史百詠	江陳詩撰	1	正中書局	1980
509.	史學概要	李宗侗編著	1	正中書局	1977
510.	史學通論	周簡文撰	1	正中書局	1977
511.	中國歷代帝王譜系彙編	賈虎臣編著	1	正中書局	1978
512.	中國史綱 (上古篇)	張蔭麟編著	1	正中書局	1977

- |  |                  |                              |    |                 |      |
|--|------------------|------------------------------|----|-----------------|------|
| 513.   | 歷代中興復國史述要        | 任映滄編著                        | 1  | 正中書局            | 1970 |
| 514.   | 蒙古與西藏歷史關係之研究     | 札奇斯欽著                        | 1  | 正中書局            | 1978 |
| 515.   | 宋史新探             | 蔣復璁編著                        | 1  | 正中書局            | 1975 |
| 516.   | 清代史              | 孟林編著                         | 1  | 正中書局            | 1979 |
| 517.   | 東北史論叢<br>(上·下)   | 姚從吾編                         | 2  | 正中書局            | 1976 |
| 518.   | 中國近代史論叢          | 包遵彭·李定一<br>吳相湘編              | 18 | 正中書局            | 1975 |
| 第1輯 1)史料與史學 2)中西文化交流 3)早期中外關係 4)太平軍 5)自強運動 6)第1次中日戰爭 7)維新與保守 8)中華民國之建立 9)第2次中日戰爭 10)俄帝之侵略 第2輯 1)不平等條約與平等新約 2)社會經濟 4)華僑 5)政治 6)教育 7)邊疆 8)學述思想 |                  |                              |    |                 |      |
| 519.   | 中國現代史            | 郭庭鈺編著                        | 1  | 正中書局            | 1980 |
| 520.   | 中國現代史            | 許朗軒著                         | 1  | 正中書局            | 1974 |
| 521.   | 中國現代史叢刊<br>(1-4) | 吳相湘編                         | 4  | 正中書局            | 1975 |
| 522.   | 中國文化要義           | 梁漱溟編                         | 1  | 正中書局            | 1979 |
| 523.   | 中國文化史導論          | 錢穆著                          | 1  | 正中書局            | 1978 |
| 524.   | 中國文化創造史          | 吳敏之著                         | 1  | 正中書局            | 1972 |
| 525.   | 中國文化史<br>(上·中·下) | 柳詒徵編著                        | 3  | 正中書局            | 1979 |
| 526.   | 中國歷史人物論集         | 中央研究院中美<br>人文社會科學合<br>作委員會編譯 | 1  | 中山學術文化<br>基金董事會 | 1976 |
| 527.   | 中華民國建國史          | 蔣君編著                         | 1  | 正中書局            | 1978 |
| 528.   | 臺灣事史概說           | 郭廷以編著                        | 1  | 正中書局            | 1975 |
| 529.   | 臺旅吟草             | 楊一峯著                         | 1  | 正中書局            | 1978 |
| 530.   | 細說三國(上·下)        | 黎東方著                         | 2  | 傳記文學出版社         | 1977 |
| 531.   | 細說明朝             | 黎東方著                         | 1  | 傳記文學出版社         | 1977 |
| 532.   | 細說民國             | 黎東方著                         | 1  | 傳記文學出版社         | 1976 |
| 533.   | 細說元朝             | 黎東方著                         | 1  | 傳記文學出版社         | 1976 |
| 534.   | 宋哲元與七七抗戰         | 李雲漢著                         | 1  | 傳記文學出版社         | 1978 |

535.	中國的歷史與文化	梁寒操等著作	1	中央文物供應社	1979
536.	民生史觀研究	蔡憲昌編	1	中央文物供應社	1979
537.	中華文化說苑	蔣復璁等著	1	中央文物供應社	1978
538.	有竹齋藏古玉譜	那志良·王循詒 譯著	1	臺灣中華書局	1971
539.	中日歐美澳紐所見所 拓所摹金文彙編(1-10)	巴納·張光裕	10	藝文印書館	1978

### VII. 辭 典 類

書 名	著(編) 者	冊數	出 版 社	年 度
540. 辭源(上·下)		2	臺灣商務印書館	1979
541. 本辭海(上·中·下)	本局辭海編輯委	1	臺灣中華書局 員會	1980
542. 中正形音義綜合大字典	高樹藩編	1	正中書局	1979
543. 中國地名辭典全	陸景宇編著	1	維新書局	1977
544. 中國人名大辭典	戚 勳 蘇	1	臺灣商務印書局	1979
545. 中國古今地名大辭典		1	臺灣商務印書局	1979
546. 中華大字典	本局編輯部	2	臺灣中華書局	1977
547. 辭 通	朱起鳳撰	2	臺灣開明書店	1976
548. 中國醫學大辭典(1-4)	武進謝觀編纂	4	商務印書館	1980
549. 聯縣字典(上·中·下)	符定一編輯	3	臺灣中華書局	1979
550. 古錢大辭典(1-5)	吳開先	5	世界書局	1974
551. 康熙字典	楊家駱	1	世界書局	1962
552. 說文解字	楊家駱	1	世界書局	1979
553. 康熙字典(上·下)		2	藝文印書館	1973
554. 草書大字典(上·下)	藝文印書館	2	藝文印書館	1974
555. 佩文韻府(1-7)	王雲五編	7	臺灣商務印書館	1980

## Ⅷ. 其 他

書 名	著(編) 者	冊數	出 版 社	年 度
556. 中央月刊(第2-6卷)		60	中央文物供 應社	1970- 1974
1)第2卷：第1—12期 2)第3卷：第1—12期 3)第4卷：第1—12期 4)第5卷： 第1—12期 5)第6卷：第1—12期				

## 〈彙 報〉

1983. 10. 23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創立總會(於長春香) 創立總會 參  
席者(가나다順)  
康寔鎭, 高八美, 金雲龍, 金政六, 柳瑩杓, 柳應九, 安秉均  
王忠儀, 尹載秀, 李根孝, 李載勝, 李在夏, 鄭憲哲, 韓亨錫  
許捲洙  
創立總會에서 議決 및 討議된 主要內容
1.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會則案 逐條審議 및 通過 確定
  2. 會則에 依據 會長・運營委員・監事・幹事를 選出  
會 長; 李 根 孝(釜山産業大學校)  
運營委員; 康 寔 鎭(釜山大學校)  
柳 應 九(慶尙大學校)  
金 政 六(慶南大學校)  
金 龍 雲(東亞大學校)  
高 八 美(東義大學校)  
王 忠 儀(釜山外國語大學)  
金 蘭 娜(聖心外國語專門大學)  
監 事; 金 世 煥  
許 捲 洙  
總務幹事; 李 在 夏  
編輯幹事; 安 秉 均  
鄭 憲 哲
  3. 學會誌를 1984年 9 月中으로 發刊하기로 함.
  4. 共同教材 出版에 관한 協議
1983. 11. 13 本會後援 慶南大學校中語中文學科 主催「釜山・慶南地域中  
文科體育大會」(於慶南大學校)
1984. 3. 2 安秉均 會員 京畿大學으로 轉任
1984. 4. 12 제1회 任員會 開催에 관한 公文 發送
1984. 4. 21 제1회 任員會 開催
1. 學會誌 發刊에 따른 제반문제 討議

## 2. 新入會員 推薦 및 承認

1984. 4. 21 本會 顧問 推戴  
顧問; 曹性坡(通度寺 主持·海東中高等學校 財團理事長)  
曹性坡 顧問은 本會의 發展과 研究의 活性化를 위하여 1,200萬원을 喜捨하기로 함. 이 가운데에서 200萬원은 今年 가을에 發刊豫定인 學會誌 發刊 補助費條로 4月 21日 本會에서 受領하여 第一銀行에 예치하였으며, 나머지 1,000萬원은 今年內에 本會의 定立基金條로 喜捨할 것을 確約하였음.
1984. 4. 23 曹性坡 顧問의 「金泥寫經展」이 4月 30日까지 國際會館 9層 展示室에서 열림.
1984. 4. 25 제1회 任員會 結果報告 公文 發送
1984. 5. 26 本會後援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主催 「全國男女大學生中國語雄辯大會」(釜山産業大學校)
1984. 6. 29 제2회 任員會 開催. 學會誌 發刊에 관한 諸般問題 討議
1984. 6. 29 研文出版社와 學會誌 印刷 契約
1984. 7. 10 學會誌 發刊에 관한 公知事項 公文 發送
1984. 7. 11 姜信雄 會員 프랑스 제4대학에서 1年間 研究마치고 歸任
1984. 10. 1 鄭憲哲 會員 助教授로 昇進
1984. 11. 1 李在夏 會員 助教授로 昇進
1984. 11. 30 「中國語文論集」 創刊號 發刊紀念會 및 定期總會 豫定

#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 會 則

### 第一章 總 則

- 第1條 本會는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 第3條 本會는 所屬會員 相互間의 親善을 圖謀하고 中國語文學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研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 第二章 會 員

-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으로 한다.
-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 1) 正 會 員 ; 大學에서 中國語文學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 會 員 ; 大學院에서 中國語文學을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 2) 準會員과 名譽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 第三章 任 員

- 第8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會長 1명 · 運營委員 약간명 · 幹事 약간명 · 監事 2명
- 第9條 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한다. 단, 連任할 수 있다.
- 第10條 學長 · 運營委員 ·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며 幹事는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 第11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 第12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 第13條 幹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 第14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 第四章 會 議

- 第15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 臨時總會 · 任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된다.
- 第16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 每年 10월중
  - 2) 臨時總會 ;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및 會員 3분의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開催할 수 있다.
  - 3) 任 員 會 ;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나 任員 3분의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 · 運營委員 · 幹事に 限하며 監事는 除外된다.
- 第17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18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運營委員·監事の 選出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19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사항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幹事の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 第五章 財 政

第20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1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0월 1일부터 翌年 9월말일까지로 한다.

## 第六章 附 則

第22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3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4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5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貫例에 따른다.

第26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1984年 10월 23일

## 會 員 名 單

姓 名	職 場  및  住  所	電 話	備 考
曹 性 坡	通度寺 主持	0523-7181	顯 問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0523-7182~7	
李 根 孝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622-5331~8	會 長
	부산시 남구 당미동 795-13 (2동3반)	82-0623	
姜 命 相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2-8112~5	
康 寔 鎮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56-1030~9	運 營 委 員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주공APT 11동 303호	57-7679	
姜 信 雄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52-4331	
高 英 根	釜山外國語大學 中國語科 專講	643-5111	
	부산시 남구 광안 2동 149-13 (2동5반)	753-9714	
高 八 美	東義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88-3741	運 營 委 員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주공APT 11동 303호	57-7679	
金 蘭 娜	聖心外國語專門大學 中國語科 專講		運 營 委 員
金 明 濤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52-4331	
金 妙 瓊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科 博士班		
	서울시 용산구 청파1동 180-24	741-2012	
金 聖 敏	中國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博士班		

金世煥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56-0810~9	監事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주공APT 23동 406호	512-7232	
金龍雲	東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243-0011	運營委員
	부산시 남구 남천동 42-1 소라APT 1동 409호	624-7415	
金政六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2-8112~5	運營委員
	경남 마산시 자산동 301-27	2-2214	
金進暎	釜山外國語大學 中國語科 專講	643-5111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32-369	25-4141	
金泰寬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金海明	東義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88-3741	
		622-9416	
柳明熙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56-0180~9	
	부산시 동래구 장전3동 418-69	58-2652	
柳瑩杓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622-5331~8	
	부산시 남구 대연6동 1775-8 동일주택301호	642-3471	
柳應九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52-4331	運營委員
	경남 진주시 상평동 흑석APT 라동503호		
孟柱億	서울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朴萬圭	全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班		
朴在淵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科 博士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2동 325-34	965-3167	
徐鳳城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56-0180~9	

徐 貞 熙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56-0180~9	
	부산시 동래구 명륜 1동 671~9	53-2652	
安 奇 燮	全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班		
申 洪 哲	大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67-2081	
	대구시 서구 성당동 달서시영 APT 19동 502호	623-4973	
安 秉 均	京畿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編輯幹事
	인천시 북구 석남동 16-2 삼산연립 1204호	862-1538	
吳 慶 第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622-5331~8	
	부산시 남구 대연6동 태평양 APT 5동 204호	642-3471	
王 忠 儀	釜山外國語大學 中國語科 專講	643-5111	運營委員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주공 APT 10동 503호	73-2043	
尹 錫 禮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2-8112~5	
	경남 진주시 상명동 촉석 APT 다동 503호	53-1222	
尹 載 秀	東亞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科 助教授	242-0101	
		25-1177	
尹 泰 順	民族文化推進會 常任研究員		
李 相 圭	全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李 義 活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博士班		
李 載 勝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2-8112~5	
	경남 창원시 양곡동 상가 APT 다동 701호	82-1120	
李 在 夏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622-5331~8	總務幹事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시영 APT 46동 503호	73-7486	

李 準 根	全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		
李 浚 植	東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243-0011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01 신일APT 505호	202-4703	
李 哲 理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2-8112~5	
	경남 마산시 회원동 60-32	6-9753	
張 秀 烈	中國國立臺灣大學 中文研究所 博士班		
		828-5885	
鄭 憲 哲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52-4331	編輯幹事
	경남 진주시 상평동 촉석APT 다동503호	53-1222	
河 在 哲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卒業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 765	254-1587	
韓 亨 錫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622-5331~8	
	부산시 서구 부미동 3가 8번지	26-1458	
威 恩 仙	中語文化大學 中文研究所 博士班		
許 捲 洙	慶尙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52-4331	監 事
胡 春 惠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交換教授	56-0180~9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주공APT 23동 406호	512-7232	
黃 樹 男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56-0180~9	
姜 鯨 求	嶺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準會員 以下同
金 經 一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金慶秋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서울시 강동구 잠실1동 주공1단지 112동505호	422-8969	
金成文	慶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	2-8112~5	
金聖洙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金鍾吾	中國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金鍾賢	中國國立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金泰萬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	56-0180~9	
金鴻樹	中國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朴根子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563-193 (10통3반)	56-0215	
朴相領	中國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朴仁成	中國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賓美貞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科 碩士班		
石相游	啓明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753-4682	
徐鍾圭	中國國立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班		

沈 禹 英	中國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丙 根 洙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1동 643	610	
李 徹	中國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李 煥 俊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崔 庚 祐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崔 成 錫	中國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河 永 三	中國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韓 相 德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신기		
韓 相 雲	中國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黃 炫 國	中國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가나다順)

## 編輯後記

드디어 《中國語文論集》의 編輯을 마무리 짓고 後記를 쓰게 되었다. 創刊號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 感懷 또한 자못 깊다. 그러나 完結以後에 오는 뿌듯함이나 흥분함을 느끼기에 앞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가슴에 저려온다. 처음으로 만들어 본 책임에도 10餘篇의 論文을 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自慰하며, 體裁나 編輯의 未備點 또한 後日을 苦待하는 熱望의 씨앗으로 昇華시키고 싶을 따름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올해도 가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原稿收合에서 校正·編輯 및 우리 會員들은 물론 同學이나 後學들에게 꼭 필요한 附錄을 꾸미고 싶은 慾心은 생각보다 容易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附錄에서 中國語文學關係學位論文目錄과 釜山大學校所藏中國語文學關係目錄은 自邇及遠의 意圖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釜山·慶南地域 各大學所藏 中國語文學關係圖書目錄을 收錄할 예정이다.

奔忙中에서도 玉稿를 내주신 여러 會員님들께 感謝를 드리며, 또한 學會創立으로부터 숭한 産苦를 主導하신 會長님과, 學會誌 出刊의 莫大한 資金을 快擲하시고 題字까지 손수 써 주신 曹性披顧問의 後援이 없이는 이 作業은 不可能한 것이었다.

끝으로 附錄作成에 많은 勞苦를 아끼지 않으셨던 金世煥 教授님과 柳瑩杓 教授님의 協助를 想起하며, 아울러 古文僻字가 많은 글들을 새기고 다듬어 주신 研文出版社의 金根浩社長님을 비롯한 職員 여러분에게도 머라속여 감사를 드린다.

1984. 10.

—編輯室—



中國語文論集 <創刊號>

---

1984年 10月 1日 印刷

1984年 10月 10日 發行

編輯人 李 根 孝

印刷處 研 文 出 版 社

發行處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

連絡處：〒608 釜山市 南區 大淵洞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T. 622-5331~8・623-6240~6

